

# OCEAN Heritage

해양유산 2020.12  
Vol.02

해양유산 (Ocean Heritage)  
2020.12 Vol.02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김태만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편집위원 김문기 부경대학교 교수  
백승옥 국립해양박물관 해양교육문화센터장  
윤리나 국립해양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이은정 영남대학교 교수  
이진한 고려대학교 교수  
장경준 국립항공박물관 전시교육실장

편집간사 권유리 국립해양박물관 학술연구팀장

편집진행 전경호 국립해양박물관 학예연구사

교정 김나연 국립해양박물관 인턴

발행인 국립해양박물관장

발행처 국립해양박물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45  
www.knmm.or.kr

제작일 2020. 12. 11

발행일 2020. 12. 30

· 이 책에 수록된 글과 사진은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복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도서의 모든 내용에 대하여 국립해양박물관의 서면동의 없이는 어떠한 형태나 의미로든 재생산하거나 재발행할 수 없습니다.  
· 이 책에 수록된 내용은 국립해양박물관의 견해와 같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 CONTENTS

## 기획논문

김정란 불안과 불확실성의 시대: 19세기 콜레라 대유행과 21세기 코로나19 팬데믹 7

## 연구논문

김대욱 경산 임당 고총의 상어뼈 부장 양상과 그 의미 37

정의도 고려시대 해상활동 관련 유적과 유물의 검토 69

박영철 몽골제국과 제주도 -〈탐라열전〉의 역사적 의의- 99

신나경 가쓰시카 호쿠사이(葛飾北齋)의 우키요에에 묘사된 바다 표현 연구 121  
- 《후지산 36경(富嶽三十六景)》을 중심으로 -

## 서평

최낙민 양귀전의 『해양문명론과 해양중국(海洋文明論與海洋中國)』 151

박원용 알프레드 베게너의 『대륙과 해양의 기원』 159

## 리뷰

권유리 “해양 제주, 그 문명사적 성찰” 성과와 전망에 대하여 167

김형열 동아시아 해역세계를 둘러싼 교류와 갈등 175

김진태 2020 기관 협력 공동 기획전시 189  
김경민 〈해양 제주 OCEAN JEJU\_바다에서 바라 본 ‘제주바당’〉 전시를 되돌아보며

조민주 〈바다와 여성〉 전시 리뷰 199

# 불안과 불확실성의 시대: 19세기 콜레라 대유행과 21세기 코로나19 팬데믹<sup>1</sup>

김정란 옥스포드대학교 연구원

1. 들어가면서
2. 콜레라: 풍토병에서 세계적 대유행으로
3. 사회적 동요: 콜레라 폭동(Cholera Riots)
4. 반목에서 협력으로: 해항검역
5. 불확실성의 시대: 코로나 19 팬데믹
6. 맺음말

# OCEAN Heritage

## 1. 들어가면서

2019년 12월 31일, 중국 우한시의 보건당국(Wuhan Municipal Health Commission, China)은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생한 “원인불명의 폐렴집단”을 세계보건기구(WHO)에 보고했다. 이듬해 1월 7일, 원인불명의 폐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2 또는 SARS-CoV-2)에 의해 유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1월 중순 춘절을 거치면서 이 바이러스는 중국의 다른 지역으로 급속히 전파되었고, 여러 주변국에서도 감염사례가 보고되기 시작했다. 1월 30일을 기준으로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중국 외 18개 국가에서 감염사례가 보고되었고, 이후로 북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유럽 국가에서도 감염사례가 보고되기 시작하였다. 신종감염병(Emerging infectious disease)의 팬데믹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응을 했던 많은 유럽국가들 사이에서 3월부터 감염자 숫자가 급격히 늘어났다.<sup>2</sup> 세계보건기구(WHO)는 3월 11일이 되어서야 코로나19에 대해 세계적인 감염병 대유행인 팬데믹을 공식 선언을 하며 신종 바이러스의 놀라운 확산성과 심각성, 활동성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sup>3</sup> 인류에게 갑자기 등장한 코로나19는 해당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빠른 속도로 퍼지면서 2020년 11월 25일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총 확진자 60,265,178명과 사망자 1,418,219명을 기록하고 있다(회복: 41,694,402명).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발열과 오한, 두통, 설사, 가슴통증, 호흡곤란 등 가벼운 증상에서 중증질환까지 다양한 범위의 증상을 겪고, 회복 후에도 심각한 후유증을 앓는 경우가 많아서 일반 사람들은 물론 보건의료 종사자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크다. 또한 이 감염병이 언젠가 소멸할 것인지 아니면 토착화되어 계절성 독감처럼 유행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토착화된 이후의 변이 여부도 매우 염려되는 지점이다.<sup>4</sup> 신종감염병의 대유행에 직면하면서 국제사회는 패닉에 빠졌고, 심각한 글로벌 경기 침체도 찾아왔다. 각국 정부는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부터, 모임·집회 제한, 특별입국절차 도입, 봉쇄조치 등 다양한 형태의 방역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팬데믹의 시대를 이해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답을 구하는데 종종 역사에서 실마리를 찾으려 한다.

1. 팬데믹(Pandemic)이라는 용어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일명 러시아 독감(1889-1891년)과 곧이어 발생한 페스트 대유행(1894-1910 대), 그리고 스페인독감으로 불리는 인플루엔자의 대유행(1918-1919)을 거치면서 점차적으로 쓰이게 되었다. 특히 근대적 교통수단은 물론 19세기 말부터 발달한 전신의 영향으로, 상기의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황이 실시간에 가깝게 전세계로 전달되면서 감염병의 위험이 전지구적 현상이라는 인식을 대중들에게 심어주게 되었다. 그리고 팬데믹이라는 용어는 지난 20년 간 신종 감염병의 발생이 이어지면서 더욱 보편적으로 대중들 사이에서 쓰이게 되었다(Mark Harrison, 2016, "Pandemics", in M. Jackson (ed.) *The Routledge history of disease*, London: Routledge, pp.129-145). 본고에서는 팬데믹이라는 용어가 대중성을 띄기 시작하기 전에 발생한 19세기 콜레라 유행에 대해서는 팬데믹 대신 '대유행'으로 표현한다.

2. El País, 2020.05.19, 「How Europe underestimated the danger of the coronavirus pandemic」.

3. 한겨레, 2020.03.12, 「WHO, 코로나 19 '팬데믹' 공식 선언 "통제될 수 있다"」.

4. Asim Biswas, 2020, Uttaran Bhattacharjee, Alok Kumar Chakrabarti, Devendra Nath Tewari, Hasina Banu, and Shanta Dutta, Emergence of novel coronavirus and COVID-10: whether to stay or die out?, *Critical reviews in microbiology*, 1-12, doi: 10.1080/1040841X.2020.1739001.

5. Charles Rosenberg, 1989, What is an epidemic?: AIDS in historical perspective, *Daedalus*, 118-2, pp. 1-17.

6. Monika H. Green, 2020, Emerging diseases, re-emerging histories, *Centaurus*, 62, pp. 234-247.

찰스 로젠버그(Charles Rosenberg)는 감염병의 (대)유행은 단순히 생물학적 현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사회적·문화적인 요소들과 맞물려 일어나는 복합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했다.<sup>5</sup> 그리고 한 시대에 등장하는 감염병은 역사의 축적된 결과이면서, 그것이 대유행으로 발전하는 과정과 이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당대성을 반영하기도 한다.<sup>6</sup> 하지만 감염병이 대유행을 할 때마다 시대를 관통하며 나타나는 유사한 양상들이 존재하고, 현재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역사적 교훈을 발신하는 사례들도 발견된다. 19세기의 콜레라 대유행과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에서도 그러한 점을 엿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첫 번째 글로벌화의 봄<sup>7</sup>이 일어난 19세기에 발생한 콜레라 대유행의 양상을 살피고 이를 통해 코로나 19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경계하거나 지향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 2. 콜레라: 풍토병에서 세계적 대유행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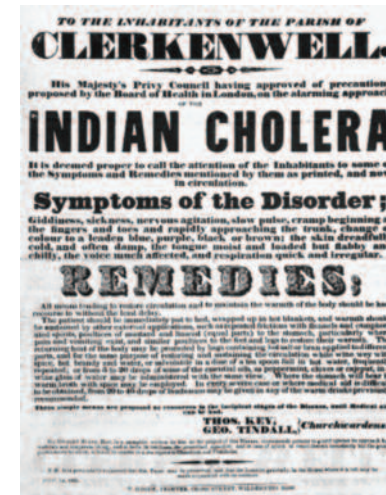
15-16세기의 대항해시대를 거치면서 대륙간에 인간과 물자, 동식물은 물론 질병의 “교환”이 일어났다. 알프레드 크로스비(Alfred Crosby)는 “콜롬부스의 교환(Columbian Exchange)”이라는 용어를 통해 이 시기 대륙 사이에서 일어난 동식물과 병원체의 이동이 토착 아메리카 문명의 붕괴를 가져왔으며, 결과적으로 이베리아 국가들이 중남미를 식민지로 삼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지적한다.<sup>8</sup> 질병의 이동을 살펴보면, 오랜 기간 유라시아나 아프리카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해 왔지만 아메리카 토착인들에게는 생소했던 홍역이나 천연두, 말진티푸스 등이 유럽인들에 의해 전파되면서 수 많은 목숨을 앗아갔다. 매독의 경우 15세기 말 아메리카에서 유럽으로 전파되었고, 열대열 말라리아(*Falciparum malaria*)와 황열병(*Yellow fever*)은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갔다.<sup>9</sup>

본격적으로 인간에게 유행하는 감염병은 물론 동식물들 사이의 여러 질병이 국경과 대륙을 건너 대유행하게 된 것은 19세기에 들어서라 할 수 있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서구열강의 식민지 쟁탈경쟁이 본격화되고, 세계시장을 겨냥한 노동집약적 산업의 발달과 노예제 폐지가 맞물려 중국인과 인도인을 중심으로 한 저임금 노동자의 대규모 이민이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열강 간의 또는 식민지 침략 전쟁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감염병이 전파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었다. 더욱이 증기선이나 기차와 같은 근대적 교통수단의 발달은 지역 간의 이동시간을

크게 단축시켰고 전례 없는 규모의 인적/물적 이동이 가능해 지면서 감염병의 대유행도 촉진되었다.<sup>10</sup> 콜레라는 이러한 19세기의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하게 되었다.

콜레라는 콜레라균(*Vibrio cholerae*)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장관 질환으로 콜레라균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의 섭취 등으로 감염되는 수인성 감염병이다. 콜레라는 1700년대 후반까지 서양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인도 벵골지역의 풍토병이었는데, 1781년 오리사의 간잠(Ganjam) 해안 지구에서 돌아온 군대에 의해 콜카타로 유입되면서 열흘 만에 천 명의 사망자를 냈다. 이 감염병은 인도 동부 연안 지역에 큰 피해를 끼쳤는데, 에어 쿠테 경(Sir Eyre Coote)이 이끄는 벵골군의 전진 루트를 따라 유행하게 되었다고 여겨진다. 이후 콜레라는 벵골지역과 동인도의 항구도시에서 종종 발생하였는데, 1817년 갠지스강 축제에 모인 순례자들을 통해서 인도의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기 시작했다. 콜레라는 점차 육로와 해로를 따라 주변의 아시아 국가로 퍼져 나갔고, 1821년과 1822년에는 조선과 일본에도 전파되었다. 이어 러시아를 비롯한 유럽과 아프리카, 미국에까지 전파되면서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콜레라가 여러

도1. “인도콜레라”의 증상에 대한 지면 경고 및 권장 치료법 (1832)



출처: Thos, Key and Geo, 1831, Broadsheet warning about Indian cholera symptoms and recommending remedies, issued in Clerkenwell, London, Tindall: Church wardens, The Wellcome Collection, Attribution 4.0 International (CC BY 4.0).

대륙을 건너 대유행을 하게 된 것은 영국의 식민지 정책에 따른 육해군의 이동과 국제무역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sup>11</sup>

콜레라에 감염된 환자는 구토와 발열, 복통을 앓고 극심한 설사로 탈수현상을 겪으며 푸른 빛으로 얼굴색이 변하는 등 기존의 질병에서 볼 수 없던 매우 끔찍한 증상을 보였다. 게다가 갑작스러운 발병과 50퍼센트에 육박하는 치사율도 이 외래 감염병에 대한 공포를 증폭시켰다. 처음 콜레라가 전파되었을 때 조선에서는 이를 “괴질(怪疾)”이라고 부르며 끔찍하고 이질적인 감염병에 대한 공포를 드러냈다.<sup>12</sup> 당시 서구에서는 콜레라를 “아시아 콜레라(Asiatic cholera)”나 “인도 콜레라(Indian cholera)”라고도 부르기도 했는데, 이는 아시아에서 전파된 치명적인 감염병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담긴 표현이었다(도 1). 이와 대비해서 부르는 “잉글리쉬 콜레라(English cholera)”는

7. 국경을 넘어선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나 세계 경제형태의 변동등을 고려했을 때, 19세기 초부터 제 1차 세계대전 발발 전 까지를 첫 번째 글로벌화의 봄이 일어난 시기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Kevin H. O'Rourke and Jeffrey G. Williamson, 1999, *Globalization and history: The evolution of a nineteenth-century Atlantic economy*, Cambridge, Mass: MIT Press).

8. 크로스비의 이 연구는 세계사를 이해하고 기술하는데 새로운 방향을 제공하였지만, 후세의 역사가들에게 사회적 정치적 결정요인을 간과한 지나친 “생물학적 결정주의(biological determinism)”이라는 비판도 듣게 된다(Mark Harrison, 2015, *A Global perspective: Reframing the history of health, medicine, and disease*, *Bulletin of the history of medicine*, 89-4, pp. 639-689).

9. Alfred W. Crosby, 1972, *The Columbian exchange: biological and cultural consequences of 1492*, Westport, Conn: Worcester.

10. Richard J. Evans, 1988, *Epidemics and revolutions: Cholera in nineteenth-century Europe, Past & present*, 120, pp. 123-146; Mark Harrison, 2018, “The great shift: Cholera theory and sanitary policy in British India, 1867-1879”, in Biswamoy Pati and Mark Harrison (eds) *Society, medicine and politics in colonial India* (Oxon and New York: Routledge, pp. 37-60).

11. William H. McNeill, 1979, *Plagues and peoples*, Harmondsworth: Penguin Books; Mark Harrison, 2020, *A Dreadful scourge: Cholera in early nineteenth-century India*, *Modern Asian studies*, 54-2, pp. 502-553.

12. 신동원, 2004, 『호열자 조선을 습격하다: 몸과 의학의 한국사』, 서울: 역사비평사, 21-22쪽.

구토와 설사를 동반한 위장질환을 가리키는 것이었다.<sup>13</sup>

비록 콜레라가 인도에서 시작되었지만, 이 병원체가 다른 대륙으로 퍼져 나가게 된 것은 영국의 제국주의 정책에 의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 감염병이 유럽에서 빠르게 전파될 수 있었던 것 역시 당시의 도시 환경이 콜레라가 유행하기에 최적의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영국의 경우 빠른 인구 성장과 함께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계획되지 않은 도시화가 진행되었고,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이민자들이 모여들면서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도시 빈민의 수가 급증하게 되었다. 유럽의 다른 도시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특히 불량한 상수도의 공급과 하수시설의 부재는 유럽 대도시의 일반적인 특징이었다.<sup>14</sup> 콜레라의 발생 원인과 전파 경로가 병리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던 시절, 콜레라는 불결한 곳에서 발생하는 악취나 나쁜 공기에 의해 퍼진다는 것이 유력한 가설 중 하나였다.<sup>15</sup> 당시 깨끗한 물을 구하기 힘들고 오물처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도시의 빈민일수록 콜레라균에 노출되기 쉬웠다. 뿐만 아니라, 오물처리나 물과 음식 등 콜레라균에 오염되기 쉬운 것들을 취급하는 직업군 일수록 감염의 위험이 높아졌다. 따라서 콜레라는 ‘가난한 자들의 질병’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었다.<sup>16</sup> 대다수의 중산층 이상의 계급은 빈곤층 사이에서 콜레라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을 두고 그들의 미개한 생활습관이나 부주의함이 만들어 낸 비극이라 치부했다. 뿐만 아니라 빈민들 사이에서 콜레라가 대량 발생하면서 부자들의 건강이 위협받게 되었다는 비난도 가하기도 했다.<sup>17</sup> 일반적으로 감염병이 유행할 때에 빈곤층 사이에서 종종 높은 감염률과 치사율이 나타나는데, 이로 인해 빈곤층은 공중보건의 위협으로 간주되며 비난을 받기도 한다. 이때 그들의 인종적 또는 종교적 배경이 강조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장기간에 걸쳐 치료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제적 조건은 간과되는 경우가 많다.<sup>18</sup> 한편, 19세기 중반부터 영국에서는 빈민가를 콜레라의 온상이자 부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곳으로 보는 부정적인 시각이, 정부가 행정적 조치를 통해 그 지역의 위생환경을 개선하도록 의견을 모으는 기폭제가 되었다. 즉, 감염병에 취약한 계층의 건강문제가 공공의 영역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다른 유럽지역에서도 국가정책으로 도시위생정비가 진행되었는데, 베를린에서는 1866년에 도랑과 정화조, 공동화장실의 청결에 관한 조항이 마련되었고, 나폴리에서도 콜레라 예방을 목적으로 한 대대적인 도시위생정비가 1885년부터 착수되었다. 유럽의 주요 도시에서 상하수도의 정비도 점차 보편화되면서

안전한 식수의 공급이 가능해졌다. 그 결과 19세기 말부터 많은 유럽국가들은 콜레라 대유행의 참화를 피할 수 있게 되었다.<sup>19</sup>

### 3. 사회적 동요: 콜레라 폭동(Cholera Riots)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1830년대 콜레라가 처음으로 콜레라가 유럽에 전파되었을 때, 그 증세가 매우 끔찍하고 치사율이 높아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였다. 유럽의 국가들은 처음 직면하는 이 감염병을 통제하기 위해 가혹한 방역 정책을 펼치기도 했는데, 높은 감염률과 치사율을 보이는 하층계급들이 그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1836년 나폴리에서는 보건관리들이 매춘부들이나 걸인들을 콜레라의 전파 매개체로 보고 이들의 이동을 제한하기도 했다.<sup>20</sup> 사무엘 콘(Samuel K. Cohn)의 지적처럼, 하층민이나 사회적 약자들은 감염병 유행의 원인으로 비난을 받거나 정부의 방역조치에 가장 큰 타격을 받기도 했지만, 반대로 공권력이나 엘리트계층에 대한 반발이 커지면서 폭동을 일으키는 주체가 되기도 했다.<sup>21</sup> 러시아의 경우, 1830년에 콜레라가 재유행 하면서 불량한 생활환경에 처한 하층민들 사이에서 다수의 환자가 발생했고 사망자도 10만 명이 이르렀다. 당시 러시아 정부는 사람들 간이나 오염된 물건의 접촉을 통해 콜레라가 전파된다고 믿었다.<sup>22</sup> 따라서 정부는 군사를 동원해 하층민들의 이동을 금지하고, 검문소를 설치해 상인들의 수레를 검역하면서 물자의 흐름을 차단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역은 오히려 사람들을 유행지에 가두는 결과를 낳았고, 경제 활동과 물자수급에도 큰 장애를 초래했다. 그 결과, 하층민들은 관료와 귀족들이 국고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자신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오해를 하게 되었다. 게다가 의사들이 우물에 콜레라 독을 살포했다는 소문까지 퍼지면서 러시아 전역에서 하층계급이 중심이 된 유행 폭동이 일어났다. 화가 난 군중은 부유한 집을 약탈하고 의료진을 살해하면서 억눌렸던 분노를 표출했다.<sup>23</sup>

콜레라 유행을 계기로 사회에 내재되어 있던 불안과 갈등이 수면위로 드러나기도 했다. 영국의 경우, 1831년 10월 선덜랜드 항으로 콜레라가 유입되면서 다음해 영국 전역에서 크게 유행하게 된다. 1832년 콜레라가 영국을 휩쓸 동안 곳곳에서 “콜레라 폭동”도 발생했는데,

13. Mark Harrison, 2020, *Ibid.*; Christopher Hamlin, 2009, *Cholera: The Biograph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19, 39, 45-46.

14. Frank M. Snowden, 2019, *Epidemics and society: From the Black Death to the present*,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pp. 234-235; David M. Morens and Anthony S. Fauci, 2020, Emerging pandemic disease: How we got to COVID-19, *Cell*, 182, pp. 1077-1090.

15. Scott Alison, 1839, An inquiry into the propagation of contagious poisons by the atmosphere, &c, *The Athenaeum*, 625, pp. 790-791.

16. Richard Evans, 1988, Epidemics and revolutions: Cholera in nineteenth-century Europe.

17. Richard J. Evans, 1988, Epidemics and Revolutions; George D. Smith, 2002, Commentary: Behind the Broad Street pump: Aetiology, epidemiology and prevention of cholera in mid-19th century Britain,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 31, pp. 920-932.

18. Veena Das, 2006, Review Essay: Poverty, marginality, and illness, reviewed work(s): Stories in the time of cholera: Racial profiling during a medical nightmare by Charles L. Briggs and Clara Mantini-Briggs: Pathologies of power: Health, human rights, and the new war on the poor by Paul Farmer, *American anthropologist*, 33-1, pp. 27-32.

19. Richard Evans, 1990, Review Article: Blue Funk and Yellow Peril: Cholera and Society in Nineteenth-Century France, *European History Quarterly*, 20-1, pp. 111-126; Geoffrey Gill, Sean Burrell, and Jody Brown, 2001, Fear and frustration - the Liverpool cholera riots of 1832, *The Lancet*, 358, pp. 233-237; George D. Smith, 2002, Commentary: Behind the Broad Street pump; Frank M. Snowden, 2019, *Epidemics and society*, pp. 255-259.

20. Eugenia Tognotti, 2013, Lessons from the history of quarantine, from plague to influenza A,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19-2, pp. 254-259.

21. John Henderson, Samuel Cohn, Patricia Fara, and Sandra Hempel, 2020, "What can history tell us about epidemics?: Can we learn from history about how diseases spread, and how we respond to them?", *History Today*, 70-4, <https://www.historytoday.com>.

22. D.J.R. Lichtenstadt, 1831, On the Asiatic cholera it appeared in Russia in the years 1829 and 1839, *Edinburgh medical and surgical journal*, 36-108, pp.118-145.

23. Yury V. Bosin, 2009, "Russia, cholera riots of 1830-1831", *International encyclopaedia of revolution and protest*, Hoboken: Wiley-Blackwell, pp. 2877-2878.

특히 리버풀에서 가장 많은 수의 폭동이 일어났다. 여성, 어린이들 그리고 아일랜드 이민자들이 중심이 된 시위대는 콜레라 격리병원 주변으로 몰려가 돌과 벽돌조각을 던지며 분노를 표출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영국에서도 빈곤층 사이에서 콜레라 감염자와 사망자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특히상하수도 시설이 없는 지하층 거주자들과 아일랜드 이민자들 사이에서 피해가 컸다. 도시 인구 중에서 아일랜드 이민자 비율이 높았던 리버풀은 런던 외곽에서 콜레라 발생 수가 가장 높았던 곳이었다.<sup>24</sup> 당시 콜레라는 매우 생소한 감염병으로 제대로 된 치료 방법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격리병원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따라서 환자들이 격리 병원으로 옮겨지는 것을 매우 꺼렸는데, 문제는 콜레라가 처음으로 유입되기 몇 해 전 일어난 연쇄살인과 시체 탈취사건이 격리병원에 대한 거부감을 증폭시켰던 것이다. 1826년 리버풀 부두에서 서른 세 구의 시체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스코틀랜드에 해부용으로 보내기 직전에 발견된 것이었다. 2년 후 더욱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에든버러에서 두 명의 사내가 해부학 교실에 시체를 팔기 위해 연쇄살인을 저지른 것이 발각되었다. 뿐만 아니라 무덤에서 시체를 탈취해 해부학 교실에 공급한 외과의사의 범죄도 밝혀졌다. 의과대학이 어떤 경로로 시체가 확보되었는지 상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부용 시체를 요구한 것도 이런 불법행위들이 일어나는데 일조를 했다. 1830년대 영국은 빈곤이 만연했고 빠른 도시화·공업화로 인해 도시 빈민들이 과밀하고 비위생적인 생활 환경에 처해 있었지만 정부는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무관심했다. 이처럼 사회에 긴장과 불안 요소가 내포한 상황에서 콜레라가 만연하게 되었고, 하층민들 사이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다. 본래 의료진에 불신이 깊었던 리버풀 사람들은 격리 병원으로 옮겨진 콜레라 환자들이 해부학 교실로 팔려 간다고 오해를 하며 시위를 벌인 것이다.<sup>25</sup>

콜레라의 대 유행을 겪으면서 의료진들에 대한 불신은 물론 정치적 격변기 하에서 느끼는 혼란과 경제적 제재에 대한 불만들이 결합되어 폭력시위로 표출된 사례는 일본에서도 발견된다. 1822년 콜레라가 일본에 처음으로 전파되고 36년이 지난 1858년 7월 초, 중국을 출발해 나가사키로 들어온 미해군선 미시시피호(Mississippi)로 인해 콜레라가 일본 전역에 다시 유행하게 되었다.<sup>26</sup> 1858년은 일본이 서구열강 5개국과 불평등조약을 체결하며 쇄국정책의 막을 내린 해이기도 하다. 5년 전 이른바 흑선(黒船)으로 불리우는 함대를 이끌고 일본 우라가(浦賀)에 내항한 미국의 페리제독(Commodore Matthew Calbraith Perry)은 막부에 개항을 요구했다. 당시 페리제독은 미 해군의 우수성과 미국의 선진기술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일본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할 것이라 판단하고, 그 목적에 맞게 선물을 준비했다. 페리의 의도가 통한 듯,

일본은 미국의 군사력과 기술에 압도되었다.<sup>27</sup> 12세기부터 시작된 막부통치는 페리의 내항을 전후해서 대내외적인 혼란을 겪으며 점차 쇠락해 갔고, 1868년 개혁파에 의해 천황의 친정 체제가 수립되면서 막을 내린다.

메이지 유신 단행으로 위로부터의 급진적인 근대화가 실시되던 1877년 여름, 또다시 콜레라가 영국 해군선을 통해 나가사키로 유입되고 곧이어 일본 전역으로 퍼지게 되었다. 이 콜레라 유행은 내무성 위생국이 신설된 이후 처음으로 직면하는 공중보건 상의 큰 위기였다. 현재의 의미로 쓰이는 위생(hygiene)은 대체로 청결을 뜻하지만, 근대의 위생은 국민의 체력을 기르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전념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국가가 지향하는 공중위생의 목표를 위해서 개인이나 공공의 영역에 제제와 규율이 가해졌다. 근대화 작업에 착수한 메이지 정부 역시 위생이 근대화를 완성하고 부국강병을 이룩하는데 필수 조건이라고 보고 위생국을 통해 이를 실현하고자 했다. 이때 국민은 국가의 목표를 완성하는 필요한 자원이었으므로 그 출산과 건강관리는 위생국의 중요한 임무가 되었다.<sup>28</sup> 질병의 관리 역시 주요 업무였는데, 1877년의 콜레라 유행은 위생국은 물론 메이지 정부가 공중위생 문제에 얼마나 대처를 잘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되었다.

1883년 8월, 독일인 의사이자 미생물학자인 로베르트 코흐(Robert Koch)가 이집트에서 최초로 콜레라 균을 발견하고 이어 방문한 인도에서 콜레라균이 콜레라의 구체적인 원인물질임을 밝혀 내기 전까지 그 발병원인과 전파 경로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sup>29</sup> 코흐의 대발견이 있기 6년 전인 1877년 당시 일본에서 지지를 받고 있던 가설 중 하나가 독일의 막스 폰 페텐코퍼(Max von Pettenkofer)의 이론을 차용한 육군 군의 이시구로 타다노리(石黒忠憲)의 가설이었다. 미아즈마 이론(Miasma theory)<sup>30</sup>에 바탕을 둔 그의 가설은 1871년에 집필한 “콜레라론(虎列刺論)”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책에서 이시구로는, “콜레라 독(毒)은 매우 작은 유기체이고 환자의 토사물에서 발견된다. 만약 환자의 토사물이 물이나 흙에 스며들면, 독이 스스로 증식하게 되고 독성이 강해져서 결국 그 독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퍼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콜레라 독이 섞인 토사물과 부패중인 동물질이 섞이면 독성이 매우 강해지고 전염력 또한 커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불결하고 인구가 과밀한 지역은 부패물질이 많기 때문에 독성이 맹렬히

24. Geoffrey Gill, Sean Burrell, 2001, Jody Brown, Fear and frustration,

25. Seal Burrell and Geoffrey Gill, 2005, The Liverpool cholera epidemic of 1832 and anatomical dissection - Medical mistrust and civil unrest, *Journal of the history of medicine and allied sciences*, 60-4, pp. 478-498.

26. Rokuro Takano, 1926, Itsuya Ohtsubo, Zenjuro Inouye, *Studies of cholera in Japan*, Geneva: The League of Nations, Health Organisation, Ref: 31902580, Shelfmark: XWC, The Wellcome Library.

27. Michael Adas, 2006, *Dominance by design: Technological imperatives and America's civilizing mission*, Cambridge and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Introduction.

28. Brigitte Steger, 1994, From impurity to hygiene: The role of midwives in the modernisation of Japan, *Japan forum* 6-2, pp. 175-187; 中馬充子, 2011, 近代日本における警察の衛生行政と社会的排除に関する研究—違警罪即決と衛生取締事項を中心に—, *西南学院大学人間科学論集*, 6-2, pp. 145-178.

29. Michael Worboys, 2000, *Spreading germs: Disease theories and medical practice in Britain, 1865 - 190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249.

30. 미아즈마 이론(miasma theory)은 콜레라나 페스트, 말라리아 등 급성 감염병의 원인이 나쁜 공기나 악취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감염병의 발생을 지역의 환경조건과 연결 지어 설명한 것이다. 비록 1850년 대부터 콜레라가 물과 관련이 있다는 가설에 힘이 실리긴 했지만 콜레라 균이 발견되기 전까지 가장 지지를 받는 가설이었다(Mark Harrison, 1994, *Public health in British India: Anglo-Indian preventive medicine 1859-1914*,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99-100).

발생한다”고 지적했다.<sup>31</sup> 1880년 내무성 위생국에서 발행한 “콜레라예방유해(Korera Yob no Satoshi, 虎列刺豫防論解)”도 이와 유사한 가설에 기반하고 있는데, 콜레라의 발생을 부패한 것에서 발생하는 나쁜 공기와 악취에 의한 것으로 보고 집과 화장실을 청결히 유지하고 오수에 근접하지 않도록 주의했다.<sup>32</sup>

도2. 19세기 후반 일본에서 콜레라 유행 시 경찰의 감독 하에 콜레라 사망자 시신 처리



출처: Reproduction of drawing by Meisenbach after Charles E. Fripp (1854-1906), The Wellcome Collection, Attribution 4.0 International (CC BY 4.0).

이처럼 일본에서도 콜레라는 불결하고 과밀한 주거환경에서 더욱 만연하게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내무성은 콜레라의 방역을 위해 콜레라 환자의 오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며 집과 화장실 소독은 물론 도랑과 거리의 청결 유지를 강조했다. 콜레라로 사망한 자의 시체는 검역관이나 경찰의 감독 하에서 소독을 하고 신속히 화장을 하도록 요구되었는데, 부득이하게 매장을 할 경우에는 땅 속 깊이 묻어야 했다(도2). 뿐만 아니라 콜레라 환자를 격리병원으로 보내어 감염원을 차단하려고 했다.<sup>33</sup> 콜레라가 유행할 당시, 사람들은 걸리면 “3일안에 죽는 병(Milkka Korori, 三日ころり)”이라고

부르며 두려움에 떨었다. 그런데 정부에서 실시하는 방역 역시 콜레라만큼 매우 낮은 것이어서 제대로 따르지 않거나 저항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났다. 예를 들어, 화장실 소독을 위해 석탄산을 뿌리는 경찰을 향해 “콜레라 냄새가 난다. 경찰이 또 독을 살포한다”고 소리치는 사람들도 있었다.<sup>34</sup> 방역조치로 일상생활에 가해지는 제재에 불만을 품는 경우도 많았다. 분노에 소독약이 살포되어 비료로 팔지 못하게 되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연극 공연 등이 금지되었으며, 송이버섯과 생선 등 사람들이 즐겨먹던 식재료의 섭취가 일시적으로 금지되었다.<sup>35</sup> 생선과 털 익은 과일의 판매도 일시 금지되면서 경제활동에 타격을 입는 이들도 발생했다.<sup>36</sup> 이처럼 생활에 직접적으로 제한이 가해지면서 병에 대한 공포와 함께 사람들의

분노도 치솟게 된 것이다.

격리병원에 대한 반감도 깊었는데, 오카야마현의 작은 어촌에서 주민 500여 명이 마을에 격리병원이 생기는 것에 항의하며 경찰서를 공격하는 일도 벌어졌다.<sup>37</sup> 무엇보다도 환자를 격리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는 것에 대한 공포가 사람들 사이에서 매우 컸다. 당시 콜레라 환자를 격리병원에 보내는 것은 치료의 목적 보다는 건강한 사람들로부터 감염원을 분리하겠다는 이유가 앞서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의료시설이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고 치료법도 없는 상태로 격리병원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빈번했다.<sup>38</sup> 따라서 격리병원으로 보내지는 것을 사망선고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이에 환자를 숨기기도 하고, 환자를 격리병원에 보내려는 경찰과 의사, 관리들과 환자의 가족·이웃이 마찰을 빚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했다.<sup>39</sup> 치바(千葉)에서는 콜레라 진단을 내리고 환자를 격리병원으로 보내려는 의사를 마을 주민들이 죽창으로 찔러 죽여 그 시체를 강에다 던지는 사건도 일어났다.<sup>40</sup>

이러한 폭력적인 반응은 민중들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생략된 채 위로부터의 급진적인 근대화 정책이 실시되었던 당시의 상황과 연관이 깊다. 예를 들어, 1873년 근대적인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 만 20세 남성을 대상으로 한 의무병역제도인 징병제가 실시되었는데, 이는 특권층인 무사계급의 해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민중에게는 병역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었다. 이에 징병제에 반대하는 소요가 여러 지역에서 일어났는데, 징병제 실시에 앞서 1872년에 발표된 징병고유문(徵兵告諭文) 중에 사용된 “혈세(血稅)”라는 단어를 두고 사람의 생혈을 뽑아간다고 오해를 한 것도 소요가 일어난 이유 중 하나였다.<sup>41</sup> 4년 뒤 콜레라가 유행을 하면서 또 한 번 사람들은 격리병원에 대해 오해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격리병원에서 콜레라 환자들의 생간을 빼 간다는 소문이 퍼진 것이다.<sup>42</sup> 천황의 정부가 외국에 큰 빚을 저서 일부러 콜레라를 퍼뜨려 환자들을 격리병원으로 몰아넣은 후 간을 척출해 빚을 갚는데 쓴다는 내용의 투서가 도쿄의 한 파출소 게시판에서 발견되기도 하였다.<sup>43</sup>

메이지정부는 정부수립 초기부터 천황의 이미지를 국가 권력의 정점에서 근대화를 선도하는 자책로운 지도자이자 신성한 국민들의 아버지 모습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그 과정에서 천황의 존재를 일반 민중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초상화와 사진이 제작·보급되었다. 이러한 작업은 메이지 유신을 단행한 과두 정치인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 막부정권을 무너뜨리고 천황 친정의 새 정부를 세우는 과정에서 정당성과 충분한 지지를 확보

31. 石黒忠恵, 笠原親寧増補, 1879, 増訂虎列刺論, 東京: 英蘭堂, pp. 5-6, 10-11.  
 32. 内務省衛生局, 1880, 虎列刺予防論解, 東京: 内務省社寺局.  
 33. 郵便報知新, 1877.09.3-6, 「内務省乙第七十九号 虎列刺病予防法心得」; 山本俊一, 1982, 日本コレラ史, 東京: 東京大学出版社, pp. 470-471.  
 34. 読売新聞, 1877.10.30, 「コレラ禍 東京では前島密・内務少輔らが下町脱出 京都の東寺は難病よけの加持」.  
 35. 読売新聞, 1877.10.18, 「松茸食用禁止の京都で、今が盗みとときとコン泥が横行」; 立川昭二, 2007, 病気の社会史 一文明に探る病因, 東京: 岩波書店, pp. 214-215.  
 36. 読売新聞, 1877.09.27, 「伝染病流行中につき未熟の果物の販売を厳禁」.

37. 読売新聞, 1877.10.24, 「避病院建設に反対の農民が大挙して警察を襲撃、巡査が負傷」.  
 38. 立川昭二, 2007, 病気の社会史, p. 208.  
 39. 読売新聞, 1877.11.01, 「十七歳の少女をコレラ病院に入れるとは残酷 町内の老人が警察へ抗議」.  
 40. 大阪日報, 1877.12.23, 「コレラ病治療の医者を竹槍一搦が叩き殺す」.  
 41. 佐々木栄三郎, 1980, 讃州竹槍騒動: 明治六年血稅一搦, 東京: 海流社.  
 42. 読売新聞, 1877.10.23, 「深川の避病院で流言」; 読売新聞, 1877.10.24, 「(投書)コレラ患者の隔離を「生き肝を抜くため」と誤解する愚かな者に腹が立つ」.  
 43. 読売新聞, 1877.10.28, 「浅草など東京各地でコレラが多発 府は衛生担当者を増員」.



하지 못한 그들은, 천황의 권위를 내세워 새 정부를 인정하도록 만드는 수사적(修辭的)인 장치를 개발한 것이다.<sup>44</sup> 그러나 1868년 이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존재도 모르고 지냈던 천황이었기에, 개혁세력에 의해 새로운 통치권자로 옹립되었다고 해도 민중에게는 여전히 생소한 존재였다. 게다가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전통적인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일상에 크고 작은 변화가 강요되면서, 불신의 끝이 근대화의 선도자로 표상되는 천황과 그의 정부에게 향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4. 반목에서 협력으로: 해항검역

서구와 일본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콜레라의 대유행을 겪으면서 병의 생물학적 위험이 주는 공포는 물론 생활 통제에 대한 불만과 엘리트·지배층에 대한 불신이 더해져 민중들 사이에서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특히 콜레라가 해외로부터 전파된 낯선 위협이라는 점에서 이 질병에 대한 두려움은 더욱 커졌다.

항공편 이용이 보편화되기 전에는 선박을 통한 인적·물적 수송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에, 1968년 대유행한 인플루엔자가 항공편을 통한 첫 팬데믹이 되기 전까지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감염병은 대부분 해로를 통해 전파되었다.<sup>45</sup> 19세기 콜레라 역시 군함이나 무역선을 통해 해항도시로 전파되며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발전했는데, 이러한 유행의 경향은 1877년 아모이(廈門) 소재 중국해관에서 의관(醫官)으로 일하던 패트릭 맨슨(Patrick Manson)<sup>46</sup>의 기록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sup>47</sup>

비교적 작은 마을인 아모이의 한 모퉁이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콜레라는, 왜 마을 전체로 퍼지고 곧이어 인근의 대도시로 전파되었으며, 이후 해안의 여러 항구들은 물론 현재 일본에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대답은 간단하다. 아모이는 작은 마을이지만 인근에 위치한 대도시와 연결된 항구이자 중국 승객들을 실어 나르는 교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이다.

서구열강은 콜레라의 대 유행을 겪으면서 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콜레라 유행지에서 들어오는 선박과 승객을 대상으로 해항검역을 실시하게 된다. 검역(quarantine)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위험으로부터 영역 내의 질서와 구성원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원리에 기반한 것으로, 병원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나 동물, 물품의 상륙을 차단하는 조치이다. 그 어원은 이탈리아어로 40일(quaranta giorni)을 뜻하는데, 14세기부터 페스트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베니스로 들어오는 선박들을 대상으로 검역이 실시되기 시작했다. 검역조치는 격리, 방역선 설정, 선박에 대한 건강진단서 발급, 훈증, 소독 그리고 감염병 확산의 위험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 대한 규제를 포함했는데, 이후 감염병 통제전략의 초석이 되었다. 19세기 초 유럽에서는 콜레라를 막기 위해 채택한 검역 절차도 기존에 페스트를 막기 위해 실시하던 것을 답습한 것이었다.<sup>48</sup>

콜레라가 콜레라균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 등에 의해 전파되는 수인성 감염병이라는 병리학적 사실이 자리잡기 전까지, 콜레라가 어떻게 발생하고 전파되는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했다. 영국의 경우 크림전쟁(1853.10.5-1856.3.30)이 끝나갈 무렵 콜레라가 물로 전파가 된다는 가설이 점차 설득력을 얻게 되었는데, 이는 의사 존 스노우(John Snow)<sup>49</sup>가 1854년에 거둔 업적과 더불어 해군의들이 흑해를 오가면서 얻은 경험적 지식에 의한 것이다.<sup>50</sup> 그러나 서구에서는 대체로 1880년대까지 콜레라의 원인과 전염경로에 대한 의견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어 논쟁을 이어갔는데, 각각의 가설은 해항검역의 필요 유무로 이어진다. 한편에서는 콜레라는 사람간의 접촉이나 물건을 통해 전파된다고 믿으며 검역을 통해 감염원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환경적 요인이나 기후의 영향으로 콜레라가 퍼진다고 믿으면서 검역보다는 위생 환경 개선에 방점을 찍었다. 대부분의 의학자들은 이 두 그룹 사이에서 절충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콜레라가 특정한 조건 하에서 전파될 수 있다고 가정했다.<sup>51</sup>

피터 볼드윈(Peter Baldwin)은 한 국가가 선택하는 방역 전략은 생물학적 측면만큼 정치적인 의도가 작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sup>52</sup> 19세기 콜레라에 대한 방역에서도 마찬가지로인데, 영국의 경우 식민지 경영을 바탕으로 한 자유무역주의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해항 검역은 무역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인식되었다. 뿐만 아니라 19세기 중반까지도 불결한 환경이나 오염된 물, 템즈강에서 배출되는 나쁜 공기 등을 통해 콜레라가 전파된다는 가설에 무게를 두었다. 따라서 검역보다 거주공간의 과밀화 해소 및 환기 개량, 오물처리 등 위생환경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sup>53</sup> 해항검역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나라에서도 의학적인 측면에서

48. Eugenia Tognotti, 2013, Lessons from the history of quarantine.

49. 존 스노우(John Snow, 1813-1858)는 영국인 의사이자 콜레라가 수인성 감염병인 것을 실증적인 조사를 통해 증명한 인물이다. 그는 1854년 런던 소호에서 콜레라 환자가 급증하자 현장조사를 통해 브로드 거리(Broad Street)의 식수펌프가 콜레라 전파의 원인이라는 것을 밝혀냈다(BBC History, [http://www.bbc.co.uk/history/historic\\_figures/snow\\_john.shtml](http://www.bbc.co.uk/history/historic_figures/snow_john.shtml)).

50. Mark Harison, Naval expertise and the problem of cholera in the mid-nineteenth century, Unpublished article.

51. Margaret Pelling, 1978, *Cholera, fever and English medicine 1825-1865*,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52. Peter Baldwin, 1999, *Contagion and the state in Europe, 1830-193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53. Gavin Milroy, 1947, *The cholera not to be arrested by quarantine: A brief historical sketch of the great epidemic of 1817, and its invasions of Europe in 1831-2 and 1847: With practical remarks on the treatment, preventive and curative, of the disease*, London: J. Churchill; John Sutherland, 1850, *Report of the general Board of Health on the epidemic cholera of 1848 and 1849*, London: W. Clowes.

44. Mikiko Hirayama, 2009, The Emperor's new clothes: Japanese visuality and imperial portrait photography, *History of photography*, 33-2, pp. 165-184.

45. David M. Morens, and Anthony S. Fauci, 2020, Emerging pandemic disease.

46. 패트릭 맨슨 (Patrick Manson, 1844-1922)은 열대의학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의사이다. 그는 1866년부터 1889년 사이 임상 과학자로 중국 해관 등에서 일하며 매개체 감염병 연구에 큰 공을 세웠다.

47. Charles A. Gordon, 1884, *An epitome of the reports of the medical officers to the Chinese Imperial Maritime Customs service, from 1871-1882: with chapters on the history of medicine in China; materia medica; epidemics; famine; ethnology; and chronology in relation to medicine and public health*, Ballire, Tindall & Cox, Shelfmark: M16500, The Wellcome Library.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지속적으로 제기 되었다. 그러나 지역의 관리들은 감염병의 대유행으로 사람들이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 빠지고 이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혼란을 완화시킬 정치적인 제스처가 필요했기에 좀처럼 검역을 포기할 수 없었다.<sup>54</sup>

또한 검역은 개인에 대한 국가의 권력이 가장 분명하게 표현되는 절차이기도 하고, 주권을 옹호하거나 행사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sup>55</sup> 따라서 병원체의 차단만이 아니라 인적·물적 흐름을 통제하여 권역 내의 통치 질서를 확립시키는 장치로 채택되거나, 라이벌국가에 대한 제재의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특히 독일이나 러시아와 같은 전제주의 국가에서는 감염병의 전파를 병원체를 가진 적의 침공이라고 간주하며, 엄격한 검역을 통해 감염병의 유행을 차단하고자 했다. 검역의 일환으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의 이동이나 집회 및 종교적 활동을 단속하기도 했다.<sup>56</sup> 흥미로운 점은 19세기 동안 유럽과 북아메리카 지역에서는 검역과 이민절차가 통합되는 과정이 나타나기도 했다. 같은 시기 영태권역(Anglo-Pacific World)에 새로운 국가들이 건설되는 과정에서, 검역은 우생학과 인종주의에 입각한 이민자의 선별 작업과 궤를 같이 하기도 했다. 검역법이나 이민법의 질병 조항을 통해 이민자를 선별하는 작업은 재정적, 인종적, 그리고 위생적인 면에서 신생국민국가의 바람직한 정책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sup>57</sup>

이처럼 검역이 감염병 차단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자국의 통치질서 확립이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서구 열강들이 식민지 경영을 바탕으로 해의 무역의 규모를 늘여가는 과정에서 통일되지 않은 소모적인 형태의 검역은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불리한 것이 되었다. 따라서 19세기 중반부터 합리적인 형태의 규범화된 검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서서히 모아지기 시작했다. 그 결과 1851년 프랑스의 요청으로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참가한 제1회 국제 위생 회의(International Sanitary Conference)가 파리에서 개최된다. 회의의 주된 목적은 검역에 따른 무역활동의 부담은 경감시키면서 아시아에서 유입되는 콜레라와 페스트 등의 감염병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었다.<sup>58</sup>

그러나 서구열강은 1865년 인도에서 시작된 콜레라가 이슬람 순례자들과 함께 메카로 유입되고 그곳에 모인 순례자들의 약 3분의 1을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이어 이집트, 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전례 없는 속도로” 빠르게 전파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는 철제 증기선과 철도의 발달로 인해 콜레라의 전파속도가 더욱 빨라진 것이다.<sup>59</sup> 이듬해 서구

열강은 콘스탄티노플에서 제3차 국제위생회의를 열고 아시아에서 서구로 감염병이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는 완충지대(buffer zone)를 서아시아 지역에 설정하여 이곳을 통과하는 선박을 철저히 규제할 것에 다시 의견을 모았다. 해상무역의 의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인도의 식민지 경영을 고려했을 때 영국에게는 여러가지 불이익이 예상되었지만, 국제관계의 측면에서 이 제안을 거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sup>60</sup> 3년 뒤인 1869년 수에즈운하가 개통되면서 유럽과 아시아를 오고 가는 선박의 항해 시간이 크게 단축되었다. 수에즈 운하는 인도양과 지중해를 잇는 교통의 요지로 부상했지만, 한편으로는 콜레라를 비롯한 감염병이 아시아에서 유럽과 미국으로 전파되는 주요 통로로 여겨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곳을 통과하는 선박과 승객에 대해 어떠한 검역조치를 취해야 할지 서구열강 사이에서 논의가 집중되었다(도 3). 당시 수에즈 운하는 영국의 통제 하에 놓여 있었고, 이 운하를 통과하는 다수의 선박이 영국 국적의 것이었다. 게다가 해항검역의 실효성에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영국은 수에즈운하를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검역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sup>61</sup> 그러나 프랑스와 다른 유럽 강대국들의 외교적 압박을 무시할 수 없었기에 해항검역을 실시하면서도 그에 따른 무역의 손실과 여행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애썼다.<sup>62</sup>

이처럼 해항검역은 외교의 영역에서 다루어 지기도 했는데, 나라 간의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1877년 콜레라 유행 당시 해항 검역을 둘러싼 일본과 서구열강 간의 이견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당 해 8월경, 중국에서 나가사키로 들어온 영국 군함을 통해 콜레라가 유입되고 9월 초 요코하마에도 콜레라가 전파되면서 전국적으로 대 유행하게 되었다.<sup>63</sup> 메이지정부는 개항장에 격리병원을 세우고 콜레라 유행지를 출발해 일본 내 개항장으로 들어오는 선박을 대상

도 3. 1883년 이집트의 콜레라 유행과 브린디시(Brindisi)항에서의 승객 검역



출처: Artist's signature indistinct, 1883, Wellcome Collection, Attribution 4.0 International (CC BY 4.0).

54. Eugenia Tognotti, 2013, Lessons from the history of quarantine.

55. Mark Harrison, 2016, "Afterword", in Alison Bashford (ed) *Quarantine: Local & global histories*, London: Palgrave, pp. 251-257.

56. Christopher Hamlin, 2009, *Cholera*, p. 106; Benoît Pouget, 2020, Quarantine, cholera, and international health spaces: Reflections on 19th-century European sanitary regulations in the time of SARS-CoV-2, *Centauros*, 62, pp. 302-310.

57. Alison Bashford, 2016, "Maritime quarantine: Linking old world and new world histories", in Alison Bashford (ed) *Quarantine: Local & global histories*, London: Palgrave, pp. 1-12.

58. William Empson, 1852, Report of the General Board of Health on the epidemic cholera of 1848 and 1849, *The Edinburgh Review*, 96-196, pp. 403-435.

59. 마크 해리스, 2020, 『전염병, 역사를 흔들다』, 이영석(Contagion: How commerce has spread disease, 2012), 서울: 푸른역사, 287-288, 293쪽.

60. Saurabh Mishra, 2016, "Incarceration and resistance in a Red Sea lazaretto, 1880-1930", in Alison Bashford (ed), pp. 54-65; Jeong-Ran Kim, 2013, Borderline of "Empire": Japanese maritime quarantine in Busan c.1876-1910, *Medical History*, 57, pp. 226-248.

61. Saturday review of politics, 1885, 06, 06, "Quarantine at Suez", 59-1545, pp. 738-739.

62. Norman Howard-Jones, 1975, *The Scientific background of the International Sanitary Conferences*, Geneva: WHO; Valeska Huber, 2006, The Unification of the globe by disease? The International Sanitary Conferences on cholera, 1851 - 1894, *Historical Journal*, 49, pp. 453-76; John Booker, 2007, *Maritime quarantine: The British experience, c. 1650 - 1900*, Aldershot: Ashgate, pp. 534-45.

63. Mr M. Flowers, British consul in Nagasaki, to Sir Hany S. Parkes, British envoy, Edo, 14 September, 1877, enclosures 1-13, Despatch No. 50, Consular despatches from Nagasaki, FO 262/310, The National Archives; Charles A. Gordon, 1884, *An epitome of the reports of the medical officers to the Chinese Imperial Maritime Customs service, from 1871-1882*, pp. 130, 134.

으로 해항검역을 실시하려고 했으나, 불평등조약 하에서 서구 열강의 반대로 외국선에 대한 해항검역이 좌절되었다. 특히 영국의 반대가 가장 심했는데,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영국은 해항검역의 필요성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게다가 일본과의 관계에서 압도적인 힘의 우위가 확보된 영국이 자국의 군함이나 무역선에 대한 검역을 허락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당시 주일 영국공사 해리 스미스 파크스(Harry Smith Parkes)는 일본 정부에 해항검역 보다 소독과 오물처리 철저 등 청결 유지에 주력할 것을 강조했다.<sup>64</sup> 뿐만 아니라 파크스 공사는 나가사키에서 시작된 콜레라가 영국 해군에서 비롯된 것을 인지하면서도, 그 지역에 세워진 일본의 임시 군병원에서 풍기는 악취로 콜레라가 퍼지고 있으며 그 주변에 거류하는 외국인들의 건강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sup>65</sup> 심지어 일본에 거주하던 영국인 의사는 요코하마에서 발생한 감염병은 “아시아 콜레라”가 아니라 해당지역에서 매년 발생하던 풍토병이라는 취지의 말을 파크스 공사에게 전달하면서 콜레라의 발생과 유행을 일본 국내의 문제로 치부했다.<sup>66</sup> 이후로도 일본은 1894년 불평등조약을 개정(치외법권 철폐)하고 1899년 해항검역법을 제정할 때까지 일본 내에서의 해항검역주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개항의 주체가 된 부산에서 일본 관리들은 1877년부터 주도적으로 해항검역을 실시했다. 부산 내 일본 관리들은 당해 10월 나가사키를 출발해 부산으로 들어온 일본 해군 사이에서 콜레라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면서도, 만약 콜레라가 부산에 유입되면 “불결한” 생활 습관을 가진 조선인들에 의해 거류 일본인들에게도 콜레라가 전파될 것이라 우려했다. 따라서 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 조선인들과의 접촉을 일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sup>67</sup> 즉, 본국을 향하던 서구의 동양(Orient)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을 자신들이 내재화하여 다른 아시아국가를 향해 발신한 것이다. 누가 콜레라의 병리학적 이론을 정의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류할 수 있는가는 미셸 푸코가 설명한 지(知)와 권력의 상관관계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즉, 지(知)는 개념화와 범주화가 가능한 주체의 권력이 반영되어 구현되기도 하는데,<sup>68</sup> 서구 열강과 조선 사이에서 일본이 보여준 굴절된 콜레라에 대한 개념화와 대응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19세기 말에 접어들면서 점차 해항검역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국제사회의 의견이 모아진다. 이는 콜레라나 페스트와 같은 급성 감염병의 병리학적 이론이 과학적으로 밝혀지면서 기존의 검역체계는 의학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질서의 판도가 달라진 것도 주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1880년대 중반부터 독일이 동아프리카에 식민지를 건설하고 제국주의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면서, 독일에게도 수에즈운하를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규제의 완화가 유리해졌다. 이처럼 해항검역 완화에 대한 의견이 열강들 사이에서 공유되면서, 1892년과 93년 베니스와 드레스덴에서 열린 국제위생회의를 통해 수에즈 운하에서의 검역 규제 완화를 결정했다. 그리고 1903년 페스트의 세계적 대유행의 한 가운데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위생회의에서, 사람보다 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도착지에서의 검역 보다 출발지에서의 질병 감시체계에 중점을 두는 합리적인 검역이 채택되었다.<sup>69</sup> 물론 서구 중심의 국제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이고 열강의 제국주의 경제침탈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한다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콜레라를 비롯한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에 맞서 체계적인 해항검역을 통해 국제적으로 협력 대응해 나가는 역사의 분기점을 마련한 것은 분명하다. 또한 국제위생회의는 나중에 국제연맹의 보건기구(The Health Organization) 및 WHO의 조직과 활동에 청사진을 제공했다.<sup>70</sup>

## 5. 불확실성의 시대: 코로나19 팬데믹

19세기에 들어 콜레라가 세계적으로 대 유행을 하게 된 것이 그 시기의 역사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듯, 코로나19가 팬데믹화 된 것도 현재의 시대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바이러스성 감염병이 빠른 속도로 팬데믹화 한 것은, 글로벌시대에 국경을 뛰어 넘는 다방면의 교류가 일상화되었고 항공편의 발달로 이동의 속도가 전례 없이 빨라진 것이 주요 배경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콜레라를 비롯해 다른 감염병이 대유행할 때 나타났던 양상들과 유사한 현상도 목격된다.

비록 바이러스는 인종과 계급, 젠더를 차별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코로나19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는 집단은 분명히 존재한다. 코로나19의 가장 일반적인 전파 경로는 감염자와 밀접 접촉하면서 호흡기 비말에 노출되는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는 간혹 공기를 매개로 전파되기도 하는데, 환기가 불충분한 막힌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다.<sup>71</sup> 따라서 기저질환의 유무는 물론 직업의 성격이나 주거환경 등에 따라 해당 바이러스에 취약한 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다. 종종 단순·육체노동자들의 작업환경과 빈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종종 이민자들로 구성된 소수인종 집단들도 바이러스에 취약한 계층으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그들의 거주·노동환경 또는 자원획득의 불균형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sup>72</sup>

64. ‘虎列刺子防法施行に關する件’, 1877.09.18, 外務省, 1949, *日本外交文書第十卷*, 東京: 日本國際連合協會, pp. 409~410.

65. *Ibid.*; Mr M. Flowers to Sir Harry S. Parkes, 10 and 14 September 1877, FO 262/310; Staff Surgeon James Bradley to Commander B.E. Cochrane, 12 September 1877, FO 262/310, TNA.

66. 読売新聞, 1877.09.29, 「流行のコレラは横浜在來のものでアジア種ではない 英國醫師が公使に報告」.

67. ‘高雄丸消息並に伝染病予防施設に關する件’, 1877.10.28, *日本外交文書第十卷*, pp. 233~234.

68. Mariko Asano Tamanoi, 2000, Knowledge, power, and racial classification: The “Japanese” in “Manchuria”,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59-2, pp. 248~276.

69. Jeong-Ran Kim, 2013, Borderline of “Empire”; 마크 해리스, 2020, 『전염병, 역사를 흔들다』, 이영석(Contagion: How commerce has spread disease, 2012), 서울: 푸른역사, 375쪽.

70. “Global health histories”,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https://www.who.int/global\\_health\\_histories/background/en/](https://www.who.int/global_health_histories/background/en/).

71. “Covid-19전파경로”,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https://korean.cdc.gov/coronavirus/2019-ncov/prevent-getting-sick/how-covid-spreads.html>.

72. 김진희, 2020, 「코로나19 유행의 건강형평성, 건강도시에서의 함의」,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37-4,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81~89쪽.

예를 들어, 싱가포르에서는 4월 초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데, 5월 6일 기준 싱가포르 내 누적 확진자 20,198명 중 17,758명이 기숙사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 사이에서 발생했다. 이주노동자들의 과밀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이 바이러스를 전파시키는데 최적의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sup>73</sup> 영국의 경우, 흑인이나 동남아시아계 집단들 사이에서 코로나19 사망률이 백인들에 비해 2.5배 높게 나타나는데, 그들의 과밀한 주거환경과 함께 비만과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이들이 대중과 직접 대면하는 일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서 감염의 위험도 높다.<sup>74</sup> 미국의 경우 다양한 인종이 거주하면서 평균 소득이 낮은 카운티의 경우 감염률이 백인들이 다수인 카운티 보다 8배나 높게 나오기도 했다. 같은 중위소득의 카운티라 하더라도 백인의 비율이 낮은 지역이 높은 지역보다 코로나19 사망률이 9배나 높았다.<sup>75</sup>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은 경제성장률의 대폭 하락과 실업률 급증에 직면했는데, 특히 방역을 위한 봉쇄정책(Lockdown)은 경제 침체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제일 크게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된 계층 역시 빈곤층, 여성, 미숙련 노동자 그리고 이주 노동자 집단이었다.<sup>76</sup>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와 빈곤층의 증가가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세계은행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올해 연말 기준 전 세계의 극빈층 수가 8,800만에서 1억 1,500만 명이 증가해 약 7억 300만에서 7억 3,00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 중에 약 82% 정도가 중간 소득 국가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농촌인구가 극빈층으로 전락하던 기존의 경향과는 다르게 도시 노동자계층에서 많이 양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sup>77</sup>

감염에 대한 공포는 물론 팬데믹으로 야기된 경제 불황, 팬데믹 이후의 세상에 대한 불확실성에 기인한 두려움이 사회 전반에 팽배해 지면서 사회구성원 간의 반목이 깊어지기도 한다. 마크 해리슨(Mark Harrison)의 지적처럼 “한 사회에 감염병이 유행하면서 발생하는 과격주의와 갈등은 감염병으로 인해 유발된 것이 아니다. 원래 사회에 내재되어 있던 긴장과 갈등이 감염병의 유행으로 표면에 드러난 것”이기도 하다.<sup>78</sup>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병에 대한 공포를 이유로 한 집단에 대한 혐오를 공격적으로 표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 당시 유대교인들이 우물에 독을 타서 병이 창궐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극심한 박해를 받았다.<sup>79</sup> 19세기 말 뉴욕 시민들은 콜레라 유행의 원인을 가난한 아일랜드 이민자들 탓으로

들렸다.<sup>80</sup> 1980년 초에 보고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3,70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내고 있는 HIV/AIDS의 경우, 유행 초기 미국과 영국의 대중매체는 “게이 감염병(gay plague)”라는 용어를 쓰면서 남성 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를 부추겼다.<sup>81</sup> 현재 유행 중인 코로나19는 중국에서 시작되었다는 이유로, 중국인에 대한 혐오와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중국인들의 식습관이나 재래시장의 위생상태, 야생동물을 사고 파는 행위를 지적하면서 팬데믹을 일으킨 원인이라고 비난하기도 한다.<sup>82</sup> 심지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바이러스(Chinese virus)” 또는 “외국 바이러스(foreign virus)”라고 칭하며 반중 정서와 외국인 혐오를 부추겼다.<sup>83</sup> 그러나 서구사회가 중국(인)에 코로나19 팬데믹의 책임을 돌리고 혐오 정서를 부추기면서 정작 자신들이 코로나19 방역에 실패한 진짜 원인을 감추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sup>84</sup> 감염병이 유행할 때 심화되는 인종차별이나 혐오정서는 사회 내부의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공중보건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사회가 희생양을 만들고 대중의 분노가 그곳으로 향하다 보면 의료시스템의 문제점이나 공중보건 인프라가 제대로 발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시하는데 소홀해지기 때문이다.<sup>85</sup>

신종 감염병의 유행으로 사회적 혼란이 커질수록, 정부와 의료기관은 방역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면서 대중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sup>86</sup> 그렇지 않으면 감염병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면서 때때로 “음모론”이 퍼지고, 그 결과 감염병 통제와 치료에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sup>87</sup> 올 봄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퍼지는 와중에 북잉글랜드에 위치한 브래드포드(Bradford)에서는 의료진들이 소수 유색인(BAMA - Black, Asian, and Minority Ethnic)들이 죽기를 바란다는 악성투머도 퍼졌다. 이곳은 남아시아계통의 주민이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곳으로, 실로 그들 중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왔다. 여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했는데, 첫째 그들 중 적지 않은 이들이 과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살아서 감염의 위험에 더 노출된 점, 그리고 남아시아계 환자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등이 코로나로 인한 사망률을 높이기 때문이다.<sup>88</sup>

80. David, S. Jones, 2020, Covid-19, history and humility, *Centaurus*, 62, pp. 370-380.

81. Pink News, 2018, 11, 30, 'Gay plague': The vile, horrific and inhumane way the media reported the AIDS crisis.; Amitangshu Acharya, 2020, 04, 08, A Brief history of pandemics and prejudice, *COVID-19 Response*.

82. The Guardian, 2020, 05, 12, 'Coronavirus: Bryan Adams attacks China as 'bat eating, virus making' source'.

83. BBC, 2020, 03, 18, 'Coronavirus: Trump grilled on use of term 'Chinese virus'.

84. The Guardian, 2020, 08, 03, 'Richard Horton, "This wave of anti-Chinese feeling masks the West's own COVID-19 failure.'.

85. Gilbert C. Gee, 2020, Seven reasons to care About racism and COVID-19 and seven things to do to stop it,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10-7, pp. 954-956.

86. 정부가 신속하게 방역태세를 갖추고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민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낸 한국의 코로나19 방역은 모범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M. Jae Moon, 2020, Fighting COVID-19 with agility, transparency, and participation: Wicked policy problems and new governance challenge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published online ahead of print, 2020 May 20], doi: 10.1111/puar.13214; Ariadne Labs, Emerging COVID-19 success story: South Korea learned the lesson of MERS, 30 June, 2020, *Exemplars in Global Health*(<https://ourworldindata.org/covid-exemplar-south-korea>); 김양진, 2020, '코로나 시대의 언어', 『코로나19 테카메론』(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통합의료인문학연구원(원)), 서울: 모시는 사람들, 91-102쪽).

87. Jessica Jaiswal, Caleb LoSchivavo, and David C. Perlman, 2020, Disinformation, misinformation and inequality-driven mistrust in the time of COVID-19: Lessons unlearned from AIDS denialism, *AIDS and Behavior*, 24-10, pp. 2776-2780.

88. BBC 코리아, 2020, 10, 16, '비만 등 만성질환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증폭' 보고서.

73. David Koh, 2020, Migrant workers and COVID-19, *Occupational & environmental medicine*, 77-9, pp. 634-636.

74. Mohamed H. Ahmed, 2020, Black and minority ethnic (BAME) Alliance Against COVID-19: One step forward, *Journal of racial and ethnic health disparities*, 7, pp. 822-828; Daily Mail, 2020, 10, 16, 'Ethnic minorities are twice as likely to die from Covid-19 than white people because they live in deprived areas and work in public-facing jobs, government report claims'.

75. Tanya Albert Henry, 2020, 08, 05, Data from 10 cities show COVID-19 impact based on poverty, race, *AMA*.

76. 서울신문, 2020, 06, 25, 마크 해리슨, 「서구 '자신감 시험' 서 실패... 코로나 극복한 한국, 국제 지위 향상.

77. 서울경제, 2020, 10, 08, 「전세계 극빈층 내년 7억명 넘어... 코로나로 22년래 첫 증가.

78. Science Blog, University of Oxford, 2020, 03, 24, 「COVID-19: Insights from history」(<https://www.ox.ac.uk/news/science-blog/covid-19-insights-history-0>).

79. Anna Foa, 2000, *The Jews of Europe after the Black Death*, Berkeley, Los Angeles,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 146.

그런데 병원에서 백인이 아닌 코로나19 환자들은 죽게 방치한다는 가짜뉴스가 온라인을 통해 퍼지면 일부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일이 실제로 발생했다. 입원치료를 받던 환자 중 한 명은 가족에게 가짜뉴스를 전달받은 후 “자신이 치료 중에 죽게 되면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고 시체를 태울 것”을 우려하며 퇴원을 희망했다. 문제는 이런 가짜뉴스가 퍼지면서 치료를 요하는 환자들 중 상당수가 병원에 가는 것을 거부하게 되었는데, 실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고 코로나19로 사망하는 숫자가 늘어났다.<sup>89</sup> 이는 신종 감염병의 위협에 직면하면서 개인과 집단이 느끼는 공포와 불확실성에서 오는 혼란이 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보다 더 빨리 증식되면서 발생한 불행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정부의 방역 조치에 대항하는 시위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기도 한다. 유럽의 경우 시위 참가자들의 구성은 매우 복잡한데, 우선 도시 봉쇄 조치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은 사람들이 많이 포함된다.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코로나19 팬데믹을 날조된 위기이자 정부의 방역 정책을 억압의 한 형태로 보며 시위에 나서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들은 특히 마스크 착용 의무나 이동·회합에 대한 제한 조치를 개인의 자유의지에 대한 침해로 간주하며 반발하고 있다.<sup>90</sup> 몇 달 전 영국에서 5G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린다는 가짜 뉴스가 퍼지면서 기지국을 불태우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기도 했다.<sup>91</sup> 이는 단순히 가짜뉴스에 현혹된 이들이 저지른 사건이 아니라 통신 인프라를 정부에 의한 억압과 감시의 한 형태로 간주하고 공격했다는 분석도 따른다.<sup>92</sup> 실제로 몇몇 국가에서는 방역을 이유로 시민권을 제한하고 자유를 침해하는 정책을 펼치기도 한다. 중국정부는 우한을 76일간 전면적으로 봉쇄하였다. 헝가리의 경우 코로나19 방역을 목적으로 제정된 비상법(emergency laws)을 통해 정부는 적법하게 제정된 법률의 집행을 중단하고 추가적인 특별조치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다른 지역에서도 방역에 활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드론이나 CCTV, 휴대폰 추적의 기능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된 이후에도 일상화 되어 국가의 감시체계가 강화될지 모른다는 우려의 소리가 들린다.<sup>93</sup>

코로나19의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해 각국 정부는 검역강화를 비롯한 특별입국절차를 실시하고 있다. WHO 보고에 따르면 2020년 4월 중순 기준으로 194개국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여행제한이나 국경 폐쇄, 비자 발급 제한·정지 등 다양한 형태의 국경 통제 정책을 채택했다.<sup>94</sup> 각국의 경제규모나 산업의 구조, 의료 인프라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검역과 국경

통제정책을 채택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몇몇 나라에는 과도한 부담을 안기거나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다. 문제는 마치 1851년 이전 시대로 회귀한 것처럼, 다른 국가들과 조율 없이 일방적인 형태의 특별입국절차를 실시하거나 때때로 정치적인 이유를 우선하는 보여주기 식의 검역을 채택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올해 3월 일본이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급작스럽게 한국과 중국 내 일본대사관에서 발급한 비자의 유효를 정지시키고 한국인과 중국인의 입국을 대대적으로 제한시킨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방역적인 측면 보다 정치·외교적인 목적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따른다.<sup>95</sup> 특정 지역이나 국민에 대한 특별검역조치는 이들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키거나 대중들에게 왜곡된 인상을 심어주는 등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리고 여행 및 무역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 하면서 동시에 감염병 통제를 효율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은 제1회 국제위생회의에서 논의되기 시작해서 1951년 WHO회원국이 국제위생규정을 채택한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 온 원칙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sup>96</sup> 전 지구적 문제인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고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지 모를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 WHO의 주도 하에서 각국의 국내법적 방역 조치들과 연계된 국제규범들을 마련하여 효과적으로 감염병을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sup>97</sup>

## 6. 맺음말

콜레라와 코로나19는 감염을 일으키는 병원체의 종류도 다르고 감염 경로나 그 증상도 상이하다. 뿐만 아니라 콜레라는 코로나19보다 치명률이 훨씬 높았던 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콜레라보다 더 높은 전파율을 가지고 있기에 확산을 억제하는데 더욱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벵골 지역의 풍토병이었던 콜레라가 19세기 초 인도를 벗어나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된 양상과 현재 빠른 속도로 감염자와 사망자를 발생시키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유사한 점이 발견되기도 한다.

19세기 초, 인적·물적 이동의 규모와 범위가 확대되는 첫 번째 글로벌화 붐이 시작되면서 콜레라의 세계적인 대유행도 일어났다. 코로나19 팬데믹 역시 최첨단 기술과 항공산업의 발달로 원거리 이동과 국경을 뛰어넘는 다양한 형태의 교류가 어느 때보다 보편화 된 글로벌시대가 빛은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콜레라와 코로나19 모두 신종 감염병으로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전 세계로 전파되면서 유행지역에 공포와 혼란을 야기했다. 또한 두 감염병이 대유행을

89. BBC, 2020.04.19, 「Coronavirus doctor's diary: 'Fake news makes patients think we want them to die.'

90. Evening Standard, 2020.09.19, 「Trafalgar Square protest: Hundreds of anti-vaxxers and coronavirus sceptics gather in central London」; Euro News, 2020.09.26, 「Hundreds protest COVID-19 restrictions in London」; The Guardian, 2020.10.18, 「Covid in Europe: protests in Czech Republic, Ireland to toughen rules」; Euronews, 2020.11.09, 「Coronavirus: Hundreds protest against 'fake pandemic' in Madrid」.

91. BBC 코리아, 2020.04.05, 「코로나19: '5G 때문에?' 영국에서 잇달아 기지국 방화 발생」.

92. Science Blog, 2020, COVID-19: Insights from history.

93. Stephen Thomson, 2020, COVID-19 Emergency measures are hurting democracy globally, *AJPH*, 110-9, pp. 1356-1357.

94. Kelley Lee, Catherine Z. Worsnop, Karen A. Grépin, and Adam Kamradt-Scott, 2020, Global coordination on cross-border travel and trade measures crucial to COVID-19 response, *The Lancet*, 395, doi: [https://doi.org/10.1016/S0140-6736\(20\)31032-1](https://doi.org/10.1016/S0140-6736(20)31032-1).

95. Sankbiz, 2020.03.05, 「事实上、中国人と韓国人の入国を制限 イランも新たに対象」; 청와대 대변인 강민석, 2020.03.08, 「일본에반 강경 대응을 했다」는 주장에 대한 서면브리핑.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8243>).

96. Kelley Lee, Catherine Z. Worsnop, Karen A. Grépin, and Adam Kamradt-Scott, 2020, Global coordination on cross-border travel and trade measures crucial to COVID-19 response.

97. 이재유, 2020, 「코로나19 대응 관련 한국의 출입국 제한조치 및 국제법적 평가」, 『서울국제법연구』 27-1, 서울국제법연구원, 65-101쪽.

할 때, 감염에 취약하고 방역 조치에 따른 소득 감소나 실업 등 경제적인 타격을 가장 먼저 받는 집단이 빈곤층 또는 이민자(소수 인종 포함)라는 것도 유사한 지점이다. 뿐만 아니라 신종 감염병의 유행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공포와 불안에 휩싸이기도 하는데, 그러한 심리는 사회에 내재되어 있던 갈등과 긴장을 표출시키는 기폭제가 되기도 한다. 특히 정부와 시민들 간의 신뢰관계가 구축되지 못한 상태에서 위로부터의 방역 조치로 인해 생활에 제재가 가해지면서 시위가 촉발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각국의 정부는 해외에서 유입된 신종 감염병의 유행에 직면하면서 국내 방역은 물론 국경 통제와 검역을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감염병이 일으키는 생물학적 위험을 뛰어넘는 과도한 조치들을 취하거나 정치적 목적을 우선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부작용을 양산하기도 한다.

콜레라로 인해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이 신종 감염병의 대유행은 19세기 중반부터 여러 나라들이 위생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중요한 동기가 되기도 했다. 콜레라를 비롯해 여러 질병에 취약계층인 하층민의 건강문제가 공공의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도 그 시기이다. 또한 서구의 주요국들은 국제위생회의를 통해 무역과 여행에 가해지는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면서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 콜레라를 비롯한 감염병 문제를 해결하는데 국제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장을 마련했다. 그 결과 콜레라는 대부분의 서방국가는 물론 의료시설과 공중위생이 제대로 정비된 다른 여러 지역에서 더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상하수도 시설은 물론 저렴한 콜레라 백신마저 제대로 공급하기 어려운 중앙아메리카나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및 남아시아지역에 위치한 빈곤국을 중심으로 매년 100,000명 이상의 콜레라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sup>98</sup> 다시 말해, 콜레라는 전 지구적인 틀에서 여전히 “가난한 자의 질병”으로 남아 있다.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의 한가운데 서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또다른 신종 감염병의 출현과 확산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통으로 나온다. 따라서 정부와 의료기관은 감염병 관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투명한 정보 제공과 대중과의 포괄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sup>99</sup> 그리고 감염병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의 보호는 물론 계층 간의 건강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도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감염병의 유행을 전 지구적 문제로 인식하고 각국이 자국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연대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경제학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Joseph Eugene Stiglitz)의 지적처럼 팬데믹은 모든 곳에서 바이러스가 통제되기 전까지 끝나지 않을 것이며, 강력하고 전 지구적인 경제 회복이 있기 전까지 경기 침체에서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sup>100</sup> 이러한 점에서 19세기 콜레라 대유행의 역사가 주는 교훈은 여전히 유효하다.

98. "Partnering to prevent cholera outbreaks across Africa", Gavi, <https://www.gavi.org/partnering-to-prevent-cholera-outbreaks-across>.

99. 박광국, 김정인, 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부역할과 시민문화」, 『한국행정학보』, 54-3, 한국행정학회, 1~30쪽.

100. Joseph Stiglitz, 2020, Conquering the great divide, Finance & Development, 17-19.

## 참고문헌

### <고문헌>

D.J.R. Lichtenstadt, 1831, On the Asiatic cholera it appeared in Russia in the years 1829 and 1839, *Edinburgh medical and surgical journal*, 36-108, pp. 118~145

Scott Alison, 1839, An inquiry into the propagation of contagious poisons by the atmosphere, &c, *The Athenaeum*, 625, 790~791

Gavin Milroy, 1947, *The cholera not to be arrested by quarantine: A brief historical sketch of the great epidemic of 1817, and its invasions of Europe in 1831-2 and 1847: With practical remarks on the treatment, preventive and curative, of the disease*, London: J. Churchill

John Sutherland, 1850, *Report of the general Board of Health on the epidemic cholera of 1848 and 1849*, London: W. Clowes

William Empson, 1852, Report of the General Board of Health on the epidemic cholera of 1848 and 1849, *The Edinburgh Review*, 96-196, pp. 403~435

Staff Surgeon James Bradley to Commander B.E. Cochrane, 12 September 1877, FO 262/310, TNA

Mr M. Flowers, British consul in Nagasaki, to Sir Harry S. Parkes, British envoy, Edo, 14 September, 1877, enclosures 1-13, Despatch No. 50, Consular despatches from Nagasaki, FO 262/310, TNA

石黒忠恵, 笠原親寧増補, 1879, *増訂虎列刺論*, 東京: 英蘭堂

内務省衛生局, 1880, *虎列刺子防論解*, 東京: 内務省社寺局

Saturday review of politics, 1885, 06, 06, 「Quarantine at Suez」, 59-1545, pp. 738~739

Rokuro Takano, 1926, Itsuya Ohtsubo, Zenzuro Inouye, *Studies of cholera in Japan*, Geneva: The League of Nations, Health Organisation, Ref: 31902580, Shelfmark: XWC, The Wellcome Library

### <한국문헌>

"Partnering to prevent cholera outbreaks across Africa", Gavi, <https://www.gavi.org/partnering-to-prevent-cholera-outbreaks-across>.

박광국, 김정인, 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부역할과 시민문화」, 『한국행정학보』, 54-3, 한국행정학회, 1~30쪽.

김양진, 2020, 「코로나 시대의 언어」, 『코로나19 테카메론』(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통합의료인문학연구원 (편)), 서울: 모시는 사람들, 91~102쪽.

김진희, 2020, 「코로나19 유행의 건강형평성, 건강도시에서의 함의」,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37-4,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81~89쪽.

마크 해리스, 2020, 『전염병, 역사를 흔들다』, 이영석 (Contagion: How commerce has spread disease, 2012), 서울: 푸른역사.

박광국, 김정인, 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부역할과 시민문화」, 『한국행정학보』, 54-3, 한국행정학회, 1~30쪽.

신동원, 2004, 『호열자 조선을 습격하다: 몸과 의학의 한국사』, 서울: 역사비평사.

이재유, 2020, 「코로나19 대응 관련 한국의 출입국 제한조치 및 국제법적 평가」, 『서울국제법연구』 27-1, 서울국제법연구원, 65~101쪽.

### <외국문헌>

#### 영어

Alfred W. Crosby, 1972, *The Columbian exchange: biological and cultural consequences of 1492*, Westport, Conn: Worcester

Norman Howard-Jones, 1975, *The Scientific background of the International Sanitary Conferences*, Geneva: WHO

Margaret Pelling, 1978, *Cholera, fever and English medicine 1825-1865*,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William H. McNeill, 1979, *Plagues and peoples*, Hammondsorth: Penguin Books

Richard J. Evans, 1988, Epidemics and revolutions: Cholera in nineteenth-century Europe, *Past & present*, 120, pp. 123~146

Charles Rosenberg, 1989, What is an epidemic?: AIDS in historical perspective, *Daedalus*, 118-2, pp. 1~17

Richard Evans, 1990, Review Article: Blue Funk and Yellow Peril: Cholera and Society in Nineteenth-Century France, *European History Quarterly*, 20-1, pp. 111~126

Brigitte Steger, 1994, From impurity to hygiene: The role of midwives in the modernisation of Japan, *Japan forum* 6-2, pp. 175~187

Mark Harrison, 1994, *Public health in British India: Anglo-Indian preventive medicine 1859-1914*,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Kevin H. O'Rourke and Jeffrey G. Williamson, 1999, *Globalization and history: The evolution of a nineteenth-century Atlantic economy*, Cambridge, Mass: MIT Press

Peter Baldwin, 1999, *Contagion and the state in Europe, 1830-193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Anna Foa, 2000, *The Jews of Europe after the Black Death*, Berkeley, Los Angeles,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Mariko Asano Tamanoi, 2000, Knowledge, power, and racial classification: The "Japanese" in "Manchuria",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59-2, pp. 248~276

Michael Worboys, 2000, *Spreading germs: Disease theories and medical practice in Britain, 1865 - 190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Geoffrey Gill, Sean Burrell, Jody Brown, 2001, Fear and frustration - the Liverpool cholera riots of 1832, *The Lancet*, 358, pp. 233~237

George D. Smith, 2002, Commentary: Behind the Broad Street pump: Aetiology, epidemiology and prevention of cholera in mid-19<sup>th</sup> century Britain,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 31, pp. 920~932

Seal Burrell and Geoffrey Gill, 2005, The Liverpool cholera epidemic of 1832 and anatomical dissection - Medical mistrust and civil unrest, *Journal of the history of medicine and allied sciences*, 60-4, pp. 478~498

Michael Adas, 2006, *Dominance by design: Technological imperatives and America's civilizing mission*, Cambridge and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Valeska Huber, 2006, The Unification of the globe by disease? The International Sanitary Conferences on cholera, 1851 - 1894, *Historical Journal*, 49, pp. 453~76

Veena Das, 2006, Review Essay: Poverty, marginality, and illness, reviewed work(s): Stories in the time of cholera: Racial profiling during a medical nightmare by Charles L. Briggs and Clara Mantini-Briggs: Pathologies of power: Health, human rights, and the new war on the poor by Paul Farmer, *American anthropologist*, 33-1, pp. 27~32

John Booker, 2007, *Maritime quarantine: The British experience, c.1650 - 1900*, Aldershot: Ashgate, pp. 534~45

Christopher Hamlin, 2009, *Cholera: The Biograph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Mikiko Hirayama, 2009, The Emperor's new clothes: Japanese visuality and imperial portrait photography, *History of Photography*, 33-2, pp. 165~184

Yury V. Bosin, 2009, "Russia, cholera riots of 1830-1831", *International encyclopaedia of revolution and protest*, Hoboken, Wiley-Blackwell, pp. 2877~2878

Eugenia Tognotti, 2013, Lessons from the history of quarantine, from plague to influenza A,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19-2, pp. 254~259

Jeong-Ran Kim, 2013, Borderline of "Empire": Japanese maritime quarantine in Busan c.1876-1910, *Medical History*, 57, pp. 226~248

Mark Harrison, 2015, A Global perspective: Reframing the history of health, medicine, and disease, *Bulletin of the history of*

*medicine*, 89-4, pp. 639~689

Alison Bashford, 2016, "Maritime quarantine: Linking old world and new world histories", in Alison Bashford (ed) *Quarantine: Local & global histories*, London: Palgrave, pp. 1~12

Mark Harrison, 2016, "Afterword", in Alison Bashford (ed) *Quarantine: Local & global histories*, London: Palgrave, pp. 251~257

Mark Harrison, 2016, "Pandemics", in M. Jackson (ed.) *The Routledge history of disease*, London: Routledge, pp.129~145

Saurabh Mishra, 2016, "Incarceration and resistance in a Red Sea lazaretto, 1880-1930", in Alison Bashford (ed) *Quarantine: Local & global histories*, London: Palgrave, pp. 54~65

Mark Harrison, 2018, "The great shift: Cholera theory and sanitary policy in British India, 1867-1879", in Biswamoy Pati and Mark Harrison (eds) *Society, medicine and politics in colonial India* (Oxon and New York: Routledge, pp. 37~60

Frank M. Snowden, 2019, *Epidemics and society: From the Black Death to the present*,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Amitangshu Acharya, 2020,04,08, A Brief history of pandemics and prejudice, *COVID-19 Response*

Ariadne Labs, Emerging COVID-19 success story: South Korea learned the lesson of MERS, 30 June, 2020, *Exemplars in Global Health*, <https://ourworldindata.org/covid-exemplar-south-korea>

Asim Biswas, 2020, Uttaran Bhattacharjee, Alok Kumar Chakrabarti, Devendra Nath Tewari, Hasina Banu, and Shanta Dutta, Emergence of novel coronavirus and COVID-10: whether to stay or die out?, *Critical reviews in microbiology*, 1-12, doi: 10.1080/1040841X.2020.1739001

Benoît Pouget, 2020, Quarantine, cholera, and international health spaces: Reflections on 19<sup>th</sup>-century European sanitary regulations in the time of SARS-CoV-2, *Centaureus*, 62, pp. 302~310

David Koh, 2020, Migrant workers and COVID-19, *Occupational & environmental medicine*, 77-9, pp. 634~636

David M. Morens and Anthony S. Fauci, 2020, Emerging pandemic disease: How we got to COVID-19, *Cell*, 182, pp. 1077~1090

David. S. Jones, 2020, Covid-19, history and humility, *Centaureus*, 62, pp. 370~380

Gilbert C. Gee, 2020, Seven reasons to care About racism and COVID-19 and seven things to do to stop it,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10-7, pp. 954~956

Jessica Jaiswal, Caleb LoSchiavo, and David C. Perlman, 2020, Disinformation, misinformation and inequality-driven mistrust in the time of COVID-19: Lessons unlearned from AIDS denialism, *AIDS and Behavior*, 24-10, pp. 2776~2780

Kelley Lee, Catherine Z. Worsnop, Karen A. Grépin, and Adam Kamradt-Scott, 2020, Global coordination on cross-border travel and trade measures crucial to COVID-19 response, *The Lancet*, 395, doi: [https://doi.org/10.1016/S0140-6736\(20\)31032-1](https://doi.org/10.1016/S0140-6736(20)31032-1)

John Henderson, Samuel Cohn, Patricia Fara, and Sandra Hempel, 2020, "What can history tell us about epidemics?: Can we learn from history about how diseases spread, and how we respond to them?", *History Today*, 70-4, [hpts://www.historytoday.com](https://www.historytoday.com)

Mark Harrison, 2020, A Dreadful scourge: Cholera in early nineteenth-century India, *Modern Asian Studies*, 54-2, pp. 502~553

M. Jae Moon, 2020, Fighting COVID-19 with agility, transparency, and participation: Wicked policy problems and new governance challenge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published online ahead of print, 2020 May 20], doi: 10.1111/puar.13214

Mohamed H. Ahmed, 2020, Black and minority ethnic (BAME) Alliance Against COVID-19: *One step forward*, *Journal of racial and ethnic health disparities*, 7, pp. 822~828

Monika H. Green, 2020, Emerging diseases, re-emerging histories, *Centaureus*, 62, pp. 234~247

Stephen Thomson, 2020, COVID-19 Emergency measures are hurting democracy globally, *AJPH*, 110-9, pp. 1356~1357

Tanya Albert Henry, 2020,08,05, Data from 10 cities show COVID-19 impact based on poverty, race, *AMA*

Mark Harrison, Naval expertise and the problem of cholera in the mid-nineteenth century, Unpublished article

## 일본어

‘虎列刺予防法施行に関する件’, 1877.09.18, 外務省, 1949, *日本外交文書第十卷*, 東京: 日本国際連合協会, pp. 409~410

‘高雄丸消息並に伝染病予防施設に関する件’, 1877.10.28, 外務省, 1949, *日本外交文書第十卷*, 東京: 日本国際連合協会, pp. 233~234

佐々木栄三郎, 1980, *讃州竹槍騒動: 明治六年血税一揆*, 東京: 海流社

山本俊一, 1982, *日本コレラ史*, 東京: 東京大学出版社

立川昭二, 2007, *病気の社会史 一文明に探る病因*, 東京: 岩波書店

中馬充子, 2011, 近代日本における警察的衛生行政と社会的排除に関する研究—違警罪即決と衛生取締事項を中心に—, *西南学院大学人間科学論集*, 6-2, pp. 145~178

## <신문기사>

### 한국어

한겨레, 2020.03.12, 「WHO, 코로나 19 ‘팬데믹’ 공식 선언 “통제될 수 있다”

BBC 코리아, 2020.04.05, 「코로나19: ‘5G 때문에?’ 영국에서 잇달아 기지국 방화 발생」

서울신문, 2020.06.25, 마크 해리스, 「서구 ‘자신감 시험’ 서 실패… 코로나 극복한 한국, 국제 지위 향상」

BBC 코리아, 2020.10.16, 「코로나19: ‘비만 등 만성질환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증폭,’ 보고서」

### 영어

Pink News, 2018.11.30, 「‘Gay plague’: The vile, horrific and inhumane way the media reported the AIDS crisis」

BBC, 2020.03.18, 「Coronavirus: Trump grilled on use of term ‘Chinese virus」

BBC, 2020.04.19, 「Coronavirus doctor’s diary: ‘Fake news makes patients think we want them to die」

The Guardian, 2020.05.12, 「Coronavirus: Bryan Adams attacks China as ‘bat eating, virus making’ source」

El País, 2020.05.19 「How Europe underestimated the danger of the coronavirus pandemic」

The Guardian, 2020.08.03, 「Richard Horton, “This wave of anti-Chinese feeling masks the West’s own COVID-19 failure,”

Evening Standard, 2020.09.19, 「Trafalgar Square protest: Hundreds of anti-vaxxers and coronavirus sceptics gather in central London」

Euro News, 2020.09.26, 「Hundreds protest COVID-19 restrictions in London」

The Guardian, 2020.10.18, 「Covid in Europe: protests in Czech Republic, Ireland to toughen rules」

Daily Mail, 2020.10.16, 「Ethnic minorities are twice as likely to die from Covid-19 than white people because they live in deprived areas and work in public-facing jobs, government report claims」

Euronews, 2020.11.09, 「Coronavirus: Hundreds protest against ‘fake pandemic’ in Madrid」

### 일본어

郵便報知新, 1877.09.3-6, 「内務省乙第七十九号 虎列刺病予防法心得」

読売新聞, 1877.09.27, 「伝染病流行中につき未熟の果物の販売を厳禁」

読売新聞, 1877.09.29, 「流行のコレラは横浜在来のものでアジア種ではない 英国医師が公使に報告」

読売新聞, 1877.10.18, 「松茸食用禁止の京都で、今が盗みときとコソ泥が横行」

読売新聞, 1877.10.23, 「深川の避病院で流言」

読売新聞, 1877.10.24 「(投書)コレラ患者の隔離を「生き肝を抜くため」と誤解する愚かな者に腹が立つ」

読売新聞, 1877.10.24, 「避病院建設に反対の農民が大挙して警察を襲撃、巡査が負傷」

読売新聞, 1877.10.28, 「浅草など東京各地でコレラが多発 府は衛生担当者を増員」

読売新聞, 1877.10.30, 「コレラ禍 東京では前島密・内務少輔らが下町脱出 京都の東寺は難病よけの加持」

読売新聞, 1877.11.01, 「十七歳の少女をコレラ病院に入れるとは残酷 町内の老人が警察へ抗議」

大阪日報, 1877.12.23, 「コレラ病治療の医者を竹槍一揆が叩き殺す」

Sankeibiz, 2020.03.05, 「事実上、中国人と韓国人の入国を制限 イランも新たに対象」

## <웹사이트>

청와대 대변인 강민석, 2020.03.08, 「일본에만 강경 대응을 했다’는 주장에 대한 서면브리핑」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8243)

BBC History, http://www.bbc.co.uk/history/historic\_figures/snow\_john.shtml

Science Blog, University of Oxford, 2020.03.24, 「COVID-19: Insights from history」, https://www.ox.ac.uk/news/science-blog/covid-19-insights-history-0)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https://korean.cdc.gov/coronavirus/2019-ncov/prevent-getting-sick/how-covid-spreads.html.

“Partnering to prevent cholera outbreaks across Africa”, Gavi, https://www.gavi.org/partnering-to-prevent-cholera-outbreaks-across

“Global health histories”,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https://www.who.int/global\_health\_histories/background/en/.



## 초록

감염병의 (대)유행은 단순히 생물학적 현상이 아니라 사회적·문화적인 요소들을 비롯해 그 시대성을 반영하여 나타나는 복합적인 현상이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신종 감염병(Emerging infectious disease)의 출현과 팬데믹으로 발전하게 된 조건들,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적 반응 역시 당대성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감염병이 대유행을 할 때마다 시대를 관통하며 나타나는 유사한 양상들도 존재하는데, 코로나19 팬데믹에서도 이러한 점을 엿볼 수 있다. 특히 19세기에 전 세계를 강타한 콜레라의 대유행과 흡사한 부분이 존재한다. 콜레라와 코로나19는 감염을 일으키는 병원체의 종류도 다르고 감염 경로나 그 증상도 상이하지만, 두 신종 감염병이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하게 되는 배경이나 그에 따른 피해상황, 두 감염병에 대한 국가와 사회구성원의 반응 등에서 비슷한 점을 찾아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19세기 초 인도 벵골지역의 풍토병이었던 콜레라가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하게 되는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콜레라라고 하는 신종 감염병에 대해 여러 국가와 그곳의 사회구성원들이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살펴본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경계하거나 지향해야 할 점은 무엇이고, 또 어떠한 형태로 전지구적으로 연대를 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코로나19, 콜레라, 검역, 19세기, 국제화, 신종감염병

## Abstract

Novelty and Uncertainty: Covid-19 through the lens of cholera

Jeong-Ran Kim

Epidemic or pandemic diseases are complex phenomena which reflect their biological nature but social, political and cultural factors in each era. The novel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pandemic is a product of an era of globalisation, which has permitted its rapid spread around the world. Historically, however, there are similar aspects that appear whenever pandemic diseases have emerged. In particular, there are some similarities between Covid-19 and cholera epidemics in the 19th century. Cholera and Covid-19 are caused by different types of pathogen and have different infection routes and symptoms, but there are similarities in the reactions of states and societies to these two novel diseases. In this paper, I will examine the phenomena of cholera epidemics in the nineteenth century, which initially began in Ben-

gal, India, and how different governments and populations responded to them. Through the lens of history, we can learn lessons about what we should be doing or not doing in the era of Covid-19 Pandemics. This includes the need for collective action internationally to prevent unnecessary political and economic disruption and the need to respect the dignity of human beings.

**Keyword** Covid-19, cholera, quarantine, globalization, Emerging infectious disease(EID)

논문투고일 : 2020. 11. 10.  
심사완료일 : 2020. 11. 24.  
게재확정일 : 2020. 11. 30.

# 경산 임당 고총의 상어뼈 부장 양상과 그 의미

김대욱 영남대학교박물관 학예연구원

- I. 머리말
- II. 상어, 그리고 돛배기
  - 1. 상어에 관한 기록과 상어잡이
  - 2. 돛배기란 어떤 음식인가?
- III. 경산 임당 고총의 상어뼈 부장 양상
  - 1. 고고유적에서 출토된 상어뼈
  - 2. 임당 고총(고분)의 상어뼈 부장 양상
- IV. 고대의 제사와 상어(돛배기) 부장
  - 1. 부장품으로서의 돛배기
  - 2. 돛배기의 생산과 저장, 그리고 유통
  - 3. 민속학에서 본 돛배기 제사권
- V. 맺음말

# OCEAN Heritage

## I. 머리말

영남대학교 박물관에서는 1980년대 경산 임당유적 고총고분의 발굴조사를 통해 임당동 및 조영동 고분군에서 출토된 고대 경산사람들의 인골 259구와 수천 점의 동물유존체를 보관하고 있다. 하지만 발굴 이후 오랫동안 유기물 자료를 주요 고고학 자료의 하나로 인식하는 연구자가 많지 않았던 탓에 큰 관심을 받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면서 출토 사실조차도 잊히다시피 하였다. 그러던 중 임당 인골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실시한 <한반도 고고 유적 출토 인골 자료에 대한 형태적·병리적·유전적 기초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젝트를 통해 이 인골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와 계측, 병리학적 분석을 실시할 수 있었고 그 결과를 기초자료집<sup>1</sup>으로 발표하였다. 또 최근에는 경상북도와 경산시의 지원으로 영남대학교박물관에 보관된 259개체의 인골에 대한 연령, 성별, 병리학적 특징 등 더욱 정밀한 분석<sup>2</sup>을 진행할 수 있었고, DNA 분석, 얼굴복원 등 고고학 외에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함께 본격적인 인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sup>3</sup>

이 인골 연구뿐만 아니라 2013년 9월부터 수년에 걸쳐 임당유적에서 출토된 동물유존체의 동정 및 개체 분석 연구도 진행하게 되었다. 임당의 동물유존체 자료는 세 가지 측면에서 주목되었는데 첫째, 단편적인 분석보고를 통해 알려진 것보다 훨씬 다량의 자료가 수습·보관되고 있다는 점, 둘째, 발굴 당시 물체질 기법을 적용하여 매우 세밀한 자료까지 빠짐없이 수습하였다는 점, 셋째, 유물 봉투, 현장기록, 도면 등을 통해 각 자료의 발굴 정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 등이다. 또한 발굴 이후 30년 가까운 오랜 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하여 연구 자료로서 가치가 높다고 판단하였다.<sup>4</sup>

이 동물유존체의 대부분은 무덤 내부의 그릇(壺)에 담겨 부장된 음식물로 피장자(死者)를 위한 부장품



도1. 영남대학교박물관, 2017·2018, 『영남대학교박물관 소장 경산 임당유적 출토 동물유존체 분석자료집(I·II)』

1. 영남대학교박물관, 2013, 『영남대학교박물관 소장 경산 임당유적 출토 인골연구자료집』.
2. 영남대학교박물관, 2019, 『영남대학교박물관 소장 경산 임당유적 고인골』.
3. 영남대학교박물관, 2019, 『고대 인골 연구와 압독국 사람들』(압독국 문화유산 연구·활용 프로젝트 학술세미나)에 최신 연구 성과가 수록되어 있으며, 특별전 '고인골, 고대 압독 사람들을 되살리다' (2019.09.26.-11.29. 영남대학교박물관) 등을 통해 일반인들에게도 그 성과를 공개하였다.
4. 영남대학교박물관, 2017, 『영남대학교박물관 소장 경산 임당유적 출토 동물유존체 분석자료집 I -포유류·조류-, 10~11쪽.

으로 보아야 한다. 하지만 분묘 축조 과정이나 이후의 제사 과정에서 매장된 장례 의례적 요소도 있었다. 또한 동물유존체 중 일부는 현대인들이 식용하지 않는 것들도 있어 상징적 의미에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임당유적 출토 동물유존체에 대한 종류를 밝히는 것에서 시작하여 동물유존체의 부장 양상을 통한 당시의 장송 의례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sup>5</sup>

필자는 본고를 통해 경산 임당 고총<sup>6</sup>에서 확인되는 동물유존체 중 상어뼈의 부장양상과 그 부장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상어뼈는 고고학 발굴현장에서 화석화되어 출토되지만 경상도지역에서는 ‘돔배기’라고 불리는 아주 오래된 제사음식<sup>7</sup>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상어뼈는 신석기시대 유적부터 청동기~초기철기시대,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 유적에서 확인되고 있고 그 개략적인 출토 양상이나 의미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되었다. 하지만 임당유적 고총에서는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월등한 양의 상어뼈 출토 양상이 확인되어 그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현대 사회의 상어고기 식용권에 관한 민속학의 견해와 비교하여 이 돔배기라는 음식이 고대로부터 이 지역의 귀한 제사음식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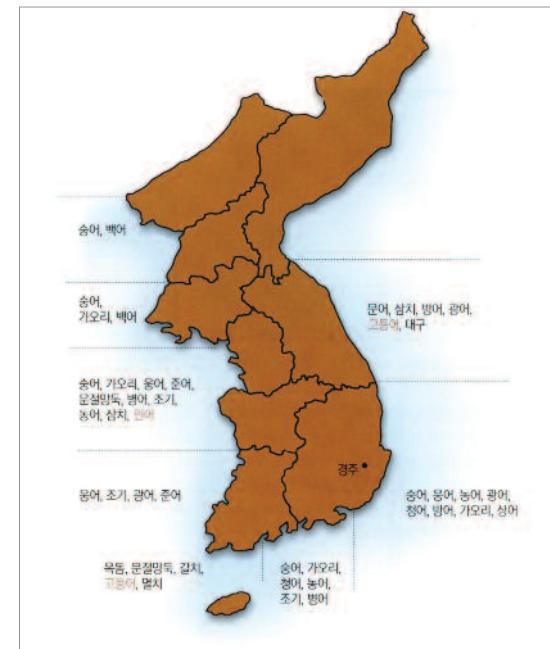
## II. 상어, 그리고 돔배기

### 1. 상어에 관한 기록과 상어잡이

상어는 상어목에 속하는 어류의 총칭으로 세계에는 400여 종의 상어가 있다. 우리나라 연근해에는 켈리상어, 칠성장어, 수염상어, 고래상어, 강납상어, 악상어, 환도상어, 두툽상어, 까치상어, 흥상어, 귀상어, 돔발상어, 툽상어, 전자리상어 등 13과 36종이 알려져 있다. 상어는 그 종류에 따라 크기와 생김새가 다른데, 고래상어의 경우 길이가 20m 넘는 것이 있고 두툽상어와 같이 15cm 정도로 작은 것도 있다.<sup>8</sup>

우리나라 문헌 기록 중 상어는 음식으로서의 맛과 약효를 주로 기록하고 있다. 서유구가 편찬한 『임원경제지』에 실린 「佃漁志」에서는 사어(沙魚)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상어를 잡는 방법이다. 즉 상어는 6월부터 10월까지 바닷물이 깊은 곳에서 배를 타고 낚시로 잡는데, 낚싯줄 길이는 백사오십 발이 되었다. 줄 끝에 2개의 낚시를 매달고 낚시 위 2자쯤 되는 곳에 박과 같은 크기의 등근 들을 얹어매며 고등어 또는 망어를 미끼로 쓴다고 하였다. 『동의보감(東醫寶鑑)』에서는 상어의 약효에 대해 언급되었는데, 물고기를 먹고 중독되었을 때 상어 껍질을 태워서 얻은 재를 물에 타서 먹고 하였다. 이러한 식용 외에도 ‘교피(鮫皮)’라 하여 가죽 말린 것은 칼자루에 감기도 하고 물건을 닦는 데도 사용하였다.<sup>9</sup>



도 2. 『동국여지승람』으로 본 바다구역별 물고기 종류와 분포(국립경주박물관, 2011)

고려시대의 선박인 태안 마도 3호선

대바구니 내부에서 출토된 상어뼈와 함께 발견된 죽간 기록에 사어(沙魚)가 기록되어 있다.<sup>10</sup> 또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1530년) 제19권 충청도 홍주목의 토산품에 ‘사어(鯊魚)’가 기록되어 있으며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1481년)에는 사어(沙魚)가 경기도·충청도·경상도·전라도·황해도·평안도의 45개 고을, 점찰어(占察魚, 전자리상어)는 경상도의 3개 고을, 쌍어(雙魚, 귀상어)는 함경도의 1개 고을의 토산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재물보(才物譜)』(1798년)에는 교어(鮫魚)를 ‘눈이 푸르고 뺨이 붉으며 등 위에는 갈기가 있고 배 아래에는 날개가 있으며 꼬리의 길이는 수 척이 되고 피부는 모두 진주와 같은 모래를 가지며 얼룩지다’고 표현하였다.<sup>11</sup>

전통적으로 상어를 잡는 방법은 네 가지 정도로 낚싯바늘을 이용한 조어법(釣魚法), 그물을 이용한 어망법(魚網法), 작살과 같은 날카롭고 뾰족한 것을 이용해 잡는 자들법(刺突法), 활을 이용한 궁시법(弓矢法) 등으로 추정된다.<sup>12</sup> 영남지역 동남해안에서 이루어진 상어잡이는 이 지역의 어업 특히 어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지역에서 출토된 어구는 낚싯바늘, 작살, 낫대, 조세, 어망추 등인데, 상어잡이와 관련해서는 낚싯바늘과 작살이 가장 중요한 어구이다. 낚싯바늘은 경주 봉길리와 울산 일산리, 영덕 괴시리 등에서 10cm가 넘는 것과 그렇지 않은

5. 영남대학교박물관, 2017, 『영남대학교박물관 소장 경산 임당유적 출토 동물유존체 분석자료집 I-포유류·조류』; 영남대학교박물관, 2019, 『영남대학교박물관 소장 경산 임당유적 출토 동물유존체 분석자료집 II-어류·패류』 등의 자료집을 발간하였으며 이 분석 자료를 토대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 중이다.  
6. 경산 임당유적은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고분군(사적 제516호) 및 취락유적과 토성, 환호 등 유적이 분포하는 구릉 전체를 가리킨다. 그리고 임당유적 내에 분포하는 임당동고분군, 조영동고분군, 부적리고분군 등에 위치한 고총을 가리키는 용어로 임당 고총을 사용하였다. 김대욱, 2014, 「경산 임당 고총의 축조와 그 장제」, 영남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학위논문, 7-11쪽 참조.  
7. 김대욱, 2015, 「Column 2. 아주 오래된 제사음식, 돔배기」, 『상어, 그리고 돔배기』, 국립대구박물관, 66-73쪽.  
8. 국립대구박물관, 2015, 『상어, 그리고 돔배기』, 9-11쪽.;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민족대백과사전』.

9. 김재홍, 2015, 「상어, 그리고 돔배기의 고고학」, 『상어, 그리고 돔배기』, 국립대구박물관, 146쪽.  
10.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2, 『태안 마도 3호선 발굴조사보고서』.  
11. 국립대구박물관, 2015, 『상어, 그리고 돔배기』, 12-13쪽.  
12. 국립대구박물관, 2015, 『상어, 그리고 돔배기』, 18-23쪽.

것이 출토되었다. 소형은 근해에서 사용되었고 대형은 연근해에서 상어잡이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작살은 창녕 계남리, 합천 옥전, 부산 복천동, 김해 대성동 등의 고분에서 출토되었는데 상어잡이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sup>13</sup>

## 2. 돔배기란 어떤 음식인가?

돔배기란 상어고기를 토막 내 소금에 절여 숙성시킨 고기를 말한다. ‘돔박돔박’ 네모나게 썰었기 때문에 지어졌다는 말도 있고, ‘돔발상어’에서 나왔다는 얘기도 있다. 현재 돔배기는 포항의 과메기, 안동의 간고등어와 함께 내륙 지방에서 맛볼 수 있는 별미 중 하나로 대구와 포항, 경주, 영천 등에서는 명절이나 제사 때 빼놓지 않고 올리는 중요한 제수(祭需)이다. 돔배기는 가시가 별로 없고 비린내가 적으며 요리를 하면 육질이 담백하고 부드러워진다고 한다.<sup>14</sup>

한의학에서는 상어를 ‘교어(鮫魚)’라고 해서 오장(五臟)을 보(補)하는 효능이 있고, 특히 간(肝)과 폐(肺)를 돕는 작용이 강해 피부 질환이나 눈병에 많이 이용하였다고 한다. 또한 단백질이 많고 지방이 적어 다이어트 목적으로 즐겨 먹는 닭가슴살과도 비슷하면서도 몸에 필요한 다른 영양소들이 훨씬 뛰어나다고 한다. 따라서 건강 음식을 즐겨 찾는 현대인들에게도 좋은 음식이겠지만 영양 공급이 지금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부족했던 고대 사회에서는 단백질과 다른 영양소들이 풍부했던 이 돔배기를 더욱 귀하게 여겼을 것이다.

## Ⅲ. 경산 임당 고총의 상어뼈 부장 양상

### 1. 고고유적에서 출토된 상어뼈

상어는 딱딱한 뼈를 지닌 경골어류가 아닌 물렁뼈를 지닌 연골어류인데, 물렁뼈는 잘 휘어지며 무게도 가볍다. 따라서 이런 연골어류 뼈가 고고유적에 출토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하지만 패총에는 토양을 알칼리성으로 만드는 다량의 조개껍질 때문에 상어뼈와 같은 유기물이 상대적으로 잘 보존되는 편이다. 상어 척추뼈에는 나무의 나이테처럼 등근 무늬가 남아있는데, 이 무늬는 상어 서식지 환경에 따라 간격이나 횡수에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로 일 년에 한 줄씩 새로 생겨 그 나이를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상어 척추뼈 측면에 사각형의 구멍이 나 있어 다른 물고기 뼈와 구분된다.<sup>15</sup>

13. 김재홍, 2015, 「상어, 그리고 돔배기의 고고학」, 『상어, 그리고 돔배기』, 국립대구박물관, 152~154쪽.

14. 보통 포를 뜯 돔배기를 꼬지에 가지런히 꿰어 식용유를 두른 팬에 굽는데, 경상도 사람들에게는 어릴 때부터 먹어온 익숙한 맛으로 타 지역에선 맛보기 어려운 ‘소울 푸드(soul food)’라고도 할 수 있다.

15. 국립대구박물관, 2015, 『상어, 그리고 돔배기』, 16쪽.

선사유적의 상어뼈는 주로 남해안을 중심으로 울산광역시 이남의 동해안과 군산 이남의 서해안에서 확인된다. 특히 신석기시대 패총에서 상어뼈가 많이 확인되는데 이는 당시 사람들이 상어고기를 많이 먹었음을 방증한다. 특히 부산 가덕도 장항유적과 동삼동패총, 완도 여서도 패총 등에서는 상어를 식량자원으로 활용한 후에 이빨, 척추뼈, 지느러미 가시와 같은 것으로 장신구나 골각기를 만들기도 했다. 청동기시대와 초기철기시대는 농경으로 생활방식이 바뀌어 패총이 급격히 줄었지만 남해안과 서해안을 중심으로 다수의 패총이 확인되며 곱상어, 툽상어, 악상어, 까치상어, 가시상어 등의 유존체가 확인되기도 하였다.<sup>16</sup>

삼국시대에는 경주, 경산, 대구, 김해 등 다수의 무덤유적에서 상어뼈가 확인된다. 이 중 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확인되는 곳이 경상북도 내륙지역이며 이 뼈들은 대부분 척추뼈로 확인되고 있다. 경주 황남대총 남분<sup>17</sup>의 경우 봉분 정상부의 중심점으로부터 북북동쪽으로 약 19m 위치의 봉토 표면 가까이에 대호 4점이 동서로 나란히 묻혀있는데, 이 대호들은 남분 봉토 표면을 피복한 점토층 속에서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남분 봉토에 매장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대호 내부에서는 각종 소형 토기 즉 고배 12점, 과수배 1점, 적색연질 소합 10점 등이 출토되었는데 대부분 대각과 꼭지가 절단된 채 확인되었다. 이 소형 토기 내부와 주변에서 각종 조개 껍질과 동물뼈가 담겨 있거나 흩어져 있었다. 동물뼈에는 상어, 농어, 참돔, 조기, 졸복 등의 어류와 오리類, 꿩, 닭 등의 조류 외에 각종 패류가 포함되어 있었다.

대구 불로동고분군 91·93호에서도 확인되었는데, 불로동91호분은 1곽, 2-1·2-2곽, 3곽, 4곽이 연결된 고분으로 4곽은 일(日)자형의 주부곽식 수혈식석곽묘이다. 이 중 부곽에 부장된 단경호 내에서 상어뼈 등 생선뼈가 출토되었다. 불로동93호분은 일(日)자형의 주부곽식 수혈식석곽묘로 부곽의 대호 안에서 상어뼈가 출토되었다.<sup>18</sup>

### 2. 임당 고총(고분)의 상어뼈 부장 양상

경산 임당유적은 넓은 압량벌과 금호강이 한눈에 들어오는 임당구릉 위에 생활 유적과 분묘 유적이 함께 조성된 대규모의 복합유적이다. 1980년대 초 발굴조사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의 발굴조사 결과, 도 3과 같이 다양한 생활 유적과 분묘 유적이 지점을 달리하여 분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토성의 남쪽에는 임당동고총군이, 동쪽 구릉의 북쪽에는 조영동고총군이, 그리고 그 동쪽에, 동북쪽으로 길게 뻗은 능선에는 부적리고총군이 축조되었는데 이번에 분석한 동물유존체는 대부분 임당동고총군과 조영동고총군에서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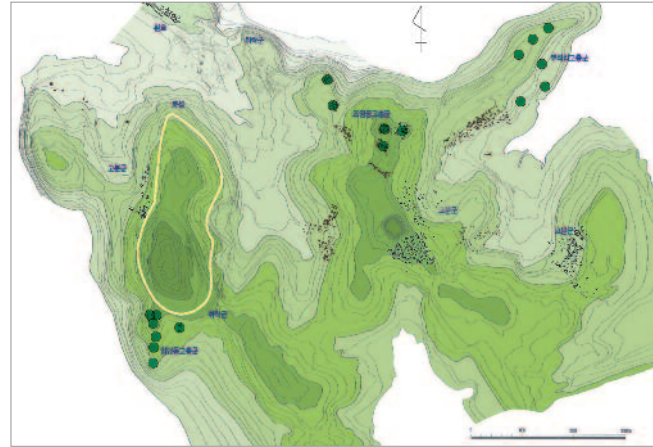
임당동고총군은 임당유적 내 서쪽 구릉에 위치한 토성의 바로 남쪽에 축조된 고총군으로

16. 국립대구박물관, 2015, 『상어, 그리고 돔배기』, 25~32쪽.

17.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94, 『황남대총(남분)』.

18. 임당유적에 대한 상세한 발굴 정보와 연구 성과는 영남대학교박물관, 2012, 『1982, 임당을 발굴하다』를 참고하기 바란다.

임당 1호분과 2호분, 5호분, 6호분, 7호분 등이 발굴조사되었다. 조영동고총군은 임당유적 내 중앙에 형성된 구릉의 북쪽에 형성된 고총군으로, 말단부에 있는 조영E I 호분, EII 호분, EIII 호분과 여기서 북서쪽으로 약 100m 정도 지점에 있는 조영C I 호분과 CII 호분 등이 발굴조사되었다.



도 3. 임당유적 유구 분포도(출처: 영남대학교박물관 2012)

고고 유적에서 발견된 동물유존체는 해당 유적이 조성된 시기에 이용된 동물의 종류 및 포획에 이용된 도구나 기술, 포획 계절, 동물의 처리 및 운반, 그리고 요리 방식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임당 고총(고분)에서 확인되는 동물유존체는 분묘 축조의 시기 또는 사자(死者)의 매장 시기 및 매장 과정과 추후 행해지는 제사와 관련한 많은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서 먼저 그동안 수습해 둔 동물유존체의 동정(同定)과 수량화(數量化), 계측(計測) 등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총 10개 목(目), 13개 과(科)에 해당하는 어류가 확인되었으며 이 중 상어류는 흉상어류, 악상어류, 돛발상어류 등이 확인되었다.<sup>19</sup>

표 1. 임당유적 출토 어류의 종류

어종 표기방식	종명	속	과	목
흉상어류	Carcharhinidae gen.	흉상어류	흉상어과 Carcharhinidae	흉상어목 Carcharhiniformes
흉상어류	Lamnidae gen.	흉상어류	악상어과 Lamnidae	악상어목 Lamniformes
흉상어류	Squalidae gen.	흉상어류	돛발상어과 Squalidae	돛발상어목 Squaliformes

19. 상어류의 경우 그 종이 상당히 다양하며 종에 따른 개체의 크기 및 서식지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종별 척추골의 크기나 척추골의 수에서 나타나는 변이도 상당하여, 개체별 척추골의 수가 100여점인 종부터 300여점을 넘는 종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고고 유적에서 출토되는 상어류의 척추골은 악상어류와 돛발상어류를 구분한 외로는 모두 흉상어류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척추골의 크기나 수에 근거하여 각 개체의 크기나 또는 개체 수를 추정하는 작업은 용이하지 않다. 이에 흉상어류와 악상어류, 돛발상어류의 동정 가능 표본 수를 제시하여 서로를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영남대학교박물관, 2018, 『영남대학교박물관 소장 경산 임당유적 출토 동물유존체 분석자료집』 II, 9-15쪽 참조).

360여 종에 달하는 상어류는 크게 신락상어목, 돛발상어목, 톱상어목, 전자리상어목, 팽이상어목, 수염상어목, 흉상어목, 악상어목 등 8개목으로 분류되며, 한반도 주변 해역에도 약 45종 가량 서식한다. 연골어류의 특성상 유적에서 수습되는 표본은 이빨이나 석회화 과정을 거친 척추골 정도로, 이에 돛발상어의 등지느러미 가시(背鰭棘)와 같이 종에 따른 특징적 부위가 추가된다. 척추골은 상어류 유존체 가운데 고고 자료로 가장 많이 출토되는 부분이다. 추체의 전체적인 형태와 추체 측면의 모양에 따라 악상어류(Lamnidae gen.)나 돛발상어류(Squalidae gen.)<sup>20</sup> 정도가 구분되며, 그 외에는 모두 상어류 또는 흉상어류(Carcharhinidae gen.)로 동정된다. 다양한 종류의 상어 가운데에서도 돛배기 재료로 선호되는 것은 흉상어목 귀상어과의 귀상어(Sphyrna zygaena), 흉상어목 흉상어과의 청새리상어(Prionace glauca), 악상어목 악상어과의 청상아리(Isurus oxyrinchus)와 악상어(Lamna ditropis) 등으로 알려져 있으며, 개인 또는 지역에 따른 맛, 크기, 색에 대한 선호가 확인된다.<sup>21</sup>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임당 고총 내에서는 어떠한 매장 양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최근 동물유존체 매장 양상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진행한 고총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사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 1) 조영EIII-2호<sup>2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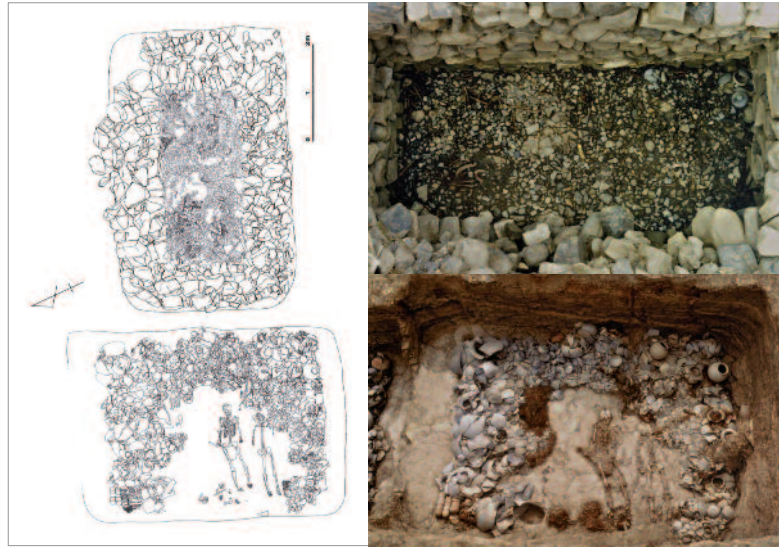
조영EIII호분은 조영EIII-2·3·4호분이 연결된 고총으로 조영EIII-2호는 이혈묘광창(昌)자형 주부곽식이며 주곽은 석곽묘, 부곽은 암광목곽묘로 축조되었다. 축조 시기는 5세기 1/4분기로 추정되며 주곽은 대부분 도굴되었으나 부곽은 도굴되지 않고 잘 보존되어 있었다. 주곽과 부곽에서 모두 어류 유존체가 수습되었으며, 주곽에서는 잉어와 넙치류, 복어류가, 부곽에서는 흉상어류, 잉어, 방어속, 넙치류, 복어속이 출토되었다. 패류도 주곽과 부곽에서 모두 확인되었다. 주곽에서는 두드럭고둥 등 9종의 패류가 확인되었으며 토기 안에서 출토된 경우도 있고, 바닥에서 수습된 경우도 있다. 부곽 출토 패류는 상태가 좋지 않아 동정이 불가능했다. 그 외에 부곽에서 복숭아(씨)가 확인되었다.

조영EIII-2호 부곽에서 확인된 흉상어류의 동정 가능 표본 수는 82개로 최소 개체 수는 7마리로 추정된다. 부곽에서는 흉상어류와 함께 잉어, 방어속, 넙치류, 복어류 등의 5종의 어류가 동정되었는데, 대부분 호와 같은 용기 내에서 출토되었으며 2종에서 많게는 4종의 어류를 하나의

20. 돛발상어류는 악상어목 돛발상어과의 상어류로, 수심 70~150m 정도의 깊은 바다에 주로 서식한다. 기름상어라고 불릴 정도로 온몸이 기름 덩어리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간에 기름이 많아, 조선 시대에는 등간 기름을 얻는데 이용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21. 영남대학교박물관, 2018, 『영남대학교박물관 소장 경산 임당유적 출토 동물유존체 분석자료집』 II, 9-15쪽.

22. 김은영, 2011, 「조영 EIII-2호 출토 어골에 대하여」, 『암독국의 왕 '干', 영원불멸을 꿈꾸다』, 경산시립박물관·한빛문화재단연구원, 192-204쪽; 김은영, 2014, 「III. 고찰 8. 조영 EIII-2호, EIII-3호 출토 어골에 대하여」, 『경산 임당지역 고분군X-조영EIII-3호분』, 영남대학교박물관, 126-132쪽; 김은영, 2014, 「III. 고찰 8. 조영 EIII호분 출토 어류 유존체에 대하여 - 조영EIII-4호 출토 어골 및 조영EIII-2호, 3호 출토 어골 추가분 분석 결과 보고를 중심으로-」, 『경산 임당지역 고분군XI-조영EIII-4호분』, 영남대학교박물관, 133-155쪽; 영남대학교박물관, 2018, 『영남대학교박물관 소장 경산 임당유적 출토 동물유존체 분석자료집』 II, 338-357쪽 참조.



도 4. 조영EIII-2호 도면 및 사진(위: 주곽, 아래: 부곽)

용기에 담은 양상이 확인된다. 그리고 부곽 내 순장자 주변에서 다수의 어류가 확인되었는데, 두부와 흉부, 하완부와 족부 등 위치를 달리하여 다른 종류의 어류를 놓았던 것으로 보인다.

먼저, 조영EIII-2호 부곽 중앙부에 매장된 순장자 인골(5번) 주변 즉 인골의 두부와 흉부 주변, 우측 하완골 주변부와 발치 등에서 흉상어류와 함께 잉어류, 방어속, 넙치류, 복어류 등 5종의 어류 84점이 출토되었다. 인골(5번)의 우측 아래쪽 팔뚝 주변과 발치에서는 흉상어과의 척추골이 각각 28점과 3점씩 확인되었다. 우측 하완골 주변에서 확인된 척추골의 크기는 지름 8~10mm의 소형부터 22mm의 대형까지 다양하며 발치에서 수습된 흉상어류 척추골은 모두 지름 8mm로 작은 편이다. 그 외에 우측 아래쪽 팔뚝 주변에서는 흉상어류 외에도 방어속과 넙치류의 척추골이 각각 3점과 8점씩 확인되고 있으며, 최소 개체 수는 각각 1마리로 산정되었다. 또한 인골(5번)의 두부와 흉부에서 복어가 집중적으로 발견되기도 하였다.

조영EIII-2호 부곽 남벽에 인접한 E2N1 그리드 내에 위치하는 76번 호<sup>23</sup>에서는 흉상어류와 잉어, 방어속과 복어류 등 4종의 어류가 동정되었는데, 담수어종인 잉어 1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해수어종이었다. 이 중 흉상어류는 모두 척추골로 동정되었으며, 21점으로 최소 개체 수는 1마리일 것으로 추측되었다. 그 외에 잉어는 19마리, 방어속 2마리, 복어류 1마리 등이 함께 부장되었다. 77번 호 내에서는 흉상어류의 척추골 1점과 함께 방어속 어류의 뼈가 70점 출토되었다. 방어속 어류의 최소 개체 수는 2마리로 산정된다.

조영EIII-2호 부곽 내 120번 단경호에서는 흉상어류와 잉어류가 확인되었다. 흉상어류 유존체는 6점 모두 척추골로, 추체 지름 계측 결과 모두 12mm 가량의 소형으로 확인된다. 잉어

23. 이하 부곽 내에서 출토된 76번, 77번, 120번, 125번, 126번 등은 발굴조사 도면상에 표기된 번호이며 이 유물의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다.

류는 좌측 설악골 1점과 척추골 7점이 수습되었으며, 설악골을 비롯한 출토 양상에 근거하여 최소 개체 수는 1마리로 산정된다. 125번 장경호에서는 20mm 이상의 흉상어류 척추 2점과 함께 종과 부위 모두 동정할 수 없는 어골 파편 4점이 확인되었다. 126번 단경호 내에서는 흉상어류와 방어속, 그리고 종을 동정할 수 없는 어류가 확인되었다. 흉상어류 유존체는 모두 척추골로 추체 지름 10~15mm 가량의 소형과 지름 25mm에서 28mm에 이르는 대형이 각각 10점씩 확인되었다. 그 외 방어속과 방골로 추정되는 어골 파편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122번 단경호 내부에서는 흉상어류 척추골 1점이 출토하였다. 계측 결과 추체 지름 20mm 가량의 대형 척추골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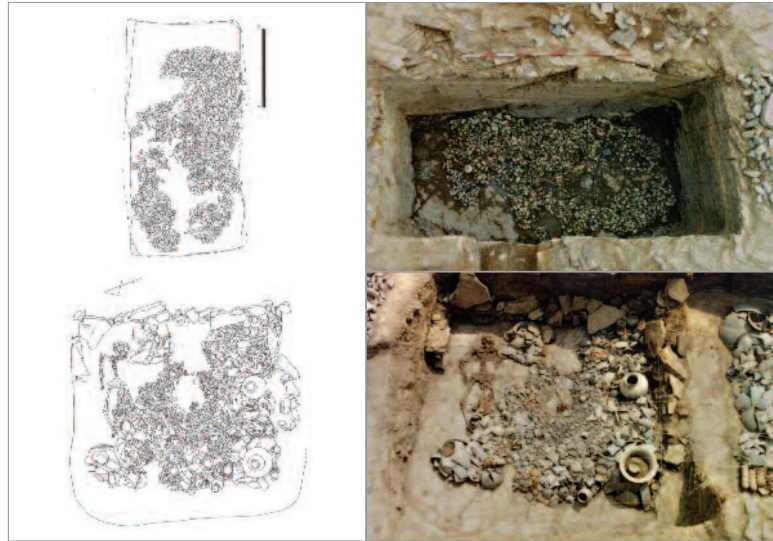
표 2. 조영EIII-2호 부곽 내부 어류 출토 양상

출토 위치	수량	흉상어류	잉어	방어속	넙치류	복어류	동정불가
인골(5번) 주변	동정 가능 표본 수	28/3	1	3	8	17/21	
	최소 개체 수	1	1	1	1	6	
76번 호	동정 가능 표본 수	21	515	6		0	
	최소 개체 수	1	19	2		1	
77번 호	동정 가능 표본 수	1		70			
	최소 개체 수	1		2			
120번 단경호	동정 가능 표본 수	6	8				
	최소 개체 수	1	1				
125번 장경호	동정 가능 표본 수	2					4
	최소 개체 수	1					-
126번 단경호	동정 가능 표본 수	20		1			1
	최소 개체 수	1		1			-

## 2) 조영EIII-3호<sup>24</sup>

조영EIII-3호는 이혈묘광 창(昌)자형 주부곽식으로 주곽과 부곽 모두 암광목곽묘로 축조되었으며 축조 시기는 5세기 2/4분기로 추정된다. 주곽은 대부분 도굴되었지만, 부곽은 도굴되지 않고 잘 보존되었다. 조영EIII-3호의 어류 유존체는 부곽에서만 확인되며, 흉상어류와 방어속으로 동정된다. 어류 유존체는 용기에 수습되었거나 부곽 내부의 그리드별로 이루어졌다. 용기 내에는 한 종의 어류를 담기도 하였으며 흉상어와 방어속을 같이 담기도 하였다. 패류는 부곽에서만 소량 출토되었는데 벌레뱀고둥과 피뿔고둥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중 벌레뱀고둥은 식용하지 않는 패류로 알려져 있다.

24. 김은영, 2013, 「III. 고찰 8. 조영 EIII-2호, EIII-3호 출토 어골에 대하여」, 『경산 임당지역 고분군X-조영EIII-3호분-』, 영남대학교박물관, 126-132쪽; 김은영, 2014, 「III. 고찰 8. 조영 EIII호분 출토 어류 유존체에 대하여 - 조영EIII-4호 출토 어골 및 조영EIII-2호, 3호 출토 어골 추가분 분석 결과 보고를 중심으로-」, 『경산 임당지역 고분군XI-조영EIII-4호분-』, 영남대학교박물관, 133-155쪽; 영남대학교박물관, 2018, 『영남대학교박물관 소장 경산 임당유적 출토 동물유존체 분석자료집』 II, 358-368쪽 참조.



도 5. 조영EIII-3호 도면 및 사진(위: 주곽, 아래: 부곽)

조영EIII-3호는 부곽에서만 어류 유존체가 수습되었는데 흉상어류와 방어속으로 동정되었다. 어류 유존체는 132번 장경호, 20번 고배, 그리고 E5N2 그리드 내 호에서 수습된 유존체 외에는 모두 발굴조사 당시 부여된 그리드별로 수습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출처가 확인된 132번 장경호, 20번 고배, 그리고 E5N2 그리드 내 호의 출토 양상을 먼저 살핀 다음 그리드별 출토 양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영EIII-3호 부곽 132번 장경호에서는 경골어류의 등지느러미(背鰭)를 이루는 뼈가 1점 수습되었으나 종별 특징이 뚜렷하지 않은 부위라 종 동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번 고배에서는 흉상어류의 척추골 1점이 확인되었는데, 추체의 지름은 28mm 가량으로 계측되었으며 상당히 큰 개체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부곽 내 E5N2 그리드 호 내에서는 흉상어류와 방어속 어류 유존체가 30점 수습되었다. 흉상어류는 모두 척추골로 추체 지름이 29mm 내외와 14~16mm 정도의 척추가 각각 1점씩 확인되었다. 그 외 방어속 어류가 28점이 확인되었는데 최소 개체 수는 3마리로 산정되며 상당히 큰 개체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발굴조사 당시의 조영EIII-3호 부곽 유물 출토 기록 및 실측도<sup>25</sup>를 통해 보면, E5N2 그리드 내에서는 5점의 유물(39 유대장경호, 43 개, 44 고배, 45 고배, 46 개 등)이 수습되었고 호는 유대장경호가 유일하다. 따라서 3마리분의 방어뼈와 상어 척추는 유대장경호(대부장경호)에 담겨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가 하면, 부곽 내 E1N3 그리드에서는 방어의 우측 설악골이 1점 확인되었다. 또 E1N1,

E2N0, E2N1, E3N1, E3N2 등 다수의 그리드에서 흉상어류의 척추골이 확인되었는데, 그 크기는 13~15mm의 소형부터 29mm에 이르는 대형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즉 E1N1 그리드에서는 추체 지름이 19~22mm 가량의 흉상어류 척추가 1점, E2N0 그리드에서는 추체 지름 27mm 전후의 흉상어류 척추골 2점과 14~22mm 정도의 흉상어류 척추골 4점이 출토되었다. E2N1 그리드에서는 총 52점의 흉상어류 척추골과 다수의 척추골 파편이 수습되었다. 이 척추골의 크기를 살펴보면 지름 13~15mm에 해당하는 소형부터 29mm에 이르는 대형까지 다양하며, 특정 크기에 치우치는 양상은 보이지 않는다. E3N1 그리드에서는 총 3점의 흉상어류 척추골이 확인되었는데, 지름 16mm의 척추가 1점, 20~25mm의 척추가 2점이다. E3N2에서는 추체 지름 16~18mm 가량의 흉상어류 척추골이 1점 확인되었다.

이렇듯 흉상어류 척추가 E2N1 그리드에 집중되어 있고 그 주변부에서는 1점에서 6점 정도의 소량만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상어류는 조영EIII-3호 부곽의 E2N1 그리드를 중심으로 놓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흉상어류 척추골이 출토되는 범위가 직경 1.5m 정도이며 척추골의 크기 역시 특정 크기에 집중되기보다 소형부터 대형까지 전반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으로 미루어 해당 지점에 대형의 상어 전체가 놓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흉상어류 유존체가 확인되는 그리드에서 깨진 토기편도 다수 확인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용기 안에 매납되었던 흉상어류의 유존체가 용기(특히 그리드 E2N1에 놓인 토기)의 파손으로 인해 밖으로 흘러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표 3. 조영EIII-3호 부곽 내부 어류 출토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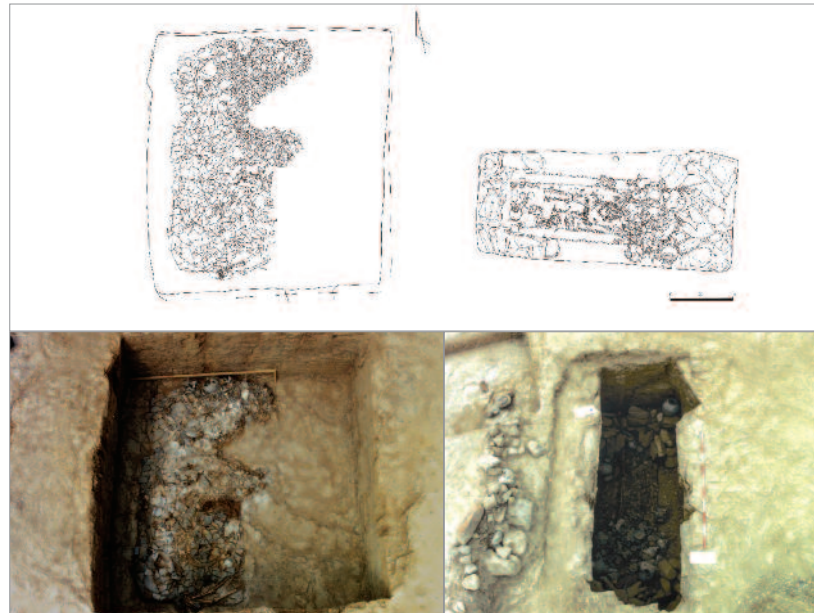
출토 위치	수량	흉상어류	방어속	비고
20번 고배	동정 가능 표본 수	1		
	최소 개체 수	1		
E5N2 그리드 내 호 (대부장경호)	동정 가능 표본 수	2	28	
	최소 개체 수	1	3	
E1N1 그리드	동정 가능 표본 수	1		
	최소 개체 수	-		
E1N3 그리드	동정 가능 표본 수		1	
	최소 개체 수		-	
E2N0 그리드	동정 가능 표본 수	6/2(파편)		
	최소 개체 수	-		
E2N1 그리드	동정 가능 표본 수	52		
	최소 개체 수	-		
E3N1 그리드	동정 가능 표본 수	3		
	최소 개체 수	-		
E3N2 그리드	동정 가능 표본 수	1		
	최소 개체 수	-		

25. 영남대학교박물관, 2013, 『경산 임당지역 고분군X-조영EIII-3호분』, 166-167쪽.



#### 4) 조영EII-2호<sup>26</sup>

조영EII-2호는 이혈묘광 창(昌)자형 주부곽식 암광목곽묘로, 그 축조 시기는 5세기 4/4 분기로 추정된다. 주곽은 도굴되지 않고 잘 보존되었으나, 부곽은 절반 정도 도굴되었다. 주곽 및 부곽에서는 흉상어류와 악상어류, 방어속, 넙치류, 복어류 등 총 5종의 해수어가 출토되었다. 출토 어골 중 상당량이 주곽 및 부곽 내에 부장된 고배나 호, 용 등의 용기에 담긴 상태로 수습되었다. 그 외에 주곽에서는 백합과 1종이 19번 대부분에 담긴 채 출토되었다.



도 6. 조영EII-2호 도면 및 사진(왼쪽: 부곽, 오른쪽: 주곽)

조영EII-2호 주곽 내 45번 단경호에서는 넙치류의 제1추골 1점이 동정되었는데, 최소 개체 수는 1마리로 산정된다. 2-1번 고배에서는 복어류 유존체가 2점 수습되었는데 이 고배에 최소한 한 마리의 복어류를 부장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주곽 내 출토지 미상으로 복어류의 우측 전상악골과 우측 치골이 각 1점씩 동정되었다.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앞에서 살펴본 2-1번 고배에 담겼던 복어류 가운데 일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최소 개체 수는 산정하지 않았다.

조영EII-2호 부곽 내 3번 용에서는 흉상어류 척추골 20점과 악상어류 척추골 20점이 수습되었다. 보존 상태가 양호한 척추골에 대한 계측 결과 추체 지름 20~25mm 가량의 대형 척추골로 확인된다.

부곽 7번 용에서는 134점의 어류 유존체가 출토되었다. 분석 결과 흉상어류와 악상어류, 방어속, 넙치류 등 4종의 어류가 동정되었다. 흉상어류 척추골은 총 100점이 수습되었으며 보존 상태가 양호한 추체 지름을 계측한 결과 8~10mm 내외의 소형 척추골과 15mm 내외의 중형, 20~24mm에 이르는 대형 척추골 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악상어류 척추골은 총 15점이 동정되었고, 계측 결과 추체 지름 20~25mm까지 상대적으로 큰 척추골로 확인되었다. 방어속 어류는 주상악골, 관절골이 각 1점씩 동정되었으며, 넙치류의 척추골 17점이 함께 확인되었다. 방어속 어류와 넙치류의 최소 개체 수는 각각 한 마리로 산정된다.

부곽 8번 용에서는 흉상어류 척추골이 6점 수습되었는데, 계측이 가능한 척추골의 지름을 측정한 결과 21~23mm로 확인되었다. 34번 단경호 내에서는 흉상어류와 넙치류 등 2종의 어류가 동정되었는데, 흉상어류 척추골은 총 22점 확인되었으며 보존 상태가 양호한 척추골의 지름을 계측한 결과 8~24mm에 이르는 다양한 크기가 확인되었다. 넙치류 유존체는 지느러미 부분의 의쇄골 1점과 함께 18점의 척추골이 확인되었으며 최소 개체 수는 1마리로 산정된다.

부곽 내 35번 호에서는 3점의 흉상어류 척추골이 출토되었으며, 추체 지름 20mm 가량의 크기로 계측되었다. 41번 단경호 내에서는 흉상어류와 방어속 등 2종의 어류가 수습되었다. 흉상어류 척추골은 1점 수습되었으며, 20mm 가량의 크기로 계측되었다. 방어속 어류는 좌측 전상악골과 주상악골의 파편 각 1점, 척추골 5점 등 총 7점이 동정되었다.

50번 단경호에서는 방어속 어류가 13점 수습되었는데 최소 개체 수는 2마리로, 52번 단경호에서도 방어속 척추골이 2점 수습되었으며 최소 개체 수는 1마리로 산정된다. 57번 단경호에서도 방어속 어류가 25점 수습되었는데, 최소 1마리를 부장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부곽 59번 단경호에서는 방어속 어류의 우측 치골이 1점 수습되었다. 60번 용에서는 흉상어류 척추골이 4점 출토되었는데, 보존 상태가 양호한 척추골 1점의 지름을 계측한 결과 10mm 가량의 작은 척추골로 확인되었다.

부곽 73번 장경호에서는 흉상어류 척추골 3점과 악상어류 척추골 3점이 출토되었다. 보존 상태가 양호한 흉상어류 척추골의 1점의 지름을 측정하여 30mm 가량으로 확인하였다. 85번 단경호에서는 흉상어류, 방어속, 넙치류 등 3종의 해수어가 확인되었다. 흉상어류 척추골은 파편 1점을 포함하여 총 44점이 동정되었으며, 추체 지름 계측 결과 10~25mm에 이르는 다양한 크기로 확인된다. 방어속 어류는 다양한 부위가 총 9점 출토되었으며 넙치류는 척추골 3점이 동정되었다. 방어속 어류의 최소 개체 수는 2마리, 넙치류는 1마리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부곽 내 출토지 미상에서는 흉상어류, 악상어류, 방어속, 넙치류 등 4종의 해수어가 확인되었다. 흉상어류 척추골은 총 109점 출토되었으며, 추체 지름 계측 결과 10~27mm 까지 다양한 크기로 확인되었다. 악상어류 척추골은 총 22점이 출토되었는데 악상어류의 추체 지름 역시 10~27mm까지 확인되지만 20mm 내외 또는 그 이상의 크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방어속

26. 김은영, 2016, 「7. 조영EII-2호 어류 부장 양상 검토」, 『경산 입당지역 고분군XIII-조영EII-2호분』, 영남대학교박물관, 398-412쪽; 영남대학교 박물관, 2018, 『영남대학교박물관 소장 경산 입당유적 출토 동물유존체 분석자료집』 II, 285-304쪽 참조.

6점과 넙치류 4점은 모두 척추골로 동정되었다. 부곽 내 출토 위치 미상에서 수습된 어류 유존체는 앞서 검토한 각종 용기 내에서 흘러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최소 개체 수를 산정하지는 않았다.

표 4. 조영EII-2호 주곽 및 부곽 내부 어류 출토 양상

출토 위치	수량	홍상어류	악상어류	방어속	넙치류	복어류	비고
주곽 45번 단경호	동정 가능 표본 수				1		
	최소 개체 수				1		
주곽 2-1 고배	동정 가능 표본 수					2	
	최소 개체 수					2	
주곽 내 출토지 미상	동정 가능 표본 수					2	
	최소 개체 수					-	
부곽 3번 웅	동정 가능 표본 수	20	20				
	최소 개체 수						
부곽 7번 웅	동정 가능 표본 수	100	15	2	17		
	최소 개체 수	1	1	1	1		
부곽 8번 웅	동정 가능 표본 수	6					
	최소 개체 수						
부곽 34번 단경호	동정 가능 표본 수	22			19		
	최소 개체 수	1			1		
부곽 35번 단경호	동정 가능 표본 수	3					
	최소 개체 수						
부곽 41번 단경호	동정 가능 표본 수	1		7			
	최소 개체 수	1		1			
부곽 50번 단경호	동정 가능 표본 수			13			
	최소 개체 수			2			
부곽 52번 단경호	동정 가능 표본 수			2			
	최소 개체 수			1			
부곽 57번 단경호	동정 가능 표본 수			25			
	최소 개체 수			1			
부곽 59번 단경호	동정 가능 표본 수			1			
	최소 개체 수			1			
부곽 60번 웅	동정 가능 표본 수	4					
	최소 개체 수						
부곽 73번 장경호	동정 가능 표본 수	3	3				
	최소 개체 수						
부곽 85번 단경호	동정 가능 표본 수	44		9	3		
	최소 개체 수	1		2	1		
부곽 출토지 미상	동정 가능 표본 수	109	22	6	4		
	최소 개체 수	-	-	-	-		

#### IV. 고대의 제사와 상어(돔배기) 부장

현재까지의 고고학 발굴 성과에 따르면, 삼국시대 신라 무덤 내부에 이 상어뼈가 출토되는 것으로 봐서 늦어도 신라지역의 왕 또는 최고 지배자의 장례나 국가 제사와 같은 의례에 돔배기를 사용하였던 것이 확인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증거를 경산 임당 고총<sup>27</sup>에서 더욱 잘 확인할 수 있다.

임당 고총은 4-6세기 동안 경산지역에 기반을 둔 정치 집단이 만든 거대한 기념물로 특정 개인을 매우 강조하는 무덤이며 사회적 계층을 의도적으로 드러낸 행위이다. 또한 상당한 양의 인력과 물자가 동원되어야 하는 일종의 토목 공사로 당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우위를 차지한 개인의 정치적 산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고총 축조 과정에서 수십 또는 수백 마리의 동물이 희생되거나 부장되면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고대의 제사와 상어(돔배기) 부장의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 1. 부장품으로서의 돔배기

현재까지 임당 고총에서는 수많은 개체의 동물유존체가 확인되었다.<sup>28</sup> 표 5는 임당 고총에서 출토된 동물유존체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표 5. 임당 고총 동물유존체 출토 현황<sup>29</sup>

편년	종류		포유류	조류	어류	패류	기타
	유구명						
5세기 1/4 분기	조CII-2	주	돼지(1), 사슴 족(1)		넙치류(1)		
		부	돼지(1), 사슴 족(1)	돼지(1), 사슴 족(1)	홍상어류(1), 잉어(8), 농어(2), 방어속(1), 참돔(1), 복어류(10)		복숭아 (1)
	조CII-1	부		꿩 족(5)	홍상어류(1), 악상어류(1), 방어속(2), 참돔(1)		
	조EIII-2	주		꿩 족(1)	잉어(1), 넙치류(2), 복어류(12)	전복과(1), 흰삿갓조개과(1), 밤고둥 (1), 멍사리(15), 두드럭고둥(135), 피뿔고둥(1), 좁쌀무늬고둥과(1), 큰집가리비과(1), 백합과(2)	

27. 임당유적에서 출토된 동물유존체는 2만여 점으로 단일 유적에서는 그 출토량이 단연 국내 최대이다. 이 유적이 조성된 구동은 대부분 청석 암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무덤은 대부분 이 청석암반을 굴착하여 축조하였다. 암반을 굴착하여 무덤을 축조하다 보니 무덤 내부는 항상 물에 잠겨있게 되었고, 이러한 지형적 조건으로 인해 피장자들의 뼈나 동물유존체, 식물의 씨앗과 같은 유기물이 다른 유적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잔존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8. 2017~2018년 보고 자료에 따르면 조류가 7,024점(최소 개체 수 607마리), 어류 5,837점(최소 개체 수 373마리), 패류 5,710점(최소 5,393개체), 포유류 1,159점(최소 개체 수 69마리) 등이다(고은별, 2020, 「한국 고대 동물회생의례의 특징-삼국시대 신라 분묘유적을 중심으로-」, 『해부·생물인류학』 제33권 제2호, 대한체질인류학회, 69-77쪽).

29. 동물유존체에 대한 동정과 분석은 서울대학교 동물고고학연구소(책임자: 이준정 교수, 연구원: 고은별·김은영)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상세한 연구 성과는 『영남대학교박물관 소장 경산 임당유적 출토 동물유존체 분석자료집』 I·II·(2017·2018)을 참고하기 바란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포유류는 소나 말, 돼지, 멧돼지, 개, 사슴, 토끼 등이, 조류는 꿩, 오리, 기러기, 고니, 두루미, 느시 등이 확인되었다. 어류로는 흉상어류와 악상어류, 돛발상어류 외에 농어, 방어, 감성돔, 참돔, 도미류, 복어류, 넙치류, 쏨뱅이, 고등어 등이 확인되었으며 민물어류인 잉어도 다수 부장되었다. 패류도 흰쌀조개, 밤고동, 방석고동, 구멍밤고동, 보말고동, 주름다슬기, 맵사리, 두드럭고동, 피빨고동, 좁쌀무늬고동, 대수리, 물레고동, 홍합, 전복, 큰집가리비, 백합 등 다양한 종류가 확인되었다.

분묘에서의 동물 희생의례는 그 동물 유존체의 출토 위치에 따라 동물 부장과 동물 희생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30</sup> 동물의 부장은 분묘 내부 즉 주곽과 부곽 내에 부장 용기에 담겨 부장되는 경우를 말한다. 부장 용기는 고배나 단경호, 장경호 등 각종 토기가 사용될 수도 있지만 직물이나 대소쿠리 등 유기물이 사용될 수도 있다.



도 7. 제기(고배)에 담긴 상어뼈(조영1A-11호)

동물 희생은 분묘 외부 즉 무덤의 뚜껑들 위나 봉토 내부, 봉토 주변에서 확인되는 것이 해당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임당2호 북분의 개석 위에 순장된 개 4마리와 토끼 2마리가 함께 매장된 경우이다. 이는 북분의 개석을 덮고 밀봉한 후 이뤄진 제의행위의 희생물로 보인다.

임당 고총 내에서 출토된 상어의 경우 동물 희생보다는 대부분 주피장자의 사후 세계를 위한 동물 부장의 양상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상어는 무덤에 어떤 방식으로 부장되었을까?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대체로 두 가지 경향(pattern)이 간취된다.

첫 번째는 토기 내에 담겨진 채로 부장되는 경우이다. 이때 사용되는 토기는 주로 고배나 장경호와 같은 제사토기이거나 단경호와 같은 저장용 토기이다. 제사토기에 담겨진 채 부장된 경우 그 표본 수가 적어 돛배기 형태로 제기에 담긴 채 제사를 지낸 이후 무덤 내에 부장하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단경호와 같은 저장용 토기에 부장된 경우 몇 점에서부터 수십 점까지 부장되는 것으로 보아 저장된 상태의 상어를 용기 채로 부장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사후 세계의 식료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토기 내에 저장한 채 부장하였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조영EIII-3호 부곽의 경우처럼 특정 용기에 담기지 않고 바닥이나 용기 바깥에서 확인된 사례가 많다. 이는 단경호나 장경호와 같은 용기 안에 부장되었던 것이 토기가 파손되면서 일어난 현상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조영E I-1호 부곽이나 조영CII-1호

30. 고은별, 2020, 『한국 고대 동물희생의례의 특징-삼국시대 신라 분묘유적을 중심으로-』, 『해부·생물인류학』 제33권 제2호, 대한체질인류학회, 69-77쪽.

부곽의 발굴 상황을 보면 추체가 가지런한 상태로 길게 남아있고 주변 공간에는 특별한 용기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목기나 대바구니와 같은 비교적 큰 유기물 용기에 담겼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경우는 무덤 주피장자의 사후 생활을 위한 식재료를 그대로 부장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 상당히 많은 양의 상어뼈가 출토되기도 한다.



도 8. 돛배기의 출토 양상(좌: 조영CII-1호 부곽, 우: 조영E I-1호 부곽)

그렇다면 이 상어는 손질이 된 채 부장된 것일까?<sup>31</sup> 먼저 임당유적에서 조류의 출토 양상과 비교해 보면 임당유적에서 많이 출토되는 꿩의 경우 부척골 이하 부위, 즉 ‘발’에 해당하는 부위가 출토되지 않는 경향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머리와 장골 이하 부위, 즉 날개 끝도 대개의 경우 제거된 채 부장된다. 이러한 원칙은 임당 유적 내 모든 분묘에서 예외없이 강하게 고수되는데 이는 조류를 식용할 때의 해체 방식이 의례적 도살과 해체에 그대로 적용된 결과로 추정된다. 즉 이러한 부위별 출토 양상을 보면 동물부장은 음식의 형태였을 가능성이 크다.<sup>32</sup>

상어류는 연골어류라는 특성상 주로 석회화된 상태의 척추골이 유적에서 확인되지만 에나멜질로 뒤덮인 이빨의 수량이 상당히 많으며 잔존도뿐만 아니라 유적 내 가시도 역시 상당히 높다. 즉 흉상어류 한 개체가 그대로 놓였다면 상어류의 척추골만큼이나 다량의 이빨이 확인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조영E I-1호 부곽이나 조영CII-1호 부곽, 최근에 조사된 임당1호분에서도 상어의 이빨은 전혀 출토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고분에 부장된 상어는 모두 손질된 상태 즉 ‘돛배기’였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

2015년 국립대구박물관에서 개최한 특별전 ‘상어, 그리고 돛배기’에 출품한 조영E I-1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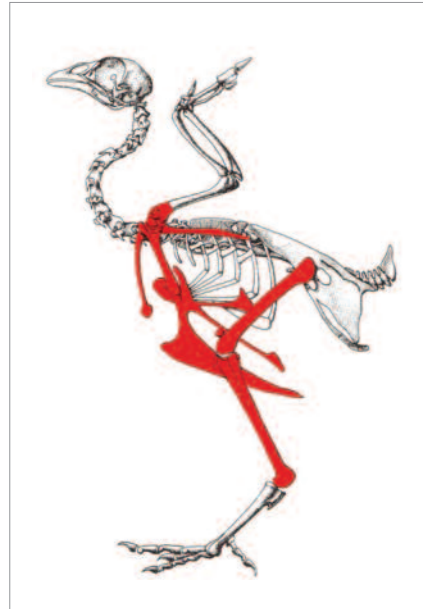
31. 일반적으로 동물고고학 연구자들은 분묘유적에서 조류가 출토될 때 한 개체가 온전히 묻혔다면 희생 제물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머리, 내장, 발이 제거되었다면 음식의 성격으로 부장된 것으로 이해한다. Serjeantson D. 2009. Birds, Cambridge Manuals in Archae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340-8(고은별, 2020, 『한국 고대 동물희생의례의 특징-삼국시대 신라 분묘유적을 중심으로-』, 『해부·생물인류학』 제33권 제2호, 대한체질인류학회 재인용).

32. 하지만 고분 내 모든 동물이 음식물로 부장되었다고 하기에는 아직 그 근거가 충분치 않다. 왜냐하면 한 토기 안에 복수의 조류, 어류, 패류가 함께 담긴 경우가 많고, 패류의 경우 사람이 식용할 수 없는 너무 작은 크기의 개체가 포함되어 있거나 혹은 식용하지 않는 종류의 패류가 섞여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장 토기에 담긴 내용물이 개념상 ‘음식’이었을지는 몰라도 산 자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식재료를 담아 저장한 형태에 가까웠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고은별, 2020, 『한국 고대 동물희생의례의 특징-삼국시대 신라 분묘유적을 중심으로-』, 『해부·생물인류학』 제33권 제2호, 대한체질인류학회, 69-7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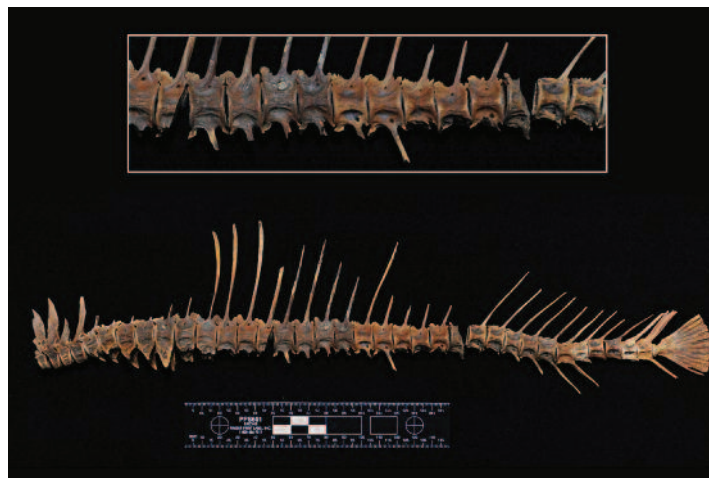
상어뼈 중 일부 구간마다 칼자국이 남아있어 적당한 크기로 손질되었을 가능성을 더하였다. 이와 비교되는 자료로 조영EIII-4호 70번 단경호에서 출토된 넙치의 척추뼈에 칼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어 세 등분으로 잘려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sup>33</sup>

또 하나 주목할 것은 같은 고분 내에 함께 부장되는 어종과 한 용기 내에 함께 부장되는 어종을 추적해 보는 것이다. 이를 상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상어는 주곽과 부곽에 다 부장되지만 대부분의 고총에서 부곽에 그 부장량이 훨씬 많이 확인된다. 하지만 조영EII-3호의 경우 주곽에는 흉상어류, 잉어류, 방어속, 도미류, 넙치류, 복어류 등이, 부곽에는 흉상어류, 악상어류, 잉어류, 방어속, 넙치류, 복어류 등이 부장된다. 조영EII-3호의 주곽도 도굴이 심한 상태임을 감안한다면 주곽에도 적지 않은 양의 어류가 부장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주곽은 도굴로 인한 유구의 훼손으로 인해 그 부장량이 적을 뿐 당시 매장 상황에서 부곽에 못지않은 상당한 양의 어류가 매장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도 9. 썩은 고추의 출토 부위(출처: 고은별, 2017)



도 10. 제기(고배)에 담긴 상어뼈(조영1A-11호)

33. 김은영, 2020, 「임당 1호분 출토 어류 유존체 분석 보고」, 『경산 임당1호분-고찰 및 부록』, 한빛문화재단연구원, 171-200쪽.  
 34. 국립대구박물관, 2015, 『상어, 그리고 돔배기』, 49-55쪽.  
 35. 김은영, 2014, 「7. 조영EIII호분 출토 어류유존체에 대하여」, 『경산 임당지역 고분군 XI-조영EIII-4호분』, 영남대학교박물관, 133-155쪽.

임당 고총의 경우 주곽과 부곽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곽의 주검칸에는 복식품과 피장자의 신분을 알려주는 유물이, 주곽의 부장칸에는 의례적 성격이 강한 공헌유물이 부장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부곽에는 사후생활에 사용할 각종의 용기와 음식을 부장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후 생활유물의 성격이 강하다.<sup>36</sup> 따라서 주곽에 주로 부장되는 소형용기, 특히 고배류에 담긴 어류는 특정 부위를 적당한 크기로 다듬어 용기에 올린 제사음식으로<sup>37</sup>, 부곽에 부장되는 호류에는 사후 피장자의 음식으로 다소 큰 용기에 넣어 부장되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조영EIII-2호 부곽의 사례를 통해 볼 때, 흉상어류와 잉어(120번 단경호), 흉상어류와 방어(77번 호 및 126번 단경호), 또는 이 셋이 함께 부장(76번 호)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조영EII-2호 부곽의 경우에는 흉상어류와 악상어류, 방어속과 넙치류가 다 함께 부장(7번 용)되거나 흉상어류 방어속, 넙치류(85번 단경호)가 부장되기도 하며 흉상어류와 넙치류(34번 단경호), 흉상어류와 방어속(41번 단경호) 등이 함께 부장된다. 심지어 조영EII-2호와 3호, 조영EIII-2호와 3호의 경우를 보면 각종 어류뿐만 아니라 썩은 비릿한 기러기속, 오리속, 느시과, 두루미과 등 각종 조류와 함께 한 용기에 부장되기도 한다.<sup>38</sup>

따라서 이러한 어류 및 조류의 출토량과 종류, 각 개체의 크기, 부장 용기를 고려한다면 무덤 특히 부곽에 부장되는 호나 용 안에는 내장을 제거하여 먹을 수 있는 상태 정도로만 손질한 어류나 조류 등을 가득 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동물유존체 간의 조합이 원 생산지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부장 상황에서 진행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어류 중 민물고기인 잉어 뿐만 아니라 조류가 함께 부장된다는 것은 무덤 축조 진행과정에서 이 음식들을 혼합하여 부장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 2. 돔배기의 생산과 저장, 그리고 유통

이상에서 보듯이 임당 고총에서 확인된 어류는 어류로는 흉상어류와 악상어류, 돔배상어과 외에 농어, 방어속, 감성돔, 참돔, 도미류, 복어류, 넙치류, 썩배이속, 고등어속 등이 다양하게 확인되었다. 또한 패류도 흰살조개과를 비롯해 밤고등과, 방석고등, 구멍밤고등, 보말고등, 주름다슬기, 맵사리, 두드럭고등, 피뿔고등, 썩쌀무늬고등과, 대수리, 물레고등과, 홍합과, 전복과, 큰집가리비과, 백합과 등 다양한 종류가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패류들은

36. 김용성, 2008, 「경산 임당고총의 장제」, 『한국 고대사 속의 경산』, 경산시·대구사학회, 163-168쪽 ; 김대욱, 2014, 「임당 고총의 축조와 그 장제」, 영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84-86쪽.  
 37. 임당유적에서는 조영EIII-3호 부곽 20번 고배, 조영EII-2호 주곽 2-1번 고배, 조영1A-11호 고배 등에서 확인된다. 뿐만 아니라 인근의 대동 57-1번지 유적(진흥문화재단연구원 2017), 고령 지산동 44호·45호(고령군 1979), 대구 불로동 91호분(경상북도문화재단연구원 2001) 등 다수의 유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은영, 2017, 「임당유적 고분에서의 조류 대 어류 부장 양상」, 『한국 고대사회의 의례 속의 동물』, 한국고고학회 자유패널발표, 172-185쪽).  
 38. 김은영, 2017, 「임당유적 고분에서의 조류 대 어류 부장 양상」, 『한국 고대사회의 의례 속의 동물』, 한국고고학회 자유패널발표, 172-185쪽.

언제, 어디에서 생산·저장되어 이곳 경산까지 이동하여 왔을까?

『동국여지승람』에는 지역별 특산물로서 바닷고기가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 따르면 입당 유적에서 출토되는 상어, 방어 등은 동해안 남부지역과 남해안 동부지역에서 주로 생산된다. 그 외에 참돔이나 복어 등도 주로 동해안과 남해안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보인다. 고등은 동해안의 바위에 기생하는 것들이 많고, 조개류는 남해안의 모래 속에 주로 사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경산지역으로 유통된 어패류는 대부분 동해안과 남해안에서 잡히거나 채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중 어류는 어기(漁期)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상어는 주로 봄과 가을에 포획하여 등을 갈라 그대로 말리거나 염장을 하여 내륙에 판매된다고 한다. 그리고, 방어는 11월과 2월 사이, 넙치는 가을부터 익년 2월경, 복어 역시 늦가을부터 초봄까지 주로 잡힌다고 한다.<sup>39</sup> 하지만 비교적 서늘한 계절에 어류를 포획했다고 해도 해안에서 이곳 경산까지의 거리와 당시의 운송 수단을 고려하면 어류의 부패를 막기 위한 상당한 저장 장치가 필요했을 것이다. 조선시대 말기 까지도 얼음보다 소금을 많이 이용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에 도 비슷한 상황이었을 것이다. 즉, 바다에서 포획되거나 채집된 어류나 패류는 저장용 토기에 담겨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상하지 않도록 염장된 채 운송되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다만, 이렇듯 많은 양의 어패류를 해안에서 확보하고 염장하여 이곳까지 운송하는 데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었을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당시 입당지역 최고 지배자들이 이러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 부와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하겠다.

현재까지 어류와 패류의 유통에 관한 고고학적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동해안 또는 남해안에서 생산된 어패류를 이동하는 데에 장기간이 소요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저장용 토기인 단경호나 직구호, 장경호 등에 담아 이동하였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고고 유물 중 저장용 토기는 단경호, 장경호, 대부장경호, 대부호 등이 대표적인데 이들은 저장물의 내용이나 용도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예를 들어, 단경호나 장경호, 직구호 등은 저장하는 내용물이 빛에 노출되어도 무방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를 따져 목의 길이나 형태를 다르게 하여 저장하였을 것이다. 또 액체를 담은 채 이동을 많이 해야 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사용하였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바닥에 대각이 부착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들 중 대각이 부착된 경우는 토기 그 자체로 바닥에 들 수 있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짚이나 갈대 등의 어떠한 보조물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땅바닥에 일부

혹은 전부를 묻어서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저장용 토기에는 그 내용물을 보호하기 위해 뚜껑이 많이 사용하였을 것인데, 토기로 제작된 뚜껑은 현재까지 잘 남아있으나 나무나 짚, 갈대, 가죽 등의 유기물로 사용된 것들은 대부분 남아 있지 않았다. 하지만 많은 수의 저장용 토기류에는 유기물로 제작된 뚜껑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외에 대호는 한 번에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었으나 동시에 이동이 불편하므로 한곳에 고정하여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동해나 남해 바닷가에서 잡아 올린 상어를 비롯한 바다 음식들을 이곳 경북 내륙까지 어떻게 이동하였을까? 이는 영남지역의 산지와 하천, 그리고 고지도 분석을 근거로 선사시대 및 진·변한의 교통로를 추정할 수 있는데 남해안→김해→낙동강→금호강을 경유하여 경산으로 들어오는 낙동강로와 울산→경주→영천→자인을 거쳐 경산으로 들어오는 통로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즉 포항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에서 생산된 것이 경주와 영천을 통해 경산으로 유입되었을 것이라는 ‘동해안-육로’ 교통로와 김해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에서 생산된 것이 낙동강을 따라 대구를 통해 유입되었을 것이라는 ‘남해안-수로’ 교통로로 상정할 수 있다.<sup>40</sup> 하지만 이러한 어패류의 생산과 유통 경로는 각 어패류에 대한 구체적인 수종 분석이나 원산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더욱 정확한 추정이 가능할 것이다.

### 3. 민속학에서 본 돔배기 제사권

현대 한국인들이 상어고기를 어떤 지역에서 먹는 지에 대해서는 민속학자의 현지조사와 탐문조사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sup>41</sup> 도 11에서 확인되듯이 현대 한국 사회에서 상어고기를 먹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뚜렷이 구분된다. 대표적인 상어고기 식용권이 경북지역이다. 그리고 경남 남해안 지역, 경북과 접한 강원 남부의 동해안 일부 지역, 전남 서남해안 지역과 제주도 등을 상어고기 식용권으로 설정할 수 있다. 반면 상어를 먹지 않는 지역은 서울과 인천, 대전, 광주, 경기 안성, 강원 춘천, 강릉, 전남 순천, 전북 임실, 순창, 정읍, 경남 진주, 함안 등이다.



도 11. 상어고기 식용지역 분포도 (출처: 배영동, 2015)

39. 최근 경주 서봉총 남분의 대호 안에서 확인된 패류는 산란기 때 독소를 가지고 있어 식용하지 않고 또 청어와 방어의 회유시기를 고려해 가을철에 포획한 것으로 보였다. 또한 패류가 쉽게 부패하는 점을 감안하면 신선한 상태에서 제수음식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김진수, 2020, 「부록2. 경주 서봉총 출토 동물유체 고찰」, 『경주 서봉총II(제발굴 보고)』, 국립중앙박물관, 212-237쪽). 이를 근거로 무덤의 축조 시기와 음식물 공헌 제사 계절을 추정하였는데, 향후 입당 고총에 부장된 어패류의 산란 시기와 포획 시기를 분석한다면 무덤의 축조 계절을 추정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40. 김세기, 2008, 「고대 경산의 교통과 교역」, 『한국 고대사 속의 경산』, 경산시·대구사학회, 207-237쪽.  
41. 한 지역 안에서도 상어고기를 식용하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 제물로 쓰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가정이 혼재하며 일부 지역의 한 가정에 서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상어고기를 식용 또는 제물로 쓰는 현상이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조사자는 개략적인 조사라고 하였다. 하지만 현대 사회의 상어고기 식용에 관한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상어의 식용권과 비식용권의 형성 요인을 민속학자는 자연환경에 두었다. 즉 상어는 심해어류이므로 전통적 연근해 어업으로 잡을 수 있는 곳이 동해와 남해이다. 따라서 동해안과 남해안 지역에서는 상어고기를 쉽게 접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소비량이 많아지고 선호도가 높아진 반면 서해안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상어고기를 제물로 쓰는 경향<sup>42</sup>에 대해서도 정리하였는데(표 6 참조), 중요 제물로 사용하는 곳이 경주, 포항, 영천, 경산, 안동, 영덕, 울진 등이다. 즉 상어고기 식용권의 중심지가 경북에서도 동해안과 그에 접한 경북의 중동부지역이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도 상어고기를 일상적으로 먹는다는 곳은 드물고 귀한 음식 또는 비싼 음식으로 인식되어 있어 제사상이나 잔치상에 오르는 의례 음식으로 인정되고 있다.<sup>43</sup>

표 6. 상어고기 식용권과 제물과 쓰는 경향(출처: 배영동, 2015)

구분		다수의 가정	소수의 가정 (영반가, 부잣집)
상어 식용	중요제물	경북(안동, 영천, 경산, 경주, 포항, 영덕, 울진, 청도, 영주, 봉화, 예천, 의성, 영양, 청송), 대구, 강원(삼척), 전남(영암, 목포, 신안, 진도), 제주(서귀포)	경북(상주, 김천), 전남(해남)
	선택적 제물	부산, 울산, 경남(밀양), 전남(여수), 전북(고창)	경남(하동, 통영, 고성)
상어 비식용		서울, 인천, 대전, 광주, 경기 내륙(안성), 강원 영서(춘천), 강릉 영동(강릉), 전남북 내륙(순천, 임실, 순창, 정읍), 경남 내륙(진주, 함안)	

이상의 내용을 보면 삼국시대 신라 영역 중 상어유존체가 출토되는 곳은 모두 현재에도 상어를 중요 제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경산 임당유적, 경주 황남대총과 교동 274번지 유적, 대구 불로동고분군 등은 지금도 돛배기를 중요 제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돛배기라는 음식은 고대 신라 사람들의 제사나 장례 또는 국가 의례에 사용하기 시작해서 현재도 신라 영역의 제사음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아주 특별한 경우라고 판단된다.

## V. 맺음말

이상으로 상어 유존체에 관한 고고학적 성과를 정리하면서 발굴 현장에서 출토된 상어뼈가 돛배기라는 음식이며 이는 고대 신라로부터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전통 제사음식이라는

점을 설명하였다.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필자는 본고를 통해 임당유적에서 확인되는 동물유존체 중 상어뼈의 부장양상과 그 부장 의미를 확인하고 현대 사회의 상어고기 식용권에 관한 민속학의 견해와 비교하여 이 돛배기라는 음식이 고대로부터 이 지역의 귀한 제사음식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임당 고층의 발굴에서 상어뼈가 다량으로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늦어도 신라지역의 왕 또는 최고지배자의 장례나 국가 제사와 같은 의례에 돛배기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임당 고층에서 출토된 상어는 대부분 주피장자의 사후 세계를 위한 동물 부장으로 판단되며 토기 내에 담겨진 채로 부장되거나 목기나 대바구니와 같은 비교적 큰 유기물 용기에 담겼던 것으로 확인된다. 고층 내에 부장된 상어는 손질된 상태 즉 ‘돛배기’였을 가능성이 크다.

주곽에 주로 부장되는 고배류의 경우에는 어류의 특정 부위를 적당한 크기로 다듬어 그 용기에 담고, 부곽에 부장되는 호류 등에는 사후 피장자의 음식으로 다소 큰 용기에 넣어 부장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부곽에 부장되는 호나 용 안에는 내장을 제거하여 먹을 수 있는 상태로 손질한 어류나 조류 등을 가득 담아 부장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임당유적에서 출토되는 상어, 방어 등은 동해안 남부지역과 남해안 동부지역에서 주로 생산되었으며 이렇게 바다에서 포획되거나 채집된 어류나 패류는 저장용 토기(단경호나 직구호, 장경호 등)에 담겨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상하지 않도록 염장된 채 운송되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대 한국인들의 대표적인 상어고기 식용권이 경북지역인데, 삼국시대 신라 영역 중 상어유존체가 출토되는 곳은 현재 상어를 중요 제물로 사용하는 곳으로 확인되었다. 즉 경산, 경주, 대구 등은 현재도 돛배기를 중요 제물로 사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돛배기라는 음식은 고대 신라 사람들의 제사나 장례 또는 국가 의례에 사용하기 시작해서 현재도 신라 영역의 제사음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아주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42. 중요 제물이라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만큼 비중있는 제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테면 “상어 없으면 제사를 못 지낸다”고 하는 지역을 말한다. 선택적 제물이라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제물로 올려도 좋고 안 올려도 괜찮다고 인식하는 경우이다(배영동, 2015, 『한국인의 상어고기 먹는 문화』, 『상어, 그리고 돛배기』, 국립대구박물관).

43. 이상 배영동, 2015, 『한국인의 상어고기 먹는 문화』, 『상어, 그리고 돛배기』, 국립대구박물관, 170-177쪽의 글을 참고하였다.

## 참고문헌

경산시립박물관 · 한빛문화재단연구원, 2011, 『압독국의 왕 ‘구’, 영원불멸을 꿈꾸다』.

경상북도문화재단연구원, 2001, 『대구 불로동고분군 발굴조사보고서-91·93호분』, 98~125쪽.

고은별, 2017, 「발 없는 70마리의 새: 임당 고총고분 조류 부장의 원칙과 그 의미」, 『한국 고대사회 의례 속의 동물』, 한국고고학회, 186~196쪽.

고은별, 2020, 「한국 고대 동물희생의례의 특징-삼국시대 신라 분묘유적을 중심으로-」, 『해부·생물인류학』제33권제2호, 대한체질인류학회, 69~77쪽.

국립경주박물관, 2011, 『우물에 빠진 통일신라 동물들』(특별전 도록).

국립대구박물관, 2015, 『상어, 그리고 돛배기』(특별전 도록).

국립해양문화재단연구소, 2012, 『태안 마도 3호선 발굴조사보고서』.

김건수, 2020, 「부록2. 경주 서봉총 출토 동물유체 고찰」, 『경주 서봉총Ⅱ(재발굴 보고)』, 국립중앙박물관, 212~237쪽.

김대욱, 2014, 「경산 임당 고총의 축조와 그 장제」, 영남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학위논문.

김대욱, 2015, 「Column 2. 아주 오래된 제사음식, 돛배기」, 『상어, 그리고 돛배기』, 국립대구박물관, 66~73쪽.

김세기, 2008, 「고대 경산의 교통과 교역」, 『한국 고대사 속의 경산』, 경산시·대구사학회, 207~237쪽.

김용성, 2008, 「경산 임당고총의 장제」, 『한국 고대사 속의 경산』, 경산시·대구사학회, 163~168쪽.

김은영, 2011, 「조영 EIII-2호 출토 어골에 대하여」, 『압독국의 왕 ‘구’, 영원불멸을 꿈꾸다』, 경산시립박물관 · 한빛문화재단연구원, 192~204쪽.

김은영, 2013, 「Ⅲ. 고찰 8. 조영 EIII-2호, EIII-3호 출토 어골에 대하여」, 『경산 임당지역 고분군X-조영EIII-3호분-』, 영남대학교 박물관, 126~132쪽.

김은영, 2014, 「Ⅲ. 고찰 8. 조영 EIII호분 출토 어류 유존체에 대하여」, 『경산 임당지역 고분군XI-조영EIII-4호분-』, 영남대학교 박물관, 133~155쪽.

김은영, 2016, 「7. 조영EII-2호 어류 부장 양상 검토」, 『경산 임당지역 고분군XIII-조영EII-2호분-』, 영남대학교박물관, 398~412쪽.

김은영, 2017, 「임당유적 고분에서의 조류 대 어류 부장 양상」, 『한국 고대사회 의례 속의 동물』, 한국고고학회, 172~185쪽.

김은영, 2020, 「임당 1호분 출토 어류 유존체 분석 보고」, 『경산 임당1호분-고찰 및 부록-』, 한빛문화재단연구원, 171~200쪽.

김재홍, 2015, 「상어, 그리고 돛배기의 고고학」, 『상어, 그리고 돛배기』(특별전 도록), 국립대구박물관, 146~155쪽.

문화재관리국 문화재단연구소, 1994, 『황남대총(남분)』.

배영동, 2015, 「한국인의 상어고기 먹는 문화」, 『상어, 그리고 돛배기』, 국립대구박물관, 170~177쪽.

영남대학교박물관, 2012, 『1982, 임당을 발굴하다』.

영남대학교박물관, 2012, 『경산 임당지역 고분군IX-조영EIII-2호분-』.

영남대학교박물관, 2013, 『영남대학교박물관 소장 경산 임당유적 출토 인골연구자료집』.

영남대학교박물관, 2013, 『경산 임당지역 고분군X-조영EIII-3호분-』.

영남대학교박물관, 2014, 『경산 임당지역 고분군XI-조영EIII-4호분-』.

영남대학교박물관, 2016, 『경산 임당지역 고분군XIII-조영EII-2호분-』.

영남대학교박물관, 2017, 『영남대학교박물관 소장 경산 임당유적 출토 동물유존체 분석자료집 I -포유류·조류-』.

영남대학교박물관, 2018, 『영남대학교박물관 소장 경산 임당유적 출토 동물유존체 분석자료집 II-어류·패류-』.

영남대학교박물관, 2019, 『영남대학교박물관 소장 경산 임당유적 고인골』.

영남대학교박물관, 2019, 『고대 인골 연구와 압독국 사람들』, 압독국 문화유산 연구·활용 프로젝트 학술세미나.

진흥문화재단연구원, 2017, 『경산 대동 57-1번지 유적』(한국문화재단 2015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XIV), 한국문화재단, 11~345쪽.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민족대백과사전』

Serjeantson D. 2009. Birds, Cambridge Manuals in Archae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초록

필자는 본고를 통해 임당유적에서 확인되는 동물유존체 중 상어뼈의 부장양상과 그 부장 의미를 확인하고 현대 사회의 상어고기 식용권에 관한 민속학의 견해와 비교하여 이 돛배기라는 음식이 고대로부터 이 지역의 귀한 제사음식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임당 고총의 발굴에서 상어뼈가 다량으로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늦어도 신라지역의 왕 또는 최고지배자의 장례나 국가 제사와 같은 의례에 돛배기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임당 고총에서 출토된 상어는 대부분 주피장자의 사후 세계를 위한 동물 부장으로 판단되며 토기 내에 담겨진 채로 부장되거나 목기나 대바구니와 같은 비교적 큰 유기물 용기에 담겼던 것으로 확인된다. 고총 내에 부장된 상어는 손질된 상태 즉 '돛배기'였을 가능성이 크다.

주곽에 주로 부장되는 고배류의 경우에는 어류의 특정 부위를 적당한 크기로 다듬어 그 용기에 담고, 부곽에 부장되는 호류 등에는 사후 피장자의 음식으로 다소 큰 용기에 넣어 부장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부곽에 부장되는 호나 웅 안에는 내장을 제거하여 먹을 수 있는 상태로 손질한 어류나 조류 등을 가득 담아 부장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임당유적에서 출토되는 상어, 방어 등은 동해안 남부지역과 남해안 동부지역에서 주로 생산되었으며 이렇게 바다에서 포획되거나 채집된 어류나 패류는 저장용 토기(단경호나 직구호, 장경호 등)에 담겨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상하지 않도록 염장된 채 운송되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대 한국인들의 대표적인 상어고기 식용권이 경북지역인데, 삼국시대 신라 영역 중 상어유존체가 출토되는 곳은 현재 상어를 중요 제물로 사용하는 곳으로 확인되었다. 즉 경산, 경주, 대구 등은 현재도 돛배기를 중요 제물로 사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돛배기라는 음식은 고대 신라 사람들의 제사나 장례 또는 국가 의례에 사용하기 시작해서 현재도 신라 영역의 제사음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아주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주제어** 임당 고총, 동물유존체, 상어뼈, 돛배기, 신라, 제사

## Abstract

A Study on Burial Patterns and its Meanings of the Shark Bones at Ancient Im-dang Site

Kim, Daewook

The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and meaning of the shark bones found in the in the Ancient tombs at the Im-dang archaeological Site, Gyeongsangbuk-do, Korea. Furthermore,

the buried shark bones also confirm that dombaegi, dry-salted shark meat, is a highly valuable ritual food in shark meat—consuming regions’ folklore studies.

The large amount of shark bones excavated from the Im-dang archaeological Site confirmed the use of dombaegi on important occasions, such as kings’ and top leaders’ funerals and state rituals in Silla. Most of the shark remains buried in the tomb were grave goods for the buried person’s journey to the afterlife. Evidence showed that shark meat pieces were buried in containers made of clay or organic materials, such as bamboos. In the main chamber, small ritual containers had small fish pieces, while the large containers in the side chamber contained mostly gutted fish and bird meat. Thus, the buried shark meat was highly likely to be dombaegi.

The remains found in the Im-dang archaeological Site are from sharks and amberjacks obtained from the Korean Peninsula’s eastern and southern coasts. The fish and shellfish, preserved through salting, were likely transported in storage containers.

The Gyeongsang Province is one of Korea’s top shark-consuming regions, and areas in the former Silla have used shark meat as a primary ritual offering. Dombaegi was initially used in ancestral rites, funerals, and state rituals in ancient Silla and is being used as ritual food in regions, such as Gyeongsan, Gyeongju, and Daegu.

[keywords] Ancient Im-dang bite, Archaeozoological Analysis, the shark bones, Dombaegi, Silla State, sacrifice Rituals

**Keyword** Ancient Im-dang bite, Archaeozoological Analysis, the shark bones, Dombaegi, Silla State, sacrifice Rituals

논문투고일 : 2020. 10. 15.  
심사완료일 : 2020. 11. 19.  
게재확정일 : 2020. 11. 30.

# 고려시대 해상활동 관련 유적과 유물의 검토<sup>1</sup>

정의도 한국문화연구원장

1. 서
2. 고려선과 출수유물
3. 선박의 사용시기와 그 종류
4. 해상활동 관련 유적과 유물
5. 결론

# OCEAN Heritage

## 1. 서

고려의 해상활동은 크게 다음의 몇 가지 분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고려 수군과 관련된 것으로 고려는 국초부터 수군을 편제하고 동해와 서해, 남해에 걸쳐 수군진을 설치하였다. 이어서 동여진과의 전투, 몽골의 침략에 대한 항전과 삼별초의 난, 일본 원정, 그리고 왜구의 침입과 격퇴 등을 꼽을 수 있다. 아울러 고려는 건국초기에 남방 각지에 12개의 조창을 설치하여 지방의 조세수입을 수로를 이용하여 개경으로 운송하는 조운제를 시행하였으며 오대송대의 중국왕조와 사신의 교환은 물론이며 매우 활발한 교역을 행하였다.<sup>2</sup>

고고학이 문헌사를 유적과 유물로서 보완하는 학문이 아니라 유적과 유물로서 당시의 사회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학문인만큼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근거로서 유적과 유물의 확보는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고려의 해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선박을 직접자료라고 한다면 수군을 관할하는 수군진, 조운선의 기지 역할을 하는 조창, 해상 항해를 가능하게 하는 객관이나 선박에 실린 물품 등은 간접자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서고는 고려인으로 말하면 해외에서 성장하여 특하면 고래 같은 파도를 타게 되니 본래 선박을 앞세우는 것은 의당한 일이라고<sup>3</sup> 하여 고려 사람들의 왕성한 해상활동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실제로 남아 있는 고고학 자료로서 고려시기 해상활동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선박이나 또는 해저에서 출수되는 유물, 그리고 해상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유적은 그리 흔하지 않다. 이번 글에서는 고려시기 분명한 해상활동의 근거로 볼 수 있는 유적과 그 유적에서 출수되거나 출토된 유물에 대하여 검토하여 당시의 해상활동이 물자의 교류, 인원의 교류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입증하고자 한다.

## 2. 고려선과 출수유물

우리나라는 일본도 부러워하는 수중고고학 강국으로 수중조사를 전담하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설립되어 왕성한 조사와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다음은 그간 서남해 일원에서 조사된 고려선과 동반 출수된 유물 등을 사용 추정 시기에 따라서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sup>4</sup>

1. 이 글은 고려건국 1100주년 기념 2018 국립해양박물관 국제학술회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고려인의 해상활동과 관련된 유적과 유물을 개관하고자 하였다. 각 유구의 유물의 축조과정이나 변화상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은 많이 생략되어 있는 점 양해 바란다.  
2. 임원식 등, 2004, 『고려시대 수군관련 사료집』 신서원, 9-23쪽.  
3. 『宣和奉使高麗圖經』 卷37 舟楫 乃若麗人, 生長海外, 動涉鯨波. 固宜以舟楫爲先.  
4. 고려선의 사용시기는 보고서에 제시된 연대와 광유석, 2012, 「고려전기 고려선의 구조」, 「고려후기 고려선의 구조변화와 특징」, 『고려선의 구조와 조선기술』, 민속원을 참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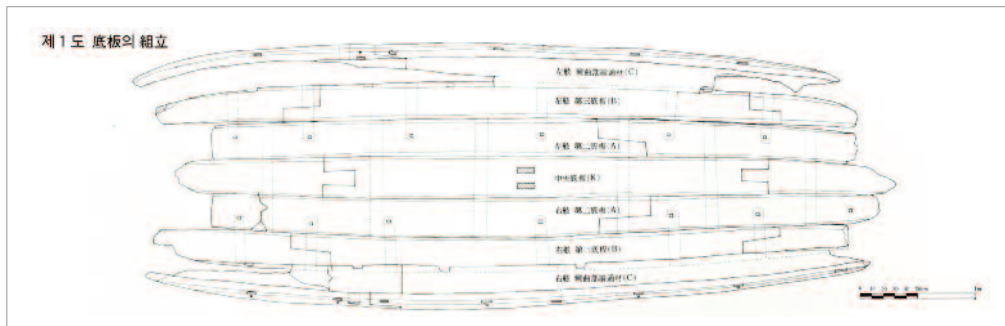
### 1) 군산 십이동파도 선체와 출수유물<sup>5</sup>

십이동파도선 선체는 편평한 저판과 L자형 부재인 만곡부재를 갖추고 있는 평저형구조로 완도선과 유사하다. 그러나 선체의 대부분이 유실되고 개흙에 묻혀 있던 상부는 대부분 유실되고 저판과 만곡부, 선수부, 외판 등 일부만 인양되었다. 이외에도 닻줄을 감는 호륜(碇輪) 받침대와 닻장으로 추정되는 석재가 출토되었다. 선체의 잔존 규모는 길이 7m, 너비 2.5m인데 저판과 각 부재의 크기 등으로 볼 때 전장 14~15m 정도의 선박으로 추정된다.

십이동파도선에서 인양된 유물은 도자기가 주류를 이루며 1차 조사에서 철제 술과 청동 숟가락, 나무췌기, 2차 조사에서는 선체와 닻장, 밧줄 등이 인양되었다. 십이동파도 인양 청자는 12세기 초가 중심시기인 해남 진산리요지보다는 앞선 시기 즉 11세기 후반 경으로 편년될 수 있겠다.

### 2) 완도선 선체와 출수유물<sup>6</sup>

완도선이 발견된 해역은 완도군 약산면 어두리 일원으로 완도군청 소재지인 완도읍에서 동북방 8.7km에 위치한 조약도의 동쪽 끝에 있는 해두리 부락 앞 300m 해상의 무인도인 어두지 섬의 동북 돌출부에서 72m 지점의 해역이다. 이 일대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30,701점이 인양



도1. 완도선 배 저판조립(上).출토 청동술가락(下左) 靑靑鐵繪牡丹唐草文長鼓(下右)  
[문화공보부·문화재관리국, 1985, 『완도해저유물 발굴보고서』 전제]

5. 국립해양유물전시관, 2005, 『군산 십이동파도 해저유물』.  
6.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5, 『완도해저유물』.

되었는데 그 중 도자기류가 30,673점으로 대부분이며 금속류와 목제품이 있다. 선체편 81점도 함께 인양 수습되었는데 중앙저판과 좌현저판 2점, 우현저판 2점 등 5점의 저판, 좌현 만곡부중통재와 우현만곡중통부재, 외판이 좌현 5층, 우현 4층 등인데 일부는 부식이 심하다.

도자기는 청자대접과 접시가 30,000점 이상을 차지하며 103점의 청자광구병과 11점의 매병, 그리고 3점의 장고와 유병, 호, 발, 잔, 그리고 청동제 숟가락도 포함되어 있다. 청자대접과 접시는 구부가 넓게 외반되고 동체가 S자 곡선을 이루며 기벽은 얇고 유색은 녹청색, 녹갈색, 회청색 등의 청자유를 얇게 발라 시유한 특징을 보이고 있어 12세기 초로 편년할 수 있다(도1).

### 3) 마도1호선 선체 및 출수유물<sup>7</sup>

선체는 잔존 규모가 전체 길이 10.8m, 폭 3.7m이고, 남동-북서 방향으로 매몰되어 있었으며, 총 39편의 부재가 남아있었다. 선체 구조는 5열의 底板을 가진 平底型 선박이며, 기울기가 완만한 彎曲部縱通材를 가지고 있는 형태다. 중앙저판의 연결은 턱걸이 장부이음방식을 사용하고 船體外板은 고려 선박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홈붙이 클링커이음방식(上角型 接合, grooved clinker joint)을 사용하고 있다.

태안 마도 1호선에서 발굴된 유물은 선체를 포함하여 총 489점이다. 벼, 조, 콩깍지, 메밀 등 다량의 곡류가 발굴 되었으나 유물 수량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선적된 도자기는 대부분 고려 청자와 젓갈 등 지방의 특산물을 포장하기 위한 도기류가 다량 출토된 점이 특징이다. 고려청자에는 표형주자와 승반, 투각 기대 등 일부 상급품이 포함되어있다. 목간·죽찰은 총 73점이 출토되었는데 목간 15점, 죽찰이 58점이다. 그 외에도 선상에서 사용했거나 진상용품으로 청동 숟가락, 철제 술, 숯돌, 나무국자, 대나무반, 대나무 바구니, 석탄, 빗 등이 출토되었다.

태안 마도 1호선은 목간판독결과 1208년 봄 난파된 선박으로 정묘 10월부터 무진 2월19일 까지 화물을 실었으며 화물발신지는 남해안의 죽산현, 회전현, 수녕현 등이 확인되었고 발신지는 주로 호장이며 수신자는 개경에 있는 관직자로 밝혀졌다.

### 4) 마도 2호선 선체 및 출수유물<sup>8</sup>

마도 2호선은 全長 12.6m, 중심 폭 4.4m의 규모다. 저판 21부재, 외판 20부재로 총 41부재가 남아있었으며, 가룻목 5점, 원통목 7점, 닻구조물 1점, 닻돌 1점도 출수되었다. 저판은 7열로 연결되어 있고 선수가 선미보다 넓게 제작되었다. 마도 2호선에서 확인된 평저형의 횡단면 구조, 클링커 이음방식을 채용한 외판 구조, 가룻목과 원통목을 사용하여 횡강력을 유지한 점 등의 구조적 특징은 우리나라 13세기 고선박의 형태를 확실하게 보여준다.

마도 2호선은 곡물을 운반하던 배로 출수된 자기류는 총 140점으로 전량 청자이다. 기종은

7. 국립해양유물전시관, 2005, 『군산 십이동파도 해저유물』.  
8.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1, 『태안마도2호선 수중발굴조사보고서』.

발·대접·접시·잔·병·호 등 생활용기가 중심을 이룬다. 마도 2호선에서 발견된 청자는 포장목으로 묶여 있던 자기류와 선상 이곳저곳에서 발견되는 선상에서 실제 사용된 자기류로 구분된다.

마도 2호선에는 태안선·마도 1호선과 마찬가지로 화물의 운송표로 쓰인 목간 47점이 나왔다. 목간에는 출항지 또는 실린 화물의 생산지로 추정되는 高敞縣, 戊松縣, 長沙縣, 高阜郡이 적혀 있다. 화물 종류는 白米, 中米, 太, 豆, 末醬, 麩, 卵醢, 精蜜, 眞 등이다.

목간에 남아 있는 화물 수취인 중 하나인 이극서는 고종대 추밀원부사(1219년)와 평장사(1220년)를 지낸 인물이다. 그런데 목간에서 이극서의 관직은 郎中으로 적혀 있어 마도 2호선은 1219년보다는 앞선 시기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마도 2호선은 마도 1호선과 마찬가지로 지방에서 나오는 곡물을 개경에 있는 관직자에게 운반하던 곡물운반선이라고 할 수 있다.

### 5) 태안 마도 3호선 선체와 출수유물<sup>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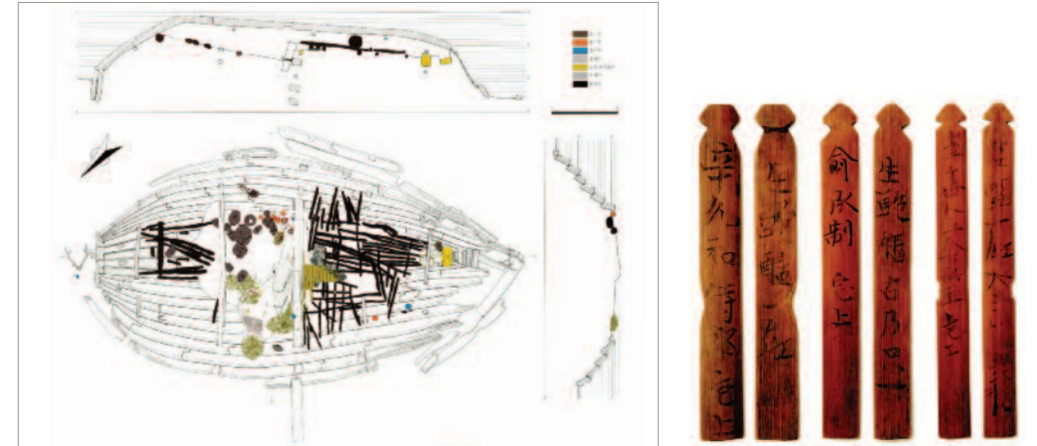
고려시대 난파선 마도 3호선 수중발굴조사 결과 35점의 화물 물표 목간과 도기호, 청자, 청동용기를 포함해 다수의 곡물류와 동물뼈 등을 발굴했다. 마도 3호선은 선수와 선미, 돛대 등 선체 구조가 거의 완형으로 남아 있고, 선체 길이는 약 12m이며 폭은 8.5m로 선체는 좌현으로 약간 기울어진 상태로 매몰되어 있다. 외판은 좌현은 10단, 우현은 9단까지 확인되었으며, 이는 지금까지 인양되었던 고선박 중 가장 많은 외판이 확인된 것이다.

마도 3호선에서는 도기호 45점, 도기병 4점, 접시 1점 등 모두 50점의 도기가 출수되었고 60점의 청동유물(발·접시·합·뚜껑 등의 용기류와 수저, 국자 및 중국 동전, 방울 등)이 출수되었다. 마도 3호선은 출수된 화물의 물표 연구결과에 의하면 1265~1268년 사이 침몰한 선박이다. 발송지는 전라남도 여수를 포함한 남부 해안이며, 최종 목적지는 당시 고려의 임시수도였던 강화도였다(도2).

### 6) 대부도 2호선 선체와 출수유물<sup>10</sup>

대부도 2호선은 출수 유물을 통해 12세기 후반에서 13세기 초반 경에 침몰된 고려시대 선박으로 밝혀졌으며 매몰 당시의 규모는 길이 9.15m, 중심폭 2.9m 가량이었다. 잔존 선체는 저편 4열 11부재, 만곡중통재 좌·우현 각 3부재, 좌현외판 2단 5부재, 우현외판 3단 8부재 선수판재 3부재, 선미판재 2부재 등이 결구된 채로 확인되었다. 선체 내부에는 가롱목 5점이 만곡중통재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돛대를 받쳐주는 멩예형가롱 1점이 결구되어 있었다.

대부도 2호선에서 출수된 청자는 총 21점이다. 기종은 발과 접시만이 발견되었으며 문양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문양은 소량이지만 음각선문, 음각연관문, 압출화문 등이 있다. 수량, 사용흔적 등으로 보아 상품으로 적재된 것이 아니고 선상 생활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도2. 마도 3호선 배 평면노출도(上左), 출토 목간(上右), 출토 도자기 및 청동유물 일괄(下)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6, 『태안·마도3호선』 전제)



도3. 대부도 2호선 작업광경(上左), 출토 청동유물(上右), 출토 도자기 일괄(下)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6, 『안산 대부도2호선』 전제)

9.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2, 『태안·마도3호선 수중발굴조사보고서』.  
10.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6, 『안산 대부도2호선 수중발굴조사보고서』.

자기는 청자발에 간략하게 표현된 음각연관문으로 미루어보아 대략적인 시기는 12세기 후반에서 13세기 초반으로 설정할 수 있다(도3).

### 7) 목포달리도선체와 출수유물<sup>11</sup>

목포시 충무동 달리도 매물 선체에 대한 발굴조사는 섬의 북서쪽에 자리한 달리2구의 일명 지픈골 앞 개펄에서 이루어졌다. 이 해안은 평평한 해안퇴적층이 비교적 넓게 발달한 곳이었으나 1981년 영산강 하구둑의 축조 이후부터 유입되는 토사량의 감소로 발생한 해안지형의 변화에 기인하여 개펄 속에 묻혀 있던 달리도 매물선이 발견되었다. 선체 내에는 어떠한 적하물도 남아 있지 않았다. 달리도선의 잔존 선체는 저관 3열과 우현 외판재 4단, 좌현 외판재 2단 및 선미판의 일부가 온전히 결구된 채 매몰되어 있었다. 잔존 규모는 전체 길이 10.5m, 잔존 너비 2.72m, 잔존 깊이 0.8m 정도이다.

달리도선에서는 사용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고고유물이 전혀 발굴되지 않았으나 달리도선이 11세기 중후반 경의 선박으로 파악되고 있는 완도선과 형태는 유사하나 좀 더 발전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고 달리도선 선체에 대한 방사성탄소연대 측정 결과에 의하면 1210~1400년(확률 95%)인 것으로 밝혀져 달리도선은 완도선보다는 늦은 시기인 13~14세기 경에 활동한 선박으로 간주된다.

### 8) 안좌선 선체와 출수유물<sup>12</sup>

전남 신안군 안좌도선은 안좌도 북쪽에 자리한 해안의 갯벌층에 비교적 얇게 묻혀 있었다. 선체 내부에는 가공되지 않은 다량의 자연목들과 청자, 질그릇편, 숯들 등이 배 바닥 층에서 발견되었다. 선체의 잔존 부분은 저관과 좌현 외판재 2단, 우현 외판재 7단이 결구된 상태로 남아 있었다. 특히 3열의 저관이 갯벌에 고스란히 묻혀 있었으므로 선수판을 삽입했던 홈과 선미재의 존재가 확인되었고 선체 내부에는 횡강력재인 가룻목이 결착되어 있었으며 배의 대들보와 같은 역할과 돛대를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멩에형 가룻 1개가 조립상태로 확인되었다.

안좌도선의 잔존 규모는 전체 길이 14.7m, 너비 4.53m, 깊이 1.4m 정도인데 도상 작업으로 복원된 크기는 상부 너비 6.6m, 전체 길이 17m, 깊이 2.3m 정도의 목선이다. 안좌도선에서 출토된 유물은 청자잔 2점, 청자접시 3점, 녹갈색잡유호 1점과 흑갈색 잡유호편, 도기편, 옹기편 등이 있다. 청자잔은 청자상감국화문잔으로 1점은 완형이고 1점은 반파된 것이며 청자접시는 팔각접시와 도범으로 찍어낸 팔각화형접시가 포함되어 있어 대체로 14세기 경에 유행하던 것이다. 이와 같은 선체의 구조와 출토 유물로 미루어보아 안좌도선의 운항시기는 14세기대로 추정할

수 있고 안좌도선은 고려후기를 대표하는 선박으로 볼 수 있다.

### 9) 중국 봉래수성출토 고려선체 및 출토유물<sup>13</sup>

중국 산둥성 봉래시 복단에 위치한 봉래수성 내 남쪽 소해의 서남쪽에서 1984년에 원대의 전선(봉래 1호선)이 발굴되었고 2005년 7월~11월 사이에 3척의 고선박이 발견되었다. 발굴된 3척의 고선박 중 1척은 중국 명대 중만기의 선박(봉래2호선)이다.

봉래 3호선은 충적된 진흙층 5.2m에서 출토되었으며 잔존 길이 17.1m, 폭 6.2m, 잔존 길이 17.1m, 폭 6.2m, 잔존 높이 1.28m이다. 추정 복원 전체 길이 22.6m, 갑판 폭 8.4m, 높이 3m로 2개의 돛을 갖춘 목범선이다. 현존 5개의 격벽과 4개의 격벽 흔적이 남아 있어 모두 9개의 격벽에 10개의 창을 갖추었다.

봉래 3호선에서 출토된 도자기는 청자상감초화문접시, 청자상감파도연주문대접, 도기호, 도기장군, 옹기, 도기대반 등이 중국자기인 흑유완, 청유완과 함께 출토되었다. 청자는 둔중한 기형과 간략한 문양, 사립을 받쳐 번조한 기법 등을 미루어볼 때 여말선초(14세기말~15세기 초)에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도4).



도4. 봉래 3호선 배 저판(上) · 출토 도자기 편 일괄(下)  
(山東省文物考古研究所·烟台市博物館·蓬萊市文物局, 2006, 『蓬萊古船』 전채 및 필자촬영)

11.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999, 『목포 달리도 배』.

12. 국립해양유물전시관, 2006, 『안좌선 발굴조사 보고서』.

13. 山東省文物考古研究所·烟台市博物館·蓬萊市文物局, 2006, 『蓬萊古船』, 文物出版社; 袁曉春, 2006, 『中國 蓬萊水城古船 發掘與成果』; 국립해양유물전시관, 2006, 『14세기 아시아의 해상교역과 신안해저유물』, 471~513쪽.

### 3. 선박의 사용시기와 그 종류

먼저 선박의 사용 시기를 앞서 제시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발굴조사 결과와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14</sup>

고려시대에 건조된 선박은 군산 십이동파도선, 완도선, 태안마도 1·2·3호선, 대부도 2호선, 달리도선, 안좌선 등인데 대체적인 선체 구조는 3열, 5열, 7열의 흘수 底板을 가진 平底型 선박이며, 기울기가 완만한 彎曲部縱通材를 가지고 있는 형태다. 중앙저판의 연결은 턱걸이 장부이음 방식을 사용하여 기존에 사용되었던 장부이음방식보다 견고하게 결구하고 있으며, 船體外板의 연결방식은 고려 선박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홈붙이클링커 이음방식(上角型 接合, grooved clinker joint)을 사용하고 있다.<sup>15</sup>

다만 예외적으로 대부도 2호선에서 고려시대 선박에서 보이지 않았던 조선 기술을 보여 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전에 발굴된 고려시대 저판은 3열이나 5열, 7열의 흘수열로 가운데 열에 돛대를 세워 끼울 수 있는 2개의 홈이 확인된다. 하지만 대부도 2호선은 4열의 저판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돛대구멍도 자연스럽게 중앙 2개 저판에 각각 하나씩 존재하고 봉래선에서는 예외적으로 격벽이 발견되어 중국선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없지 않으나 고려선의 발전된 구조로 보는 견해가 있다.

고려 후기 들어 수중발굴 고려선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저판과 외판을 이어주는 만곡 부종통재의소멸이다. 전기 선박은 1단 또는 2단이 사용되었으나 후기에 들어 이 부재는 사라지고 외판을 저판에 직접 대고 접합하는 기술이 적용된다. 이것은 물의 저항을 줄이고 선형을 유선형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편인데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 외판을 최대한 밖으로 뒹혀 접합하였다. 그리고 고물비우는 선미를 막아주는 판재인데 선미 외판 끝 부분에 한단 한단 끼워 넣을 수 있도록 설치하였다. 또한 13~4세기대의 배가 선형이 장대하고 유선형을 보이는 특징을 보이는데 이것이 고려선이 전기에서 후기로 넘어오면서 보이는 변화 발전된 모습이라고 한다.<sup>16</sup>

그리고 15세기에 건조된 태안마도 4호선에도 선체는 저판 3열, 좌현 외판 4단, 우현 외판 11단, 선수재 2단, 선미재 2단과 가룻목 등이 남아 있어 고려시대 이래의 선박 건조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17</sup>

이상의 선박들은 저판이나 저판에서 외판으로 올라가는 방식, 가룻목의 존재 등으로 그 구조가 유사하거나 발전적 형태로 진화하고 있어 모두 동일 계통의 선박으로 인정된다. 아울러

그 사용기는 대부분 동반 출수되는 유물로서 추정이 가능한데 앞서서 제시한 각 선박의 박재품과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한 사용 시기는 다음과 같다(표1).

표1. 인양 고려선 일람표

	선박명	출수위치	선체 및 동반출수유물	사용시기
1	완도선	완도군 약산면 어두리해저	선체 - 저판, 만곡부종통재, 외판재 동반출수유물 - 청자접시, 대접 등 3만점 이상	12세기 초
2	목포 달리도선	목포시 충무동 달리도 갯벌	선체 - 저판, 외판재, 선미판 일부	13~14세기
3	군산 십이동파도선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해저	선체 - 저판, 만곡부종통재, 장삭, 가룻, 선수재, 나무 닻장, 닻줄 동반출수유물 - 청자접시, 대접, 완, 유병, 철제술, 청동손가락 등 8,743점	11~12세기 초
4	안좌선	신안군 안좌도 갯벌	선체 - 저판, 외판재 동반출수유물 - 청자잔, 접시, 녹갈색잡유호 등	14세기
5	봉래선3호	중국 산둥성 봉래수성 남쪽	선체 - 저판, 외판, 돛대자리 등 동반출수유물 - 청자상감접시, 대접, 도기호 등	14세기
6	마도1호선	태안군 근흥면 마도해역	선체 - 외판, 저판 동반출수유물 - 고려청자, 도기류, 목간, 청동손가락, 철제술, 나무국자 등	13세기 초
7	마도2호선	태안군 근흥면 마도해역	선체 - 저판, 외판, 가룻목, 원통목 동반출수유물 - 청자발, 대접, 접시, 잔, 병과 도기류, 곡물(쌀, 콩)	13세기 초
8	마도3호선	태안군 근흥면 마도해역	선체 - 저판, 외판, 돛대 동반출수유물 - 도기호, 청자, 청동용기(발, 접시, 합, 뚜껑, 수저, 국자, 중국동전 등)	13세기 중반
9	대부도2호선	안산시 대부도 방아머리해수욕장 인근 해역	선체 - 저판, 외판, 선수, 선미 동반출수유물 - 청자발, 접시 등	12~13세기

『고려사』에 남아 있는 고려시대 선박의 종류는 舟舸, 大船, 軍船, 戈船, 兵船, 龍船, 劍船, 舟艦, 戰艦, 樓船, 漕船, 哨馬船 등이 있고 『선화봉사고려도경』에는 巡船, 官船, 松舫, 幕船, 采舫 등을 기록하고 있는데 송방은 군산도의 배라고 하였다.<sup>18</sup> 용선이나 누선은 유람이나 연회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짐작되고<sup>19</sup> 舟舸, 大船, 軍船, 戈船, 兵船, 戰艦이 전투용 선박이며 漕船과 哨馬船이 漕運船을 말하는 것인데 다음과 같은 기록이 주목된다.

14. 우리나라의 수중발굴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그 성과는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 90년대 이후 간행된 수중발굴조사보고서와 함께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6, 『한국의 보물선 타임캡슐을 열다』, 공명도 그간의 조사성과를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15. 권유석, 2012, 『제3장. 고려전기 고려선의 구조』, 『고려선의 구조와 조선기술』, 민속원, 60~87쪽.

16. 이상은 권유석, 2012, 『제4장. 고려전기 고려선의 구조』, 『고려선의 구조와 조선기술』, 민속원, 89~127쪽의 연구결과이다.

17.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6, 『안산 대부도2호선 수중발굴조사보고서』 참조.

18. 『宣和奉使高麗圖經』卷33, 舟楫.

19. 『高麗史』卷第8 文宗19年秋八月乙亥 幸東池 御龍船 置酒 卷第15 仁宗5年3月 戊申 遂與幸福近臣 御樓船于大同江 中流宴樂 丙辰 王與妃及兩公主 御龍舟于大同江 沿流宴樂.

정종 연간에 12창의 조운선의 수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石頭倉·通陽倉·河陽倉·永豐倉·鎮城倉·芙蓉倉·長興倉·海龍倉·海陵倉·安興倉에는 각각 배 6척을 두었는데 모두 哨馬船이었고 1척당 1천석을 실을 수 있었다. 德興倉에는 20척, 興元倉에는 21척을 두었는데 모두 平底船이었으며 1척당 2백석을 실을 수 있었다.<sup>20</sup>

이 기록에 따르면 정종 연간(1034~1046)에 12창에 조운선을 두었는데 석두창 등에는 초마선을 두어 1척당 1천석을 실을 수 있었고 덕흥창과 흥원창에는 2백석을 실을 수 있는 평저선을 두었다고 하였다. 석두창 등에 둔 조운선은 1천석을 실을 수 있는 초마선이었고 덕흥창에 둔 평저선은 2백석을 실을 수 있었으니 그 적재량은 1천석과 2백석으로 다섯 배의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운선이 초마선과 평저선으로 구분된다고 하는 것은 선박의 종류는 같지 않아도 조운에 투입되면 조운선으로 불렸다고 볼 수 있다. 조선 초기의 기록에 「경상도의 세공은 다만 초마선 10척뿐이므로 조금이라도 주춤을 쓸 데가 있으면 반드시 私船을 빼앗아서 이바지합니다」라고 하여 고려시대 조운선은 상황에 따라 주어지는 역할이지 종류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물론 일반적으로 한선은 배의 바닥이 평평한 평저선 전통이라고 쓰고 있으나 운용되는 환경에 따라 구분하여 해선은 초마선, 강선은 평저선으로 나누어 불렸던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조운선은 조운을 담당하는 선박을 총칭하는 용어이며 조운을 담당하는 선박의 종류에는 초마선, 평저선, 잉박선 등이 있다고 하겠다.<sup>21</sup>

지금까지 인양된 고려선의 동반 출수유물을 보면 완도선이 3만점 이상의 도자기를 적재하고 있었고 군산십이동파도선은 청자접시, 대접, 완, 유병, 철제술, 청동숟가락 등 8,743점이 출수되었다. 그리고 마도 1호선과 2호선, 3호선은 다량의 곡물을 실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화물표도 함께 출수되어 화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선박은 모두 평저선이지만 그것이 기록에 보이는 선박의 종류 중 어떤 것인지 알 수는 없고 화물선 또는 상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일부 선박을 두고 조운선이라는 견해가 제시된 바도 있으나 앞서 지적하였다시피 고려시대 조운선은 선박의 종류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화물표에 남아 있는 화주명을 고려해도 국가 세공을 운반하던 조운선으로 보기는 문제가 적지 않다. 지금까지 확인되는 고려선의 인양 위치는 한국의 서남 해안에 한정되어 있고 동반하여 출수되는 도자기나 곡물을 위주로 한다(도5).

안좌선과 다른 결구 방식을 보여주고 장좌가 2개이며 얇은 판재로 격벽구조를 갖추었다는 점에서 그구조가 특이한 점이 있다. 그러나 용골 대신 3열의 저판을 갖추고 있으며 목재로 만든

장삭을 이용하며 외판을 연결하고 있고 돛배받침 구멍의 형태가 안좌선과 동일한 평면형태라는 점에서 역시 고려선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sup>22</sup>

그렇다면 고려선이 왜 원나라까지 와서 폐선이 되었을까 하는 의문은 당연한 것인데 지금까지 발굴된 고려선 가운데 최초의 원양선이라는 점이 주목되고 그 항해의 배경은 분명하지 않지만 개경 일대에서 황해를 횡단하는 직항로를 이용한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화물선으로 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무난한 해석이 아닐까 한다.<sup>23</sup>



도5. 수중유적 발굴조사 지점 지도 (동양도자미술관, 2015, 『新發見の高麗青磁』전재)

#### 4. 해상활동 관련 유적과 유물

다음은 고려의 해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간접자료에 대한 것이다. 고려의 해상활동을 고려하면 관방이 앞서야 할 것이나 앞서 출수된 배는 일단 조운선과 국제무역선 등으로 구분되었고 아쉽게도 고려의 후삼국통일 과정에서 건조되었던 전선이나 동여진과의 교전에 건조되었던 군선, 삼별초 대몽항쟁과 관련된 선박, 고려 말 왜구의 침입과 관련된 전선 등 관방과 관련된 선박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고려의 대몽항쟁기간 동안 삼별초는 출륙에 반대하여 진도를 거쳐 제주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몽고군과의 교전이나 진도 용장성과 향파두리성의 축조에 선박을 이용한 상황은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중국과의 교류나 조운 등 물자의 교역과 관련된 유적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송나라와의 교역은 수많은 사절이나 상인들이 다녀간 기록은 있으나 구체적인 교류 내용은 알기 어렵다. 다만 중국과의 교류는 고려가 송의 불교와 서적, 의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였으나 육로는 요나 금에 의하여 차단되어 있으므로 해로를 더욱 이용하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24</sup>

20. 『高麗史』卷第79 志33 食貨 漕運 靖宗朝 定十二倉, 漕船之數, 石頭·通陽·河陽·永豐·鎮城·芙蓉·長興·海龍·海陵·安興, 各船六艘, 並哨馬船, 一船載一千石, 德興二十艘, 興元二十一艘, 並平底船, 一船載二百石.  
21. 김재근, 1998, 「3. 조운·해운선」 『한국선박사연구』 한국문화연구총서24, 서울대학교출판부, 39~44쪽.

22. 袁曉春, 2006, 「中國蓬萊水城古船友掘與成果」, 『14세기 아시아의 해상교역과 신안해저유물』, 신안선 발굴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493~513쪽.  
23. 김성범, 2009, 「중국봉래수성 출토 고려선」, 『한국중세사연구』, 제27집, 233~284쪽.  
24. 이진한, 2014, 「제4장. 고려·송의 외교와 송상왕래」, 『고려시대 무역과 바다』, 경인문화사, 101~129쪽.



또한 고려시대는 거란과의 전쟁이 끝난 이후 거란과 또한 금의 문화도 수용하여 분묘의 조성 방법이 변하게 되고 부장품 또한 중국풍을 수용하게 되면서 다수의 중국 물자가 들어오게 된다. 대표적인 것이 동경과 동전, 순가락 등이 금속제품이 있고 중국제 자기가 있겠지만 그 물품들이 반드시 고려 선박을 이용하여 들어왔다는 확증은 없다. 반대로 중국이나 일본에 고려청자가 출토되고 있는데 이것 또한 고려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되었다는 보장 또한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고려 사람도 배를 이용하여 중국으로 건너간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필요마다 송의 배를 이용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봉래선과 같이 중국에서 발견되는 고려의 교역선도 있으므로 고려선을 이용하여 중국으로 사신을 보내거나 물품을 보낸 것은 분명하다고 하겠다.<sup>25</sup>

그러므로 고려가 송과 교류를 위하여 설치하였던 시설물에 대한 검토가 유용할 것으로 생각되고 일부 중국산 유물이 고려선을 이용하여 수입된 증거로 볼 수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인양된 대부분의 고려선이 조운선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고려시대 조운과 관련된 유적도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 1) 관련유적

a. **관방유적** - 삼별초의 대몽항쟁 당시 축조된 진도 용장성, 그리고 장도 청해진유적이 있다. 삼별초는 원종11년(1270)에 승화후 온을 왕으로 삼고 재물을 훔쳐 배에 싣고 남쪽으로 내려가 진도에 들어가 거점을 삼고 용장성을 축조하였다가 여몽군에게 쫓기어 제주를 함락한다.

용장성은 단기간에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성으로서 갖추어야 할 왕궁지와 이를 둘러싼 토성으로 이루어진 내성 및 외성(羅城)에 해당하는 약 13km에 이르는 대규모의 산성 및 그에 부속된 여러 개의 성문과 적대, 치 등 부대시설이 확인되었고, 공간구조를 밝혀줄 수 있는 산성 내부의 건물지와 제사유적 등이 확인되었다. 특히 용장산성의 조사에서는 축조시기 및 사용시기를 가늠하는데 결정적인 자료로 평가되는 명문기와와 동전류를 비롯한 청자유물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이들 고고자료의 분석을 통해 용장산성은 1243년(고종 30)에 이미 축조되어 대몽항쟁 기간에 해도입보처로 활용되고 있었으며, 1270년(원종 11) 8월 삼별초군의 진도 입거와 함께 재활용되었을 것으로 보았다.<sup>26</sup>

용장성 왕궁지는 철저한 사전기획에 의해 삼별초군이 진도에 들어오기 2~3년 전에는 착공하여 진도에 들어왔을 때는 궁성과 왕궁이 완공되었거나 완공단계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1269년 남해 창선도에 있던 國史를 진도로 옮긴 것도 결코 우연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용장산성은 1243년(고종 30)에 이미 축조되어 고종대 대몽항쟁 과정에서 해도입보처로 활용되고 있었

으며, 1270년(원종 11) 8월 삼별초군이 진도에 들어오면서 내성(왕궁과 석심토축의 토루)과 외성(용장산성)으로 이루어진 도성체제를 갖추었을 것으로 본다.

또한 항파두리성은 1997년 4월 18일 사적 제396호로 지정되었다. 면적은 1,135,476㎡이다. 1270년(원종 11) 2월 고려 조정이 몽골의 침입으로 굴욕적인 강화를 맺고 강화에서 개경으로 환도하자, 이에 맞서 김통정을 총수로 한 삼별초가 고려의 김방경과 몽골의 혼도가 이끄는 여몽연합군에 최후까지 항쟁하다 1273년 전원이 순의한 삼별초의 마지막 보루이다. 해발 190~215m 지점에 있는 항파두리 토성은 1271년 여몽연합군에 대항하던 삼별초군이 완도에 용장성을 쌓고 주둔하며 활동하다가 여몽연합군에게 패배하고, 같은 해 9월에 제주특별자치도로 들어와 군사력을 재정비하는 시기에 축성한 것이다. 본래 토성(높이 5m, 너비 3.4m)으로 총길이 6km에 이르는 외성을 쌓고 안에 다시 석성으로 800m의 내성을 쌓은 이중 성곽이었으며, 각종 방어시설뿐 아니라 궁궐과 관아까지 갖춘 요새였다.<sup>27</sup> 환해장성 또한 삼별초와 관련된 유적으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에 따르면 원종 11년(1270) 진도에 있던 삼별초가 제주도로 들어오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김수, 고여림이 군사들과 제주도민들을 동원하여 성을 쌓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은 패하였고, 이긴 삼별초는 또다시 관군을 막기 위해 계속 성을 쌓은 것이다.<sup>28</sup>

그리고 장도 청해진유적을 들 수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장도 청해진유적의 실체를 규명하고자 1991년부터 모두 8차례에 걸쳐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6차까지의 발굴조사에서는 판축토성으로 이루어진 890m에 달하는 성벽과 내부 건물지, 굴립주 건물지, 매납유구 등을 확인한 바 있으며, 또한 331m에 달하는 해안 목책열의 분포범위 확인과 함께 총 3만여 점이 넘는 많은 유물을 발굴하여 장도가 청해진의 주요 근거지였음을 밝혀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장도 청해진 유적에서 발굴된 수많은 유구와 9세기 전반으로 편년되는 많은 유물들은 앞으로 청해진 유적의 초기 운영시기를 보여준다고 하였다.<sup>29</sup>

그러나 필자가 판단하기에 장도유적은 위치와 크기, 주변 조건 등과 출토유물의 편년, 수혈 내에 매납된 유물의 출토상황 등을 고려하면 통일신라시대 중사를 지냈던 곳으로 볼 수는 있지만 청해진 본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sup>30</sup> 또한 장도에 축조된 토성을 청해진 본영으로 보고 있지만 이것 또한 토성 판축토에서 9세기 말의 유물이 출토되고 있으므로 통일신라 때 축조된 성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보고서에 별다른 언급은 없지만 장도의 토축성은 출토

25. 고려초부터 선박을 이용한 무역은 왕성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高麗史』列傳 崔承老 我太祖情專事大, 然猶數年一遣行李, 以修聘禮而已. 今非但聘使, 且因貿易, 使價頗夥, 恐爲中國之所賤. 且因往來, 敗船殞命者多矣. 請自今, 因其聘使, 兼行貿易, 其餘非時買賣, 一皆禁斷.

26. 고응규, 2018, 「진도용장성」 『한국중세고고학』 제 3호, 37~77쪽; 목포대학교박물관, 2019, 「진도 용장성 왕궁지 발굴조사 종합보고서」.

27. 제주고고학연구소, 2013, 『제주항파두리 항몽유적』, 2014, 『제주항파두리 외성 I』, 2017, 『제주항파두리 외성 II』, 2017, 『제주항파두리 내성 I』, 2019, 『제주항파두리 내성 II』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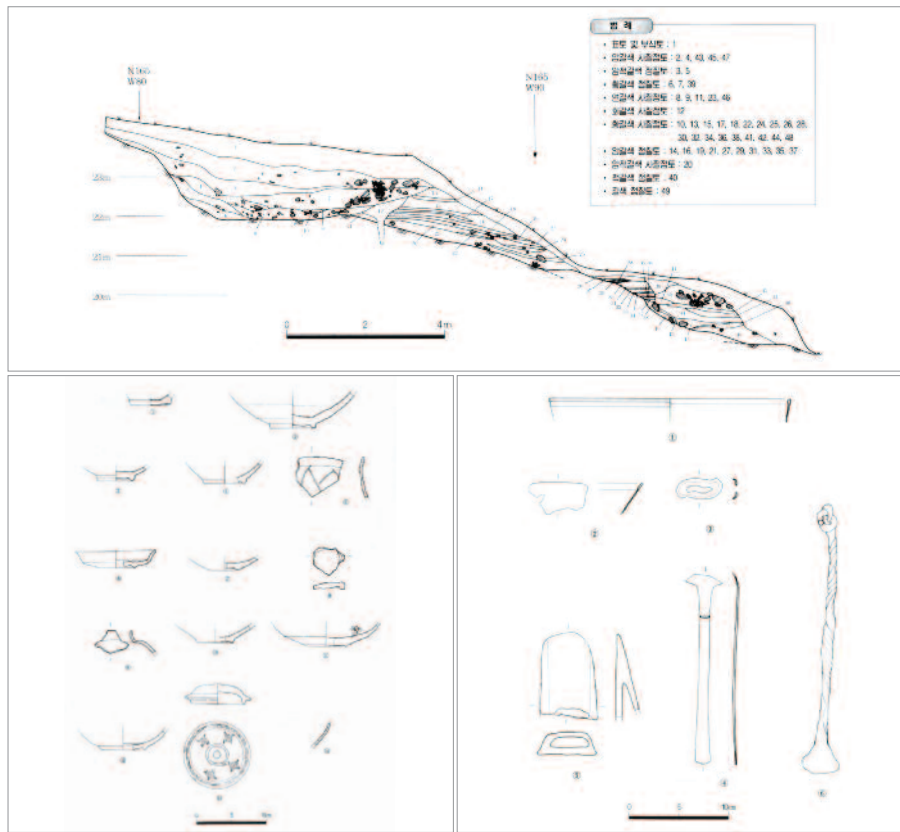
28. 『新增東國輿地勝覽』濟州牧 古跡 沿海環築 周三百餘里 高麗元宗時 三別抄叛據珍島 王遣侍郎高汝林等 于耽羅 領兵一千以備之 因築長城 또한 지금은 남아 있지 않지만 제주에는 제주목 서남쪽에 고토성, 애월목성 등도 삼별초가 축조한 것이라고 하였다.

29.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장도청해진 유적발굴조사보고서 I』, 2002, 『장도청해진 유적발굴조사보고서 II』.

30. 『三國史記』雜志第1 祭祀 中祀에는 五嶽四鎮四海四瀆에 이어서 俗離嶽, 推心, 上助音居西, 烏西嶽, 北兒山城, 淸海鎮 등 7처가 올라 있는데 청해진의 세주 조음도가 지금의 장도로 추정되고 있다. 출토유물은 대개 나말여초와 고려전기, 그리고 조선전기로 편년되는 데 장도토성 토루 내부 출토 유물로 보아 9세기 초축으로 보기는 어려워 장보고 관련 유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정의도, 2020, 「장도청해진설 비판」, 『한국성곽학회 2020년도 추계학술대회 축조수법과 축조배경으로 본 토성』, 한국성곽학회, 119~140쪽).

유물과 도면을 검토하면 10세기 이후 초축되어 장기간에 걸쳐 수축된 것으로 판단되고 유적 내부에서는 고려의 초기 청자는 보이지 않지만 다수의 11~12세기 대 순청자와 13세기 대의 상감청자가 출토되고 있다. 이것은 장도유적은 통일신라 때는 중사를 지낸 곳이었으나 고려초에 일시 폐지되었다가 조운이 활발해지면서 다시 수군진이나 항몽전쟁에서 다시 활용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도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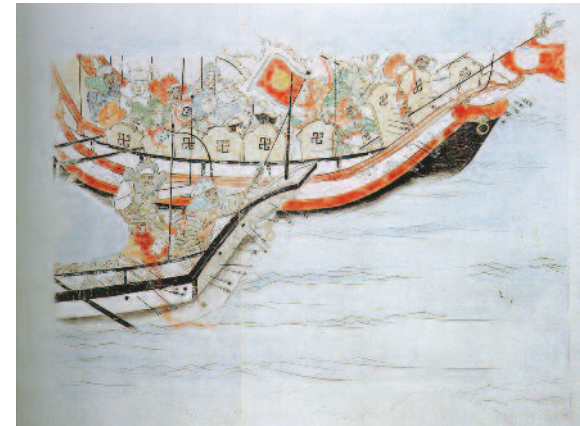
그리고 삼별초의 오키나와 유입 가능성을 지지하는 유물로 오키나와 우라소에성(浦添城)에서 출토된 「癸酉年高麗瓦匠造」명 기와를 들 수 있다. 계유년이 어느 연대를 지칭한 것인가에 대해서 고려 의종 7년(1153), 강종 2년(1213), 원종 14년(1273), 충숙왕 2년(1333), 조선 태조 2년(1393) 등이 제시되었으나 주로 고려 원종 14년과 조선 태조 2년설이 주목되었다. 아직 계유년이 분명하게 한 시기로 의견이 모아진 것은 아니므로 삼별초 관련 유물의 가능성만 지적해 두고자 한다.<sup>31</sup>



도6. 청해진유적 토층도(上). 출토 상감청자 및 금속유물 실측도(下)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장도청해진유적 유적발굴조사보고서 I』에서 전재)

31. 이형구, 최규성, 윤용혁은 1273년설을 지지하고 있다. 계유명 기와가 출토된 우라소에성은 슈리성 이전 중산왕조의 왕성이 있던 곳으로 도성 건설에 고려와의 깊은 연관이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으로서는 단언하기 어렵지만 계유년명 기와가 오키나와와 고려 창왕 원년의 공식교류 이전으로 소급될 수 있는 획기적인 자료가 된다(윤용혁, 2020, 『제1장. 오키나와 고려키와와 삼별초』, 『한국과 오키나와 초기 교류사 연구』, 서경문화사, 13-83쪽).

마지막으로 여몽연합군의 일본정벌은 고려사에 수많은 기사가 남아 있지만 유적과 유물로서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것은 없고 오히려 일본에는 다수 남아 있다. 후쿠오카 東公園에 위치한 元寇史料館에 전시되어 있는 몽고군 갑주(蒙古軍 戎衣로 소개하고 있음)와 활, 그리고 후쿠오카지역의 元寇防壘(博多小學校石壘遺構, 西新元寇防壘, 生の松原元寇防壘, 今津元寇防壘), 鷹島海底에서 원군의 선체편, 鐵製冑, 청자완 등이 출수되었다. 또한 회화작품으로는 蒙古襲來繪詞가 유명하다. 이 그림은 2권의 두루마리로 구성된 일본 가마쿠라 시대 후기의 그림으로, 원나라의 일본 원정 당시 원정군과 일본 무사들과의 싸움을 그린 것이다.<sup>32</sup> 이 그림에는 여몽연합군을 맞아 대항하는 일본군을 위주로 그려진 것이기는 하나 몽고군의 선박이 그려져 있고 상륙하여 공격을 받고 있는 몽고군과 함께 고려군이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착용한 갑주에서 구분된다(도7).<sup>33</sup>



도7. 〈蒙古襲來繪詞〉부분도(上·下)  
(작자미상, 두루마리, 원본(일본국내청 소장), 모본(규슈대학 부속도서관 소장본))

32. 井上蘭子, 2008, 『博多の元寇防壘』 2008, 『中世都市 博多を掘る』大庭康時・佐伯弘次・菅波正人・田上勇一郎編, 48-51쪽.  
33. 지금 우리나라에 남은 가장 오래된 갑주는 고려말 정지장군이 착용했던 것으로 알려진 경변갑(보물336호)이고 광주시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b. **교류유적** - 고려는 오대, 송대의 중국왕조와 사신의 교환이나 물자의 교역이 활발하였다. 송과의 교류는 빈번하였으며 1012년부터 1278년까지 고려에 내방한 송상은 고려사에 나타난 기록만 120여회에 달한다. 그리고 『선화봉사고려도경』에는 고려에서 중국사신을 맞이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군산도에 객관, 군산정, 공해, 오룡묘와 자복사, 송산행궁, 주민 10여 가가 있다고 했다.<sup>34</sup> 그런데 현재 군산 선유도 망주봉 동쪽 산봉우리 중단에 오룡묘가 있는데 이 묘사가 옮겨지지 않았다면 망주봉 동쪽 기슭에는 오룡묘와 자복사, 셋터마을 부근에는 관아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망주봉 서쪽 산봉우리 남쪽에는 송산행궁과 그 부근 바닷가에는 군산정이 위치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일대에 대한 조사 결과 선유도 망주봉 남쪽 기슭에는 산사와 흡사하게 건물지로 추정되는 계단식 지형이 남아 있고 송산행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구역에서는 건물지의 기단석과 적심석 담장지가 확인되었다.<sup>35</sup>

현지조사 결과 출토유물은 청자류와 기와류가 있는데 특히 청자류는 태토는 비교적 정선된 편이며, 기벽이 얇고 유색은 연회록색을 띤다. 받침은 백색내화토빛임과 고급의 기물에 사용된다고 알려진 규석받침도 일부 확인되었다. 내면에 받침 흔적이 없는 유물이 많은 것으로 보아 갑발을 이용하여 제작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문양은 주로 압인양각기법으로 화문을 새기거나



선유도 망주봉 일원



오룡묘 추정 송산행궁지

수습 청자

도8. 선유도 망주봉 오룡묘 일원과 수습 유물

34. 『宣和奉使高麗圖經』卷17 祠宇 五龍廟 海島3 群山島.

35. 군산대학교박물관, 2013, 『선유도 고려 송산행궁지 문화재 시굴조사』.

곽장근, 2017, 「국신사 서궁향로와 군산도 영절」, 『침몰선에 실렸던 고려 사람들의 꿈』 전북수중발굴 15년의 성과, 국립전주박물관·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음각기법으로 화문, 앵무문, 연관문 등을 시문하였다. 받침과, 문양 등을 보아 12세기대에 제작된 청자들로 추정된다(도8).

또한 마도에는 객관이 있는데 안흥정이라고 한다고 하였다.<sup>36</sup> 이것은 고려사 기록에 의하면 중국 사신들의 입출국 경로에 자리 잡은 고만도의 객관이 수로에서 너무 멀어 정박하기에 불편하여 정해현 관내에 객관을 새로 설치해 사신들을 보내고 맞이하는 곳으로 삼은 곳이다.<sup>37</sup> 태안군 마도와 신진도의 마주보는 곳에 배를 정박할 수 있는 지형이 2개소 가량 확인되지만 현지조사 결과 대부분 개발되어 별다른 흔적이 남아 있지 않다. 다만 신진도의 북쪽 신진초등학교 인근에는 모래빛을 받침의 청자와 정선된 태토를 사용하여 기물을 제작한 다수의 절요접시가 확인되었고 제작 시기는 받침과 기형으로 보아 12세기 중반경으로 판단되어 안흥정과 관련된 유적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없지 않다(도9).



도9. 신진도 내 추정 고려건물지 유적 전경과 수습유물 일괄

중국에 남아 있는 고려의 해상활동을 입증하는 자료로는 高麗使館이 있다. 송나라는 해로로 오는 고려 사신을 접대하기 위하여 등주에 관을 설치하였고 개봉에도 고려사관을 두었으나 거란과 여진 등 북방민족의 압력으로 육로가 막히자 西海南部斜斷航路의 관문인 명주에 고려사관을 다시 만들었다. 고려의 사신을 접견하던 곳은 모두 두 군데로 하나는 1078년 鎮海區 부둣가에 세운 航濟亭과 樂賓館이며 다른 하나는 1117년 북송 휘종 때 건립된 高麗館이다. 고려관은 1999년 닝보시(寧波市)에서 고려사관 유지를 찾아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일부 복원되어 있기도 하다(도10). 이와



도10. 고려관

(동양도자미술관, 2015, 『新發見の高麗青磁』 전제)

36. 『宣和奉使高麗圖經』卷37 馬島 有客館曰 安興亭.

37. 『高麗史』文宗31年 八月 辛卯 羅州道祭使·大府少卿李唐鑑奏, “中朝使命往來, 高麗島亭, 稍隔水路, 船泊不便, 請於洪州管下 貞海縣地, 創置一亭, 以爲迎送之所.” 制從之, 名亭爲安興.

같이 북송 해양교통의 중심지였던 Ningbo에 고려사관이 설립된 것은 고려의 해상활동을 증명하는 유력한 유적으로 보아도 틀림없을 것이다(도11).

c. 조운유적 - 60개의 포창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고려의 조운제도는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강화되며 조창을 중심으로 하는 조운제도로 전환되었다. 조창은 해로나 수로를 따라 서남해안과 한강로를 따라 설치되었다. 초기에는



도11. 동아시아 항로와 서금일행의 이동경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6, 『한국의 보물선』 전제)

12조창을 거점 삼아 조세를 운송하였으나 문종 중엽에 안란창이 추가로 설치되면서 13개 조창으로 늘어났다. 13조창의 위치는 대체적인 위치는 밝혀져 있으나<sup>38</sup> 고고학적인 발굴조사를 통하여 곡물창고와 같이 통양창과 관련된 뚜렷한 유적이나 유물이 아직 확인된 바는 없다.

다만 사천 선진리성이 조사 결과 고려시대의 통양창이었다고 볼만한 근거는 있다고 생각된다. 선진리성은 사천만의 동쪽 연안의 중앙에 돌출된 구릉 정상부를 중심으로 동쪽의 평지에 축조된 토축성으로 포곡식 평산성이며 전체 연장은 1382m에 달한다. 기단석렬을 배치한 성으로 통일신라시대에 제작된 기와의 시기를 참고하면 초축시기는 9세기 중후반으로 볼 수 있다. 이 토성은 10세기와 11세기에 수축되는데 보고자는 이 시기에 통양창이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것은 성곽의 위치와 축조, 수축과정을 두고 보면 근거가 없지는 않으나 통양창이 위치하였다고 하였을 때 있어야 하는 공해나 창고건물 등 내부 구조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단정하기는 어렵다.<sup>39</sup>

지금의 태안반도 서쪽 끝인 신진도와 마도 주변의 해협인 안홍량은 험한 물길로 예로부터 선박의 사고가 잦은 곳으로 난항량으로 불리던 것을 안홍량으로 고쳤다고 한다. 서궁의 기록에도 놀란 여울물이 들끓어 오르는 것이 천만가지로 기괴하여 말로 형언할 수 없다고 하였다.<sup>40</sup> 오늘날 우리들이 보물선이니 타임캡슐이라고 부르는 마도 일원의 침몰선은 바로 이 일대의 거친 물결 때문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려 조정에서는 인종 12년(1134)에 홍주(충남 홍성군) 소대현(충남 태안군)에 운하를 굴착하고자 하였고 의종 8년에는 소대현에 운하를 개착하고자

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였다.<sup>41</sup> 그 후 고려말에 들어 다시 왕실의 인적인 왕강에 의하여 탄포와 창포 사이를 잇는 운하 개착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도12).<sup>42</sup> 당시에 운하 개착을 위하여 굴착한 흔적은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무미고개 부근에 당시의 굴포 흔적이 남아 있고 지금은 대부분 논으로 경작되고 있으며 당시 해수가 찼던 지점도 거의 논으로 경작되고 있다.

또한 안홍 내항에서 안홍량으로 접어드는 지역인 안홍초등학교 신진도 분교 일대와 분교 후문에서 서북쪽 100m 지점에서는 기와편과 도기, 청자, 백자 편이 발견되어 조운과 관련된 건물지가 위치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안홍량 일대에는 안전항해와 관련된 제사유적들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기도 하다. 근흥면 신진도리 일대와 파도리 일대 등 안홍량을 접하고 있는 지역의 정족리 지령산, 성안마을, 당산, 신진도리, 마도, 파도리 아치네, 가의도 등의 산제당, 성황당에서는 모두 매년 음력 정월에 풍어와 함께 조운선 및 사신선의 순조로운 항해를 기원하는 제사를 올렸다고 한다. 순조로운 항해를 기원하는 제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고려시대 유구와 유물로 확인된 바는 아직 없다.



도12. 운하굴착에 따른 동선변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0, 『태안마도 1호선』에서 전제)

## 2) 관련유물

박제품 가운데 대다수는 다량으로 운송할 경우 부피가 큰 도자기와 수레나 인력으로 운반하기에 무거운 금속제품이 차지한다. 도자기는 수중에서 인양된 것으로 보아 선박을 이용한 것이 분명하고 동전 또한 신안선의 예를 보아 수입하는 경우에는 선박을 이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동경은 국내에서 발견되는 양이 상당하고 출토되는 경향을 보면 특히 중국제 동경(호주경, 소주경 등)에 대한 수요가 각별하여 대량으로 들여왔을 것으로 판단되어 박제품으로 보았다.

38. 한정훈, 2013, 「2.조창제의 성립과 정비」, 『고려시대 교통운수사 연구』, 해안, 132-157쪽; 문경호, 2014, 「1. 고려시대 조운제도의 성립과 전개」, 『고려시대 조운제도 연구』, 해안, 70-165쪽.  
 39. 사천시·경남문화재연구원, 2008, 『사천 선진리성 사천 선진리성 공원화사업지구내』 연구총서 제65집.  
 40. 『宣和奉使高麗圖經』卷37 海島 馬島 是日西後, 風勢極大, 舟行如飛, 自軋子苦, 一瞬間, 即泊馬島, 蓋清州境也, 泉甘草茂, 國中官馬無事, 則群牧於此, 因以為名, 其主峰渾厚, 左臂環抱, 前一石甯入海, 激水回波, 驚濤洶涌, 千奇萬怪, 不可名狀, 故舟過其下, 多不敢近, 慮觸暗礁也.

41. 『高麗史』仁宗12年 秋七月 是月, 遣內侍鄭襲明, 鑿河于洪州蘇大縣, 以安興亭下海道, 為衆流所激, 又有岩石之險, 往往覆舟, 或有獻議, “由蘇大縣境, 鑿河道之, 則船行捷利.” 遣襲明, 發旁郡卒數千人鑿之, 竟未就.  
 42. 『高麗史節要』卷之35 恭讓王3年 秋7月 三道水軍都體察使王康 請開專堤渠 以通漕運 調發楊廣道丁夫 浚之不克.

### a. 청자

침몰된 고려선에서 출수되는 박재품의 종류는 곡물과 도자기가 대부분이다. 곡물은 대부분 세곡미나 지방에서 개경으로 올리는 것이었고 도자기 중 청자는 대량으로 포장되어 서해안의 물길을 따라 개경으로 운반되었다. 그러므로 해저에서 인양되는 곡물류와 청자는 당시의 해상활동을 증명하는 가장 적극적인 자료로 볼 수 있다. 다만 지방 가마에서 개경을 비롯한 각지로 운송되었던 것은 이미 인양된 선박으로 증명된다고 할 수 있지만 국외에서 발견되는 청자는 당연히 누군가에 의하여 운반되었을 것이며 한두 점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면 이 과정에 선박을 이용하였을 것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고려시대는 매우 다양한 송자기가 수입되었다. 고려에 수입된 북송의 자기는 요주요의 청자인화보상당초문완이나 자주요의 백지흑화모란문병, 정요의 흑유금채화문완, 경덕진요의 청백자과형주자와 승반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고려시대 중국도자기가 출토된 유적은 대부분 분묘와 사지이다. 강원도 삼척군 북평리 삼화리 고려고분, 강원도 법천리 사지. 개성 만월대 왕궁지, 경기도 남양주 수종사탑 등에서 출토된 것은 유명하다. 특히 경기도 남양주 수종사탑에서 출토된 청자주름문화와 금속제 사리기와 같이 중국자기를 사리호로 사용하기도 했다.

태안마도 해역에서는 2009년부터 4년간 각종 백자들과 청자는 물론 흑유, 도기호 등 다양한 기종의 166점에 이르는 중국도자기를 인양하였는데 송 원대 복건성 등지에서 제작된 것으로 일본 큐슈 하카타지역에도 유사한 형태의 도자기가 확인된다. 특히 일부 도자기 바닥에는 글씨가 쓰여 있는데 이 중 丸과 船은 배를 가리키는 것이고 丘, 鄧, 漁, 鄭, 徐綱, 朱綱, 林綱 등 나머지 글자는 성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성 뒤에 붙은 강은 綱司의 줄임말로 사설군대까지 갖춘 대규모 상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중국도자기의 출수는 러송무역 뿐만 아니라 일송무역과도 관련된 송선의 화물로 보고 있어 마도해역에서 출수된 중국도자기는 중국대륙 - 한반도 - 일본을 잇는 송나라 해상의 해상무역 네트워크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sup>43</sup>

전남 영광군 낙월면 소각시도 해저에서 인양된 청자방형연적은 중국 원대의 무역자기이며 북제주군 한경면 선창리 해저에서도 다량의 중국자기가 인양되었는데 河濱遺範 金玉滿堂 등의 명문은 남송대 용천자기에서 흔히 보이는 것이다. 또한 제주도에 발견된 원의 귀달린 흑갈유도기병은 신안해저에도 출수되기도 하며 여몽연합군이 출병한 일본 구주에서도 발견되는 것으로 원자기의 이동경로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sup>44</sup> 이상과 같이 고려에서 발견되는 중국자기는 물론 중국선을 타고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지만 고려선이 중국에서 직접 들어왔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아울러 고려청자가 중국에서 출토되는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선화봉사고려도경에는

43. 임경희, 2013, 「마도해역 발굴 목서명 도자기의 역사적 성격」, 168-183쪽; 栗建安, 「韩国泰安马岛水下考古发现的福建陶瓷及其相关问题」, 184-209쪽;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3, 『태안 마도 출수 중국도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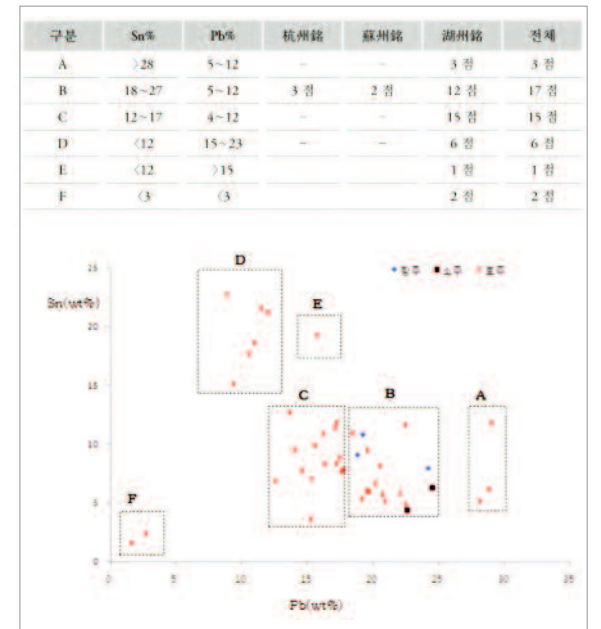
44. 국립대구박물관, 2004, 『우리 문화 속의 중국도자기』.

고려청자를 평하면서 도기 중 색이 푸른 것을 고려인은 비색이라고 부른다. 근년에 제작이 정교해져 색과 빛깔이 유난히 뛰어나다고 하였고, 남송 태평노인의 수증금의 천하제일에는 고려비색이 포함되어 있어 중국에서도 높게 평가 받고 있었으니 그 수요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결과 중국 각지에서 고려청자가 발견되는데 크게 남과 북 두 개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랴오닝, 지린, 네이멍구, 베이징, 허베이 등을 중심으로 하는 북방지역이며 다른 하나는 장쑤, 안후이, 저장 등을 중심으로 하는 남방이다.<sup>45</sup> 출토지역이 이렇게 남북으로 크게 나뉘는 배경이 고려와 중국의 바닷길을 통한 경로와 크게 연결된 것은 분명하고 이 경우 고려선박이 그 운송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은 봉래선의 경우를 보아도 당연할 것으로 생각된다.

### b. 동경 및 동전

고려료에는 중국전이 자주 출토되고 있는데 대다수는 북송전이 차지한다. 대다수를 차지하는 북송전이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신종과 휘종 연간(1068~1125)에 중국에서 많은 양의 동전이 주조되었을 뿐 아니라 신종 시기의 신칙에 의하여 동전의 수출이 자유로웠다는 점에 기인한다. 또한 대송무역에 있어서 송 상인과 고려 상인의 활동을 감안할 때 그 과정에서 중국 동전이 고려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상당한 무게의 동전이 수입되었을 것이므로 신안선의 경우와 같이 선박을 이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sup>46</sup> 다만 아직 고려선이나 고려로 향하던 선박에서 다량의 선박이 발견된 경우는 없다.

동전을 수입하여 이를 실제 화폐로 유통되었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sup>47</sup> 선화봉사고려도경에는 고려 사람들의 지불수단은 포와 은병이며 중국에서 내려준 전보는 모두 부고에 저장해두고 있었다고 하였고,<sup>48</sup> 속종



도13. 명문별 주석, 납 함량 분포에 따른 동경수량 (국립중앙박물관, 2012, 『국립중앙박물관 고려시대 동경자료집』 전제)

45. 小林仁, 2017, 「中國出土の高麗青磁」 『中近世陶磁器の考古學』 第6巻.

46. 김병근, 2004, 「신안해저유물을 통해 본 중세 동북아교역」, 『신안선 보존과 복원, 그 20년사』 개관10주년 기념학술대회,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0-19쪽.

47. 임태경은 고려전기 대량의 동전수입은 청동불교구의 제작과 관련되었다고 보았다(임태경, 2014, 「고려로 유입된 중국 동전의 기능과 용도」, 『해양문화재』, 제7호, 12-75쪽).

48. 『宣和奉使高麗圖經』 卷3 城邑 貿易 無泉貨之法, 惟紆布銀餅, 以准其直. 至日用微物, 不及正兩者, 則以米計錙兩而償之. 然民久安其俗, 自以為便也. 中間朝廷賜予錢寶, 今皆藏之府庫, 時出以示官屬傳玩焉.

대에는 은병이나 나중에는 쇠을 사용하여 중국처럼 동전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sup>49</sup>

중국에서 동전을 수입한 배경은 금속재료로서 활용하기 위한 것이며 대표적인 동의 수요처로서 사찰일 것으로 추정하고 그 시기는 범종이나 금고, 향완의 제작시기가 몰리는 12~13세기로 본 견해가 있다. 중국에서 동을 수입하여 제작한 것으로 판단한 범종이나 금고, 향완 등에 대한 성분을 분석하여 중국 현지에서 제작된 것과 비교분석한 결과가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에 동경으로 분류된 동경 가운데 중국 제작지(杭州, 蘇州, 胡州)명이 표시된 동경을 중심으로 성분 조성의 차이에 따라 분류하고 경면에서 나타나는 도금 층의 성분 분석을 통해 표면 제작기법을 조사한 결과가 있다.<sup>50</sup>

모두 75점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금속기지가 남아 있는 44점에 대한 결과는 구리, 주석, 납의 함량에 따라 6개의 유형으로 분류되고 구리 64~75%, 주석 18~27%, 납 5~12% 가량 함유된 B그룹 14점, 구리 64~80%, 주석 12~17%, 납 4~12% 범위로 함유된 C그룹 13점으로 대다수의 동경이 포함되었다(도13). 그런데 고려국조명이 표시된 동경의 성분은 구리 70.1%, 주석 15.3%, 납 12.6%이고 진~당대 동경의 주성분은 구리 66~78%, 주석 21~26%, 납 1~7%로 일정한 합금 조성비로 나타나며 오대, 송, 명, 청대에 이르면 합금 성분비는 일정하지 않고 주석은 감소하고 납 함량은 증가한다. 이러한 동경의 합금 성분비는 고려시대에도 반영되는데 자체 생산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동경의 성분 조성은 구리 68~71%, 주석 14~17%, 납 11~14%의 값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두고 보면 중국 현지에서 관 주도로 제작된 것은 B그룹에 속하고 C그룹의 동경은 중국 현지 사주경이거나 고려제작일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중국에서 수입된 동경은 아마도 동전처럼 박재품으로 고려사회에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현지 제작 동경과 고려 제작 동경의 성분 조성이 다른 것은 청동제품을 만드는 전통에 기인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 동전을 수입하여 제작된 금속제품은 형태나 문양은 다르지만 성분 분석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 5. 결론

이상의 글을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먼저 고고학적인 유적과 유물로 판단되는 고려의 해상활동은 고려 전시기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대단히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기대하기 어려운 고려시대의 침몰선이 발견되고 그 사용시기가 고려시대 전 기간에 걸쳐 있는 것은 고려인들의 해상활동을 증명하는 일차적인 자료가 될 것인데 이것은 고려 전시기를 걸쳐 이용되었을 화물의 해상운송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당시의 화물-특히 무겁거나 부피가 큰 화물은 대부분 해로를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대외교역과 관련된 선유도유적은 송과의 교류를 증명하는 중요한 유적으로 차후 발굴조사를 통하여 당시의 실상이 밝혀질 필요가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조창 유적은 분명히 밝혀진 것은 없으나 사천 선진리성이 초축 이후 수축되는 시기와 조창의 확립 시기와 맞물려 있어 차후 조창과 관련된 시설이 확인된다면 고려시대 조창의 구조와 역할이 보다 분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난극복을 위한 고려시대 해상활동을 간접 증거로는 삼별초의 대몽항쟁으로 비롯된 진도 용장성과 제주 항과두리성이 있었고 또한 장도 청해진유적은 고려시대까지 사용되어 수군기지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것은 고려가 해도입보를 기본으로 항몽전쟁을 이어가기 위한 기지로서 활용하였던 것이다. 다만 고려시대 전기에는 동여진의 침입을 받았고 후기에는 왜구의 침입을 받으면서 당시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직간접적인 유적과 유물이 있었을 것이나 오늘날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아울러 고려사람들의 해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청자가 있는데 청자는 침몰선에서 인양되는 유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품목이다. 고려청자는 동아시아 전역에 걸쳐 명성이 높았으므로 그 수요가 많았을 것이며 이것을 배로 운반하는 주체는 고려인들로 생각되고 중국 땅에서 폐기된 봉래선이 그 사실을 입증한다. 중국청자 또한 각종 유적이나 해저에서 발견되어 상당한 양이 선박을 이용하여 운반하였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 운송을 담당한 사람들 중에는 고려인과 고려선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아울러 동전과 동경은 고려의 수요가 커서 중국으로부터 수입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품목이지만 동전이 과연 얼마나 수입되었는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이상과 같은 고고학적 자료는 고려인들이 해외에서 성장하여 특하면 고래 같은 파도를 타게 되니 선박을 앞세워 나라를 지키고 자신들의 삶을 영위하였던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하겠다.<sup>51</sup>

49. 『高麗史』 志 貨幣 [市估]에 의하면 성종15년에 철전을 처음 사용하였고 숙종7년 해동통보를 주조하여 宰樞文武兩班軍人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중혜왕 원년에는 소은병을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50. 윤은영 강형태, 2012,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제작지명 동경의 과학분석」 314~325쪽; 안경숙, 「국립 중앙박물관 소장 중국 제작지명 동경에 대한 고찰」, 『고려시대 동경 자료집』 고고역사부편, 국립중앙박물관, 326~335쪽.

51. 『宣和奉使高麗圖經』 卷37 舟楫 乃若麗人, 生長海外, 動涉鯨波, 固宜以舟楫爲先.

고려시대 해상활동 관련 유적과 유물의 검토

## 참고문헌

고려시대 해상활동 관련 유적과 유물의 검토

### 사서 및 지리지

『三國史記』, 『高麗史』, 『高麗史節要』, 『宣和奉使高麗圖經』, 『朝鮮王朝實錄』, 『新增東國輿地勝覽』

## 단행본 및 논문

고용규, 2018, 「진도용장성」, 『한국중세고고학』 제3호.

곽유석, 2012, 『고려선의 구조와 조선기술』, 민속원.

곽장근, 2107, 「국신사 서궁향로와 군산도 영접」, 『침물선에 실렸던 고려 사람들의 꿈』, 전북수중발굴 15년의 성과, 국립전주 박물관·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국립대구박물관, 2004, 『우리문화 속의 중국도자기』, 2004 국립대구박물관 특별기획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6, 『한국의 보물선 타임캡슐을 열다 : 처음 만나는 수중고고학의 매력』, 공명.

군산대학교박물관, 2013, 『선유도 고려 송산행궁지 문화재 시굴조사』.

김병근, 2004, 「신안해저유물을 통해 본 중세 동북아교역」, 『신안선 보존과 복원, 그 20년사』 개관10주년 기념학술대회, 국립해양유물전시관.

김성범, 2009, 「중국봉래수성 출토 고려선」, 『한국중세사연구』 제27집.

김용덕, 2016, 「제주 향파두리성 내성의 조사성과」, 『최근 조사성과를 통해 본 제주 삼별초와 향파두리성의 성격』,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제주고고학연구소.

김재근, 1998, 『한국선박사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문경호, 2014, 『고려시대 조운제도 연구』, 도서출판 해안.

안경숙, 2012,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제작지명 동경에 대한 고찰」, 『국립중앙박물관소장 고려시대 동경 자료집』고고역사부 편.

윤용혁, 2020, 『한국과 오키나와 초기교류사 연구』, 서경문화사.

윤은영·강형태, 2012,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제작지명 동경의 과학분석-항주명, 소주명, 호주명 동경-」,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고려시대 동경 자료집』, 고고역사부편.

윤중현, 2016, 「제주 향파두리성 외성의 조사성과」, 『최근 조사성과를 통해 본 제주 삼별초와 향파두리성의 성격』

이진한, 2011, 『고려시대 송상왕래 연구』, 경인문화사.

임원식 등, 2004, 『고려시대 수군관련 사료집』, 신서원.

임태경, 2014, 「고려로 유입된 중국 동전의 기능과 용도」, 『해양문화재』 제7호.

정의도, 2020, 「장도 청해진설 비판」, 『한국성곽학회 2020년도 추계학술대회 축조수법과 축조배경으로 본 토성』 한국성곽학회.

해양문화재단, 2000, 『우리나라 해양문화』, 해양문화 지표조사보고서 ①서해안편 경기 충청, 실천문화사.

小林仁, 2017, 「中國出土の高麗青磁」, 『中近世陶磁器の考古學』, 第6卷.

井上繭子, 2008, 「博多の元寇防壘」, 『中世都市 博多を掘る』, 大庭康時・佐伯弘次・菅波正人・田上勇一郎編.

## 보고서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장도청해진유적 유적발굴조사보고서 I』.

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장도청해진유적 유적발굴조사보고서 II』.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0, 『태안마도1호선』.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1, 『태안마도2호선』.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3, 『태안마도 출수 중국도자기』.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4, 『인천 옹진군 영흥도선』.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6, 『태안마도3호선』.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6, 『안산 대부도2호선』.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6, 『태안마도4호선』.

국립해양유물전시관, 2005, 『군산 십이동파도해저유적』.

국립해양유물전시관·목포시, 1999, 『목포 달리도배』.

국립해양유물전시관·신안군, 2006, 『안좌선발굴보고서』.

문화공보부·문화재관리국, 1985, 『완도해저유물 발굴보고서』.

사천시·경남문화재연구원, 2008, 『사천 선진리성 공원화사업지구내 사천 선진리성』.

山東省文物考古研究所·烟台市博物館·蓬萊市文物國, 2006, 『蓬萊古船』, 文物出版社.

長崎縣北松浦郡 小値賀町教育委員會, 2007, 『小値賀島周邊海域及び前方灣海底遺蹟報告書』, 小値賀町文化財調査報告書 第18集.

## 초록

고고학적인 유적과 유물로 판단되는 고려의 해상활동은 고려 전시기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대단히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기대하기 어려운 고려시대의 침몰선이 발견되고 그 사용시기가 고려시대 전 기간에 걸쳐 있는 것은 고려인들의 해상활동을 증명하는 일차적인 자료가 된다.

또한 요와 금으로 북방통로가 막힌 이래 해상교류는 더욱 활발해졌을 것인데 대외교역과 관련된 선유도유적은 송과의 교류를 증명하는 중요한 유적으로 차후 발굴조사를 통하여 당시의 실상이 밝혀질 필요가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조창유적은 분명히 밝혀진 것은 없으나 사천 선진리성이 초축 이후 수축되는 시기와 조창의 확립시기와 맞물려 있어 차후 조창과 관련된 시설이 확인된다면 고려시대 조창의 구조와 역할이 보다 분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난극복을 위한 고려시대 해상활동을 간접 증거로는 삼별초의 대몽항쟁으로 비롯된 진도 용장성과 제주 향파두리성이 있었고 또한 장도 청해진유적은 고려시대까지 사용되어 수군기지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것은 고려가 해도입보를 기본으로 항몽 전쟁을 이어가기 위한 기지로서 활용하였던 것이다. 다만 고려시대 전기에는 동여진의 침입을 받았고 후기에는 왜구의 침입을 받으면서 당시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직간접적인 유적과 유물이 있었을 것이나 오늘날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아울러 고려사람들의 해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청자가 있는데 청자는 침몰선에서 인양되는 유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품목이다. 고려청자는 동아시아 전역에 걸쳐 명성이 높았으므로 그 수요가 많았을 것이며 이것을 배로 운반하는 주체는 고려인들로 생각되고 중국 땅에서 폐기된 봉래선이 그 사실을 입증한다. 중국청자 또한 각종 유적이나 해저에서 발견되어 상당한 양이 선박을 이용하여 운반하였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 운송을 담당한 사람들 중에는 고려인과 고려선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아울러 동전과 동경은 고려의 수요가 커서 중국으로부터 수입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품목이지만 동전이 과연 얼마나 수입되었는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통하여 화물의 운송은 주로 해로를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아마도 무겁거나 부피가 큰 화물일수록 해로를 이용하였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또한 해상 통로는 북방이 요나 금으로 통행이 어렵게 되자 대송 무역과 인적교류의 주된 수단이었다고 생각된다.

**주제어** 침선, 항몽유적, 교역과 교류, 외교, 제작지

## Abstract

Review of ruins and artifacts related to maritime activities during the Koryo dynasty

Jung euido

Koryo dynasty's maritime activities which were judged to be archaeological remains and artifacts are thought to be realized over the whole period of Koryo. It cannot be said to be much, but the discovered sinking ship of Koryo dynasty hard to be expected and its period of use over the whole period of Koryo dynasty are the primary data that certifies Koryo people's maritime activities.

Also since the northern route blocked by Yao dynasty and Jin dynasty, their maritime activities would have been more activated, and Seonyudo[仙遊島] ruins related to foreign trade are the important ruins to certify its trade with Song dynasty. Moreover, in case of Jochang[漕倉] ruins, it is interconnected with the period when Sacheon Sunjinriseong was contracted after its super contraction and the period of establishing Jochang so if the facility related to Jochang is confirmed, the structure and role of Jochang in Koryo dynasty would be more evident.

Moreover, the indirect evidence of maritime activity of Koryo dynasty for overcoming the national crisis included Jindo Yongjiangseong[龍藏城] and Jeju Hangpaduseong[缸坡頭城] resulted from Sambyeolcho's anti-mongol struggle, and Jangdo Cheonghaejin's ruins[將島 淸海鎮城] would have been used until the Koryo dynasty to display a role of basis for the naval forces. However, at the first period of Koryo dynasty, they were invaded by the East Yeojin[東女眞], while at the latter period, they were invaded by the Japan so the direct and indirect ruins and artifacts to show the situation of that time would be remained, but they are almost not remained.

Moreover, as the data to certify the maritime activity of Koryo people, there is the celadon, which occupies most of ruins lifted from the sinking ship. Since Koryo's celadon had the high reputation over the whole East Asia, its demand would have been much, and the subject who transported it on a ship is thought to be Koryo people, and the Bongrae ship abolished from Chinese land proves its fact. Since the Chinese celadon also was discovered from all kinds of artifacts or sea bottom, the considerable quantity would have been transported by ship, and those who transported them included Koryo people and ship. Moreover, the coin and bronze mirror were considered to be imported from China because Koryo demanded it much, but it is not still evident how much coin were imported and how they were used.



Through the above fact, the transportation of cargo has been realized mainly by seaway, and it could be thought that the heavier or more voluminous cargo, they would have been transported by seaway. Also, in case of the maritime route, when the north region was difficult to pass to Yao dynasty or Jin dynasty, it has been thought to be the main means of trade and human exchange with Sung dynasty.

**Keyword** Maritime activity, sinking ship, cargo, exchange, celadon, Bronze mirror

논문투고일 : 2020. 10. 13.  
심사완료일 : 2020. 11. 25.  
게재확정일 : 2020. 11. 30.

# OCEAN HeritAge

## 몽골제국과 제주도 - <탐라열전>의 역사적 의의 -

박영철 군산대학교 사학과 교수

1. 문제
2. <탐라열전>의 역사적 배경
3. 與國 탐라와 고려
4. 與國에서 屬國으로
6. 결어

## 1. 문제

14세기 후반 제주도를 낙원이라 묘사한 “탐라낙토”라는 말은 원명교체기의 동아시아의 역사적 전환기에, 신홍 명제국의 패권을 장악한 명태조 주원장이 제주도를 놓고 고려 공민왕과 갈등을 벌이면서 제주도를 묘사한 말이다.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 탐라 목자들은 元朝의 달달인으로 본래 牧養을 업으로 삼고 별로 농사를 지을 줄을 모른다. 또한 여러 해 동안 탐라에서 나고 자라 耽羅樂土에서 자라 생활해 온 사람들이다.<sup>1</sup>

이것은 홍무제가 고려사신 장자온 일행에게 한 말인데, 홍무제가 탐라를 낙토라고 인식하게 된 역사적 근거의 하나를 필자는 원대의 제주도 건문기였던 『耽羅志略』에서 연유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sup>2</sup> 『耽羅志略』은 원제국의 마지막 황제 순제의 명을 받들어 제주도에 순제의 궁전을 짓기 위해 제주도를 탐사한 李至剛의 저술로서, 『元史』의 자료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는데 『元史』에는 현재의 제주도인 탐라가 고려와 대등하게 독립적으로 열전에 배치되어 있어서 독자를 놀라게 한다. 유례없는 <탐라열전>은 삼별초의 난을 진압한 후 몽골제국이 탐라를 직할령으로 한데서 연유한 것이지만, 탐라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해양력의 발휘라는 점에서는 하나의 절정기를 맞이했다고 할 수 있다. 탐라는 본래 쿠빌라이 칸이 남송과 일본을 정벌하기 위한 요충으로 선택한 땅인데, 후에는 경제적 중심지로도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보인다. 단적으로 몽골의 14개 국영목장 중 하나가 제주도에 설치된 것도<sup>3</sup> 제주도가 몽골제국에 있어서 차지하는 위치가 가볍지 않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또한 쿠빌라이 칸의 권력계승에 불만을 품고 반기를 든 오치긴 왕가의 나얀·카단의 난(1287~92) 때도 쿠빌라이는 탐라의 戍兵 1천명을 동원시켜 한반도 내륙에 침입한 카단의 잔당을 공격시킬 정도로 탐라에 큰 신뢰를 보인 바 있다. 나얀·카단의 난을 계기로 탐라에서 압록강 입구까지 서해안 연안을 연결하는 수역 11개소가 설치되고(1293), 이를 통해 중국의 강남과 고려와 요동 지역이 경제적으로 연결되는 점이 주목된다.<sup>4</sup> 이러한 점에서 탐라는 몽골제국에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 것인데, 무엇보다도 탐라가 몽골세계제국의 직할령이 됨으로써 몽골과 직결되고, 제국의 중심부와 연결된 것은 그동안 동아시아해역에서 고려의 속국으로 낮게 대우받아 온 탐라로서는 비약적인 전환을 맞이한 것을 의미한다. 몽골제국과 제주도의 관련은 몽골제국의 남송 및 일본원정을 계기로 필연적으로 맺어지게 될 사건이었다. 결국 삼별초 난을 계기로 제주도가 몽골의 지배에 놓이게 된 후, 일본원정 이후로는 제주도는 오히려 제국의

1. 『고려사』 권43, 공민왕세가 21년(1372) 9월 18일 壬戌. (我尋思, 這耽羅의牧子, 係元朝達達人, 本是牧養爲業, 別不會做莊家. 有又兼積年, 生長耽羅樂土過活的人有).

2. 출고, 2019, 「황해남로와 '동이지중해' -원·명교체기 제주도의 해양사적 위상-」, 『탐라문화』 60,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3. 『元史』 권100, 兵志, 馬政.

4. 이강한, 2013, 『고려와 원제국의 교역의 역사』, 창비.

내부에 힘입어 몽골제국의 해양전략에 있어서 하나의 교역거점이자 교통요충으로서 부상하게 되는 것 같다.<sup>5</sup>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세계에서 떠나면 海外의 島國에 불과했던 탐라-제주도는 유라시아의 대륙과 해양에 걸친 광대한 몽골세계제국의 대두와 함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것이다. 『元史』 <탐라열전>의 성립은 실로 우연한 일이 아니라, 이러한 세계사적 사건의 반영이라고 할 것이다. <탐라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중국 정사의 외국열전에서 특이한 위치를 차지한다. 우선 탐라가 독자적인 열전으로 입전된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거니와, 이것은 원제국의 광범한 대외활동에 비추어 원사 <외국열전>의 협애성<sup>6</sup>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元史』의 두찬을 보충하기 위해 민국시대에 편찬된 『新元史』에는 <탐라열전>이 존재하지 않는다. 『元史』 외국열전의 고려열전과 일본열전 사이에 배열되어 있던 <탐라열전>은 신원사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sup>7</sup> 이는 20세기 근대사학의 세례를 받은 『新元史』 편자들의 편향된 민족주의 사관을 보여주는 것으로 흥미롭지만, 이미 원제국 멸망 이후에 편찬된 많은 사서들은 탐라열전의 독특한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다.

이에 비해 명초에 원제국의 반란자 명태조의 명으로 서둘러 편찬된 두찬의 비난이 많은 원사는 오히려 그 급조된 사서임으로 해서 원말명초의 독특한 탐라-제주도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탐라열전>의 서두에 나오는, 탐라를 가리켜 고려의 與國이라 한 표현은 이 시기 탐라의 역사적 위치에 대해서 정곡을 찌르는 표현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유라시아 대륙과 해양에 걸친 몽골제국의 대두와 맞물려 일어난 탐라의 역사적 위상이기도 한 것이다. 고려의 여국으로서 탐라의 역사적 위상은 몽골제국의 와해와 함께 다시 변화하게 되는데 <탐라열전>에 비친 탐라-제주도의 양상은 동아시아문명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역사적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다.

## 2. <탐라열전>의 역사적 배경

<탐라열전>은 그 독특한 배치와 내용에 있어서 그 자체로 동아시아 해양사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기록일 것이다. 탐라라는 전통적으로 중국정사에서 한반도의 국가들 다음에 일본 차례로 배치되는 정례에서 예외적으로 탐라가 그 사이에 배치된 것은 전무후무한 일로, 이는 쿠빌라이 칸의 고려원정 이후 남송 및 일본원정과 관련된 유라시아적 사건의 한 중요한

모멘트로서 기억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탐라열전은 대개 다음과 같이 단문이다.

탐라는 고려의 與國이다. 세조(쿠빌라이)는 고려를 신복시킨 후 탐라가 남송과 일본을 정벌하기 위한 요충임을 알고 주의를 기울였다. 至元 6년(1269) 脫脫兒 등을 보내 탐라 등의 길을 살피보게 하고, 고려국 왕(원종)에게 길을 안내하도록 명했다. (이렇게 탐라를 거점으로 원정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1270년에 삼별초 군대가 탐라에 진입하여 왔다. 9년(1272) 쿠빌라이의 중신들이 의논하기를, “일본을 칠 때 일본이 복종할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우선 탐라(의 삼별초)를 평정한 후 일본의 태도를 살핀 후에 (일본원정의) 일을 의논하는 것이 좋으며, 또한 탐라국왕이 일찍이 朝覲하였을 때, 현재의 반적이 그 주인을 쫓아내고, 그 성을 근거로 난리를 부렸으니 거병하여 토벌하는 것이 의리상 우선 할 일”이라고 말했다. 10년(1273) 경략사 忻都 史樞 洪茶丘 등에게 병선 108척을 끌고 삼별초의 토벌을 명했다. 6월에 삼별초의 난을 평정하고 耽羅國招討司를 세우고 1,700인을 주둔시켰다. 그 貢賦는 해마다 毛施布 백필을 바친다. 耽羅國招討司는 후에 軍民都達魯花赤總管府로 바뀌었고, 다시 軍民安撫司로 바뀌었다.

그런데 至元31년(1294)에 “탐라는 朝宗 이래 그 나라를 臣屬시켜 왔는데...이제 삼별초도 평정되었으니 옛처럼 신속하게 해 달라”라는 고려왕(충렬왕)의 상언에 대해 “이 일은 작은 일이니 고려에 돌려주어도 좋다”라고 해서 탐라를 고려에 돌려주었고, 이때부터 탐라는 고려에 다시 예속되었다.<sup>8</sup>

내용에서 보듯이 탐라는 쿠빌라이가 그 역사적 가치를 발견하고 활용함으로써 역사적 의의가 <탐라열전>으로서 남겨지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그 탐라의 가치란 우선 남송과 일본을 정벌하기 위한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가치일 것이다.

탐라열전에는 세조가 至元 6년(원종 10, 1269) 7월에 明威將軍 都統領 脫脫兒 · 武德將軍 統領 王國昌 · 武略將軍 副統領 劉傑을 파견하여 耽羅 등지의 도로 사정을 살피게 하면서, 高麗國王 王禕에게 안내하는 관리를 선발하여 보내주도록 명하였다는 기사가 있지만, 고려사에는 그보다 앞서 원종 7년(至元 3년, 1266)에 탐라성주를 몽골에 보냈다는 기사가 보인다.<sup>9</sup> 이렇게 고려로 하여금 탐라사절의 몽골입조를 주선하게 한 것이 바로 원의 세조였을 것이다.<sup>10</sup> 이 후 삼별초난의 발생으로 몽골군대는 제주도를 직접 지배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주지하듯이 1274년과 81년의 두 차례의 일본원정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쿠빌라이 칸은 정동행성을 설치하고 그의 일본원정의 야망을 계속 추구해마지 않았다. 정동행성은 칸이 세운 10여개의 행성 중에서 유일하게 지리적 실체가 없는 행성이다. 일찍이 고병익 선생이 지적했듯이 河南江北等處行省, 江浙等處行省, 江西等處行省 등 설치된 지명을 딴 다른 행성과는 달리 지명이 아닌 征東이라는 특이한 이름과 지명이 와야 할 等處가 결합된 征東等處行省의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sup>11</sup> 이는 물론 일본을 정벌한다는 목적을 띤 행성이었지만, 본래의 목적이

5. 이강한, 2017, 「13~14세기 고려와 원제국의 '탐라(제주) 정책」, 『한국학논총』 48,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배숙희, 2012, 「元代 慶元지역과 南方航路탐라지역의 부상과 관련하여」, 『中國學報』65, 한국중국학회 참조.  
6. 고병익, 1970, 「중국정사의 외국열전」, 『동아교섭사의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39쪽.  
7. 『新元史』, 권249는 외국열전1 高麗이고, 권250은 외국열전2 日本이다.

8. 『元史』 권208, 外夷列傳/耽羅. 일본원정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기사가 『元高麗紀事』, 耽羅, 至元9년(1272년) 11월 15일 中書省奏에 나와 있다.  
9. 『고려사』 권26, 원종세가, 7년 12월 6일 갑자. 遣正言玄錫, 以星主如 몽골.  
10. 고창석, 2007, 「어 · 원과 탐라와의 관계」, 『제주역사연구』, 제주시: 세림.  
11. 고병익, 1970, 「麗代 征東行省의 연구」, 『동아교섭사의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89쪽.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도 계속 존속되었고 후에는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기도 했지만, 고려는 상당한 자치를 유지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것은 고려국왕이 정동행성의 수장이면서 원의 부마라는 특별한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하겠는데, 어쨌든 고려는 피정복의 위기를 넘긴 왕국이었다. 처음에는 몽골과 30년 전쟁을 치렀으나 직후 고려는 삼별초와의 전쟁을 진도와, 탐라에서 몽골과 연합하여 치렀고 그리고 일본원정을 같이 치른 동맹국이었으며 피정복국이 아니었다. 따라서 정복지에서 분배해야 할 投下<sup>12</sup>의 토지와 인민이 없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부마고려국왕”이라는, 몽골제국의 부마이자 고려의 국왕이라는 이중적인 의미의 합체인 이상한 왕호도, 본래 일본정벌을 앞두고 고려를 안정시켜야 하는 쿠빌라이 측에서 고려의 자치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시된 정치적 거래의 음모라는 혐의도 있거니와,<sup>13</sup> 投下의 본질이 정복과 약탈을 통해 부를 재분배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러한 정치적 거래와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고려는 애초에 그럴 수가 없었던 것이 고려는 피정복지로서 재분배되어야 할 그런 나라가 아니었고, 미완의 임무인 일본정벌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동행성이 설치된 나라였고, 후기에 정복의 목표가 사라진 후에 입성운동이 수차례 벌어지기는 했어도 결국 입성되지 못했던 나라였다. 물론 때때로 몽골제국은 행성의 유무와 상관없이 왕위 교체를 둘러싼 충신 왕이나 충혜왕의 유배에 보듯이 지배자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강폭한 실행행사에 나선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몽골제국 내에서 고려의 독립성은 특기할만한 것으로서 이는 동시대의 고명한 페르시아 사가 라시드 앗딘의 『집사』도 특기할 정도이다.<sup>14</sup>

그런데 이러한 고려의 특수한 위치 못지않게 주목되는 것이 탐라열전에 나타난 탐라의 특수한 위치이다. 탐라열전 서두에 나오는 탐라는 고려의 輿國이라는 말이 그것이다. 輿國은 고대 중국의 춘추시대에 보이는 말인데, 동맹국·우방 등으로 이해된다.<sup>15</sup> 그런데 탐라가 고려의 輿國이라는 元史의 모두의 서술은 충렬왕이 말한 朝宗 이래 신속시켜 왔다는 설명과는 모순되어 주목된다.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추정컨대 輿國이라는 말은 몽골제국 당시 급부상한 탐라의 국제적 위상을 표현하는 말일 것이다.

輿國이라고 한 데 대해서, 岡田英弘은 탐라의 고려화가 늦어 고려시대에는 아직 완전히 내지화되지 않았던 것이 한 원인일 것이라고 한다.<sup>16</sup> 岡田의 주장을 계승하여 탐라의 고려화가 늦어 조선초기까지도 내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되지만<sup>17</sup>,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그 자체로 사실이겠지만, 지나치게 고려의 입장에서 탐라를 바라본 생각이 든다. <탐라열전>의 내용은 그렇게 읽기에는 탐라가 너무 독립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輿國은 앞서 『사기』 등 고대 중국의 사례에 들었듯이 대등한 비예속적 관계를 의미한다. <탐라열전>의 내용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탐라가 고려와 대등한 輿國이었는데, 다시 고려의 간청으로 고려에 예속되었다는 것으로 끝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사실 이후에도 실제로 탐라는 고려에 예속되지 않았다. 여기서 輿國으로 탐라와 고려의 대등한 관계를 표시하는 것은, 당시 “대몽골 울루스” 라고 표현되는 몽골제국공동체에 속하는 탐라국과 고려국이 같은 동맹국이라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같은 동맹국이라도 쿠빌라이의 카안 계승전쟁에 보듯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얼마든지 분쟁과 갈등을 벌이는 것이 몽골제국의 역사였지만 말이다.<sup>18</sup>

요컨대 輿國이 의미하는 바는 고려와 대등한 동맹국의 위치에 설 정도로 탐라가 당시에 몽골제국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탐라가 황해남단의 섬에서 갑자기 몽골제국의 중요한 위치로 부상한 것은 쿠빌라이 칸 때의 일인데 이는 말할 필요도 없이 칸의 남송과 정벌 및 이를 위한 발판으로서 탐라라는 군사적 지리적 요충이라는 가치 때문이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팍스몽골리카리는 몽골의 세계지배 속에서 쿠빌라이 칸 이래의 칸위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해상무역의 패권으로 확장되어 그 연장선상에서 탐라문제를 보려는 주장이 있어 주목된다. 즉 몽골사가 보르지기다이에 의하면, 쿠빌라이 칸의 집요한 일본원정 그리고 그 도상에서 탐라의 중시가 대몽골울루스 내에서 옷치긴 왕가와와의 갈등 특히 해상무역을 놓고 제해권 장악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것이고 한다.<sup>19</sup> 몽케 칸 사후 쿠빌라이 칸과 아릭부케 간의 형제간의 대결의 후유증이 만주지역을 근거로 한 동방왕가의 옷치긴가에도 연결되어 옷치긴가가 장악한 일본 태평양으로 연결되는 해상무역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교두보로서 탐라를 최선단의 군수산업기지로 중시했다는 것이다.<sup>20</sup>

그래서 <탐라열전>에 쿠빌라이칸의 원대한 해양제국의 구상 즉 “칸발릭(대도)을 태평양과 유라시아 대스텝을 잇는 燕京에 정초한 것도 그렇지만, 이미 무한개방으로 무한경쟁이 강요되는 스텝제국에 이어 같은 특성을 공유하는 ‘해양제국시대’를 내다보는 원대한 구상”<sup>21</sup>이 담겨 있다고 한다. 따라서 원제국의 마지막 황제 순제(혜종)의 제주도 천도는 우연한 것이 아니라, 팍스몽골리카리는 몽골세계제국의 역사 내 제주도의 지정학적 위치에서 보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전개되는데, 일견 엄청난 주장인 것처럼 들리지만, <탐라열전>의 전대미문의 위치를 놓고 볼 때 이러한 주장이 마냥 허구의 주장이라고 볼 수만도 없을 것이다.

12. 『元史』 권208, 外夷列傳/耽羅. 일본원정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기사가 『元高麗紀事』, 耽羅, 至元9년(1272년) 11월 15일 中書省奏에 나와 있다.  
 13. 『고려사』 권26, 원종세가, 7年 12월 6일 갑자. 遣正言玄錫, 以星主如 몽골.  
 14. 고창석, 2007, 「여· 원과 탐라와의 관계」, 『제주역사연구』, 제주시: 세림.  
 15. 고병익, 1970, 「麗代 征東行省의 연구」, 「동아교섭사의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89쪽.  
 16. 岡田英弘, 2010(1958), 「元の惠宗と濟州島」, 『モンゴル帝國から大清帝國へ』, 藤原書店.  
 17. 高橋公明, 2002, 「해역세계 가운데 제주도와 고려」, 『도서문화』 20,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제주의 토착적인 星主 王子制가 조선 태종 2년(1402)까지 지속된 것을 근거로 조선전기까지 탐라는 한반도의 군현제에 편입되지 않았다는 주장인데 탐라의 섬나라로서의 독특한 성격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18. 쿠빌라이와 형제 아릭부케 간의 계승전쟁에 대해서는 김호동, 2007, 「몽골제국과 고려」,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에 잘 설명되어 있다.  
 19. 보르지기다이 에르테니 바타르, 2009, 「팍스몽골리카리와 고려」, 해안, 153-154쪽. 그리고 그 해상무역의 이익은 원말기에는 원제국 조정의 30-40%를 점할 정도로 큰 비중이었다고 한다.(165쪽)  
 20. 보르지기다이 에르테니 바타르, 전개서, 218쪽.  
 21. 보르지기다이 에르테니 바타르, 전개서, 165쪽.

### 3. 與國 탐라와 고려

탐라와 고려 양국 관계의 변화를 살펴보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은 입공 기사이다. 고려에 대한 탐라의 입공 기록은 고려초기에 입공기사가 보이지만 몽골제국 시기에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공민왕 23년(1374)의 목호의 난 토벌의 명을 내리는 교서에서 공민왕은 “탐라국은 바다 가운데에 있으면서 대대로 우리에게 공물을 바친 지 500년이 되었다.”<sup>22</sup>고 하지만, 이는 과장되었음이 틀림없다. 공민왕 21년 吳季南을 파견해 명태조에게 전한 표문에도 탐라가 다음과 같이 조공을 바치지 않는 것을 탐라정벌의 한 명분으로 꼽고 있는 것이다.

“탐라는 (길이) 험하고 멀다는 것을 믿고 조공을 바치지 않습니다. 또 몽골인이 많이 그 나라에 거류하고 있어 옮겨야 합니다. 또 蘭秀山(賊黨)이 도망쳐와 모여서 도적떼가 될 우려가 있으니 병사를 동원해 토벌해야 합니다.”

라는 세 가지 탐라토벌의 명분을 제시한다. 홍무제는 공민왕의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있다.

“왕이 탐라의 작은 무리와 蘭秀山의 도망자들에 대해서는 짐의 명으로 명령을 내리면 다 불러들일 수 있을 텐데 (쓸데없이 전쟁을 벌여) 목장을 파괴하고 목호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안 될 일이다. 목호들이 탐라 땅에서 즐겨 산지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났다. 원제국의 운수는 이미 다했으니 탐라에 비록 胡人部落이 있어도 이미 고려에 복종했고 달리 꼬드기는 나라도 없는데 어찌 이리 시의심이 많은가?”<sup>23</sup>

홍무제는 노자의 烹鮮之治를 인용하면서 공민왕에게 전쟁을 피하고 탐라에서 積年樂土의 생활을 하고 있는 탐라인들을 잘 회유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2년 후에 목호의 대란이라는 비극이 초래되고 말았던 것이다.<sup>24</sup>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이 자신이 고려에 요구한 貢馬 2,000필이라는 무리한 액수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이라면, “(쓸데없이 전쟁을 벌여) 목장을 파괴하고 목호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안 될 일이다” 라는 자신의 말과는 아이러니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어쨌든 탐라가 몽골제국의 직할령에 들어간 이후 탐라에서 고려에 입공하러 가는 것은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일일 것이다. 충렬왕 2년에 “耽羅星主가 來朝하여 서열을 朝臣 4품 아래에 두도록 명하였다.”<sup>25</sup>는 기사도 조공의 흔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비해 탐라의

경우는 직할령 시기에 입공기사가 많이 보인다.

<탐라열전>에 보이는 삼별초의 난 진압을 결정하는 쿠빌라이의 참모회의에서 탐라 국왕이 일찍이 원조정에 朝覲했다는 기사를 시작으로, 至元 9년, 至元 18년(1281, 충렬왕7)<sup>26</sup>, 至元 28년(1291, 충렬왕17)<sup>27</sup>, 大德 2년(1298, 충렬왕24)<sup>28</sup>, 大德 7년(1303, 충렬왕29)<sup>29</sup> 등이 검색되는데 大德 7년 王約이 충렬왕의 요청으로 국내 문제를 처리하러 왔을 때, 탐라의 비토 산물의 입공면제에 東民이 환호했다는 말은 탐라에서 꾸준히 조공이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심지어 원명교체 이후, 목호의 난이 종결된 후인 홍무 20년(1387)에도 탐라국에서도 고려 국처럼 말을 조공하러 왔다는 기사가 보인다.<sup>30</sup> 탐라다루가치의 영향력이 탐라에만 미치는 것이 아님을 암시하는 기사도 있다. 至元 18년(1281) 5월에 올해의 耽羅入貢白紵를 면제한다는 기사와 아울러, 탐라다루가치 다루치에게 高麗全羅 등처에서 전렵으로 백성을 괴롭히는 것을 금하라는 칙이 선포되고 있는데<sup>31</sup>, 본래 탐라다루가치의 관할범위가 전라도지역을 포함하고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는 탐라라는 섬의 경계를 넘은 행동반경을 보이는 것으로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서 3년 전의 충렬왕의 호소가 주목된다. 충렬왕은 羅州·海南지역에서 다루가치가 역참을 함부로 설치하고 있다고 하면서 “어떤 체례를 근거로 하였는지 잘 아뢰어 명확한 지시를 내려주시기 바란다.”라고 원조정에 호소하였던 것인데<sup>32</sup>, 결과적으로 고려왕의 호소에 응답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여기서 정동행성의 수장으로서 고려왕의 권한에 대해서 고찰할 필요가 생긴다. 정동행성은 직책이 고려와 탐라를 함께 관할하도록 되어 있고 그 수장이 고려왕으로 되어 있지만<sup>33</sup>, 실제 정동행성의 수장으로서 고려왕이 탐라를 얼마나 관할하고 있었는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이것은 여국으로서 탐라와 고려의 관계와도 결부되는 문제인데, 여국으로서 양자가 대등한 관계라면 고려국왕으로서 탐라에 두어진 관부를 관할케 한다는 것이 모순되기 때문이다. 원제국의 행정에 모순적인 문제라고 할 것이다.

참고로 탐라다루가치에 대해서 살펴보면 고려사에는 원종 14년(1273)의 6월에 탐라다루

26. 『元史』 권11, 세조본기, 至元 18년(1281/충렬왕 7) 5월 壬子, 免耽羅國今歲入貢白紵.  
 27. 『元史』 권16, 세조본기, 至元 28년(1291/충렬왕 17) 11월 庚午, 耽羅遣使貢東紵百匹.  
 28. 『元史』 권19, 성종본기2, 大德 2년 5월, 耽羅國以方物來貢.  
 29. 『元史』 권178, 王 約列傳, 約命故臣洪子藩爲相俾更弊政罷非道水驛十三, 免耽羅貢非土產物東民大喜, 王約이 고려에 온 것은 고려사에 의하면 충렬왕 29년 11월 8일이고(『고려사』, 권32, 충렬왕세가 29년 11월 8일 辛酉) 돌아간 것은 다음 해 1월 18일이다(『고려사』 권32, 충렬왕세가 30년 1월 18일 庚午).  
 30. 『續文獻通考』(萬曆 30年 松江府 各本), 卷一百六十五, 兵考, 勅至遼東適高麗送馬三千四十四匹至, 勝宗如勅償其直既, 而耽羅國亦以馬來貢, 詔加高麗償之.  
 31. 『元史』 권11, 세조본기 至元 18년(1281/충렬왕 7) 5월 壬子, 免耽羅國今歲入貢白紵..敕耽羅國達魯花赤塔兒亦赤高麗全羅等處田獵擾民者.  
 32. 『고려사』 권28, 충렬왕세가 4년 7월 11일 임진.  
 33. 『元史』 권63, 지리지6에 의하면 정동행성이 2부1사5勸課使를 거느린다고 한다. 그 수장은 고려국왕이라고 하는데 고려국은 정동행성의 아래에 놓여 있는 이상한 그림이다. 2부의 하나는 瀋陽等路高麗軍民總管府이고 또 하나는 耽羅軍民總管府(大德五年立)이다. 『新元史』 권51, 지리지6에서는 『원사』의 瀋陽等路高麗軍民總管府가 정동행성에 속할 수 없다고 비판하여 征東行中書省이 2초토사와 5권과사를 거느린다고 고친다. 두 招討司를 征東招討司와 耽羅國招討司라 하는데 征東招討司는 정동행성내에 설치될 것이지만, 『고려사』에는 발견되지 않는다. 어쨌든 고려국왕의 어정정한 위치를 제외한다면 정동행성 내에서 고려와 탐라의 지위는 대등한 것으로 나타난다.  
 34. 『고려사』 권27, 원종세가 14년 윤 6월 6일 병진.

가치를 처음 설치한 것으로 나오는데<sup>34</sup>, 이는 동년에 耽羅國招討使로 임명된 失里伯을 가리킬 것이다. 고려사에서는 당시의 초토사를 다루가치로 기록한 것 같다. 그 후 두 번째 탐라다루가치로 나타나는 遜攤<sup>35</sup>을 제외하고는 세습되었음을 알 수 있다. 失里伯은 쿠빌라이 때의 명장으로 남송 공략에 공을 세운 인물이었다.<sup>36</sup> 쿠빌라이가 그를 탐라국초토사로 임명한 것은 탐라국의 군사적 요충의 중요성을 무겁게 보았다는 의미가 된다. 이 다루가치가 대를 이어 失里伯에서 失里伯의 아들 塔刺赤, 그리고 塔刺赤의 아들 奴列你他로 이어졌다는 사실은<sup>37</sup> 탐라가 원의 마지막까지 고려의 속국이 아닌 원제국의 직할령으로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말해준다.<sup>38</sup> 다라치는 충렬왕 2년(1276) 원이 말 160필을 보내 다루가치로 삼고 방목케 했다는 그 인물로 고려사에 기록되어 있다.<sup>39</sup> 다라치는 충렬왕 4년 원에 가서 황제의 선물로 해동청을 고려왕에게 선물하기도 하는데<sup>40</sup>, 5년 후 다시 원에 가서 돌아온 후 왕에게 잔치를 열고 말 두 필을 바치면서 고려여자와 결혼할 것을 구하여 內侍 鄭孚의 딸을 아내로 삼았다는 인물이다.<sup>41</sup>

이상을 통해서 몽골에서 탐라를 중시한 것과 함께 탐라다루가치가 몽골조정과 고려조정을 중개하는 연락처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충렬왕 4년 朴義가 전한 원중서성의 첩문에 의하면 탐라다루가치 다라치가 몽골중앙에 직접 상주한 내용이 고려에 지시되는 모양을 알 수 있다.<sup>42</sup> 당연한 것이겠지만 이는 탐라 다루가치가 문서형식상으로 몽골제국과 직접 교신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를 통해 고려를 오히려 관리 감독하는 다루가치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드는 것이다.

충숙왕 10년(1323)에 일어난 제주만호(濟州萬戶) 임숙(林淑)의 임면은 탐라와 고려의 관계의 놀라운 힘겨루기 사건의 양상을 보여준다.

35. 『元史』 권8, 세조본기 至元 12년(1275/충렬왕 1) 6월 29일 戊辰. 以遜攤為耽羅國達魯花赤.

36. 『元史』 권133, 失里伯列傳, 3234쪽.

37. 『元史』 권38, 순제본기 元統 1년(1333/복위충숙왕 2) 12월 입신. 以奴列你他代其父塔刺赤為耽羅國軍民安撫使司達魯花赤錫三珠虎符.

38. 탐라 다루가치에 대한 간단한 연구사 요약으로는 이병렬 · 이종수, 2014, 「13세기 대원제국의 탐라 다루가치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6-4, 한국지방자치학회 참조. 배승희, 2012, 「元나라의 耽羅 통치와 移住, 그리고 자취」, 『中國史研究』 76, 중국사학회는 원나라의 탐라 통치가 “내지의 변원지역과 비슷한 행정시스템을 도입하면서도 탐라의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 통치형태였다”(105쪽)고 하는데 그 이유는 탐라가 원의 직할령이라는 데서 오는 바가 클 것이다. 이것은 동녕부와 쌍성총관부와 비교한 탐라총관부의 성격에서도 드러나는 것 같다. 고려말의 국토회복운동에서 공민왕이 동녕부와 쌍성총관부 그리고 탐라총관부가 설치된 제주도를 탈환하려고 분투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탐라총관부는 동녕부나 쌍성총관부와는 성격을 달리 한다고 한다. 반도의 북방에 설치된 두 지역과 대조적으로 원은 지역의 토호를 통한 간접지배를 취한 반면에 탐라의 경우 다루가치와 목호를 파견해서 직접지배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金九鎭, 1989, 『麗·元의 領土紛爭과 그 歸屬問題—元代에 있어서 高麗本土와 東寧府·雙城總管府·耽羅總管府의 分離政策을 중심으로—』, 『國史館論叢』, 7, 참조.

39. 『고려사』 권28, 충렬왕세가 2년 8월 25일 정해. 元遣塔刺赤, 為耽羅達魯花赤, 以馬百六十匹來牧.

40. 『太祖高皇帝實錄』 권75 洪武 5년 7월 25일 庚午. “今王以耽羅叢爾之衆, 蘭秀山遁逃之徒, 用朕之詔, 示以威福, 一呼即至, 削去孳生之利, 移胡人於異方, 恐其不可. 蓋人皆樂土, 積有年矣. 元運既終, 耽羅雖有胡人部落, 已聽命於高麗, 又別無相誘之國, 何疑忌之深也.”

41. 『고려사절요』 권20, 충렬왕 9년 9월. 耽羅達魯花赤塔刺赤還自元, 享王, 獻二馬, 求婚. 以內侍鄭孚女妻之. 참고로 원종때 다루가치가 良家の 딸과 혼인하겠다고 요청하자 이를 허락했다는 기록이 있다.(『고려사』 권26, 원종세가, 11년 윤11월 19일 을유).

42. 『고려사』 권28, 충렬왕세가, 4년 9월 20일 신축. 장군 朴義가 원에서 돌아왔다. 중서성의 牒文에서 말하기를, “탐라다루가치 塔刺赤이 상주하기를, ‘탐라에 체류하는 죄수들을 고려의 협준한 섬으로 이송하라고 성지를 내리셨습니다. 이렇게 보내은 자들 가운데 두 명이 도주하였는데, 하나는 붙잡혔고 하나는 붙잡지 못했습니다. 전례에 따라 탐라에 보내십시오.’”라고 상주하였고, 성지를 받들었는데, 다른 험악한 섬에 보내 살게 하라. 그들에게 알리라.’”라고 하시었습니다.”라고 하였다. 將軍朴義還自元. 中書省牒曰, “耽羅達魯花赤塔刺赤奏, ‘留滯耽羅罪囚, 於高麗險惡島子裏教入去. 怎生聖旨. 那般者道來. 兩火兒逃走. 一拏住. 一拏不着. 依在先體例. 教耽羅裏入去.’ 怎生奏呵. 奉聖旨, ‘別介險惡島子. 方便教存住的. 他每識者.’”

제주만호(濟州萬戶) 임숙(林淑)이 마음대로 임지를 이탈하였으므로 행정(行省)에 수감시켰다가 용서하여 다시 임지로 가게 하였다.<sup>43</sup>

그런데 닷새 만에 제주도인의 항의로 임숙을 파면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 자초지종은 다음과 같다.

제주(濟州) 사람이 이름을 숨기고 글을 써서 저자에 게시하였는데, 거기에서 말하기를, “임숙(林淑)은 매우 탐욕스럽고 간사하여 온갖 방법으로 <백성을> 침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고통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지금 다시 임지로 돌려보낸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무슨 죄가 있는가?”라고 하였다. 또 行省의 문에 勝을 붙여 말하기를, “좌우사낭중(左右司郎中) 우치(烏赤)가 임숙의 뇌물을 받고서 법대로 하지 않고 방면하였다. 성부(省府)에서 만약 조사하여 탄핵하지[推劾] 않으면, 우리들 千人은 마땅히 상성(上省)에 고발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임숙을 파직하고 박순인(朴純仁)을 대신 임명하였다.<sup>44</sup>

제주도인이 저자에 글을 게시한 것은 개경의 성시였을 것인데, 행정의 문에 방문을 붙여 정동행성의 비리를 원제국의 중서성에 고발하겠다고 시위하고 있고 그것은 효력을 보고 있다.

특히 밑줄친 “우리들 千人은 마땅히 상성(上省)에 고발할 것이다”라는 발언은 당시 고려수도 개경에 제주도인들이 살고 있던 인수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당시 제주도 인구의 십분의 일에 해당한다고 한다.<sup>45</sup> 이렇게 많은 제주도인이 고려수도에 거주하는 것은 제주도가 조선시대와는 달리 개경과 직접 교통하고 있던 개방적인 지역이라는 증거일 것인데,<sup>46</sup> 이것은 제주도가 몽골제국의 직할령이 되면서 몽골제국의 중앙정부와 직접 관계를 맺으면서 몽골제국의 통치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효과라고 해야 할 것이다. 개경에서의 제주도인 천명의 시위도 놀라운 일이거니와 그 배경에는 몽골해양제국의 후원이 자리 잡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원대의 통치는 그 전 송대에 비해서 사법방면에서 전문계층이 우대되면서 사법행정이 향상되었다고 평가되기도 하거니와<sup>47</sup>, 그러한 효과가 몽골제국지배기의 제주도에 까지 영향이 미친 흔적을 정동행성에 대한 제주도민의 정면적인 林淑파면의 요구방문에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제주도민의 이 방문은 단순히 1인의 비밀스런 방문의 게시가 아니라 “省府若不推劾, 吾等千人當訴于上省.”에서 보이듯 제주도인 1천인의 이름으로 몽골제국의 중앙정부에까지 상소하겠다는 집단의 이름을 띠고 있을 정도로 매우 도전적이고 당당하기 까지 하다. 이런 항의자체가 제주도는 당시 고려에 환부되었다고 하나 여전히 몽골제국 중서

43. 『고려사』 권35, 충숙왕세가 10년 1월 12일 갑진. 濟州萬戶林淑擅自離任. 囚于行省, 有復之任.

44. 『고려사』 권35, 충숙왕세가 10년 1월 17일 기유. 濟州人爲匿名書, 揭于市云, “林淑甚貪婪, 侵漁萬端, 民不堪苦. 今復之任, 吾輩奚罪.” 又勝行省門曰, “左右司郎中烏赤受淑賄賂, 枉法免放. 省府若不推劾, 吾等千人當訴于上省.” 於是, 罷林淑, 以朴純仁代之.

45. 진영일, 2008, 『고대 중세 제주역사 탐색』, 보고사, 249-250쪽.

46. 진영일, 2008, 상동.

47. 宮崎市定, 1954, 『宋元時代の法制と裁判機構—元典章成立の時代的, 社會的背景』, 『東方學報』, 京都24冊. Paul Heng-chao Ch' en, 1979, Chinese Legan Tradition under the Mongols: The Code of 1291 as reconstructed-, Princeton University Press.; Elizabeth Endicott-West, 1989, Mongolian Rule in China: Local Administration in the Yuan Dynast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등 참조.

성으로부터 판결을 받을 권리가 있는 원제국의 영토임을 보여준다.<sup>48</sup>

앞서 충렬왕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탐라다루가치의 월권(?)이 제지되지 않고 오히려 탐라다루가치의 관할범위가 전라도를 비롯한 서해안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듯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의 역사와 달리 육지에서 해양을 내려보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해양에서 육지를 내려보는 이러한 역사의 역전은, 실로 몽골제국이라는 유라시아대륙과 동아시아 해양을 아우르는 대제국을 형성해서야 말로 가능한 것이고, 그중에서 탐라가 차지하는 위치가 비상히 중요한 지리적 요충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

#### 4. 與國에서 屬國으로

與國이라고 하는 것은 충렬왕과 공민왕 등 탐라의 지배권을 주장해 온 고려의 왕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일 것이다. 여기서 탐라의 역사를 간략히 일별해 보기로 하자. 탐라는 섬나라로서 일찍이 활발하게 주변국과 교류를 펼쳐온 것 같다. 기록상 최초는 476년(문주왕2) 때의 일로 이때 처음 탐라가 백제에 방물을 바쳤다고 한다.<sup>49</sup>

그리고 이후 탐라가 신라의 부용국이 된 것은 이후 한반도의 탐라에 대한 역사 인식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같다. 신라가 한반도 최초의 통일왕조로서 탐라국을 속국으로 취급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이 신라를 계승한 고려왕조에 계승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리고 표류관계의 기사에서 탐라는 ‘우리탐라(我耽羅)’라는 표현으로 나타난다.

송대의 표류기사에도 중국에 표류한 탐라인들을 고려에 송환했을 때, “우리 탐라” 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그러한 증거로 보인다.

송(宋)의 명주(明州)에서 우리 탐라(我耽)의 표류민 용협(用叶) 등 10인을 돌려보냈다.<sup>50</sup>

曾鞏은 탐라인의 표류를 전하면서 고려국의 경계에 있는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탐라의 고려에 대한 종속을 표현하는 말은 아니지만, 적어도 고려가 탐라보다 대외적으로 훨씬 알려진 국가이고 이들을 송환할 때도 탐라가 아니라 고려로 송환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에 표착한 탐라인의 구체적인 송환절차는 알 길이 없지만, 위의 ‘우리 탐라(我耽羅)’와 같은 표현은

이들이 송환될 때 송으로부터 고려정부에 통보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고려는 이를 통해 탐라가 고려의 속국임을 말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탐라’는 고려의 탐라에 대한 인식이며 그 역은 아니다. 그렇다면 탐라가 생각한 자의식은 어떠한가? 이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는 찾기 어렵지만, 간접적으로 다음 자료를 예시해 보자.

역시 북송 嘉祐(1056, 문종10~1063, 문종17) 연간에 탐라인이 중국 강남 해안에 표류한 사건이 夢溪筆談 등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탐라가 “屯羅島”로 표시되어 있다.<sup>51</sup> 그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嘉祐(1056-63) 연간에 蘇州崑山縣 해상에 배 한 척이 난파해서 언덕에 닿았는데 삼십여명이 唐人과 같은 의관을 입고 통곡하는데 언어를 알 수 없었다. 글자를 써 보아도 알 수 없었는데, 나중에 문서 1장을 꺼내 보여주는데 당나라 天祐(904-7) 연간에 “屯羅島首領을 陪戎副尉에게 除授한다”는 制書였고, 또 1장을 보여주는데 “高麗에 올리는 표문”인데 역시 屯羅島라 칭했다. 모두 한자를 썼다. 이로써 판단하면 아마 東夷 중에 고려에 신속하는 자들일 것이다.<sup>52</sup>

탐라인이 보여준 표문을 갖고 중국인이 판단한 탐라인은 고려에 신속하는 자로 생각되어 당연하겠지만, 그 표문은 두 종류였다는 점이 걸린다. 하나는 이미 고려가 아닌 신라시대 것이었기 때문이다. 天祐연간(904-7)의 연대는 당 말기이지만 마찬가지로 신라말기 孝恭王(7-10년)대에 해당하는데 이 표문은 신라가 발급한 것이었을 것이다. 이미 망한 왕조의 것을 포함해 두 개의 표문을 동시에 지참한 탐라인의 의도나 의식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아마도 그것은 고려인과 동일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어쨌든 이렇게 백제 이래 한반도와 긴밀한 관계에 있고, 드디어 고려에 편입된 탐라에 대해 당시 국제사회도 고려의 부용국(속국)이라고 생각했다면, <탐라열전>의 與國은 생경하게 느껴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원제국의 후예들의 유배지로 배정된 제주도는 몽골제국의 직할령으로서 몽골제국과 함께 번영을 누리던 고려국과 대등한 與國의 입장에서 갑자기 속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러한 흔적은 제주도의 朝天館에서 발견된다. 현재 제주도의 조천읍은 바로 이 朝天館에서 유래하는 것일 텐데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이 朝天館에서 조공물품(貢膳)이 운차로 바다를 건너 나간다는 기록이 보인다.<sup>53</sup> 조천관은 고려시대에 탐라의 사절을 맞이했던 朝宗館을 연상케 하는데,<sup>54</sup> 祖宗館보다 훨씬 강한 예측적인 이미지를 느끼게 한다. 고려시대에 비교적 독립적인 섬으로서 중국 정사인 『원사』에는 고려와 대등한 여국으로 탐라국으로 기술된 제주도가 朝天

48. 입속사건과 관련하여 참조할 수 있는 사건으로 충숙왕 5년(1318) 탐라민 使用과 金成의 봉기가 있다. 이 때 난을 평정한 토착세력 文公濟는 그 보고를 고려가 아니라 원에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김일우가 지적하듯이 고려보다 원을 자신의 배경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김일우, 2000, 『고려시대 탐라사 연구』, 신서원, 340쪽) 제주도의 토착인들은 고려인보다 몽골인들에게 더 호감을 가졌다고 한다면(大葉昇一, 1999, 『元·明初의耽羅(濟州島)』, 昭和女子大學文化史研究, 3), 이는 원대라는 특수한 시대, 즉 몽골세계제국과 고려 쟁방의 지배를 동시에 받았던 특수한 시대에 있어서 그 전까지 고려왕조가 제주도에 대해 차별과 해외무역금지라는 일종의 해금령에 대한 반감의 표현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고려시대의 해외무역금지 는 유지하듯이 최승로의 건의에 따른 고려의 국경방침으로 이는 “탐라인들이 표류가 아니라 중국과 일본 지역 등에 의도적으로 간 사실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김일우, 2000, 전계서, 135쪽)고 하는 데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49. 『三國史記』, 권26, 百濟本紀, 文周王 2년 夏四月, 耽羅國獻方物. 王喜拜使者爲恩率.

50. 『고려사』, 권10, 宣宗세가 5년(1088), 7월. 秋七月 宋明州歸我耽羅飄風人用叶等十人.

51. 屯羅島의 屯과 羅의 屯은 발음상 너무 차이가 난다. 아마 屯을 屯으로 오독한 탓으로 보인다.

52. “嘉祐中蘇州崑山縣海上有一船桅折風飄抵岸. 船中有三十餘人衣冠如唐人....見人皆慟哭. 語言不可曉. 試令書字. 字亦不可識. 行則相綴如鷹行. 久之自出一書示人. 乃唐天祐中告授屯羅島首領陪戎副尉制. 又有一書乃是上高麗表. 亦稱屯羅島. 皆用漢字. 蓋東夷之臣屬高麗者.” 『夢溪筆談』 권24, 上海古籍出版社, 2003, 201쪽.

53.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8, 제주목, 관방, 103-106쪽. 朝天館防護所 및 朝天館: 세 고을을 경유하여 육지로 나가는 자는 모두 여기서 바람을 기다리고 전라도를 경유하여 세 고을에 들어오는 자도 모두 이곳과 애월포에 배를 대인다.

54. 『고려사』, 권7, 문종세가 9년(1055) 2월 20일 戊申. 寒食, 饗宋商葉德龍等八十七人於娛賓館, 黃拯等一百五人於迎賓館, 黃助等四十八人於清河館. 耽羅國首領高漢等一百五十八人於朝宗館. 朝宗館의 朝宗은 鎮浦의 옛 이름인 朝宗浦에도 쓰이는데 이것은 제후가 천자를 알현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박영철, 전계서, 154-159쪽 참조.

館을 통해 한반도와 종속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던 것이다. 조천이란 본래 고려가 천자의 나라인 중국에 조공할 때 쓰는 말인데 제주도에서 고려에 입국할 때 조천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이다.

朝天館의 朝天은 천자의 나라에 입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朝天이라는 말은 고려시대의 외교관계에서 이미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고려가 강국인 거란에 대해서 사대할 때 쓰는 말이고,<sup>55</sup> 고려가 타국에 대해서 朝天을 받는 입장에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한편 고려사 지리지에는 제주도에 朝天館이 있다고 하여 주목된다.

“(육지에서 오는) 세 곳의 배는 모두 이 섬을 경유하여, 사서도(斜鼠島), 대·소화탈도(大小火脫島)를 거쳐, 애월포(涯月浦) 조천관(朝天館)에 이른다. 대·소화탈도 사이에 두 해류가 교류하여 파도가 높기 때문에, 무릇 왕래하는 사람들이 어렵다.”<sup>56</sup>

현재 조천관이 있는 곳은 연북정터인데 조천진표석이 세워져 있다. 이 표석에는 조천관이 공민왕 23년(1374)에 창건되었다고 적혀있다. 그러나 그 근거를 유감스럽게도 찾지 못했다.<sup>57</sup> 이원진의 탐라지에는 그 기원이 설명되어 있지 않고,<sup>58</sup> 增補耽羅志는 그 기원은 알 수 없지만, 제주도 사람들이 신라에 조공을 하러 이곳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조천이라고 한다는 설을



도1. 현대의 조천진 포구와 연복정 (필자촬영)

55. 『고려사』, 권7, 문종제가 9년(1055) 7월 1일 丁巳, 頃者, 上國入我封界, 排置橋壘, 梯航納款, 益勤於朝天, 雷闢抗章, 乞復其舊土, 至今未沐俞允, 方切禱祈. (요사이 상국에서 우리 영토의 경계에 들어와서 다리와 보루를 설치하였습니다. 먼 곳까지 가서 정성을 다하고 황제를 뵈기도 부지런히 하였으며, 어전(御前)에 장주(章奏)를 보내 옛 영토 회복을 빌었으나 지금까지 허락을 받지 못하여 바야흐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 『고려사』, 권31, 충렬왕제가 26년 11월, 臣亦朝天歲久, 不勝瞻戀, 乃於今春, 懇請入朝, 伏蒙聖慈俞允, 挀躍登途. (신이 또한 입조(朝天)한 지가 오래되었고 사모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금년 봄에 입조하기를 간청하였는데, 폐하의 자애로운 윤허를 입어 필적 뛰며 장도에 올랐습니다.) 『고려사』, 권43, 공민왕제가 21년(1372) 4월 25일 임인. 명에 탐라토벌을 요청하는 문서에도 조천이 보인다. 海邦雖陋, 唯知事上之心, 島夷不恭, 敢阻朝天之路, 茲彈愚懇, 仰瀆聰聞.

56. 『고려사』, 권57, 지리지2, 전라도/진도현/탐라현. 右三處舟船, 皆經此島, 過斜鼠島·大小火脫島, 至于涯月浦朝天館, 盖火脫之間, 二水交流, 波濤洶湧, 凡往來者, 難之.

57. 제주문화원의 백종진 사무국장님께 문의해 『조천읍역사문화지』 등 자료와 정보를 얻었으나 공민왕 23년이라는 문헌학적 근거는 찾지 못했다. 어쨌든 친절하게 답해 주신 국장님께 사의를 표한다.

58. 이원진이 郭期壽의 중장기를 인용하여 육지로 나가는 사람들이 순풍을 기다리는 곳에서 朝天의 이름이 생겼다고 한 것은 비역사적 설명이다. 이원진, 『탐라지』(고창석 외 역주), 2002, 푸른역사, 60쪽.

제시하고 있다.<sup>59</sup> 돌이켜보면, 공민왕 23년은 바로 목호의 난이 일어났던 그 해로 피비린내 나는 반란이 제주도 전토를 감싸던 시기이다. 목호의 난은 고려왕조가 전력을 기울여 제주도의 몽골세력을 파괴하고 여국 탐라를 그 전처럼 속국으로 돌리킨 역사적 사건으로서 제주도에 전해져 오는 속언에 고려를 망친 것은 목호의 난이라 할 정도로 고려도 결국 탐라-제주도의 몽골에게 국력을 소진한 결과 무너졌다고 할 정도의 대사건이었다. 삼별초의 난을 토벌할 때보다 두 배의 힘을 기울인 것이 목호의 난이었다. 그러므로 그 때에 조천관이 창건된 것도 우연이라고 하기 어려운 일일 것이다. 제주도로 보아서 이제 새로운 시대의 표시로 세운 것으로 보인다.



도2. 조천진터 표석(필자촬영)

조천관은 탐라-제주도가 한반도 안의 또 하나의 작은 위성적 조공질서가 작동되고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뜻하며, 여기에는 해양이라는 자연적 장벽에 더하여 중앙으로부터 더 고립되고 차등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가능성이 확대된다. 이는 몽골시대에 비해 제주도가 중앙에서 소외된 역사의 반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몽골직할령 때 탐라에서 압록까지 수역으로 연결되어 몽골 중앙부와 직결되던 탐라-제주도의 지위를 생각하면 현저한 격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유라시아대륙과 해양에 걸친 몽골제국의 대두와 맞물려 일어난 탐라의 역사적 위상은 몽골제국의 흥망과 위상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는데 목호의 난을 계기로 세워진 조천관은 여국에서 속국으로 전환된 탐라의 위상을 상징하는 역사적 유적인 셈이다. 대륙에 연결된 고려는 탐라-제주도를 조공질서 체제에 편입하는데 성공했지만, 탐라-제주도의 해양사적 관점에서 볼 때는 열려 있던 원대의 해양적 자유가 제압당한 좌절의 역사가 된다. 앞서 말했듯이 탐라가 고려의 여국으로 고려와 대등한 위치로 부상하게 된 것은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는 세계적인 몽골제국의 배경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고 몽골제국에게도 제주도는 일본원정의 실패 후에도 중국의 경제 중심지인 강남 慶元과 탐라와 일본의 博多를 연결하는 남방 항로의 연결루트로서 몽골제국의 해양정략에 불가결한 지정학적으로 천혜의 요충이었던 것이다.<sup>60</sup>

원명교체의 천지개벽으로 탐라-제주도는 지방 중의 지방, 먼 원양에 떠 있는 이국 같은 섬으로 차별과 불평등의 대표적인 공간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태는 조선왕조를 시종하여 개항 전까지 불변일 정도로 한반도의 역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령 제주도에 표류한 중국인과 외국인을 송환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제주도에서 해로가 아니라 한반도를

59. 『增補耽羅志』日本天理大學校圖書館所藏本, 제주특별자치도·제주문화원, 2016, 239쪽. 設鎮未知在何年, 而朝天之名蓋久矣, 高厚高淸航海朝新羅時自此發船故名云.

60. 원대 남방항로로서 제주도의 위상에 대해서는 배숙희, 2012, 『元代慶元지역과南方航路탐라지역의 부상과 관련하여』, 『中國學報』(6, 한국중국학회 참조).



거쳐 육로로 우회하여 송환되는 구조에도 드러난다.

제주도의 이러한 소외는 특히 19세기에 표류선의 송환 과정에서 발생한 폐철까지도 일일이 제주도에 육로로 중국의 심양까지 송환시키는 희비극적인 사건에 잘 드러날 것이다.<sup>61</sup> 필자는 명초 군산도에 초점을 맞추어 해금과 북경천도의 지정학적 영향으로 황해남로가 폐쇄되어 해양과의 소통에 큰 장애를 초래했다고 밝혔지만,<sup>62</sup> 원·명 교체 이후 제주도 역시 동아시아 해양사에서 그 역할이 쇠퇴하게 되었음이 분명해졌다고 할 것이다.

조천관과 세트틀 이루는 유물로 朝天石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대 박물관의 조천석은 산지천의 지주암에 세워져 있던 것으로 70년대 말 80년대 초 산지천 복개 공사 때 조천석의 ‘石’자가 파손된 채 민간에 있던 것을 제주대 박물관에서 구입한 것이라고 한다. 탐라문화연구원장 전영준 교수에 의하면 조천석은 이곳에서 발견된 것이 유일하고 조천관의 유래라고도 하는 조천포의 조천석은 전설로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전설에 의하면 조천관이라는 이름은 조천관 부근에 있던 조천석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그 조천석은 원래 선창가에 있었고 바위에 닳줄을 걸어 배를 매기도 했다고 하는데, 언젠가 중국에서 유명한 지관이 와서 “저 바위를 감추시오. 감추지 않으면 조천리에는 불량한 사람이 많이 나서 里民이 못 살게 될 것이요. 감추면 인물이 끊이지 않겠소”라고 했다고 한다. 그래서 백성을 부역시켜 성을 쌓고 동시에 조천석을 흙으로 덮어 여기에 정자를 지은 것이 현재의 연복정(조천진의 정자 이름)이라는 것이다.<sup>63</sup> 그런데 전교수에 의하면 여기서는 조천석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sup>64</sup> 공민왕 23년에 창건되었다는 조천관의 명확한 근거도 조천석의 기원도 후일을 기약하고자 한다.



도3. 조천석(제주대박물관 제공)

## 5. 결어

『원사』 이후 명청시대의 사서에 보이는 ‘與國耽羅’에 대한 언급은 대개 “그 역사적 유래를 알

수 없다”<sup>65</sup>고만 말할 뿐이라고 하는 데서도 與國耽羅의 역사는 망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雍正 4년(1726)에 완성된 청대의 대표적인 백과사전인 『古今圖書集成』에 수록된 탐라 부분의 기사도 후한과 삼국시대의 탐라를 기술한 州胡와 당과 원대의 탐라인 儋羅를 별개의 것으로 誤認하고, 州号部彙考와 儋羅部彙考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을 정도이다.<sup>66</sup> 조선 사대부의 경우, 예를 들면 유명한 崔溥의 耽羅詞도 전대의 탐라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몽골제국적 시각에서 본다면 왜곡된 의식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耽羅詞 35수 중 제10수 <星芒初動鷄林天 已艤耽津一葉船 恰似老人朝北斗 從今始與通人煙>는 신라 때 처음으로 노인성이 북두성에 조공하듯이 탐라인들이 신라에 조공하여 와서 왕래하기 시작했고, 제6수의 <秦童漢使枉費力 遺與三韓作附庸> 중국 대신 삼한이 탐라를 附庸國 즉 속국으로 삼게 되었다는 내용을 노래하고, 12수 <奈何變作逋逃藪 流入胡元染惡深>은 삼별초난 이후 제주도가 원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어 악에 갇게 물들게 되었음을 한탄하고 있다.<sup>67</sup> 그러나 耽羅詞에 드러난 崔溥의 역사의식은 중국 중심의 유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본고에서 말하는 유라시아해륙을 포괄한 몽골제국의 직할령으로서 고려와 대등한 여국탐라로서 백 년 간 지속된 낙도탐라라는 또 하나의 역사의식과는 매우 대척적이라는 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실은 첫째로 승자 중심의 역사인식과 함께 동아시아조공질서에 있어서 대국 중심의 역사인식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둘째로 이 역시 승자중심의 역사인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명청시대 이후 진행된 해금정책을 통해 시작된 대륙 중심의 정책을 통해서 島嶼와 해양의 역사가 실종된 데 그 중요한 원인이 있을 것이다.

고려시대의 제주도는 해양으로의 길이 열려 있었다. 목호의 난이 전개될 때도 그 소식은 아마 황해와 중국해를 통해서 원제국의 중심부로 전달되었을 것이다. 제주도에 돌아와 『耽羅志略』을 남긴 浙江의 李至剛도 황해남로를 통해 왕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해로는 원말 강남의 군웅들이 고려와의 통교를 위해 사절을 파견했던 길이기도 하다. 이렇게 제주도는 원제국 시기에 바다를 향해 열려 있었고 제주도는 동아시아 해양에서 원제국의 지배기간 낙도로 변모하게 하는 전에 없던 양상을 보이기도 한 것이다. 그것은 『원사』의 기술에서 탐라를 고려의 속국이 아니라 고려의 여국으로서 고려와 대등하게 위치 짓게 하였다. 이렇게 된 근처에는 제주도가 갖고 있던 해양적 속성으로서 그 해양력을 원제국이 충분히 가동하게 한 데 있었다고 생각된다. 삼별초난의 비극이 지나간 후 ‘팍스 몽골리카’의 백 년 간 제주도는 원제국의 국영목장의 설치 이래 비교적 평화롭게 지내왔던 것으로 보인다.<sup>68</sup> 원제국 지배의 약 백 년 동안

61. 줄고, 2018, 『화이의 교류와 표류—1809년 “濟州島漂船廢鐵 송환사건”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238, 역사학회 참고.

62. 줄지, 2017, 『군산과 동아시아—황해남로통방사—』, 민속원.

6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11, 『조천읍역사문화지』, 352쪽.

64. 조천석이 발견된 산지천은 일제에 의해 1926년 산지항이 건설되고 바다와 연결되었으나, 본래 포구가 있는 곳이 아니라고 한다. 산지천과 가까운 포구는 건입포이다. 산지천에서 조천석의 발견은 하나의 미스터리이다. 또한 조천석 배면에 쓰여 있는 “庚子春牛山書”의 유래 등 미상의 부분이 많다. 이상 조천석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 주신 전영준 교수께 감사한다.

65. 『元史類編』(邵遠平撰康熙38年本) 권42, “耽羅高麗與國也, 其始末無考”.

66. 『古今圖書集成』, 方輿彙編/邊裔典, 권41. 巴蜀書社, pp.25219-25224.

67. 吳文福편역, 2006, 『탐라사선 274수』, 이화문화출판사.

68. 조선시대에 제주도는 다시 속국이 되면서 전라도의 현으로 복귀되는데 이는 동아시아역사에서 대륙중심역사의 복귀를 천명하는 것이다. 제주도가 다시 전라도에서 독립하는 것은 1946년 미국군정하에서의 일이라는 것은 우연의 일치라기에는 묘한 점이 있다. 팍스아메리카와 팍스몽골리카의 두 제국은 해양과 대륙을 모두 아우르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해양의 해양성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자유를 부여하기 위해 대륙으로부터의 분리가 시도된 것으로 생각된다.

쌀농사의 환경에서는 척박한 제주의 토양은 목축에는 오히려 천혜의 자원으로 주목되었고, 여기에 몽골족의 선진적 목축기법을 도입하여 제국의 수요에 적합한 목축업의 섬으로 새로 나게 되었다. 황해의 남단에 놓여 있는 제주도가 고려의 변경이 아니라 원제국의 국영목장으로 원제국의 중심부의 하나로 변신하게 된 것은 제주도가 갖고 있는 천혜의 자원적 환경 덕분이고 그 환경에 주목하고 개발한 원제국의 정치적 역량이라 할 것이다. 그러한 낙토적 환경도 원제국의 마지막 황제 순제가 제주도로 천도하려고 한 요인의 하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낙토의 이미지는 원제국의 몰락과 함께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순제가 조성하려고 한 궁전도 순제의 죽음과 함께 미완으로 끝나고 말았지만, 조선시대에 와서 제주도는 고려시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한 것 같다. 그것은 조선후기 수백 년에 걸친 제주도의 인구 감소와 출륙금지령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조선시대 제주도의 역사적 낙후는 원제국의 몰락과 명제국의 등장으로 인한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의 형성에서 비롯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질서란 명을 종주국으로 하는 폐쇄적 조공질서이다.

몽골제국의 쿠빌라이 칸이 애초 황해 남단의 제주도를 주목한 것은 이 섬이 중국과 일본으로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쿠빌라이의 결단과 경략으로 제주도는 동아시아 해상에서 전에 없이 중요한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지형적 요지가 되었다. 원제국의 지배 100년간 제주도는 그 전 시대와 비교하면 낙토로서 번영을 누렸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원명교체기에 제주도는 낙토 상실의 위기를 맞게 되었고 그 결과는 牧胡의 난이라는 비극으로 나타났다. 원제국 후에 새로이 정착된 명제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원제국과는 달리 폐쇄적인 조공질서로서 제주도와 원제국을 연결하던 황해남로는 소멸되어 황해는 해금의 바다가 되었고, 원제국의 보호 하에 번영을 구가하던 제주도는 원제국 및 황해남로의 소멸과 함께 원제국 이전의 고려시대보다 더욱 강력하게 한반도에 복속하게 되었다. 제주도와 조선을 연결하던 통로가 朝天館이라고 불리는 것에서 짐작되듯이 제주도는 사방으로 열려 있는 자유로운 바다 위의 섬에서 오직 대륙과 연결된 한반도의 위성적 조공국가로만 기능하게 된 것이다. 朝天은 본래 조공질서를 상징하는 말로 조선이 명에 대해서 사대의 예를 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지만, 조선은 그 말을 자신의 조공국이 된 제주에 대해 부과한 것이다. 고려시대에 사방으로 열린 동아시아 해역의 중심을 차지하는 교통의 요충으로서 쿠빌라이가 주목했던 제주도가, 조선시대에 이르러 중국의 조공국 조선에 철저히 예속된 또 하나의 작은 조공국으로 변모된 과거를 회고해 볼 때, 제주도가 차지하는 해양사적 위상은 동아시아 역사상에서는 특이한 역사적 경험으로 돌이켜볼 가치가 있다.

요컨대 제주도의 역사는 한반도와의 관계사로 본다면 삼국시대 이래 속국과 탈속국의 반복의 역사에서 몽골제국시대에 와서 한반도와 대등한 여국적 관계에 놓인 새로운 차원의

역사를 보여주게 된다. 이것은 유라시아의 대륙과 해양을 포괄한 몽골제국의 성립과 그 특이한 몽골올르스라는 몽골적 정치체제에서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 기간은 짧았고 목호의 난이라는 격렬한 불협화음이 보여주듯이 다시금 이전의 동아시아적 조공질서체제로 복귀하면서 탐라열전의 역사적 배경도 망각되어 간 것이다.

## 참고문헌

### 사료

『고려사』, 『元史』, 『新元史』, 『元高麗紀事』, 『史記』, 『太祖高皇帝實錄』, 『고려사절요』, 『續文獻通考』, 『三國史記』, 『夢溪筆談』, 『신증동국여지승람』, 『增補耽羅志』, 『元史類編』, 『古今圖書集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11, 『조천읍역사문화지』.

이원진, 『탐라지』(고창석 외 역주), 2002, 푸른역사.

吳文福편역, 2006, 『탐라시선 274수』, 이화문화출판사.

라시드 앳딘(김호동 역), 2005, 『집사3 칸의 후예들』 사계절.

### 연구논저

岡田英弘, 2010[1958], 「元の惠宗と濟州島」, 『モンゴル帝國から大清帝國へ』, 藤原書店.

高橋公明, 2002, 「해역세계 가운데 제주도와 고려」, 『도서문화』 20,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고병익, 1970, 「麗代 征東行省의 연구」, 『동아교섭사의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고병익, 1970, 「중국정사의 외국열전」, 『동아교섭사의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고병익, 1984, 「원과의 관계의 변천」, 『한국사』 7, 국사편찬위원회.

고창석, 2007, 「어·원과 탐라와의 관계」, 『제주역사연구』, 제주도: 세립.

宮崎市定, 1954, 「宋元時代の法制と裁判機構－元典章成立の時代的. 社會的背景」, 『東方學報』, 京都24冊.

金九鎭, 1989, 「麗·元の領土紛爭과 그 歸屬問題－元代에 있어서 高麗本土와 東寧府· 雙城總管府· 耽羅總管府의 分離政策을 중심으로－」, 『國史館論叢』, 7.

김일우, 2000, 『고려시대 탐라사 연구』, 신서원.

김호동, 2007, 『몽골제국과 고려』,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大葉昇一, 1999, 「元·明初の耽羅(濟州島)」, 昭和女子大學文化史研究, 3.

박영철, 2017, 『군산과 동아시아—황해남로홍망사—』, 민속원.

박영철, 2018, 「화이의 교류와 표류—1809년 “濟州島漂船廢鐵 송환사건”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238, 역사학회.

박영철, 2019, 「황해남로와 ‘동이지중해’—원·명교체기 제주도의 해양사적 위상—」, 『탐라문화』 60,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배숙희, 2012, 「元나라의 耽羅 통치와 移住, 그리고 자취」, 『中國史研究』 76, 중국사학회.

배숙희, 2012, 「元代 慶元지역과 南方航路탐라지역의 부상과 관련하여」, 『中國學報』 65, 한국중국학회.

보르지기다이 에르테니 바타르, 2009, 『팍스몽골리카와 고려』, 해안.

岩村忍, 1968, 『モンゴル社會經濟史の研究』,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이강한, 2013, 『고려와 원제국의 교역의 역사』, 창비.

이강한, 2017, 「13~14세기 고려와 원제국의 ‘탐라(제주) 정책」, 『한국학논총』 48,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이병렬·이종수, 2014, 「13세기 대원제국의 탐라 다루가치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6-4, 한국지방자치학회.

이성규 편역, 2007, 『사마천사기』, 서울대학교출판부.

이원진, 『탐라지』(고창석 외 역주), 2002, 푸른역사.

정동훈, 2017, 「초기 고려-명 관계에서 제주 문제」, 『한국중세사연구』 51, 한국중세사학회.

진영일, 2008, 『고대 중세 제주역사 탐색』, 보고서.

Elizabeth Endicott-West, 1989, Mongolian Rule in China: Local Administration in the Yuan Dynast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Paul Heng-chao Ch`en, 1979, Chinese Legan Tradition under the Mongols-The Code of 1291 as reconstructed-, Princeton Uni-versity Press.

## 초록

『元史』에는 현재의 제주도인 탐라가 고려와 대등하게 독립적으로 열전에 배치되어 있어서 독자를 주목하게 한다. 『元史』 〈탐라열전〉의 성립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세계에서 머나먼 海外的 島國에 불과했던 탐라-제주도가 유라시아의 대륙과 해양에 걸친 광대한 몽골세계제국의 대두와 함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세계사적 사건의 반영으로 평가 된다. 탐라의 이러한 위치는 탐라열전에 보이는 與國이라는 용어에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제주도의 역사는 한반도와와 관계사로 본다면 삼국시대 이래 속국과 탈속국의 반복의 역사에서 몽골제국시대에 와서 한반도와 대등한 여국적 관계에 놓인 새로운 차원의 역사를 보여 주게 된다. 그러나 그 기간은 짧았고 목호의 난이라는 격렬한 불협화음이 보여주듯이 다시금 이전의 동아시아적 조공질서체제로 복귀하면서 탐라열전의 역사적 배경도 망각되어 갔다. 목호의 난을 계기로 세워진 조천관은 여국에서 속국으로 전환된 탐라의 위상을 상징하는 역사적 유적이다.

『元史』의 두찬을 보충하기 위해 민국시대에 편찬된 『新元史』에는 〈탐라열전〉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는 20세기 근대사학의 세례를 받은 『新元史』 편자들의 편향된 민족주의 사관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유라시아 대륙과 해양을 통합한 몽골세계제국에서 독특한 지위를 차지한 탐라의 해양사 및 그 현대사적 의의를 되돌아보게 한다.

**주제어** 탐라열전, 몽골제국, 與國, 屬國, 朝天館

## Abstract

### Mongol Empire and Tamra[Jeju Island]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amra Biography—

Pak Yeong-cheol

In The History of Yuan China, Tamra, the current island of Jeju, is placed in an independent Biography on par with Goryeo Biography, drawing attention from readers. The formation of the “Tamla Biography” is not a coincidence, but a reflection of the monumental history of Tamra-Jeju Island, which was only a distant land in the Chinese-centered East Asian world, rising against the emergence of great Mongol world empire across the Eurasian continent and oceans. This location of Tamra is specifically shown in the term friendly state[與國], which is seen in the Tamra Biography.

The history of Jeju Island, in terms of its relations with the Korean Peninsula, shows a new level of history from repeating of subjection and de-subjection since the Three Kingdoms Period to being equal with the dynasty in Korean Peninsula during the Mongol Empire era. However with the fall of the Mongol Empire and the defeat of the Tamra War Tamra Island was back to the old tributary status to the Peninsula. The Pavilion for Tribute[朝天館], built on the occasion of the Tamra War, is a historical monument symbolizing Tamra's status as a subjugation to the kingdom.

There is no Tamna Biography in the New History of Yuan China, which shows the biased nationalist views of the writers of the 20th century, who were baptized by modern history without recognizing the maritime historical significance of Mongol Empire.

**Keyword** Tamra Biography, Mongol Empire, allied state, tributary state, pavilion for tribute

논문투고일 : 2020. 10. 15.  
심사완료일 : 2020. 11. 06.  
게재확정일 : 2020. 11. 30.

# OCEAN HerITage

## 가쓰시카 호쿠사이 (葛飾北齋)의 우키요에에 묘사된 바다 표현 연구 - 《후지산 36경(富嶽三十六景)》을 중심으로 -

신나경 부산대학교 조형학과 교수

### I. 머리말

### II. 호쿠사이의 시대와 수변(水辺) 풍경의 우키요에

1. 호쿠사이의 생애와 에도 시대의 회화의 특징
2. 일본인의 자연관과 《후지산 36경》

### III. 《후지산 36경》을 통해 본 바다 표현

1. 수경(水鏡)으로서의 물의 표현
2. 파도의 표현과 구도법(構圖法)
3. 바다 표현과 감성적 색감, '재팬블루'

### IV. 맺음말

## I. 머리말

이 연구는 18세기 동아시아에서 풍속화가 성행하면서 민중의 취미가 수면 위로 떠오를 때, 일본에서 그 시대를 가장 잘 대표하는 화가로 알려진 가쓰시카 호쿠사이(葛飾北齋, 1760-1849)의 회화에 관한 연구로서, 그의 우키요에에서 묘사된 바다의 의미와 그 표현 방식을 탐구해 보고 그것에 기초하여 호쿠사이 회화의 미적 특질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호쿠사이는 19세기 자포니즘의 영향으로 세계적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매우 잘 알려졌지만, 의외로 그의 작품의 특징이나 기법에 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특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의 대표작인 <가나자와 앞바다의 높은 파도(神奈川沖浪裏)>는 국내에서도 널리 알려졌지만, 그 작품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거나 제대로 소개된 적은 거의 없다.

물론 호쿠사이의 세계적 지명도가 높은 만큼 국내에 그에 관한 연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개 현대 만화의 창시자라는 관점에서 호쿠사이의 만화를 연구하거나,<sup>1</sup> 또는 호쿠사이의 그림이 유럽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하여 주목한 연구<sup>2</sup>들이 대부분이다. 국외에서의 연구는 활발한 편이어서, 일본에서는 호쿠사이의 전기를 비롯하여 그의 작품들이 가지는 구도적 특징에 관한 연구, 그리고 그의 작품에 나타나는 풍경과 실제 지형과의 관계성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sup>3</sup> 그리고, 서양에서는 그의 대표작인 <가나가와 앞바다의 높은 파도>에 묘사된 파도를 글로벌 아이콘으로 주목하고, 거기에 묘사된 파도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sup>4</sup> 그리고 세잔느 등 당대 유럽 회화와 호쿠사이와의 영향 관계에 관한 연구<sup>5</sup>도 간간히 보이며, 호쿠사이의 회화에서 느껴지는 향수(nostalgia)의 표현에 주목하여, 일본에서 이러한 향수의 감성이 호쿠사이의 우키요에와 같은 시각예술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관한 연구도 있다.<sup>6</sup> 그러나 바다에 관한 그의 그림에 주목하여 그것을 중심으로 다룬 연구는 거의 없다.

바다와 파도는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나라에서 태어난 일본인들의 자연관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어서, 일본의 예술에서 매우 중요한 표현 주제였다. 만물을 모두 그리고 싶었던 호쿠사이 역시 늘 주변의 수변 풍경을 관찰하면서 평생 파도와 물의 묘사에 몰두해왔다.

1. 이봉녀, 2014, 「현대 만화의 관점에서 가쓰시카 호쿠사이 만화(漫畵)에 표현된 만화적 요소에 대한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8,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1-13쪽.  
2. 金賢華, 정무정, 2009, 「파리 근대사회, 근대미술, 호쿠사이(葛飾北齋)와의 만남: 자연에 대한 경의」, 『미술사연구』 23, 미술사연구회, 141-169쪽.  
3. 호쿠사이의 전기에 관한 것으로서는, 小林 忠, 2000, 「画狂人北齋の実像」, 『北齋展』, 동경국립박물관 & 日本經濟新聞社 編, pp.20-29가 있고, 구도적 특징에 관한 연구들로서는 岩中徳次郎, 1983, 『畫面構成: セザンヌから北齋まで』, 岩崎美術社, 209頁와 加藤千佳, 太田昇, 2007, 「北齋「神奈川沖浪裏」の構圖についての一考察」, Journal of Graphic Science of Japan 41(4), pp.3-8 등이 있다.  
4. 글로벌 아이콘으로 <가나가와 앞바다의 파도>를 다루는 대표적인 연구로서는, Christine M. E. Guth, 2015, *Hokusai's Great Wave: Biography of a Global Icon*, University of Hawaii Press와 Christine M. E. Guth, The Local and the Global: Hokusai's Great Wave in Contemporary Product Design, *Design Issues Spring* 2012, Vol. 28, No. 2, pp.16-29 를 들 수 있다.  
5. Endre E. Kadar & Judith A. Effken, 2008, Paintings as Architectural Space: "Guided Tours" by Cézanne and Hokusai, *Ecological Psychology*, Vol. 20, pp. 299 - 327.  
6. David Bell, 2014, Katsushika Hokusai and a Poetics of Nostalgia, *Educational Philosophy and Theory*, Vol. 47, pp.579-595.

다양한 형태로 빠르게 변화하는 물의 유동적인 모습을 포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지만, 호쿠사이는 그러한 물의 움직임 표현한 작품들은 많이 남겨, 날카로운 관찰력과 폭넓은 화법을 보여줄 뿐 아니라 그 학습에 관한 흔적도 잘 보여주고 있다. 호쿠사이가 이처럼 물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은,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물의 수도인 스미다구(墨田区)에서 생활하며, 날마다 스미다강을 필두로 물의 움직임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가 만년에 그린 대표작 <<후지산 36경>>은 거의 수변 풍경을 중심으로 그린 것이어서 물의 표현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특히 바다를 주제로 한 그의 우키요에 그림에 주목하여, 그의 우키요에가 가지는 특징을 구도와 색이라는 조형적 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호쿠사이는 90세 생애 동안 워낙 다양한 작품을 그렸기 때문에 그의 모든 수변 풍경을 짧은 1지면에 분석하기는 한계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후지산 36경>> 시리즈 중에서 당시 호쿠사이의 우키요에가 지닌 특징을 분석하는데 적절한 대표적인 몇 점을 골라 고찰할 것이다.

## II. 호쿠사이의 시대와 수변(水辺) 풍경의 우키요에

### 1. 호쿠사이의 생애와 에도 시대 회화의 특징

호쿠사이는 1760년 9월23일, 에도 스미다강(江戸隅田川)의 동쪽에 있는 혼쇼와리게스이(割下水, 현재 메구로구 지역)라는 곳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막부의 어용 거울제작자(御用鏡師)로서 나카지마 이세(中島伊勢)라고 하는데, 일설에 의하면, 친부는 가와무라(川村)라는 인물이며 나카무라는 양부라고도 전해진다.

최근대에 속하는 당시 시대에서는 동서를 막론하고 여성의 지위란 그다지 높지 않았고, 특히 유교 문화권인 한중일 삼국에서 여성의 지위는 남존여비 사상과 음양의 논리 속에 더욱 낮게 취급되던 시대였으므로 호쿠사이의 어머니도 역시 그 이름조차 전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호쿠사이의 어머니 집안은 추신구라(忠臣蔵)<sup>7</sup>로서 이름 높은 기라 요시히사(吉良義央)의 호위 무사이자 가신(家臣)인 고바야시 하치지로(小林平八郎)의 자손이었다. 호쿠사이는 그것을 평생 명예롭게 생각했다고 한다. 거울제작자도 막부의 어용상인(御用達)정도 되면 무감(武監)이라는 무가(武家) 명부에도 기록되므로, 회화계의 어용화사인 카노(狩野)파<sup>8</sup> 집안과 마찬가지로 무가에 따르는 취급을 받고 있었다. 준무가(準武家)의 기술자인 아버지(혹은 양부)와 무가의 피를 받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호쿠사이는 생애를 일개 촌부로 지내면서도 당시의

지배계급인 무사의 피가 체내에 흐르는 것을 의식하여 기개를 높게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sup>9</sup>

호쿠사이는 도슈사이 사라쿠(東洲齋写楽, 1770-1825), 우타가와 히로시게(歌川広重, 1797-1858)와 함께 우키요에의 황금기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데,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호쿠사이를 비롯한 우키요에 화가들은 서양 인상주의 화가들에게 영향을 준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호쿠사이는 스스로 모든 삼라만상을 그리겠다고 공언했으며 실제로 그가 그린 작품들을 주로 가부키 배우들만을 주제로 했던 동시대의 도슈사이 샤라쿠와 비교해 보면, 풍경, 인물, 풍속, 사물 등 주제와 소재가 매우 다채롭고 수에서도 압도적이다. 특히 물에 관심이 많아 바다나 수변 풍경을 즐겨 그렸는데, 그중에서도 서양은 물론 국내에도 가장 잘 알려진 작품은 대표작 <<후지산 36경(富嶽三十六景)>> 중 하나인 <가나가와 앞바다의 높은 파도>이다. 이 그림은 그 자체도 매우 유명하지만 클로드 드뷔시의 교향시 「바다」의 모티브가 된 작품으로도 유명하다.

정체되는 것을 몹시 싫어하였는지 호를 30번 이상 바꾸었으며, 90세에 바꾼 최후의 호는 ‘그림에 미친 사람’이란 의미의 ‘가쿄진(画狂人)’이다. 93번이나 이사를 했으며 어떤 날은 하루에 3번씩이나 이사를 했다는 일화 또한 유명하다. 또한, 다다미 120장 크기의 달마도를 그렸다는지, 쌀알에다 두 마리의 참새를 그렸다는 등의 믿기 어려운 일화도 많다. 그 덕분인지 생전에 3만 점이 넘는 작품을 낸 엄청난 다작가이기도 하다. 이렇게 열정적인 삶을 사는 예술가는 단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호쿠사이는 향년 90세로 오늘날로 따져도 매우 오래 살았으며 오히려 노년에도 작품활동을 멈추지 않고 더 활발히 임했다. 그의 대표작이라고 불리는 <<후지산 36경>> 과 <<후지산 백경(富嶽百景)>> 모두 70세 이후의 만년에 제작한 작품들이다.<sup>10</sup>

90세로 죽었으므로 당시의 평균 수명을 배로 넘어선 장수한 일생이었지만, 호쿠사이에 관한 최초의 전기 『호쿠사이전』(상하 2권, 1893)에 따르면, 그는 죽음을 앞에 두고, 크게 탄식하며 “하늘이 나로 하여금 10년만 더 살게 해준다면…”하고 말하고는 잠시 있다가, 다시 “하늘이 나로 하여금 5년만 목숨을 보장해 주면 진정으로 화공이 될텐데…”하고는 죽었다고 한다. 이처럼 그림에 미쳐 화가로의 길, 외길을 걸은 호쿠사이가 혼쇼에 태어나, 아사쿠사에서 죽을 때까지의 90년간은 어떠했을까?

호쿠사이가 태어나 그 인생을 살았던 에도 시대(1603년-1867년)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장군으로서 정치의 실권을 쥐고, 그 정부인 막부를 관동의 에도에 두고 전국을 지배했던 무가

7. 이봉녀, 2014, 「현대 만화의 관점에서 '가쓰시카 호쿠사이' 만가(漫畵)에 표현된 만화적 요소에 대한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8,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1-13쪽.  
 8. 金賢華, 정무정, 2009, 「파리 근대사회, 근대미술, 호쿠사이(葛飾北齋)와의 만남: 자연에 대한 경의」, 『미술사연구』 23, 미술사연구회, 141-169쪽.

9. 우키요에 화가로 유명하지만 직접 그린 육필화에도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여 그의 육필화 또한 우키요에 못지않게 잘 알려져 있다. 미술에 대한 열정이 매우 깊어 전통적인 우키요에 기법을 넘어 서양화 등 여러 가지 다른 기법을 자신의 작품에 적용했으며 이 때문에 스승에게 과문을 당하기도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과문은 스승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작품활동을 하게 되면서 호쿠사이의 작품 세계를 더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10. 호쿠사이의 생애와 시대에 관해서는 주로 小林 忠, 2000, 「画狂人北齋の実像」, 『北齋展』, 동경국립박물관 & 日本經濟新聞社編 pp.20-29와 <https://intojapanwaraku.com/jpart/1100/>(검색일, 2020.08.20.) 그리고 <https://ja.wikipedia.org/wiki/%E8%91%9B%E9%A3%BE%E5%8C%97%E6%96%8E> (검색일, 2020.08.20.)를 참조하였다.

정치의 시대였다. 그리고 미술의 세계, 특히 회화의 분야에서는 장군이나 다이묘(大名)<sup>11</sup>가 비호하는 카노파(狩野派)가 압도적인 권력을 가지고 지배하고 있었다. 카노파는 중국회화, 특히 송·원화의 일본화에 성공하여, 무로마치 시대(1392~1573) 후기 이래로 항상 무가의 애호를 받아왔던 회화 유파였으나, 에도 시대를 통해서도 그 독점적인 지위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장군의 휘하에는 오키에시(奥繪師)<sup>12</sup> 와 오모테에시(表繪師)<sup>13</sup> 등의 어용화가 있어, 장군이나 막부의 공적인 회화를 거의 독점적으로 맡았다. 또한 카노파의 각 가문이 그림을 배우던 회화교육장은 중앙의 회화교육기관으로서 기능하여, 그 문하가 전국각지 다이묘의 어용화가(다이묘 화가)로서 파견되고 있었다. 카노파가 확립한 회화이론과 회화 양식은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보급되어 카노파 화가의 그림만이 정통적인 그림, 본질적인 그림, 즉 ‘모범화’로서 공인되고 있었던 것이다.

관의 그림으로서는 그 외에 카노파보다도 더 오랜 역사를 가진 토사(土佐)파가 조정의 화가로서 존재했다. 토사파의 당주는 대대로 헤이안 시대에 있었으며 공식적으로 회화를 제작하는 기관의 장관이라고 하는 ‘에도코로 아즈카리(絵所預)’라는 관직명을 받아, 전통적인 일본화, 즉 ‘야마토에(大和絵)’의 계승을 자인(自認)하고 있었다. 그 토사파의 분파인 스미요시가문(住吉家)이 교토로부터 에도로 파견되어, 카노파와 나란히 장군이나 막부의 어용화가로도 일하게 되었다. 이러한 막부나 번(藩), 혹은 조정의 비호를 받은 관화파의 어용화가가 활발하게 활약하는 한편, 민간재야 화가의 활약도 이 시대에는 극히 활발하였다.

전국을 재통일한 도쿠가와 막부의 문화정책은 국내의 평화를 유지하게 하여, 농업, 어업, 그리고 광업의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증대하였다. 바다나 강의 수군설비나 도로의 정비가 발달하여 국내의 유통도 크게 번성하게 되었다. 무사를 비롯하여 일부 귀족뿐만 아니라 농민이나 마을 사람 중에서도 경제력을 축적하여 풍요로운 계층이 형성되어, 일상의 생활에서도 상당한 사치가 허락되게 되었다. 에도시대 초기에 일어난 그런 일본 열도 전역의 놀라울 만한 고도 성장은 무엇보다도 불과 1세기간의 급격한 인구 증가로 입증된다. 최근 역사 인구학에 의하면 세키게하라(関ヶ原) 전투가 있었던 1600년에 천만에서 천이백만이었던 일본의 총인구는 120년 후인 1721년에는 약 세배인 삼천 백만 명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다.

상·하 각층 모두가 생활면에서 향상되고 세련되어지면서 미술·공예계에도 갑작스러운 호황을 가져오게 되었다. 특정한 패턴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불특정한 다수의 고객을 향하여 상품으로서의 그림이나 고급품인 공예품이 대량으로 만들어져 판매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공예의 분야에 관해서는 물론 그림에서도 마을 화원(마을에서 그림을 직업으로 한 사람)의 활약이 눈에 띄게 된 것도 그때까지의 시대에는 없던 것이어서 에도 시대의 특색으로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교토의 마치슈(町衆, 상층 상인)<sup>14</sup>를 모체로 발생하여, 나중에는 에도로 이식된 린파(琳派)의 장식화가 그 한 예이며, 에도의 신흥 상인에 의해 성장한 우키요에의 풍속화가 그것이다. 그 외에도, 지식인에게 인기 있던 문인화나 마루야마 시조파(円山・四條派)<sup>15</sup>의 사생화 등, 취향에 따라 선택이 가능할 정도로 다양한 경향으로 나누어진 유파가 민간에서 형성되었다.

특히 에도에서 발달한 우키요에는 카노파의 존재를 항상 의식하여, 본화(本画)와는 다른 마을의 그림으로서의 매력이나 소장자의 즐거움을 발휘하게 하려고 노력했다. 무가의 은총을 받는 본화(本画)는 전통을 존중하고 양식을 고정화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변덕스러운 대중의 취향과 미의식에 응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우키요에는, 항상 신기한 취향을 시도하고 유행을 반영해야만 했다.

전자가 우아한 보수성을 특징으로 한다면 후자인 우키요에는 경쟁적으로 유행을 시도하는 속된 표현에서 활로를 찾아내고자 했다. 표면적인 것을 중시하는 유교적인 윤리에 준거하기 보다는 인정의 속내를 중시하며, 다소곳이 억제하기보다는 과장이나 자극이 풍부한 표현을 굳이 선택하는 것이 우키요에 화가들이 취하는 기본적인 자세이며 입장이었다. 그러한 정반대의 길을 선택하고 시대의 공감을 얻고 있는 우키요계를 씩씩하게 생각했던 카노파는 문하생들이 우키요에 화가와 교체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한다.<sup>16</sup> 호쿠사이는 이러한 에도의 우키요에 계에서 24세에 데뷔해서부터 90세에 생을 마칠 때까지 70년간의 세월동안 활약했던 대표적인 우키요에 화가였다.<sup>17</sup>

그의 작품들의 주제와 소재는 매우 다양했지만, 그 중 특히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것은 만년의 작품인 <<후지산 36경>> 연작들이다. 이것은 후지산을 포함한 일본의 산천을 그린 것인데, 특히 주목할 것은 수변 풍경이 압도적으로 많은 점이다. 이것은 비단 호쿠사이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풍경화를 주제로 한 우키요에 나타나는 동일한 현상인데,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라는 지리적 상황도 하나의 원인이겠지만, 일본인의 자연관에 기인한 것도 있다고 생각된다.

## 2. 일본인의 자연관과 <<후지산 36경>>

일본인의 전통적인 자연관은 고대 일본의 독특한 종교인 신도(神道)의 영향 아래 형성되었다. 신도는 다신교이다. 거기에는 이른바 ‘팔백만의 신들’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신들은 산이나 강과

11. 넓은 영지를 가진 무사, 특히 에도 시대에 봉록이 1만석 이상이 무가(武家), 1만석 이하는 쇼묘(小名)라고 한다.

12. 에도 막부의 어용 화가 중 가장 격식이 높은 직위.

13. 에도 막부 어용 화가 중 오키에시(奥繪師)의 지류를 형성한 열 몇 개 정도의 가문을 일컫음.

14. 무로마치 시대에 교토 등 자치구에서 자치적인 공동체를 조직하고 운영한 사람들

15. 마루야마 시조파는 에도 중기부터 교토에서 유명하게 된 마루야마 오묘(円山応挙)를 시조로 하는 마루야마파와 고춘(呉春)을 시조로 하는 시조파를 합해서 부르는 명칭이다.

16. 橋本獲邦, 1884, 『木挽町画所』, 『國華』 三号, 小林 忠 앞의 논문, p.22에서 재인용.

17. 小林 忠 앞의 논문, pp.21-22참조.

같은 자연물 속에 존재한다. 특히 중요한 신은 해의 신이며, 그 외에도 달의 신, 바람의 신, 바다의 신, 산신, 뇌신(雷神), 지신(地神) 등이 있다. 각각의 신들은 각기 하나의 하나님이며, 각각의 방법으로 활동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자연은 하나님과 같고, 동시에 하나님은 자연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6세기에는 불교가 일본에 전래되면서 일본의 자연관도 그 불교의 영향을 받아 신도의 종교와 중복되면서 형성되어왔다. 진언밀교의 불교는 대일여래라는 부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자연의 모든 것은 대일여래의 현현이다. 이 경우 자연은 일반 무생명적인 물질이 아니라 신성한 존재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자연과 부처는 본질적으로 연속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관을 가진 전근대 일본에서 인간은 자연에 도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고 항상 '자연에 순응하는 존재'로서 생활해 왔다.<sup>18</sup>

그리고 자연을 전체적으로 파악했던 유럽과는 달리 전근대 일본인은 자연을 부분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즉 일본인에게는 자연은 '물'이나 '공기'와 같은 시원적인 질료가 아니라 산과 강과 나무와 같은 구체적인 것이었다. 다시 말해 산이라고 해도 단순한 산이 아니라 아마노 가구야마(天香山, 나라현에 있는 해발 152미터의 산)나 후지산과 같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이다. 따라서 고대의 서양인들이 자연을 형이상학적 의미에서 이해했다면 그에 반해 일본인은 자연을 형이하학적인 의미로써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일본인의 자연관을 연구한 구니야 준이치로(國谷純一郎)는 이러한 이유로 그리스에서는 철학이 탄생했지만, 일본에서는 적어도 서양과 같은 의미의 철학은 탄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신 일본에서는 특히 문학이 번창했는데, 왜냐하면 문학은 감정의 표현에서는 최고의 양식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구니야에 따르면 일본인은 자연을 특히 시적으로 느끼고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일본인들은 풀벌레 소리를 자연의 매력있는 소리로 듣지만 유럽 사람들은 흔히 소음으로 듣는 것에 주목한다.<sup>19</sup> 아마도 이러한 감성은 회화에서도 잘 드러날 것인데, 일본의 회화 속에 자연현상들, 즉 후지산, 비, 번개, 우뢰, 파도의 표현이 많은 것도 이러한 일본의 감성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감성은 일본의 신화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신화의 형식은 신이 지상 세계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로부터 수직적 신화와 수평적 신화로 대별할 수 있다. 신이 하늘에서 강림하여 하늘에서 쏟아지는 태양을 섬기는 것이 '수직 신화'이며, 신이 큰 바다의 저편에서 도래하여 바다 저편의 태양을 섬기는 것이 '수평 신화'이다. 북방 아시아에서는 수직 신화가, 남방 해양성 아시아에서는 수평 신화가 많이 보인다. 대륙은 땅이 붙어 있으며, 땅의 끝에도 또한 인간이 살고 있어서 붙어 있지 않는 하늘에서 신이 오는 설화의 전개가 많다. 한편, 섬나라에서는 연결이 없는 아득한 바다 건너 또는 해저에서 신이 온다는 것이다. 일본 신화의 경우는 설화 내용의 성격으로 분류하면 대륙의 북방적인

수직 신화와 남방 해양으로부터의 수평신화가 혼합된 융합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신화 비중으로 보면 해양 가능성이 매우 커 남방과의 관계가 강하다.<sup>20</sup>

바다에 둘러싸인 지형과 이러한 해양성 아시아로서의 물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 일본의 예술은 특히 비나 바다 등에 관한 묘사가 많은데, 우키요에의 주제에서도 역시 수변 공간에 관한 풍경이 많아 주목된다.

우키요에 그려진 것처럼 오래 전부터 에도 도쿄의 하천을 비롯한 수변 공간은 에도의 마을이 형성될 때부터 배를 통한 운반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사람들의 생활용이나 친수(親水)용 등, 다방면으로 이용되었고, 에도 시대의 마을 특유의 물에 얽힌 다양한 문화를 육성하여 명소로 불리는 아름다운 경관을 낳아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사랑받아 왔다. 이런 까닭에 우키요에는 초기에는 인물화가 주류였지만 경제 발전과 도로 교통의 발전이 풍경에 대한 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되어 풍경화가 유행하게 되었다. 이들 회화에는 에도의 수변을 아름답게 그린 것이 많아, 사람들의 생생한 모습과 수변의 풍경이 정성껏 표현되어 있다.<sup>21</sup> 이들 중 대표적인 회화로서는 안도 히로시게(安藤広重, 1797-1858)의 <<명소 에도 백경(名所江戸百景)>>과 호쿠사이의 <<후지산 36경>>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안도 히로시게의 그림에는 전체의 약 80%에 물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하천이 가장 출현 빈도가 높다. 호쿠사이의 그림 종류를 명백히 분석한 논문은 없으나 대강 보기에 안도 히로시게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을 만큼 하천과 바다를 그린 명소가 많다. 이는 에도 공간의 명소라고 불리는 곳이 대개 하천이거나 바다 주변이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후지산 36경>>에 관해서 살펴보자.

## 1) <<후지산 36경>>

<<후지산 36경>>은 다양한 기상, 계절, 시점 등으로부터 후지산을 파악하여, 그 다양한 산의 모습이 가진 표정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후지산 36경>>은 실제로는 46경인데, 그 이유는 판매상황이 좋아서 10경을 더 추가했기 때문이다.<sup>22</sup> 이 그림이 호평을 얻음으로써, 일본의 명소를 그린 그림이 기존 우키요에의 대표적인 장르였던 배우 그림이나 미인도와 나란히 하나의 장르로서 확립되게 되었다.

<<후지산 36경>> 중 강이나 바다를 표현한 그림들을 표1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 西川吉光, 2017, 「海民の日本史2- 日本神話に見られる海洋性-」, 『国際地域学研究』第20号, 131-148, p.132.  
21. 田尾若菜 外, 2007, 「浮世絵に描かれた江戸・東京の水辺空間の空間構成要素について」, 『都市計画・建築経済・住宅問題』, 日本建築学会 Proceedings, p.711.  
22. <https://ja.wikipedia.org/wiki/%E5%AF%8C%E5%B6%BD%E4%B8%89%E5%8D%81%E5%85%AD%E6%99%AF> (검색일, 2020.08.11)

18. 國谷純一郎, 1984, 「ギリシヤの自然觀と日本の自然觀一比較思想論的考察一」, 『明治大学教養論集』, 170권, pp.10-12 참조.  
19. 國谷純一郎, 위의 논문, p.14 참조.



표1. <<후지산 36경>>의 제목과 그림 속 수변(水邊) 유무(전체 46종)<sup>23</sup>

작품 번호	작품명	수변 유무	작품 번호	작품명	수변 유무
1	磯川雪ノ旦	○	24	東海道吉田	○
2	遠江山中	○	25	東海道金谷ノ不二	◎
3	尾州不二見原	○	26	東海道程ヶ谷	○
4	五百らりん寺さざねどう	○	27	東海道品川御殿山ノ不二	○
5	御厩川岸より兩國橋夕陽見	◎	28	東都駿台	△
6	江戸日本橋	◎	29	武州千住	△
7	甲州三巖越	△	30	隅田川関屋の里	○
8	甲州三坂水面	◎	31	本所立川	○
9	甲列伊沢曙	○	32	凱風快晴	◎
10	山下白雨	△	33	神奈川沖浪裏	◎
11	從千住花街御眺望ノ不二	○	34	武州玉川	◎
12	駿州江尻	○	35	甲州犬目峠	○
13	駿州大野新田	○	36	武陽田島	◎
14	諸人登山	△	37	甲州石班沢	◎
15	常州牛堀	○	38	下目黒	△
16	信州諏訪湖	◎	39	上総ノ海路	◎
17	深川万年橋下	◎	40	相州江の島	◎
18	穩田の水車	○	41	東海道江尻田子の浦略図	◎
19	青山円座松	◎	42	相州箱根湖水	○
20	東都浅草本願寺	◎	43	駿州片倉茶園ノ不二	○
21	相州梅沢左	○	44	相州七里濱	○
22	相列仲原	○	45	身延川裏不二	○
23	登戸浦	◎	46	江都駿河町三井見世略図	○

◎ 바다나 강의 표현이 추가되거나 혹은 구도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림을 지칭  
 ○ 수변 풍경으로서 그림 속에 바다나 강이 표현되어 있는 것.  
 △ 원경에 바다나 강이 애매하게 표현된 그림  
 × 그림 속에 바다나 강의 표현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림

23. 작품명과 그림은 日本經濟新聞社 編, 2000, 『北齋展』, 동경국립박물관 & http://www.21j.jp/freec36/(검색일, 2020. 09. 10)에서 참조.

호쿠사이의 바다 표현 묘사를 분석하기 위하여 그의 대표작인 <후지산 36경>의 작품들을 (1) 바다나 강의 표현이 추가되거나 혹은 구도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림을 (◎)로 표시하고, (2) 수변 풍경으로서 그림 속에 바다나 강이 표현되어 있는 것은 (○)으로, (3)원경에 바다나 강이 애매하게 표현된 그림은 (△), (4)그림 속에 바다나 강의 표현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림은 (×)로 표시하여 각각 구분하여 보았다. 그 결과 <표 1>에 보이는 바와 같이, 대부분 풍경은 수변 묘사를 포함하고 있었고 특히 바다나 강을 주제로 파도나 물결의 표현을 주로 한 그림도 17개나 있었다. 이것은 후지산 그 자체가 일본의 북부에 위치하면서 그것의 분화와 함께 탄생한 5개의 호수에 둘러싸여 있기도 하지만, 호쿠사이 본인이 파도나 물결에 대한 표현을 특히 즐겨 그린 것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는 이 중에 바다나 강의 물결 표현에 주목하여 그것을 주제로 한 대표적인 그림 몇 개를 선택해서 그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특히 조형적 요소를 중심으로 물의 표현에서 구도의 문제와 색감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해 보고자 한다. 먼저 호쿠사이의 과감한 구도법이 돋보이는 그림으로서 수면에 비치는 후지산의 표현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 Ⅲ. <<후지산 36경>>을 통해 본 바다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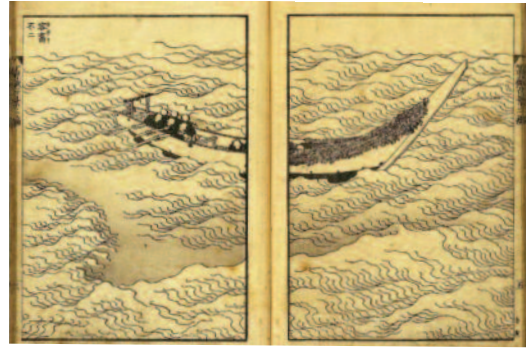
#### 1. 수경(水鏡)으로서의 물의 표현

물의 다양한 변화상을 표현하는 데에 관심이 많았던 호쿠사이는 수면에 비치는 물상의 표현에도 능하였는데, 특히 물에 비치는 후지산의 모습도 여러 작품 남기고 있다. 이처럼 물에 비치는 후지산에 관해서는 일찍이 일본의 시가(詩歌)에서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어, 센류(川柳)<sup>24</sup>등의 시가에서도 읊조려지고 있다. 예를 들면, “후지산을 썰레로 흘뜨려놓은 스루가(駿河, 시즈오카현 지방명)의 논”, “바람이 멎고 물결이 잔잔해진 날은 후지산에 그물을 치는 다고노우라(田子の浦)”<sup>25</sup> 등은 모두 스루가 측의 후지산 모습이다. 또한 교가(狂歌)<sup>26</sup>에서도 “후지산은 눈의 백분을 엮질러 놓은 다고노우라에 수경(水鏡)을 본다”고 하고 있어 물에 비친 후지산의 모습도 일본 예술에서 중요한 주제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27</sup>

호쿠사이가 그린 <<후지산 백경(富嶽百景)>>의 <우네리후지(容齋不二)><sup>28</sup>는 장소가 불분명하지만 해수면에 비친 후지산인 듯하다(도1 참조).

24. 에도 시대 중기에 전구(前句)에서 독립된, 5·7·5의 3구 17음으로 된 짧은 시(풍자나 익살이 특색임).  
 25. 시즈오카현 후지시 남부 해안. 후지산 조망의 명소로 알려져 있다.  
 26. 풍자와 익살을 주로 한 단가(短歌)로 에도 시대 후기에 유행함.  
 27. 近藤曉子 外, 2018, 『文化と自然で読み解く山梨』, 山梨県立大学 地域研究交流センター, p.17.  
 28. 일본에서 ‘후지(不二)’는 후지산의 별칭으로서 ‘세상에 둘도 없는 훌륭한 산’이라는 의미이다.

이 그림은 사실 물의 흐름과 그 표정 변화는 부주제이며, 주제는 바다의 파도 물결과 거기에 비쳐서 거꾸로 보이는 후지산이다. 즉, 원경의 후지산은 작품의 범위 밖에 있다는 표현 방식을 취한 것이다.



도1. 후쿠사이, 《후지산 백경(富嶽百景)》의 <우네리후지(宍窩不二)>, 1834, 목판화, 동경국립박물관

변화하는 물결에 거꾸로 비친 후지산 위로 나아가는 배, 그것은 마치 배가 하늘에 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보이게 한다. 파도 위를 나아가는 압송선이 후지산의 세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고기잡이로 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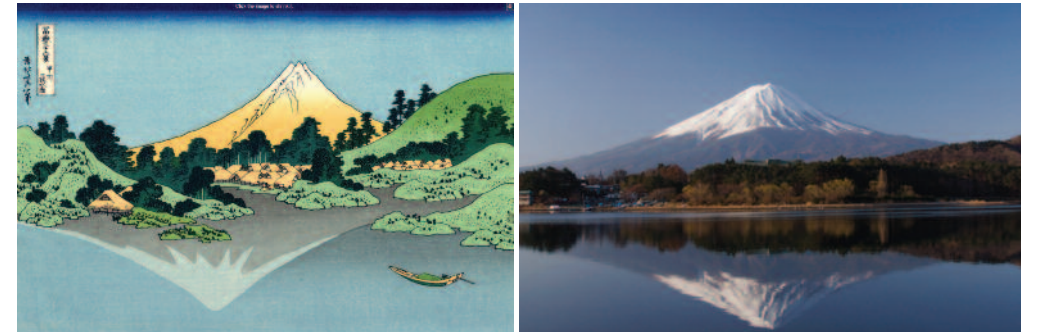
어부들이 압송선으로 운반하는 가다랑어 등의 어패류는 후지산의 은혜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며, 그것은 서민에게 보급하는 후지강(富士講)<sup>29</sup> 신앙의 세계관에 딱 들어맞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우네리 후지>가 근경에서 본 수면의 후지산을 그린 것이라면, 《후지산 36경》 중 <고슈미사카 수면(甲州三坂水面)>(1830)처럼 조금 더 멀리서 후지산 전체를 수면에 비치는 물그림자와 함께 하나의 구도에 넣은 그림도 있다(도2). 이 그림은 미사카(三坂)에서 본 가와구치고(河口湖)와 후지산의 풍경이다. 이 그림 속에서 잔잔한 수면에 비치는 후지산의 모습은 ‘거꾸로 비친 후지산’으로 유명하다. 거기에는 갈색으로 퇴색한 산의 표면이 드러난 여름철의 후지산이 그려져 있다. 그러나 호수에 비친 후지산은 하얀 눈을 뒤집어쓴 겨울의 후지산이어서,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허구의 풍경이 펼쳐져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그림의 시점(視點)을 분석해 보면 그것 역시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그렸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발견된다. 즉, 일반적으로 이 화면의 시점 위치는 미사카 고개 가구치호 북쪽 해안 있는 오오이시 부근의 산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지인들은 호쿠사이의 <고슈미사카 수면>의 시점은 통상적으로 볼 때, 미사카 고개로부터 본 시점이 아니라고 하며, 물리적으로 생각해도 미사카 고개에서 거꾸로 비치는 후지산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sup>30</sup> 즉, 실제로 그 위치에서 후지산을 바라보면, 도 3과 같이 정면에서 대칭적으로 후지산이 수면에 비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그림은 호쿠사이가 ‘미사카 수면에 비친 후지산’을 소재로 자연에 대한 경외와 감동을 응축하여 그린 것으로서 나름 도전적으로 시도해 본 그림이라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실경(實景)이라기 보다는 마치 겸재 정선(鄭善, 1676-1759)이 조선의 산수에서 받은 미적 감동을 표현하기 위하여 실제 경치를 변형함으로써 한국적 진경산수를 개척하였듯이 호쿠사이 역시 자신이 후지산에서 받은 감동을 나름의 감성으로 변형하여 조형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도2. <후지산 36경> 중 <고슈미사카 수면(甲州三坂水面)>, 도3. 통설에 근거한 시점에서 실제로 본 '수면에 비친 후지산' 1830, 목판화, 1,024 × 689,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출처: <http://www.fujigoko.tv/mtfujji/vol5/hokusai/misaka/>(검색일, 2020. 08.11))

## 2. 파도의 표현과 구도법(構圖法)

호쿠사이가 그린 바다나 강의 물결은 다양한 표정을 가지고 있는데, 잔잔한 물의 표현과 노 젓는 배의 움직임에 따라 부분적으로 출렁거리는 물결을 조형화하는 데에 매우 뛰어났지만, 특히 사람들을 매료시켰던 것은 쓰나미에 가까운 분노한 파도의 솟구침을 강렬하게 표현하는 데에 매우 뛰어났던 점이다.

호쿠사이는 평생 동안 몇 번이고 파도를 그리고, 자유자재로 변화하는 물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행착오를 반복했다고 한다. 그는 바다를 소재로 한 수많은 우키요에 작품들 외에도, 50대 중반에 제작한 유명한 그림본(繪手本) 《호쿠사이 만화》 등에서도 파도를 다루었으며 또한, 《후지산 36경》을 출판한 후 70대 후반에 간행한 《후지산 백경》에서도 파도의 다양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 평생을 통해서 파도에 대한 강한 탐구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앞 절에서 살펴본 수경에 비친 후지산의 표현이 거울같이 미동하지 않는 잔잔한 물결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라면, 반면에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가나가와 앞바다의 높은 파도>(이하 ‘가나가와 파도’로 약칭)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파도를 묘사함으로써 자연의 거대함과 숭고한 힘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 그림에서 먼저 눈을 끄는 것은 사나울 정도로 높고 격렬하게 솟아오르는 파도다. 풍랑에 흔들리는 세척의 배와 그 배에 갇힌 채 납작 엎드린 인물들. 그리고 그들을 바로 눈앞에 두고 저 멀리 눈 덮인 후지산이 엿보이고 있어 정적인 것과 동적인 것의 극적인 대립을 보여주는 구도로

29. 후지산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한 계

30. <http://www.fujigoko.tv/mtfujji/vol5/hokusai/misaka/>(검색일 2020. 07. 04). 이 그림의 시점이 통설과 다르며 현지인들이 통설에 반박하는 근거에 관해서는 이 사이트에서 소상하게 설명되어 있음.

되어있다(도4 참조). 그러므로 이 작품은 커다란 파도와 세 개의 선박, 그리고 배경의 후지산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인들에게서 신성함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산이자 여기서 36경의 주제인 후지산은 화면 중앙 하단의 배경으로 그려져 있다. 본래는 웅장한 후지산이 작게 그려져 있는 것이 오히려 전경의 커다란 파도의 호



도4. 호쿠사이, <가나가와 앞바다의 높은 파도>, 1831, 목판화, 동경국립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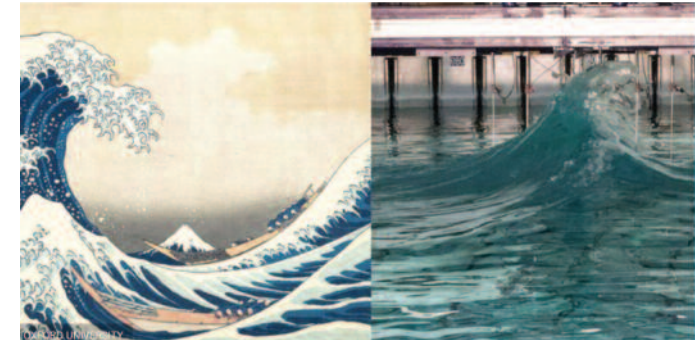
방향과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왼쪽 위 모서리의 서명이 구성을 보완하는 형식으로 되어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면, 저 멀리 후지산 지평선 근처의 어두운색과 눈 덮인 산 정상에 밝게 비추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태양이 관측자 측에서 솟아오르는 이른 아침인 것을 암시한다. 또한, 높은 하늘의 비구름은 폭풍을 나타내며 심상치 않은 기운을 뿜고 있지만, 비는 오고 있지 않다. 화면에는 세 척의 보트는 당시 살아있는 물고기를 운반하는 데 사용된 배였다. 선박마다 8명의 노 젓는 사람이 있으며, 뱃머리에는 2명 이상의 승객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화면에 있는 사람은 약 30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배에 납작 엎드린 사람들은 단단하고 역동적인 파도와 대조를 보인다.

바다는 미친 듯이 날뛰며, 파도의 머리가 부서지는 순간을 포착하고 있다. 커다란 발톱을 드러낸 괴물 같은 파도의 곡선은 호를 그리며 배경의 후지산을 중심으로 하는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파도 머리로부터 훔날리는 물보라는 마치 후지산에 내리는 눈처럼도 보인다. 대강 보기에 안쪽의 배의 길이와 파도의 높이는 거의 같아 보인다. 이 배(당시에 압송선)의 길이는 일반적으로 12m에서 15m이며, 파도의 높이도 대략 그 정도로 추정될 수 있는데, 세 개의 배와 후지산의 거리 등의 원근을 고려해서 더 정확히 추정한다면 10-12m로 추정된다.<sup>31</sup>

이 높은 파도는 때때로 쓰나미로도 해석되었다. 이러한 해석은 주로 1960년대 이후의 연구에서였는데, 호쿠사이의 생애 동안 간토와 간사이에는 큰 쓰나미가 없었지만, 과거 대쓰나미나 1792년 규슈에서 일어난 큰 쓰나미의 모습을 전해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연구자들은 이 작품에 그려진 파도가 짧은 파장이며 쓰나미의 묘사는 아니라는 데에

31. Julian H. E. Cartwright and Hisami Nakamura, 2009, What kind of a wave is Hokusai's Great wave off Kanagawa?, *Notes and Records of The Royal Society* 63(2):119-135, p.123참조.

일치하고 있다.<sup>32</sup> 특히 최근 2019년 1월 24일 옥스퍼드 대학과 에든버러 대학에서 폭발적인 파도(一発大波)에 대한 연구에서 거대한 파도의 인공적인 생성에 성공하였는데, 그 물결의 형상이 <가나가와 파도>의 그림에서 보는 파도 모양에 흡사하여 그 그림의 파도는 쓰나미가 아니라 폭발적인 큰 파도일 가능성이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고 있다(도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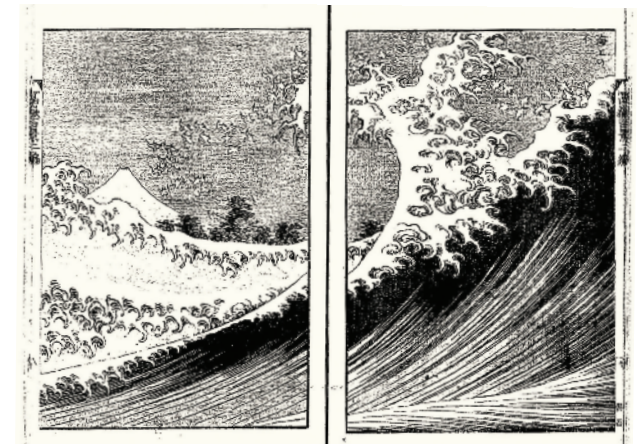


도5. 가나가와 파도의 부분 도와 옥스퍼드 대학과 에든버러 대학의 실내실험에서 그림과 유사하게 일으킨 파도  
 (사진 출처: <https://www.esquire.com/jp/lifestyle/tech/a30637493/rogue-wave-lab-kanagawa-science/>(검색일, 2020.11.20.)

그런데, 이 호쿠사이의 걸작 <가나가와 파도>는 70대 초반에 그린 작품이지만, 그 원형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 호쿠사이가 45세 무렵에 그린 <압송선이 파도를 헤쳐나가는 그림(おしをくりはとうつうせんのみづ)><sup>33</sup>(이하 <압송선 파도>로 약칭)이다(도7).

당시에 호쿠사이는 서양 회화의 기법을 배우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 영향이 강하게 보이는 작품으로 특히 네덜란드의 동판화에 영향을 받았던 작품이다.

호쿠사이는 당시 네덜란드로부터 선박을 통해 들어온 유화나 동판화를 독학으로 배워서 일본의 재료로서 그리고 있던 시바고칸(司馬江漢, 1747-1818)이나 아오도덴젠(亜欧堂田善,



도6. 호쿠사이, 『富嶽百景』-1834 (출처: 국립 국회 도서관 디지털 수집)

32. 일례로서, 2013년까지 유네스코 국제 해일(쓰나미) 정보 센터에서는 이 그림을 이미지 일러스트에 사용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카트라이트(Julian H. E. Cartwright)는 이 논문에서 기존 연구들에서는 이 그림의 파도가 쓰나미로 인식되기도 했으나, 자신들은 이미지 자체와 그 구성을 둘러싼 상황을 파도의 유체 역학이라는 측면에서 파동을 평가함으로써, 호쿠사이가 예외적으로 커다란 파도, 즉 폭풍파(storm wave, freak or rogue waves)라고 불리는 파도를 묘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짓고 있다. Julian H. E. Cartwright and Hisami Nakamura, 2009, 앞의 논문, p.119참조.

1978-1882) 등의 유화 나 동판화에, 전통적인 목판화의 기법으로 접근하고자 시도하였다. 그것은 2016년에 네덜란드 국립민족학박물관에서 작자불명으로 정의되고 있던 회화가, 호쿠사이가 수채화기법으로 그린 작품이라는 것이 판명되면서 보다 명확한 사실로 입증되었다(도8 참조).<sup>34</sup>



도7.가쓰시카 호쿠사이 <압송선이 파도를 헤쳐 나가는 그림(おしをくりはとうつせんのか)>, 1806-08, 개인소장

도8. 호쿠사이 <수채화>, 수채화, 네덜란드 라이덴 국립민족학박물관

<압송선 파도>에서 ‘오시오쿠리’라는 것은 노를 저어 나아가는 것으로부터 압송선으로 불린 쾌속선이며, 보소(房総, 지명 이름)에서 에도로 신선한 고기를 운반했다. 즈우센(つうせん)은 통선으로서 바다를 왕래하는 통근배라는 의미이다. 요코하마의 해양 박물관에는 에도 시대의 이 압송선의 모델이 진열되어 있는데, 다만, 호쿠사이의 그림에서 보이는 노는 8개인데 반하여 이 모델은 6개이다(도9 참조).



도9. 요코하마 해양 박물관의 압송선(오시오쿠리) 모델. (출처: 카트라이트 와 나카무라, 앞의 논문, p.122.

<압송선 파도>의 그림 속에서는 큰 파도를 타거나, 혹은 파도에 밀리는 압송선을 세 척, 그리고 원경에는 보소라는 지역의 육지가 보이는 장면을 그리고 있다. 튀어 오르는 듯한 큰 파도는 마치 <가나가와 파도>를 상기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 그림은 <가나가와 파도>의 원형으로 볼릴 뿐으로 닮은 부분도 있지만, 그 파도의 묘사법은 완전히 다르다. <압송선 파도>와 <가나가와

파도>를 서로 비교해 보면, <가나가와 바다>에서는 앞의 그림에 비하여 파도의 상승분이나 물보라, 파도의 머리 형상이나 음영의 묘사방식 등에서 훨씬 박진감과 현실감이 고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기작 <압송선 파도>에서 나타나는 파도의 머리 모양도 <가나가와 파도>나 그 이후 제작된 <후지산 백경>(도6)과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는데, 전자에서는 둥근모양이 두드러지는 파도 머리이지만, 후자의 그림에서는 예리한 열쇠 갈고리 같은 모양으로 표현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파도의 물방울이 물보라를 휘날리며 힘차게 떨어지는 모양이 사실성을 가지고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시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역시 약간 위에서 부감 시점을 취하고 내려다보고 있는 듯한 각도에서 그려진 <압송선 파도>에 비하여 <가나가와 파도>는 바로 옆 방향에서의 관점으로 그려져 있다. 관점을 낮게 가져옴으로써, 금방이라도 삼켜질 듯한 작은 배, 조용히 우뚝 솟아 있는 후지산의 존재감이 어우러져서, 보는 사람에게까지 큰 파도가 힘차게 밀려들어 오는 듯한 감각을 주고 있다. 호쿠사이가 생애를 걸고 더 리얼하고 매력적인 파도의 표현과 연출을 추구해왔던 노력의 집대성으로서 탄생한 것이 불후의 명작 <가나가와 파도>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 그림의 구상에서 호쿠사이는 어떻게 구도를 설정했을까?

### 1) 호쿠사이의 삼분할법

호쿠사이는 <<후지산 36경>> 간행보다 앞선 1812년에 그림본 <<약화조지남(略画早指南)>>의 첫 편을 간행하고 그 책 안에, 만물의 기본을 이루는 것은 원형과 뿔이기 때문에 나침반과 잣대로 도면의 원리를 가르치라고 스스로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도법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연구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815년에 간행된 <<호쿠사이 만화>> 3편에서 ‘삼분할법(三ツワリ法)’이라고 불리는 호쿠사이 자신의 구도법을 소개하고 있다. 이것은 호쿠사이 자신이 창조한 것은 아니고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것이며, 우키요에의 창시자로 알려진 히시가와 모로노부(菱川師宣, 1618-94)도 애용하던 구도법이다. 그러므로 같은 도법을 사용하므로 작업이 틀에 갇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우려도 있지만, 그것은 사용하는 자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른 것으로서, 도법 그 자체는 틀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즉, 같은 구성도법을 사용한 히시가와 모로노부(菱川師宣, 1618-94)의 작품은 어딘가 공통된 형이 보이지만, 호쿠사이는 한 장 한 장 각각 다른 대담한 구도로서, 틀에 맞는 것이 거의 없다. 즉 이 삼분할법은 각 화면의 배치에 융통성 있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실제의 그림을 예로 들어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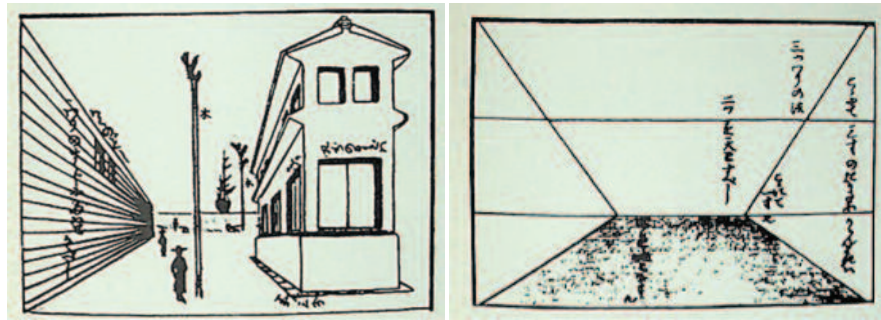
먼저 호쿠사이가 말한 삼분할법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호쿠사이 만화>>의 3편에는 화면의 구도를 제시하면서 ‘삼분할법(三ツ割の法)’이라고 호쿠사이가 생각한 원근법이 소개되어 있다(도 10-12 참조). 마주 보는 페이지에 그림이 소개되어 있으며, 오른쪽에 삼분할법, 왼쪽에는 그 작도 예가 그려져 있다. 이 삼분할법은 화면을 가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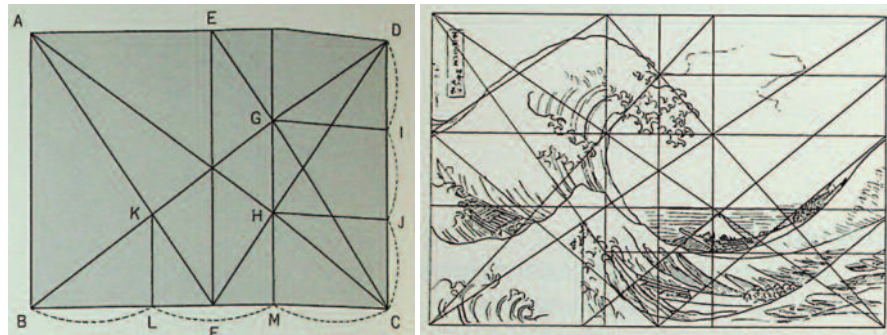
34. 安村敏信, 2017, 「葛飾北齋の洋風画にみる飽くなき探求心」情報誌CEL (Vol.115), pp.14-19, p.14.

세 등분하고 위의 두 공간을 비워두고, 아래 하나의 공간을 땅에 할당하여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다. 일본에서 옛날부터 사용되어 온 구도는 부감법으로서 이것은 높은 시점의 위치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듯이 그리는 것이지만, 이 삼분할법은 그것과는 달리 시점의 위치가 낮게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하늘의 면적이 넓게 그려져 있어서 서양 회화의 영향을 엿볼 수 있다.

도 12는 삼분할법을 그리는 방식을 표현한 것인데, 그냥 그림만 보아서는 이해하기 힘들므로, 이와나카 도쿠지로(岩中 徳次郎)의 해석을 빌어 그림으로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sup>35</sup>



도 10. 호쿠사이, <삼분할법>, <<호쿠사이 만화>> 도 11. 호쿠사이, <삼분할법>, <<호쿠사이 만화>>



도 12. 삼분할법의 그리는 방법

도 13. <가나가와 파도>를 통해 본 호쿠사이의 황금비의 분할

도 12의 양면 A, B, C, D에 대각선을 그리고, 그 교차점에서 양면의 2등분선 E, F를 긋는다. 이 등분해서 생긴 사각형에 대각선을 그으면, 본래의 대각선과의 교차점인 G, H, K가 구해진다. 이 교차로부터 각각의 변에 수직선을 그으면 변은 3등분되고, 따라서 화면도 3등분 할 수 있다. 이것을 기본으로 하여, 황금비의 분할법과 같이 분할하여 된 사각형의 대각선을 그려서, 이미 있는 분할선 혹은 대각선과의 교차점을 구하는 분할을 반복하는 것으로서 세부 분할할 수가 있으므로, 그 가운데서 필요한 분할 혹은 대각선을 구하면 된다. 호쿠사이의 그림을 검토해 보면, 이 삼분할법을 사용한 작품, 황금비의 분할법을 사용한 작품, 혹은 때로는 양자를 병용

35. 岩中徳次郎, 앞의 책, pp.167-171 참조.

하고 있는 작품들이 대부분이다.

지금까지 호쿠사이의 <가나가와 파도>에 관해서는 그 대담한 구성으로 인해 구도법에 관한 연구들이 계속 연구되고 있다. 그리하여 대부분 이 그림의 구도가 황금비율에 의한 것이라는 데에는 연구자들이 일치하고 있다. 대표적인 이전의 연구를 살펴보면, 이와나카 도쿠지로(岩中 徳次郎)는 호쿠사이가 이 그림의 구도를 황금비율로 했다고 보고 그 작도법이 그림 9와 같았을 것으로 생각한다(도13 참조).

다음으로 역시 <<후지산 36경>> 중의 하나로서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를 묘사한 <고슈가지가자와(甲州石班沢)> 라는 작품을 예를 들어 살펴보자.

## 2) <<후지산 36경>> 중 <고슈가지가자와(甲州石班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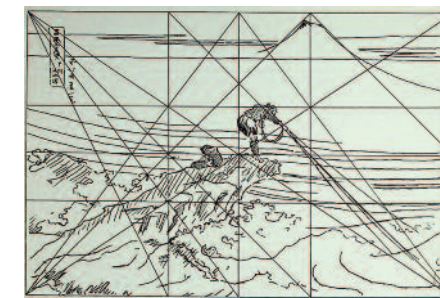
이 그림은 카이 지방(甲斐, 현재 야마나시현)에 있는 카지카자와(石班沢) 마을을 그린 것인데, 여기는 두 강이 합류하는 후지천(富士川)이 있는 지점 중, 특히 우사기노세(兎の瀬, 물이 세어 쉽게 건널 수 없는 곳)라 불리는 물길이 험한 지점에서 낚시하는 어부를 그리고 있다. 화면 중앙에는 바위 위에서 물결치는 후지천으로 향하고 있는 어부의 모습이 그려진 삼각형 구도가 후지산의 능선과 닮은 형태를 이룬다. 어부의 옆에는 어린이와 바구니가 그려져 있다.



도 14. 호쿠사이 <<후지산 36경>> 중 <고슈가지가자와(甲州石班沢)> 1931, 니시키에(錦絵), 25.2 x 38.6 cm, 피터 모스(Morse Peter) 컬렉션,

이 그림 역시 후지산과 인물의 위치로 볼 때, 삼비례법

척이 잘 사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먼저 상하좌우로 삼등분하는 기본의 도형을 그



도 15. <고슈가지가자와> 그림을 삼분할법에 의해 기본분할한 것

려보는데, 이 도형에 바로 그려 넣을 수가 있는 몇 종류의 대각선 중에서, 그려진 형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선을 첨가한 것이 도15이다.

이것을 보면 후지산의 정상이 오른쪽 세로로 삼등분 선상에 있으며, 좌우의 능선은 대각선에 합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부의 등은 가로로 삼등분 선의 위쪽으로 접하여 그려지고, 망을 끌어 올리고 있는 방향과 대각선도 일치하고 있다. 왼편

밑으로부터 중앙으로 경사져 튀어나온 커다란 바위는 화면의 대각선 방향으로 튀어나와, 이 바위의 정점과 화면 왼쪽에 작게 보이는 바위의 정점은, 상하 2등분선에 따르고 있다.

도쿠지로에 따르면, 세부적인 분할이 되면 될수록 그 거점이 화면의 가장자리 쪽으로 가는 것이 이 도법의 특징이다. 거기서 세로로 2등분된 왼쪽의 사각형의 대각선과 가로 3등분의 위의 선과의 교차점에서, 세로의 수직분할 선을 그려서 보면, 세로로 분할 할 수 있는 몇 개의 교차점이 생긴다. 그 중에서 그림에 나타났던 형과 일치하는 세로의 분할 선이 구해지는 점을 발견하여 나눈다. 이러한 순서로서 계속 그려 가면, 도 15과 같이 그려진 형에 합치하는 분할선과 대각선을 발견할 수 있는 형이 되며, 그것에 따라 이 그림이 삼분할법을 적용한 것을 더욱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물론 호쿠사이가 이 그림을 그릴 적에 미리 구성도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밑그림으로 하여 그린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그림의 후지산에 걸린 구름의 형태가 바로 분할선과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이나, 후지산의 아래 안개를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가로 줄무늬 선, 뒤이어 파도의 횡선도 구성법의 교차를 통하게 되어있는 것을 보면, 미리 그려진 구성법 없이는 그릴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sup>36</sup>

그런데 이 그림 <고슈가지가자와>는 그 그림이 지닌 매력적인 단색의 푸른 색조로도 시선을 끈다. 다음에서는 이처럼 호쿠사이의 우키요에가 갖는 매력적인 색감에 관해 고찰해 보고자 하는데, 여기서는 특히 호쿠사이의 바다 그림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으므로 거기에서 중심적 색조로 강렬한 인상을 주는 ‘재팬 블루’, 혹은 ‘베로아이’로 불리는 청색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3. 바다 표현과 감성적 색감, ‘재팬블루’

<<후지산 36경>>은 수입 화학염료인 프루산 블루라는 청색을 사용하고 있는 점이 특징인데, 이 청색은 당시 일본에서는 ‘베로아이’라는 명칭으로 불렸다. <<후지산 36경>>에는 이 베로아이를 사용하여 청색 위주의 단색조로 하거나 베로아이만을 주색으로 사용한 작품도 10점이나 된다.

<<후지산 36경>>의 색조에 관한 연구로서는 그동안 우키요에에서 베로아이 사용의 기원에 관한 탐구들과의 관련 하에서 나온 연구들이 주로 많았으며,<sup>37</sup> 베로아이가 서양에서 수입한 것이지만, 발색에서 서양 안료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에 관한 문제를 다룬 연구 등이 있다.<sup>38</sup> 그러나 특히 후지산 36경에서 베로아이의 사용을 가장 치밀하게 연구한 것은 헨리 스미스의

연구<sup>39</sup>였다고 생각된다. 여기서는 국내에서는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베로아이 색조에 대해서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먼저 그 색이 일본에 확산한 과정과 우키요에에 도입된 기원을 설명하고, 헨리 스미스의 견해에 따라 36경 중 특히 베로아이가 주색이 된 그림을 살펴보고자 한다.

‘블루’는 하늘과 바다의 파란색을 떠올리는 것 외에도 자연 어디에나 존재하는 색이었고 고대로부터 인간은 푸른색에 친숙함을 느끼지만, 특히 파란색은 일본인들에게서 인기가 있었던 듯하다. 인디고<sup>40</sup> 염색 패션은 에도의 서민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었던 아이템이었고, 외국인들은 일본색을 ‘재팬 블루’라고도 묘사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염료인 ‘쪽’ 혹은 ‘인디고’로 알려진 청색염료의 기원은 기원전 3000년 경 인도에서부터 유래되었다고 한다. 이 쪽염색 문화가 일본에 전해진 것은 600여년 전으로서 당시 사무라이들이 쪽으로 염색한 옷을 갑옷 아래 입기 시작하면서였다고 한다. 그러다가 점점 평상시의 일상복으로 착용하게 되면서 서민층의 의복으로도 확산되었는데, 메이지 시대 초에 일본을 방문했던 영국 화학자인 로버트 앳킨슨(Robert William Atkinson)이 쪽으로 염색한 옷을 입을 사람들을 보고 ‘재팬블루’라 부르면서 그 명칭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일본의 푸른색 이미지를 세계적으로 알렸던 것은 ‘우키요에’였다고 할 수 있다.

케이사이 에이센(溪齋英泉, 1790-1848)—가쓰시카 호쿠사이—우타가와 히로시게(歌川広重), 이 세 사람의 우키요에 화가를 연결하는 화재(畫材)는 바로 당시 일본의 화가들 사이에 ‘베로아이’로 불리던 청색 안료였다. 에이센과 히로시게가 호쿠사이의 영향을 받은 것은 틀림 없지만, 공통되는 이 청색안료에 관해서는 에이센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가 이 안료를 처음 유행시켰다고 보기 때문이다.

18세기초 독일 북방 국가 프로이센에서 개발된 인공 청색 안료인 ‘프르시안 블루’는 당시의 프로이센의 군복색깔이기도 했는데, 별칭으로 ‘베르리언 블루’라고도 불렸다. 일본에서는 이 명칭을 모방하여 ‘베로아이(ベロ藍)’로 통칭되게 되었다. 18세기 초엽, 철을 재료로 개발된 베로아이는 1720년대 유럽 전역에 그리고 18세기 중반에는 아시아와 아메리카에 급속히 보급되어 갔다. 일본에도 18세기 후반에는 나가사키 통해 네덜란드 선박과 중국 선박에서 수입되어 사타케 쇼잔(佐竹曙山, 1748-1785)<sup>41</sup>이 영주로 있던 아키타(秋田藩)에서도 아키타 난화(蘭画)에 일부가 사용되었다고 간주된다.

에도 시대 출판되기 시작한 지혼돈야(地本問屋)라고 하는 대중본 책을 제작하고 판매 하던 곳의 한 도매상이었던 세이소도 도호(靑葱堂冬圃)라는 인물이 쓴 『마사키의 가발(真佐喜のかつら)』(1855)에 따르면, ‘베로아이’는 1829년부터 일본의 관화에 이용되었는데, 다음 해인

36. 岩中徳次郎, 앞의 책, pp.167-171.

37. 無聲學人, 『浮世絵私言 三 べろ藍印刷の起原』, 『浮世絵』 41, pp.4-5.

38. Edward F. Strange, 1909, Colour Prints by Hiroshige., Transactions and Proceedings of the japan society of London, vol. 9. pp.129-30.

39. 헨리·스미스, 1998, 『浮世絵における「ブルー革命」』, 『浮世絵芸術』 第二百二十八號, pp.3-26, p.3.

40. 청바지의 색깔인 남색. 흔히 쪽빛이라고 하는 색깔. 색깔 자체의 이름이자 염료의 이름이고 또한 염료 원료가 되는 식물의 이름. 인도에서 자라는 인디고 식물에서 추출하며 가장 일찍부터 천을 염색하는 데 쓴 오래된 물감.

41. 사타케 쇼잔은 에도에서 1780년 이전까지 근무하였는데, 이때 자주적 서양화풍의 그림인 아키타 난화를 배웠다.

1830년에 케이세이 에이센이 베로아이의 농담으로 부채 그림인 《唐土山水》를 그려 대유행하였고(도16), 다른 부채 도매상들도 이 유행을 부추겼다. 그 후, 《백일홍》에 묘사된 것처럼 에이센과 교류가 있었던 호쿠사이가 《후지산 36경》에 이 베로아이를 사용하여 부채 그림 이상으로 대유행을 일으켰다고 한다(도17 참조).



도16. Eisen Keisai, View of Shogetsu Pond, 1829. Color woodblock print on paper, Sheet: 9 1/2 x 11 7/8 in. (24.1 x 30.2 cm). Brooklyn Museum,



도17. 우타가와 히로시게 『東海五十三次道』 중 「시나가와의 일출(品川日之出)」, 목판화, (22.6 x 35.1 cm), 知足美術館

이러한 기술은 연구자들 사이에 약간의 오류가 있다고 지적되기도 하지만, 일본에서 베로아이가 유행하게 된 계기가 우키요에라는 것에는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미국에서 이 대유행을 ‘블루 혁명’이라고 명명한 우키요에 연구자 헨리 스미스는(Henry Smith) 그 유행의 배경에 ‘블루 & 화이트’가 일상생활에 침투한 것, 즉 남색으로 염색된 의상과 청화도자기가 서민 생활에 보급됨으로써, ‘블루 & 화이트’에 대한 미의식이 침투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sup>42</sup>

호쿠사이 보다는 조금 늦은 시기에 활약했던 우키요에 풍경 관화의 확립자라 할 우타가와 히로시게(歌川広重, 1797-1858) 역시 이 베로아이가 가져오는 효력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던 화가의 한 사람으로서, 베로아이는 그의 《동해도 오십 삼차(東海道五十三次)》<sup>43</sup>나 《명소 에도 백경》등의 작품을 통해 ‘히로시게 = 블루’로서 널리 구미로 알려지게 되었고, 나중에는 아르누보의 예술가들을 비롯하여, 세잔느 등 이 시기 유럽 예술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sup>44</sup> 실제로 세잔느의 〈생 빅투아르 산〉 연작을 자세하게 분석해 보면 양식적으로 호쿠사이의 《후지산 36경》과 구도, 모티브, 공간개념 등에서 유사한 부분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호쿠사이의 〈甲州三巖越〉(1831)(도19)의 화면의 공간을 자르는 수직의 나무는 세잔느의 〈소나무가 있는 생 빅투아르 산〉(1886-87)(도18)에 응용되었다.



도18. 세잔느, <소나무가 있는 생 빅투아르 산>, 1886-87, 캔버스에 유채, 런던, 코트올드 인스티튜트 갤러리,



도19. 호쿠사이, <甲州三巖越>, <<후지산 36경>>, 1831. 목판화, 25.6x37.8, 피터 몰스 컬렉션.

사실 우키요에(Ukiyo-e)는 서민들 사이에서 대유행을 불러일으켰지만, 초기 우키요에는 한가지 잉크로만 사용되는 스미즈리에(墨摺繪)라 불리는 흑백의 단색 목판화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단예(丹繪)<sup>45</sup>나 마니즈리에(紅摺)<sup>46</sup>로 발전하였고, 곧 스즈키 하루노부(鈴木春信, 1724-1770)를 비롯한 몇몇 우키요에 화가들에게서 여러 가지 색의 다색 관화(니시키에)가 제작되게 되었다. 그리고 색상에 대한 이러한 욕망은 점점 더 아름다운 색상을 추구하는 것으로 발전해 갔다.

그때까지의 우키요에에서는 ‘블루’라고 하면, 호나이(버들여뀌, 本藍)와 츠유쿠사(露草)(도20)라는 식물로 사용되었다. 호나이는 다데란이라는 풀을 발효시킨 것이며, 츠유쿠사는 꽃을 직접 문질러 낸 것이었다. 그러나 츠유쿠사를 사용하면 투명한 청색을 표현할 수 있었으나, 물이나 습기에 약해서 취급하기 어려웠다. 그런 상황에서, 베로아이는 호나이나 츠유쿠사에는 없던 선명한 푸른 느낌을 나타낼 수 있었고, 넓게 해도 질게 하든 관계없이 발색이 매우 우수했다. 유럽에서 이미 인기를 끌었던 베로아이는 네덜란드를 통해 일본에 들어와 우키요에의 안료로 인기를 얻었다.

호쿠사이의 작품에서 ‘베로아이’가 사용된 작품이라고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호쿠사이의 《후지산 36경》이다. 실은 이 시리즈에는 <甲州石班沢>, <東都浅草本願寺>, <常州牛堀> 등과 같이 ‘아이즈리에(藍摺)’<sup>47</sup>라고 하는 ‘베로아이’와 ‘호나이’를 조합한 풍속화가 10점 있다.<sup>48</sup> 그런데 그 10점의 풍속화 모두가 하늘과 물의 표현에서 베로아이의 남색 농담을 살려 점차 여리게 바림하여 사용함으로써, 매우 인상적인 하늘과 물의 표현을 이루어 내고 있다. 또한, 이 시리즈에는 윤곽선에도 호나이(본람)을 이용하는 등 남색에 대한 집념이 철저하게 보인다. 우키요에에서의 베로아이의 사용에 관해서 오랜 기간 연구해 온 헨리 스미스에 따르면, 이 10점의 그림 중에서도

45. 우키요에 관화의 초기 작품으로, 먹판에 빨강·노랑·녹색 등을 붓으로 채색한 그림인데 주로 빨간 안료를 칠하였다.

46. 우키요에 관화의 한 양식. 먹판과 붓 채색의 단계에서 발달한 최초의 색판화로서, 주로 홍색과 녹색을 주조로 소수의 색을 사용한 것으로서 18세기 중반에 유행.

47. 아이즈리(藍摺) 혹은 아이즈리에(藍摺繪)는 에도 시대의 우키요에 양식의 하나. 남색 색조만으로, 혹은 여기에 소량의 적색과 황색을 한정적으로 첨가하여 만든 것을 말한다. 실제로는 질고 열음으로 분리한 남색으로 판을 중첩시킨 관화의 일종.

48. 헨리 스미스는 베로아이를 주로 사용한 열 개의 그림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甲州石班沢>, <信州諏訪湖>, <相州七里濱>, <常州牛堀>, <甲州三巖越>, <駿州江尻>, <相州梅沢左>, <遠江山中>, <武陽仙巖>, <東都浅草本願寺>. 헨리·스미스, 앞의 논문, p.25의 각주 7번 참조.

42. 헨리·스미스, 앞의 논문, pp.3-26, p.3.

43. 이 『동해도 오십 삼차 길』은 히로시게 우타가와가 에도 시대 말기(1833-34년)에 그린 것으로서, 에도 시대에 정비된 고가이드(五街道, 에도 시대의 주요 도로)의 하나로서 도카이도의 53개 역참을 가리킨다. 에로부터 여기에는 경치 좋은 장소나 유명한 명승고적이 많아 우키요에와 와카, 하이쿠의 소재로도 자주 거론된 곳이다.

44. 今林常美, 2011, 『北齋をめぐるヒト・モノ・文化の交流—浮世絵風景版画<深川万年橋下>』, 『世界史 芸術鑑定団』 18 참조 및, 金賢華, 정무정, 2009, 앞의 논문, p.150.

특히 베로아이 이외에 미세한 색 - 주로 옅은 홍색이나 녹색 - 을 추가한 준 청색 그룹 5점과, 순수하게 블루 색조로 그린 5점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순수하게 베로아이를 사용한 청색조로 그린 그림은 <相州七里濱>, <武陽佃島>, <常州牛堀>, <信州諏訪湖>, <甲州石班沢>의 5점이라고 한다.<sup>4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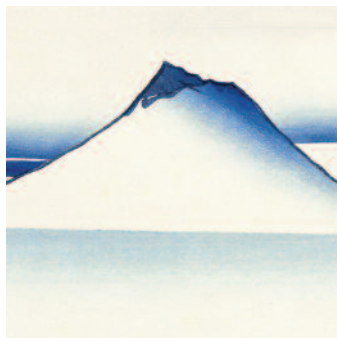
여기서는 앞서 호쿠사이의 삼분할법 구도에서도 예시로 들었던 그림이며, 물과 파도를 소재로 한 호쿠사이의 대표적인 아이즈리에(남색판화)인 「고슈가지가자와(甲州石班沢)」를 그 대표적인 예로서 살펴볼 것이다(도14 참조).<sup>5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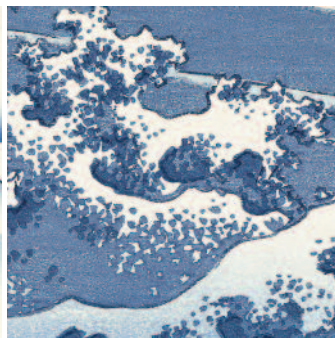
도20. 추유쿠사(닭의장풀)

《후지산 36경》 중 <고슈가지가자와(甲州石班沢)>는 후지천과 접해 있는 가지가자와(鰐沢)의 남쪽에 있던 우노세(馬之)라 불리는 계곡 부근을 표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부의 옆에는 어린이와 바구니가 그려져 있는데, 얼핏 보기에는 한쪽의 중국 화와도 유사한 분위기로 보이나, 구도와 인물의 배치 등에서 나타나는 묘사는 호쿠사이 특유의 긴장감과 구도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특히 중경의 흐름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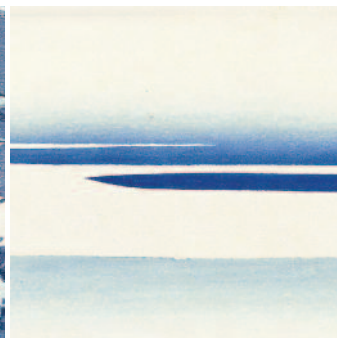
엄중하게 솟은 후지산의 모습으로 시선을 집중시켜 전경과 후경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는 그림이다. 게다가 어부의 망에서 나오는 4개의 빛줄이 화면에 생기를 주고 있으며, 카이지카와의 급류도 전체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호쿠사이의 인물 묘사의 능숙함이 응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남색의 농담만으로 매우 다채로운 색조를 표현한 작품으로, 해외의 사람들에게 매우 인기 있는



도21. 안개가 끼는 곳에서 머리를 내미는 후지산.



도22. 밀려 오는 파도가 바위에 부딪혀 심하게 거품이 모습을 호쿠사이는 교묘하게 그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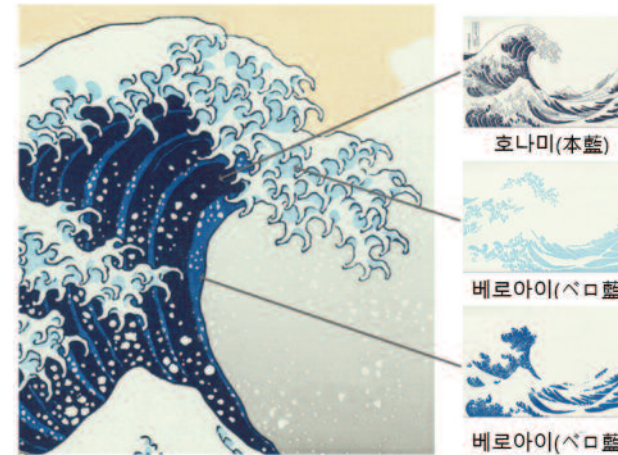
도23. 여러 번에 나누어진 남색의 농담으로 후지산의 주위를 선염으로 바리게 하여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49. 헨리·스미스, 앞의 논문, p.17.

50. 이 그림은 초기에는 단색의 남색 판화였으나, 나중에는 다색판화로 발견되고 있다. 참고로 이 그림은 1967년 일본의 기념 우표로도 발행되었다.

호쿠사이 작품 중 하나이다.<sup>51</sup>

자세히 살펴보면, 안개가 끼는 곳에서 머리를 내미는 후지산, 파도가 바위에 부딪쳐 심하게 거품이 이는 모습, 그리고 후지산 주변의 안개 등의 다양한 모습을 선염으로 바리는 기법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오로지 남색의 농담만을 이용하여, 전체의 환상적인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도21~23 참조). 호쿠사이의 이러한 색조의 운용은 <가나가와 파도>의 큰 파도를 묘사한 곳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도24 참조). 이 그림에서 우리는 그가 계속 추구했던 회화의 주 모티브인



도24. <가나가와 파도>의 부분도와 베로아이의 사용방식에 관한 그림  
 (출처: [https://www.adachi-hanga.com/hokusai/page/know\\_13](https://www.adachi-hanga.com/hokusai/page/know_13))

‘물’의 표현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베로아이는 근대에 개발된 화학기술로서, 새롭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안료로서는 가장 오래된 것이다. 이 유럽에서 들어온 베로아이가 자포니즘에도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은 아이러니인데, 주지하다시피 일본의 우키요에가 해외로 수출되어 인상파 화가들에게 놀라움을 주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들은 우키요에의 대담한 구성은 물론 극단적인 변형과 평면

적인 조형 등에 관심을 가졌지만, 그 중에서도 우키요에의 색채에는 모두가 놀랐고, 그리하여 자포니즘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었다. 유럽 사람들은 히로시게의 파란색을 보고 ‘히로시게 블루’라고 칭찬하였으며, 호쿠사이의 <가나가와 앞바다의 파도>에서도 그 선명한 청색에 강한 인상을 받아, 일본 미술의 상징으로서 받아들였던 것이다.



도25. 호쿠사이, <지해의 바다(繪の海)>, 목판화, 동경국립박물관



도26. <지해의 바다(繪の海)> 부분도에 보이는 수파문

51. [www.adachi-hanga.com/ukiyo-e/items/hokusai062](http://www.adachi-hanga.com/ukiyo-e/items/hokusai062) 참조, 그리고 도 14와 도21-23의 출처도 이 사이트를 참조.



특히 <<후지산 36경>> 이후에 제작한 <<지에의 바다(千絵の海)>>(1834-36년경) 시리즈 중 <미야도가와 나가나와(宮戸川長縄)>(도 25)는 우키요에 화가로서의 호쿠사이가 지닌 탁월한 기량을 볼 수 있는 작품인데, 특히 이 작품에서 남색은 난이도 높은 선염 혹은 보카시를 통하여 물의 깊이나 넓이를 탁월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다. 게다가 파도나 물보라가 강조된 <가나가와 파도>와는 달리 동양 산수화에서 익히 보아오던 수파문 형태의 파도 모양이 눈에 띄며, 수파문의 선을 흑백의 이중선으로 표현하여 수면에서 낮게 출렁이는 파도에 반사되는 빛마저 놓치지 않고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결론

호쿠사이는 당시로는 긴 수명을 살며 워낙 다작(多作)했던 작가이니만큼 작품의 주제도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의외로 우키요에로서 당시 유행하던 미인도나 야쿠사(배우)를 주제로 한 그림은 그리 많지 않으며, 그나마도 주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sup>52</sup>

이 글에서는 그의 생애에서 그가 가장 애착을 두고 있던 주제였던 우키요에 풍경화 <<후지산 36경>> 중 특히 바다와 물의 표현을 주제로 한 작품을 중심으로 그의 회화가 가지는 구도상의 특징과 색채의 운용법 등을 살펴보았다.

호쿠사이의 우키요에가 주는 강한 인상은 무엇보다 대담한 구도와 간결하고 아름다운 색상에 기인한 것이다. 특히 구도에서 수면에 비친 후지산을 그린 그림들을 보면 주제인 후지산의 실제 모습을 화면에서 배제한 채 수면에 비친 어른거리는 그림자로 표현하는 방식을 취하거나, 수면에 비친 후지산과 실제 후지산을 같은 화면에 넣는 그림에서도 그 비치는 각도를 실제와 다른 각도에서 묘사하는 방식으로 대담하게 변형한 점이 주목된다. 그리고 물에 비치는 후지산의 그림자 위로 촌락이나 배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후지산을 신앙의 대상으로 보고 그 은혜로운 품 안에서 자생한다고 생각하는 당시 일본인들의 감성을 적절하게 드러냈다고 생각된다.

또한 <가나가와 파도> 나 <고슈가지가자와>의 묘사에서도 보이듯이 형태를 단순화시키고 원근을 극대화시키는 대담한 구도는 호쿠사이가 일본에서 활약해 온 기존의 수많은 화파와 당시 네델란드를 통해 유입된 서양의 화법, 특히 전통적인 구도법인 삼분할법 과 황금분할법 등의 치밀한 구성과 응용을 거듭한 연구로 도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색의 구성에서는 당시 ‘베로아이’라고 불리던 청색의 사용으로 우키요에 화가들의 색운용의 폭이 넓어지게 되었는데, 특히 호쿠사이는 이 청색의 운용에 탁월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의 명소를 그린 풍경화들 중에는 ‘아이즈리에(藍摺絵)’와 같이 청색조만으로 색채를 운용한 우키요에도 여러 개가 있는데, 이들은 흑백 사진이나 수묵화와는 또 다른 감성의 풍경화들로서 흔히 유럽에서 나중에 ‘재펜블루’로 알려지게 된 소위 ‘프러시안 블루’가 가지는 특유의 깊이감과 신비한 효과를 주고 있다.

또한 호쿠사이는 물의 관찰과 묘사에도 뛰어나 파도의 속도감과 운동성, 잔잔한 물결의 특징 등을 놓치지 않고 수파문(水波紋)이나 선염(渲染) 등의 전통적인 동양화 기법이 갖는 효과를 응용하는 것은 물론, 서양의 구도법과 채색법을 혼용하는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여, 자신이 묘사하고자 하는 물상을 선명하게 이미지화함으로써, 세계적으로 널리 인정받는 화가로서 한 시대를 풍미하였다.

52. 浅野秀剛, 2000, 「北齋の主題選びの法則—フリーア美術館所蔵の肉筆画調査レポート」, 『동경국립박물관』, pp.30-31.

## 참고문헌

- 고바야시 다다시, 2004, 「18세기 일본미술의 한 단면-雅와俗의 호응:본격과 회화와 우키요에」, 윤철규 역, 『美術史論壇』 Vol.19., 한국미술연구소, 225-254쪽.
- 金賢華, 정무정, 2009, 「과리 근대사회, 근대미술, 호쿠사이(葛飾北齋)와의 만남 : 자연에대한 경의」, 『미술사연구』23, 미술사연구회, 141-169쪽.
- 박규택, 2000, 『일본정신의 풍경』, 한길사, 313쪽.
- 이봉녀, 2014, 「현대 만화의 관점에서 '가쓰시카 호쿠사이 망가(漫畵)' 에 표현된 만화적요소에 대한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vol.8.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1-13쪽.
- Christine M. E. Guth, 2015, *Hokusai’s Great Wave: Biography of a Global Icon*, University of Hawaii Press, p.272.
- \_\_\_\_\_, The Local and the Global: Hokusai’s Great Wave in Contemporary Product Design, Design Issues Spring 2012, Vol. 28, No. 2, pp. pp.16-29.
- David Bell, 2014, Katsushika Hokusai and a Poetics of Nostalgia, *Educational Philosophy and Theory*, Vol. 47, pp.579-595.
- Endre E. Kadar & Judith A. Effken, 2008, Paintings as Architectural Space:“Guided Tours” by Cézanne and Hokusai, *Ecological Psychology*, Vol 20, pp. 299 - 327.
- Julyan H. E. Cartwright and Hisami Nakamura, (May 2009), What kind of a wave is Hokusai’s Great wave off Kanagawa?, *Notes and Records of The Royal Society* 63(2):119-135. p.123참조.
- 安村敏信, 2017, 「葛飾北齋の洋風画にみる飽くなき探求心」情報誌CEL (Vol.115), pp. 14-19.
- 岩中 徳次郎., 1983, 『畫面構成：セザンヌから北齋まで』, 岩崎美術社, 209頁.
- 小林 忠 2000, 「画狂人北齋の実像」, 『北齋展』, 동경국립박물관 & 日本經濟新聞社 編.
- 加藤千佳, 太田昇, 2007, 「北齋「神奈川沖浪裏」の構図についての一考察」, Journal of Graphic Science of Japan 41(4), 3-8.
- 國谷純一郎, 1984, 「ギリシヤ的自然觀と日本の自然觀 一比較思想論的考察一」, 『明治大学 教養論集』, 170권, 1-15.
- 田尾 若菜 外, 2007, 「浮世絵に描かれた江戸・東京の水辺空間の空間構成要素について」, 『都市計画・建築経済・住宅問題』, 日本建築学会 Proceedings, pp.711-712.
- 無聲學人, 1969, 「浮世絵私言 三 べろ藍印刷の起原」, 『浮世絵』 Vol.41, p 198. pp.4-5.
- 西川吉光, 2017, 「海民の日本史 2 - 日本神話に見られる海洋性-」, 『国際地域学研究』 第20号, pp.131-148.
- 柳 亮, 2001, 『続黄金分割—日本の比例—法隆寺から浮世絵まで』, 美術出版社, p.151.
- 橋本獲邦, 1884, 「木挽町画所」, 『國華』 三号.
- ヘンリー・スミス, 「浮世絵におえる「ブルー革命」」, 『浮世絵芸術』 第百二十八號, 1998, pp.3-26.
- [https://intojapanwaraku.com/jpart/1100/\(검색일, 2020.08.20.\)](https://intojapanwaraku.com/jpart/1100/(검색일, 2020.08.20.))
- <https://ja.wikipedia.org/wiki/%E8%91%9B%E9%A3%BE%E5%8C%97%E6%96%8E>(검색일, 2020.08.20.)
- <http://www.fujigoko.tv/mtfujii/vol5/hokusai/misaka/>(검색일 2020. 07. 04)
- <https://www.esquire.com/jp/lifestyle/tech/a30637493/rogue-wave-lab-kanagawa-science/>(검색 일, 2020.11.20.)
- <https://www.brooklynmuseum.org/opencollection/objects/53586>(검색일 2020.10.10.)
- [www.adachi-hanga.com/ukiyo-e/items/hokusai062](http://www.adachi-hanga.com/ukiyo-e/items/hokusai062)(검색일, 2020.11.20.)

## 초록

이 논문은 18세기 일본미술을 대표하는 화가인 가쓰시카 호쿠사이(葛飾北齋)의 우키요에(浮世絵) 묘사된 바다의 의미와 그 표현 방식을 탐구해 보고 그것에 기초하여 당시 일본회화의 미적 특질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바다와 파도는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나라에서 태어난 일본인들의 자연관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어서, 일본 예술에서 매우 중요한 표현 주제였다. 만물을 모두 그리고 싶었던 호쿠사이 역시 늘 주변의 수변 풍경을 관찰하면서 평생 파도와 물의 묘사에 몰두해 왔다.

이 글에서는 그의 생애에서 그가 가장 애착을 두고 있던 주제였던 우키요에 풍경화 「후지산 36경(富嶽三十六景) 중 특히 〈가나가와 앞바다의 높은 파도(神奈川沖浪裏)〉 와 〈고슈가지가자와(甲州石班沢)〉 등, 바다를 주제로 한 작품들을 중심으로 그의 회화가 가지는 구도상의 특징과 색채법 등을 살펴보았다.

호쿠사이의 우키요에가 주는 강한 인상은 무엇보다 대담한 구도와 간결하고 아름다운 색상에 기인한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대담한 구도는 호쿠사이가 일본에서 활약해 온 기존의 수많은 전통 화파와 당시 유입된 서양의 화법, 특히 전통적인 구도법인 삼분할법과 황금분할법 등의 치밀한 구성과 응용을 거듭한 연구로 도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색의 구성에서는 당시 우키요에 화가들은 서양을 통해 수입된 베로아이(ベロアイ)라고 불리던 청색의 사용으로 색 운용의 폭을 넓히게 되었는데, 특히 호쿠사이는 이 청색의 운용에 탁월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의 명소를 그린 풍경화 들 중에는 ‘아이즈리에(藍摺絵, 남색판화)’와 같이 청색조(靑色調)만으로 운용한 우키요에도 여러 개가 있는데, 이들은 흑백 사진이나 수묵화와는 또 다른 감성으로서, 유럽에서 나중에 ‘채팬블루’로 알려지게 된 청색이 가지는 특유의 깊이감과 신비한 효과를 주고 있다. 게다가 호쿠사이는 물의 관찰과 묘사에도 뛰어나 파도의 속도감과 운동성, 잔잔한 물결의 특징 등을 놓치지 않고 수파문이나 선염 등 전통적인 동양화 기법이 갖는 효과를 서양의 구도법과 채색법에 혼용하는 등,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여, 자신이 묘사하고자 하는 물상을 선명하게 이미지화함으로써, 세계적으로 널리 인정받는 화가로서 한 시대를 풍미하였다.

**주제어** 가쓰시카 호쿠사이, 호쿠사이의 구도법, 우키요에, 바다 그림, 채팬블루,

## Abstract

The Sea Expression Depicted in Ukiyoe by Katsushika Hokusai

Shin Nakyung

This thesis seeks to explore the meaning of the sea and its expression method depicted in Ukiyoe by Katsushika Hokusai, a painter representing 18th century Japanese art, and to examine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Japanese painting at the time. The sea and waves occupy a very important position in the natural view of the Japanese born in an island country surrounded by the sea on all sides, and thus were very important expression subjects in Japanese art. Hokusai, who wanted to paint all things, has always been immersed in depicting waves and water while observing the surrounding waterfront.

In this article, he pays attention to his works with the theme of the sea, such as 〈The Great Wave〉 and 〈Kōshū-kajikazawa〉, and examines the compositional features and color methods of his paintings. The strong impression of Hokusai's Ukiyoe is, above all, due to its bold composition and concise and beautiful colors.

And such a composition method was derived from Hokusai's repeated application and experimentation of numerous traditional Japanese paintings and Western painting methods introduced at the time, especially the traditional composition method and the golden division method.

In addition, Ukiyo-e painters at that time were able to color their paintings more beautifully by using blue, which was called "Beroai," imported from the West. In particular, it can be seen that Hokusai was excellent at using this blue color. Among the landscape paintings of his famous spots, there are several Ukiyo-do, which are used only in blue shades, such as "Aizurie (indigo print)", and they have a different sensibility from black and white photographs and ink paintings, and they were later known as 'Japan Blue' in Europe. It gives the unique sense of depth and mysterious effect of 'Prussian Blue.

**Keyword** Katsushika Hokusai, Hokusai's composition method, Ukiyo-e, sea painting, Japan Blue.

논문투고일 : 2020. 10. 19. |  
심사완료일 : 2020. 11. 04. |  
게재확정일 : 2020. 11. 30. |

# OCEAN HeritAge

## 양귀전의 『해양문명론과 해양중국 (海洋文明論與海洋中國)』

최낙민<sup>1</sup>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HK교수

2019년 3월, 필자는 중국 시아먼대학(廈門大學) 인문학원과 중산대학(中山大學) 역사학과의 공동 주최한 “해양과 중국 연구(海洋與中國研究)”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하였다. 이 학술대회에는 일본학자 하마시다 다케시(濱下武志), 네덜란드의 레너드 블루세(Leonard Blusse) 등 국내외 해양사 연구자 100여명이 참가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해양문명론과 해양중국』의 저자 양귀전 교수가 주편한 『해양과 중국 연구총서(海洋與中國研究叢書)』(江西高等出版社) 26권과 『중국 해양 공간 총서(中國海洋空間叢書)』(江西高等出版社) 4권의 출판기념회와 지난 30년간 중국의 해양사연구를 주도하고 해양인문사회과학연구와 학과 건설을 주장해온 선생의 80세 생일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이 총서 작업에 참가한 연구자들은 양귀전 선생과 그의 부인 왕리팡(翁麗芳) 여사의 학생이라는 것에, 선생이 주도하는 연구단의 일원으로 해양사 연구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강한 자부심을 느낀다.

『해양문명론과 해양중국』은 2016년 양귀전 교수가 주편한 『중국 해양문명 주제연구(中國海洋文明專題研究)』(人民出版社) 10권<sup>2</sup> 중의 제1권이다. 2019년에 증보(增補) 복각된 30권을 포함한 40권의 연구서가 지난 30년간 양귀전 교수가 시아먼대학에서 ‘해양사학’을 전공하는 박사생 학생들과 일구어낸 해양역사문화연구의 구체적 성과라고 한다면, 『해양문명론과 해양중국』은 해양인문사회과학연구의 창성을 제기하고 학과 건설을 주도해 온 선생의 생각과 주장들을 개괄한 책이라고 할 것이다.

지난 학술대회에 초청을 받은 한국인 참석자는 이 책을 번역한 김창경 교수와 필자 두 사람이었다. 중국고전문학을 전공한 필자는 2008년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해항도시 문화교섭학” HK연구단에 참가하면서 해양문화와 관련을 갖게 되었다. 동아시아 해역 내 ‘해항도시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던 연구단은 하마시다 다케시 교수와 일면식도 없는 양귀전 교수에게 연락을 취하여 조언을 구하게 되었다. 어떻게 해항도시를 연구하고 해항과 해항을 잇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지 질문을 드렸을 때 양귀전 교수는 “조공무역권(朝貢貿易圈)<sup>3</sup>과 해양아시아 개념을 제기하여, 중국 연해지역과 중국 해안에 둘러싼 국가들, 인도양 연안의 각 나라들을 해역 세계의 중요한 구역으로 여기고 총체적인 연구를 진행한”(p.34) 하마시다 교수의 학문적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권(圈)”이라는 개념은 원래 역사학의 개념이 아니라 사회과학의 개념으로, 이 개념은 어떻게 차용되었는지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과 함께 다음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해 주셨다.

1. qiushui@kmou.ac.kr

2. 『중국 해양문명 주제 연구(中國海洋文明專題研究)』는 다음과 같은 10권으로 이루어진 총서이다. 『해양문명론과 해양중국』, 『16-18세기의 중국 역사 해도(16-18世紀的中國歷史海圖)』, 『샤먼항의 굴기(廈門港的崛起)』, 『정성공과 동아시아 해권 경쟁(鄭成功與東亞海權競逐)』, 『항약무역과 명청 중국사회(香藥貿易與明清中國社會)』, 『청대 교상과 해양문화(清代郊商與海洋文化)』, 『명청 해양재해와 사회대응(明清海洋災害與社會應對)』, 『청대 가경년간의 해도와 수사(清代嘉慶年間的海盜與水師)』, 『대만 전통해양문화와 대륙(臺灣傳統海洋文化與大陸)』, 『청 전기의 도민 관리(淸前期的島民管理)』.

3. 하마시다 다케시, 2018, 『조공시스템과 근대 아시아』, 서광덕·권기수 옮김, 소명출판.

네트워크는 항구를 노드(node)로 하는 것이다. 역사학에서 네트워크 개념을 차용함에 있어, 이전의 관념을 조정해야 하지, 더 이상 자기(自己) 중심의 시작관념으로 이야기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해민(海民)들의 해양활동은 항구와 항구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모든 항구가 출발점이자 종점이기 때문이다. 또 배를 몰고 항해하는 것은 바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다. 그 과정에 많은 항구를 경유하게 되는데, 그 경우항들도 종점이 된다. 또 출발을 하면 그곳이 출발항인 것이다. 따라서 모든 항구가 출발점이자 종점인 것이다. 때문에 우리 모두는 중심이자 가장자리이며, 피차가 중심이자 가장자리인 것이다. 그래서 중심에서 가장자리까지 누가 중심인지, 누가 가장자리인지 논쟁할 필요가 없다.<sup>4</sup>(p.142)

동아시아해역의 광역질서로서의 ‘조공무역시스템’과 거기에 보이는 종주권이나 주권에 관련된 문제, 해역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역할과 전 세계적인 은(銀)의 유통에 관해 조언을 주신 하마시다 교수와는 다르게 해항도시 사이에는 중심도 없고 주변도 없으며, 모두가 중심이라는 양 교수의 가르침은 해양문화를 공부하기 시작한 필자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이것이 역사 전공자가 아니면서도 이 책에 대한 서평을 요청한 해양박물관의 제안을 거부하지 못한 개인적인 이유이고, 『해양문명론과 해양중국』이라는 책 보다는 양귀전 교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감상적인 서평을 쓰게 된 변명이며, 먼저 독자들의 양해를 구하는 까닭이다.

양귀전 교수는 자신의 학문적인 배경은 역사학이라고 하였다.<sup>5</sup> 시아먼대학 역사학과를 졸업하고 지금까지도 모교에서 연구하고 학생을 지도하고 있는 선생은 『林則徐傳』(1981)을 통해 학문적 명성을 얻었고, 명청(明清) 시대 푸젠(福建)지역 토지계약문서연구를 통해 경제사학자로서 학계의 인정과 존경을 받았다. 양귀전 교수는 자신을 해양으로 전향하게 한 직접적인 계기는 1988년 CCTV에서 방영한 《하상(河殤)》이라는 다큐멘터리라고 했다. 중국에는 ‘황토지(黃土地) 문화’만 있고 ‘해양문화’는 없다는 내용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중국 해양사회경제사’를 연구하겠다는 결심을 굳혔다는 것이다. 중국에 해양경제, 해양사회, 해양문화가 존재하는가 여부는 아주 민감한 문제인데 《하상》은 해양이 낳고 기른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자본주의와 동일시하는 서방의 주류담론을 비판 없이 수용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자본주의와 ‘전반서화(全盤西化)’를 연상시키게 한다는 반성이 있었던 것이다.(p.36 참고) 이후 선생은 학술연구방향을 육지로부터 해양으로 옮겼고, 중국 역사학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고대 경제사로부터 주변 학문인 해양사로 바꾸고, 이후 30년을 해양사연구라는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다고 하였다. 양 선생은 이러한 계기를 통해 1996년 이후부터 “중국은 스스로의 해양사회경제사를 갖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이를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 밝히기 위해 ‘중국해양사학’, ‘중국해양문명사’, ‘중국해양인문사회과학’ 연구의 필요성과 이를 뒷받침할 전문학과의 필요성을 학계와 정계, 나아가 사회를 향해 주장해 왔다.

4. 이 인용문은 『해양문명론과 해양중국』의 본문에다 양귀전 교수가 필자에게 하신 말씀을 더해 약간의 수정을 하였다. 역자들의 양해를 구한다.  
5. 양귀전 교수의 제자들은 역사학자로서의 선생의 학문적 성취를 ‘진가경(陳嘉庚)에서부터 인척서(林則徐)까지’, ‘명청사에서 푸이링(傅衣凌) 선생이 개창한 중국사회경제사까지’, ‘중국사회경제사에서 중국해양사연구의 적극적인 창도까지’라고 개괄한다. 양귀전 교수 개인의 연구 성과로는 『林則徐傳』(1981), 『陳嘉庚』(1987), 『明清土地契約文書研究』(1988), 『明清時代福建的土堡』(1993), 『明清中國沿海社會與海外移民』(1997), 『閩在海中』(1998), 『東溟水土』(2003), 『瀛海方輿: 中國海洋發展理論和歷史文化』(2003) 등 다수의 저서와 논문이 있다.

양귀전 교수는 “해양인문사회과학은 자연과학 중 해양과학과 대응하는 개념으로, 주로 해양지역의 사회현상과 인문적 특징을 연구하여, 해양세계 속에서 인류문명이 체현한 것을 고찰하고 해양을 합리적으로 개발·이용·보호하는 지식체계를 찾아내는 것”(p.83.)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나아가 해양인문사회과학의 이론과 방법을 고찰하고, 이미 성취한 성과를 총괄하여 학술적 관점을 혁신하고, 학과체계를 혁신하며, 과학적 연구방법을 혁신하는 것이 해양문명사를 추동하는 길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p.133) 90년대부터 양 교수는 박사생 제자들을 이끌어 해양사학의 토대 위에서 중국해양사회경제사를 연구하기 시작하여, 중국의 해양관, 항구도시, 어업경제와 어민사회, 해상시장, 해외 이민의 변화 발전 등을 탐구한 『해양과 중국(海洋與中國)』(전 8권) 총서와 이전 연구 영역을 심화하고 해양사회사, 해양재해사, 해양문화사, 항해기술사 등 연구영역을 개척한 『해양중국과 세계(海洋中國與世界)』(전 12권) 총서를 연이어 출간하여 중국해양사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해양문명론과 해양중국』은 양귀전 교수의 연구 성과와 함께 중국공산당과 사회를 향해 발신한 주장들을 모아 ‘해양문명론’, ‘역사적 해양중국’, ‘새로운 유형의 현대해양관’ 등 3부로 엮은 책이다. 그 주요내용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선생이 연구책임자로서 교육부 철학·사회과학연구 중점과제인 《중국 해양문명사연구》를 수행하면서 해양문명, 해양중국에 관한 기초이론과 실천연구에 몰두하여 얻은 단계적인 성과물들이다. 그 중 일부는 조사연구보고서, 관련논문, 강연원고, 발표문, 인터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1부 ‘해양문명론’은 선생이 수행한 기초이론연구에 속하는 것으로 ‘해양문명의 개념적 함의’라는 1장을 축으로 하고, ‘해양문명의 기본 형태’와 ‘해양인문사회과학과 그 이론적 방법’이라는 2장과 3장을 통해 해양문명에 관한 논의를 보충하고 있다. 선생은 해양문명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먼저 역사학적 견지에서 ‘서구의 해양문명 관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진행하였다. 선생은 책 속에서 헤겔(Friedrich Hegel, 1770~1831) 이후 형성된 서구의 해양문명론은 해양문명의 다양성을 부정하고, 해양은 서구, 현대, 민주, 개방을 대표하고, 대륙은 동방, 전통, 전제, 보수를 대표한다는 서구 중심주의의 담론은 중국을 포함한 동양의 해양발전의 역사적 이론을 무시한 서구 중심주의의 담론이라 비판한다. 나아가 해양문명은 해양-육지가 일체가 된 구조에서 존재하기에, 육지문명과는 전혀 이원적 대립구조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중국은 대륙국가이면서 해양국가이고, 중화문명은 육지와 해양의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 중화문명은 농업문명을 주제로 하지만, 동시에 유목문명과 해양문명을 포용하여 ‘다원일체(多元一體)의 문명공동체’를 형성해왔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양귀전 교수는 책 속에서 ‘중국인의 해양문명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비판을 진행하고 있다. 선생은 ‘해양인문사회과학’의 내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먼저 ‘섭해사(涉海

史)와 '해양사(海洋史)'의 차이를 구분한다. 연해지역에 대한 연구인 "섭해사는 중국에서 이미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순수 해양사학은 1980년대 이후에야 비로소 시작되었다. 둘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육지를 본위로 여깁'과 '바다를 본위로 여깁'으로 구분하는 것에 있다"(p.134) 선생은 기왕의 중국해양사 연구는 여전히 '육지 농업문명을 중심으로 한' 육지적 사유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어 해양문명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결핍되었다고 비판한다. 나아가 중국의 일반적인 역사 교과서와 문명사 저서에서 고대세계를 농업문명과 유목문명의 충돌과 통합의 과정이라 서술하는 이원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여기에 해양문명을 더해야 하고,(p.136) '바다는 하나의 길일뿐만 아니라 생존발전의 공간이자 문명의 과정'이라는 해양공간에 대한 이론적 탐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인문학과의 질적인 성과는 학자의 장기적인 학술 축적, 문화적 자각 그리고 개인적 체득에 달려있다는 신념을 가진 양귀전 교수는 자신의 작업이 완결이 아닌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며, 해양문명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드러내는 것을 자신의 학문적 목표로 삼고 있다. 선생은 결론적으로 "해양문명은 해양활동에 근원을 두어 생성된 문명 유형이고", "해양문명은 해양문화의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문화공동체이며", "해양문명은 인류문명의 작은 체제이고", "해양문명은 문화 발전 과정이며", "해양문명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문화 축적"인 "해양문명론"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p.51~61) 그러나 해양문명 응용 연구의 임무는 "중국인이 위대한 해양활동 가운데 이룩한 문명창조를 어떻게 고도화된 이론으로 끌어올릴 것인가"에 있다고 한 선생의 결론은 해양을 통한 불행한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그의 연구가 가진 한계라 지적할 수 밖에 없다.

제2부 '역사적 해양중국'은 해양중국의 역사과정을 논술한 해양사 연구에 속하며, 실제적인 연구를 통해 기존 연구의 부족분을 깊이 파고들어 논거를 보완한 것이다. 양귀전 교수는 제2장 '중화해양문명의 시대구분'을 통해 해양을 중심으로 중국해양문명사의 역사 분기 문제를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그의 지적처럼 "과거의 학술계에서는 중화해양문명사와 각종 해양 관련 주제사의 시대 구분에 대한 토론이 거의 없었다. 일반적으로 중국통사(中國通史) 체제를 차용하여, 왕조의 흥망성쇠를 기준으로 그 시대의 대표적인 사건과 관건적인 시기를 구분하였는데, 이는 해양발전의 내재적 논리를 구현하지 못한 것이었다."(p.194) 그렇기 때문에 왕조체제에서 벗어나 세계해양문명의 역사 발전에서 중화해양문화의 역사적 변천을 살펴본 그의 작업은 많은 연구자들의 동의와 지지를 얻었다.

양귀전 교수는 세계해양문명의 진전은 인류가 해양생존과 발전 공간을 넓힌 역사적인 과정으로 지역 해양시대, 글로벌 해양시대, 입체 해양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다. 지역 해양 시대는 상고시기에 썩었고 고대시기에 성장하였으며, 글로벌 해양시대는 고대의 대항해에서 싹트기 시작하여 근대초기의 '지리적 대 발견'이 시작되어 지금에 이르렀으며, 입체 해양시대는

현대 해양개발기술의 진전으로 싹 텃으며 해양문명의 발전 공간은 해양 수면, 해양 상공, 해저로 구성된 입체적 공간으로 확장되어 미래 인류문명의 활로가 되었다. 때문에 21세기는 글로벌 해양시대가 입체 해양시대로 향하는 과도기적 '해양세기'인 것이라고 정의했다.(p.193) 나아가 중화민족의 해양발전은 인류해양문명의 큰 추세에 부합하는 것으로 중화해양문명의 진전은 흥성·번영·좌절·부흥기의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다.

양귀전 교수는 '동이(東夷)·백월(百越)시대'를 중화해양문명의 흥성기로, 한 무제(武帝)가 남월(南越)을 평정한 시기(기원전 111)부터 정화(鄭和)가 서양으로 항해함을 끝으로 하는 '전통해양시대'를 중화해양문명의 번영기로, 1433년 서양 진출을 끝낸 것에서부터 1949년 신(新)중국 수립까지를 중화해양문명의 좌절기로, 중국의 해양사업이 새로운 기점에서 출발하는 신중국 수립 이후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시기를 중화해양문명의 부흥기로 구분하였다. 흥성기와 번영기는 지역 해양시대에 속하며, 좌절기와 부흥기는 글로벌 해양시대에 속한다고 하였다.(p.193~216) 이러한 중화해양문명사 시대구분은 양 선생의 인류해양문명과 중국해양 발전역사의 대 배경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과 깊이 있는 연구와 판단의 토대 위에서 나온 것으로 중국의 해양문명사를 연구하는 연구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지중해'론을 수용하는 국가에서 해양문명사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타산지석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제3부 '새로운 유형의 현대 해양관'은 현재 시점에서의 해양연구에 속한다. 양귀전 교수는 중국공산당원이 아닌 무당파(無黨派) 학자이지만 그의 글 속에는 중화민족에 대한 애정과 국가주의적인 정취가 묻어난다. 선생은 한국어판 서문을 통해 "이것은 해양이익을 공평하게 공유하고, 해양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며, 인간과 해양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것이다. 중국이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건설을 제의한 것은, '아시아태평양의 재균형'이나 '해양 연방론'과는 판이한 전략구상인 것이다. 해양은 이미 인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생존발전 공간으로 되어, 특정 국가나 지역에 속하지 않고, 전 인류가 공동으로 향유하는 개방공간에 속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단일중심주의를 초월하여, '단일 주체성'을 강조하는 것에서 '다원화'로의 관념적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p.20)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건설을 통해 바다로 나아가려는 중국공산당의 입장에 근거한 국가주의적인 성격이 농후한 언급이라 할 것이다.

양귀전 교수의 『해양문명론과 해양중국』은 그의 연구 성과, 중국공산당과 사회를 향해 발신한 주장을 담은 책이다. 때문에 책 속에는 '중국 해양문명'이라는 하나의 문제의식이 관통하고 있지만 내용에 있어 부분적인 중복이 있고, 관점에 있어서는 민족주의적이고 국가주의가 드러나 국외 독자들의 불편함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나 중국의 해양인문사회과학이 탄생하고 발전해온 과정에 대해 전면적으로 정리하고, 중의 해양문명론 개념에 대해 진중한 해석을

진행하고, 중국해양문명사에 대한 새로운 역사 분기법을 제시하며, 인간과 해양의 조화를 강조하는 등 21세기 중국해양문명사연구에 있어 새로운 전망을 제기하고 있다. 때문에 중국해양문명연구사에 있어 이정표가 될 만한 저서일 뿐만 아니라, 해양인문학의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찾고 있는 우리 학계가 참고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저서라고 믿는다.

## 참고문헌

하마시타 다케시, 2018, 『조공시스템과 근대 아시아』, 서광덕 · 권기수 옮김, 소명출판.

원고투고일 : 2020. 11. 16. |  
게재확정일 : 2020. 11. 30. |

# OCEAN HeritAge

## 알프레드 베게너의 『대륙과 해양의 기원』

박원용 부경대학교 사학과 교수

## I

전공 영역에서 지금껏 써왔던 서평과는 다르게 이번 서평은 나에게 하나의 도전이었다. 천문학 박사학위로 연구자의 길로 들어선 알프레드 베게너(Alfred Wegener)가 1915년에 출판한 『대륙과 해양의 기원』을 서양사 전공자인 필자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질시대를 나누는 익숙한 용어인 신생대, 고생대, 중생대 이외에 고생대 안의 다양한 시기 구분인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등뿐만 아니라 중생대 안의 쥐라기, 트라이아스기, 백악기 등의 용어에 익숙해져야 했다. 또한 심해의 암석계열을 지칭하는 용어인 ‘시마’와 ‘시알’이라는 생소한 용어를 이해하기 위해 공을 들여야 했다. 핵심주장인 ‘대륙이동설’을 증명하기 위해 베게너가 동원한 고생물학, 지구물리학의 다양한 근거들을 어렵듯하게나마 이해하기 위해서도 적지 않은 인내가 필요했다. 그럼에도 이러한 도전을 내가 감행한 이유는 베게너 학설이 가지고 있는 지리학, 혹은 지질학에서의 중요성을 거론하는 것은 전문가의 영역에 남겨둔다 하더라도 그의 인생역정이 21세기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베게너는 이 책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전공분야에서의 꾸준한 연구를 통해 만들어 낸 것이 아니었다. 1911년에 장인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발간한 『대기권의 열역학』을 통해 종합적 사고의 역량을 보여준 바 있지만 베게너는 지질학 분야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마부르크 대학에서 기상학과 천문학을 열심히 강의하는 일상을 영유하는 도중, 우연히 보게 된 세계지도는 그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바꾸게 될 생각을 제공한다.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해안선이 정확히 들어맞는 것을 보고 그는 대양으로 인해 분리된 거대한 대륙이 지구의 머나먼 과거에는 하나의 대륙으로 붙어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었다. 베게너가 여기서 머물렀다면 그는 아마도 별다른 족적을 남기지 못한 채 지리학, 지질학 분야서 뿐만 아니라 역사무대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지구의 대륙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주장은 베게너 이전의 여러 학자들이 주장한 바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던 대륙들이 어떻게 분리되었는가를 설명하는 방식이었는데 베게너는 바로 그러한 분리의 원인을 ‘대륙이동설’로 제시하였던 것이다.

베게너가 주장한 대륙이동설의 근거는 차후 설명하겠지만 그의 이러한 주장은 당시 학계의 보편적 생각을 뒤엎은 것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베게너는 1962년에 하버드의 물리학자 토마스 쿤이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제기한 바 있던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온 인물이었다. 쿤의 정의에 따르면 패러다임은 “과학자들이 공동체에 일정 시기 동안 표준적 문제와 해답을 제시하며 보편적으로 인정된 과학적 업적”이었다.<sup>1</sup> 당시 과학자들의 패러다임에서 베게너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 그렇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1930년에 4판을 내는 열정을 유지했다. 이러한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베게너의 학설이 본격적으로 재조명되기 시작한 것은 그가 사망한 후 30년이 지난 1960년대 후반이었지만 오늘날



지각 운동의 과학적 설명의 토대는 그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과거 인물의 구체적 행적을 추적하는 역사가로서 베게너의 이러한 삶의 궤적은 그의 책이 전달하려는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하다.

21세기 역사학은 주된 고찰의 대상이었던 정치적 권리의 신장을 위한 인간집단의 행동, 시대정신의 변천 등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인간의 다양한 삶의 무대인 자연의 변화 또한 연구의 중심주제로 상정하고 있다. 지역에 내재한 지리적,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경제력이나 인간 문명의 발달 수준에 차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제레미 다이아몬드의 『총·균·쇠』의 시각도 이러한 경향을 대표하는 저서중의 하나이다.<sup>2</sup> 해양이라는 공간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역사가들의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중요한 자연환경 중의 하나이다. 그렇지만 해양공간에 대한 역사가들의 관심은 해양공간을 매개로 한 인간 집단의 활동에 더 치중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하여 장기적인 맥락에서 해양공간 그 자체의 변화를 인간집단의 활동을 배제한 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대서양의 역사를 “바다의 관점에서 재구성하자”는 주장은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따르면 대서양의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대서양 생태환경의 변화, 즉 바다 생물, 연안의 해초의 분포와 같은 환경의 변화가 발생했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대서양 전체를 하나로 통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즉 구대륙의 해양자원 소비 형태와 신대륙 어장에서 해양자원의 포획량을 연관하여 살펴볼 것과 그러한 생산과 소비 형태가 대서양의 생태환경을 어떻게 변화시켰으며 그러한 변화에 연안의 인간집단이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검토하자는 것이다.<sup>3</sup> 베게너의 『대륙과 해양의 기원』은 이렇게 21세기 역사학의 중요 연구대상인 해양공간은 물론 인간의 주생활무대인 대륙의 생성과 변화를 자연과학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제공했다. 전문영역에서의 심층적 연구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늘날과 같이 엄청난 정보의 생산과 유통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종합적인 판단능력의 함양도 간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베게너의 책은 제공해 주었다.

## II

베게너가 당시 과학자들의 패러다임에서 이의를 제기한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당시의 고생물학자, 식물지리학자들은 “대륙들이 과거에는 육교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육상의 동식물군들이 방해받지 않고 교류해왔다”고 생각했다.(27쪽) 그렇게 육교를 통한 동식물의

왕래가 있었기 때문에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서 같은 종류의 화석도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베게너는 당시의 이러한 패러다임을 부정했다. 먼저 육교설은 “베링해협과 같은 얇은 대륙붕 혹은 해침에 의해 바다가 된 곳(31쪽)은 성립할 수 있지만 깊이가 수천 미터가 되는 깊은 바다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베게너의 생각이었다. 만약 육교가 있었고 그것이 가라앉았다면 심해에도 대륙을 구성하고 있는 유사한 물질이 심해에서도 발견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심해저는 대륙보다 밀도가 높은 물질로 이루어졌고(77쪽) 또한 “심해저에서는 대륙체의 덮개인 화강암이 나타나지 않는다.(92쪽) 따라서 육교설에 의한 여러 대륙에서의 동일한 종류의 동식물의 분포를 설명하려는 시도는 폐기되어 대륙이동설로 대체되어야 한다.

베게너는 생물의 특성과 분포를 통해 대륙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동시에 대륙이동설의 또 다른 근거를 제시한다. 서아프리카와 현재 브라질 북부 해안에만 존재하고 있는 매너티라고 불리는 바다소가 그가 제시하는 근거이다. “바다소는 강 또는 얇고 따뜻한 바다에 살았기에 대서양 심해를 건너갈 수가 없는 종이다.” 이는 “그리 멀지않은 과거에 남대서양의 북쪽 연안을 따르는 서아프리카와 남미가 얇은 바다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며 육교설을 반박할 수 있는 또 다른 증거이다.(158쪽) 뱀장어의 특성은 베게너의 대륙이동설을 또 다른 각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국과 유럽의 민물장어들은 공통적으로 사가소 바다, 즉 서인도 제도 북동에 있는 사가소(모자반)가 무성한 해역에서 산란하는데 유럽의 장어들은 산란장소까지의 거리가 더 멀기 때문에 미국 장어들보다 훨씬 더 진화의 단계를 거쳤다.(164쪽) 보다 구체적으로는 유럽의 뱀장어가 미국 뱀장어보다 척추뼈가 10개 정도 많은 진화의 단계를 보인다. 유럽 뱀장어가 이렇게 진화한 이유는 유럽 뱀장어들의 산란장소인 사가소 심해가 유럽으로부터 차차 멀어져 갔기 때문이라고 베게너는 주장한다.

베게너는 또한 영구설에 대한 반박을 통해 대륙이동설의 타당함을 주장했는데 이때도 그는 또 다른 생물의 분포, 즉 지렁이의 분포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려고 했다. 미국 학자들의 주장하는 영구설은 심해저는 “지구 표면에서 영구적인 현상이다. 이들은 해수가 처음 모일 당시부터 윤곽을 바꾸지 않은 채 지금의 자리에 놓여 있다.”육지에서 발견되는 해양 퇴적물은 모두 얇은 바다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깊은 바다는 한 번도 육지가 된 적이 없고 “대륙 지괴는 대륙지괴로서 지구역사 동안 영원”하였다는 주장이 영구설의 핵심이다.(42쪽) 그렇지만 지렁이의 지구적 분포를 통해 볼 때 영구설은 유지될 수 없다. 상식적으로 지렁이는 바닷물이나 언 땅에서 살아갈 수 없고 바다를 걸코 건널 수도 없다. 그렇지만 여러 대륙에 걸쳐 다양한 종류의 지렁이가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애초에 하나의 대륙으로 존재했던 대륙이 점차 분리되어 여러 대륙으로 분리되지 않았다면 설명될 수 없는 현상이다. 즉 다양한 지렁이 군이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아프리카 등의 대륙에 분포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대륙, 즉 관계아가 오랜 시간에 걸쳐 분리되었고 “대륙이동설의 이론을 확장하는 도구로

1. 사라 마자, 2019, 『역사에 대해 생각하기』, 박원용 옮김(Thinking About History, 2017), 책과 함께, 138쪽.

2. 제레미 다이아몬드, 2005, 『총·균·쇠』, 김진준 옮김(Guns, Gems, and Steel, 1998), 문학사상.

3. W. Jeffrey Bolster, 2008, Putting the Ocean in Atlantic History: Maritime Communities and Marine Ecology in the Northeast Atlantic, 1500-1800, American Historical Review 113 (1), pp. 19-47.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었다.(183쪽)

베게너는 “고기후의 판단기준들이 대륙이동설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또 다른 근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스피츠베르겐은 스칸디나비아반도의 북쪽에 위치한 섬인데 “혹독한 극기후의 내륙빙하로 덮여있다.” 그러나 이곳의 신생대 초기 지층에는 소나무, 너도밤나무, 참나무 같은 온대기후에서 자라는 나무화석이 발견되고 있다. 이는 스피츠베르겐의 “연평균 기온이 오늘날 보다 약 20°C 높았다는 뜻이다.”(193쪽)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오늘날 열대지방에서만 나오는 사과 야자, 은행, 그리고 나무에 기생하는 양치류”와 같은 것들도 있었다.(194쪽) 이러한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스피츠베르겐이 과거에는 더 따뜻한 곳에 있었다는 의미로 스피츠베르겐이 열대로부터 현재의 위치까지 이동했다는 것이다. 스피츠베르겐의 고기후학적 증거만으로 대륙이동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지나친 일반화라는 비판을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의식이라도 한 듯 베게너는 석탄층의 분포를 통해서 대륙이동설을 또 다시 확인하고 있다. 즉 오늘날 석탄의 분포는 북아메리카, 유럽, 시베리아 등지의 적도 위쪽의 북반구 지역에 흩어져 있다. 이들 탄전에서 산출되는 식물군 화석들을 조사해 보면 “유럽의 석탄기 석탄층이 열대성 얇은 습지성의 갈탄화석”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열대성 기후대에 있지 않은 현재의 탄전의 위치와는 맞지 않는 것으로 고생대 때 적도 우림지에 위치해 있던 석탄 생산지가 대륙이동으로 현재의 위치로 이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베게너는 고기후학의 증거 또한 대륙이동설을 거부할 수 없는 진실로 만드는 또 다른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 III

베게너는 이밖에도 대륙이동설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성과와 예시들을 책에서 소개하고 있다. 나름대로 노력해 보았지만 지구물리학 분야, 측지학 분야, 지질학 분야의 세밀한 논증 모두를 이해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내가 이에 대한 추가적 서술로 서평 형식의 이 글을 마무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대륙이동설의 확증을 위해 베게너가 책을 구성한 방식은 앞의 서술 내용을 통해서도 이미 어느 정도는 드러났고 전문 영역에서의 서평형식은 나의 능력 밖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과학적 사고의 틀을 제시하기 위한 그의 부단한 노력을 상가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는 이유이다.

학자들에게 진리라고 오랜 시간 간주되었던 학설이나 개념을 거부하는 새로운 주장이 등장했을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종하지 않는 것이 학자들의 혼한 태도이다. 기존 패러다임을 부정하는 새로운 주장의 진위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대다수의 학자들은 그것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꺼려한다. 반대로 그것이 옳바르다고 관명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상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베게너의 대륙이동설을 당시의 대다수 학자들이 수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의 주장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즉각적으로 성취하지는

못했다. 비록 그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문헌을 상세히 섭렵하고 당시의 지질학과 지리학의 개념에서 틀렸다고 간주하는 학설들을 조목조목 반박해 나갔지만 대다수의 지질학자와 물리학자들에게 그는 불합리한 학설의 전파자로 취급되었다. 자신의 학설을 소개하기 위한 1926년 미국 학회에서의 발표에서도 그는 당시의 저명한 미국의 학자들에게 조롱과 공격의 대상이었다. 베게너의 대륙이동설은 더 이상의 고려가 필요 없는 폐기되어야 할 이론처럼 취급되었다.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는 원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외로운 상황에서도 베게너는 지구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입수 가능한 증거자료들을 근거로 하여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했다. 그런 베게너에게 학자로서의 명성이나 학계에서의 권력 추구는 어찌면 하찮은 것으로 보였는지도 모르겠다. 베게너는 도전적인 자세로 지식의 폭을 넓혀 나가면서 자신의 주장이 결국 지구의 실체를 밝히는 올바른 시각임을 입증하려고 했다.

베게너의 이러한 학자로서의 태도는 본받을만한 것이지만 문외한인 내가 보기에 그의 주장에는 아쉬운 점이 있었다. 그는 대륙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현상’을 설명하고는 있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명쾌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다. 베게너에게는 린 사이크스, 브라이언 아이작, 잭 올리버가 제시한 지구상의 지질학적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판구조론에 의한 설명, 즉 지구는 지각과 맨틀의 상부를 합한, 100킬로미터 두께의 딱딱한 지구껍질인 판과 판 아래 연약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약권에서 일어나는 대류에 의해 판은 분할되어 여러 조각으로 나뉘게 된다는 명쾌함이 없다. 판이 연약권의 대류를 타고 움직이기 때문에 대륙의 이동은 일어나게 된다. 아울러 지구상의 10개 이상의 다양한 크고 작은 판의 상호작용을 통해 산맥과 해양과 같은 지질현상이 훨씬 더 잘 이해될 수 있는 것 같다. 이와 같이 지구를 이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는 판구조론은 베게너의 시대를 지나치게 앞서갔던 학설인 대륙이동설이 없었다면 등장하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당장의 세속적인 영광에 연연하지 않고 외롭게 학문적인 진실을 추구했던 베게너가 있었기에 오늘날의 과학자들이 지구의 다양한 현상을 과학적으로 보완하고 발전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 참고문헌

사라 마자, 2019, 『역사에 대해 생각하기』, 박원용 옮김(Thinking About History, 2017), 책과 함께, 138쪽.

제레미 다이아몬드, 2005, 『총·균·쇠』, 김진준 옮김(Guns, Germs, and Steel, 1998), 문학사상.

W. Jeffrey Bolster, 2008, Putting the Ocean in Atlantic History: Maritime Communities and Marine Ecology in the Northeast Atlantic, 1500-1800, American Historical Review 113 (1), pp. 19-47.

원고투고일 : 2020. 11. 15. |  
게재확정일 : 2020. 11. 30. |

“해양 제주,  
그 문명사적 성찰”  
성과와 전망에  
대하여

권유리 국립해양박물관 학술연구팀장

# OCEAN Heritage

## 1. 학술대회를 기획하며



국립해양박물관은 2019년 국립제주박물관과 전시 및 학술과 관련한 공동 사업 등에 관한 업무 협력을 맺고, 그 첫 번째 성과로 2020년 기획전 〈해양 제주 OCEAN JEJU\_바다에서 바라본 제주 바당〉을 개최하였다. 이는 국립제주박물관 뿐 아니라, 국립제주대학교박물관을 포함한 세 기관이 협력하여, 4월에는 부산, 8월에는 제주에서 전시를 개최하게 되었고, 전시를 기획하는 단계부터 공동학술대회 개최 계획 수립도 함께 진행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해양 제주, 그 문명사적 성찰〉이라는 주제로 기획하게 되었으며, 육지 중심 사고로 바라보는 제주를 탈피하여, “해양문명사적으로 바라본 제주”라는 관점에서 내용을 구성을 하였다.

또한 섬 중심적인 관점에서 동아시아의 역사 및 문화와 적극적인 활동성을 지닌 주체로서의 제주를 살펴보았다. 개최지는 공동 개최에 의미를 두어, 국립제주박물관에서 개최하기로 협의를 하였다.

그러나, 2020년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로 인해 박물관에서 한 해 동안 기획했던 대부분의 사업들이 일정뿐만 아니라 진행 형태도 긴급하게 변동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부산과 제주에서 열린 총 6개월간의 전시도 수시로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와 함께 당초 8월에 개최 예정인 학술대회 일정도 10월로 변경되었다.

학술대회 일정을 10월로 확정하여 준비하는 가운데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어 행사 개최 여부와 개최 방식에 대한 논의도 계속되었다. 학술대회를 준비하는 담당 학예사는 몇 달간 행사의 진행여부를 걱정하여야만 했고, 결국 개최가 한 달 남은 시점에서는 비대면 학술대회 개최로 가닥을 정하게 되었다.

올해 개최 예정이었던 전국의 수많은 학술대회는 소규모(50인 이하)로 진행되거나, 실시간 온라인(유튜브 채널 및 ZOOM) 영상 등으로 대체하여 진행하였고, 우리 박물관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향후 발표 영상 및 자료의 지속적인 활용을 검토하여, 실시간 중계가 아닌 녹화 영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결정하고, 드디어 10월 8일 국립제주박물관에서 행사를 개최할 수 있었다.

## 2. 발표 내용의 구성

이번 학술대회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해양문명사적 관점으로 바라본 제주라는 큰 주제 아래, 전시의 세부 내용을 좀 더 발전시켜 선사시대의 제주부터 근대 제주지역의 기후변화까지 다양한 주제를 담았다. 학술대회는 총 2부, 6개의 주제 발표로 구성을 하였는데, 제주를 좀 더 폭 넓게 바라보기 위해 고고학, 역사학, 신화학, 수산학 등 다양한 학문적 접근을 시도하였고, 이를 통해 해양의 문명사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또한 행사를 기획한 초기에는 종합토론을 진행하기 위해 토론자를 섭외하고 토론문을 요청하였으나, 일정이 다가온 시점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의 일환으로 행사 당일에는 종합토론을 생략하고, 토론문은 자료집에만 수록하였다. 따라서 아래의 토론 주제는 토론문 제목으로 대신한다.

구분	주 제	발표 · 토론자
1부		▶ 좌장 · 사회   박경훈 (前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 선사 · 고대 제주도의 해양고고학적 궤적	김경주 (제주문화유산연구원 부원장)
	◦ 동아시아 해상왕국으로서의 탐라	홍기표 (前성균관대 겸임교수)
	◦ 신화 속의 해양제주	허남춘 (국립제주대 교수)
2부	◦ 제주인의 세계인식과 그 문명사적 접촉	박찬식 (前제주학센터 센터장)
	◦ 서양인의 제주인식과 그 문명사적 접촉	오상학 (국립제주대 박물관 관장)
	◦ 기후변화와 제주바당 수산 생물	정석근 (국립제주대 교수)
3부	◦ 해양 제주, 그 문명사적 고찰	전영준 (국립제주대 교수)
	◦ ‘기후 변화와 제주 바당 수산생물’을 통해 생각하는 제주도 조간대의 중요성과 위기	임형묵 (김이와 바당 대표, 독립영화 감독)
	◦ 표도와 표류의 해양제주와 제주인 표현 사례	김동전 (국립제주대 교수)

이번 학술 발표는 박경훈 前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이 1, 2부 좌장 및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다. 1부에서는 선사고대 제주도의 해양고고학적 궤적(김경주, 제주문화유산연구원 부원장), 동아시아 해상왕국으로서의 탐라(홍기표, 前성균관대 겸임교수), 신화 속의 해양제주(허남춘, 국립제주대 교수)의 주제로 구성하였다.

“선사 · 고대 제주도의 해양고고학적 궤적”은 고대 탐라의 대외 교류와 관련된 고고학 자료를 검토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제주의 선사시대 해양교류는 이른 단계에서는 동아시아의 광범위한 교류의 형태를 보이지만, 늦은 신석기 시기에서는 남해안 지역의 집단과

밀접한 교역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 다양한 발굴 자료를 통해 증명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청동기 이후에는 대외 교류의 범위가 넓어져 한반도 중부 이남의 문화권과도 교류를 한 것이 여러 유적을 통해 증명되었다. 이후 탐라의 해양교류에서 다양한 선진문물의 수입은 마한세력, 나아가 백제의 영역확대와 신라 삼국통일이라는 정치적 변화과정에서 해체됨을 설명하고 있다.

“동아시아 해상왕국으로서의 탐라”는 탐라의 전반적인 키워드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탐라와 제주의 명칭 변화, 탐라의 개국 신화, 해상교류를 보여주는 다양한 발굴 자료와 역사서에 등장한 탐라국의 기록을 정리하였다. 또한 문헌상 5세기부터 한반도의 교류가 나타나지만, 이후 적극적인 생존 전략으로 7세기 중반에는 동아시아 정세 변동을 통해 다양한 항로를 탐지한 노력들도 소개하고 있다.



학술대회 1부 발표

1부 마지막 발표 주제인 “신화 속의 해양제주”에서는 육지와는 다른, 섬 문화의 영향으로 신화와 신앙체계가 달라진 제주의 신화들을 연구하였다. 바다를 근거하여 살고 있는 제주인들의 건국신화에서는 육지와 달리 천상에서 하강하는 신이 아닌 땅에서 솟은 신이 등장하고, 그의 배우자는 대개 바다를 건너온다. 이는 바다 멀리 상상의 나라이거나, 또는 가까운 구체적인 나라 이름이 등장하기도 한다. 또한 바다의 용왕신이 그들의 삶을 지배한다고 여기며, 해산물의 풍요를 관장하는 영등신이 등장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제주인들의 문화 인식은 바다가 풍요의 근거이자, 교류의 장이었음을 보여주었다.

2부에서는 제주인의 세계인식과 그 문명사적 접촉(박찬식, 前제주학센터 센터장), 서양

인의 제주인식과 그 문명사적 접촉(오상학, 국립제주대 박물관 관장), 기후변화와 제주 바당 수산생물(정석근, 국립제주대 교수)의 발표로 구성하였다.

2부 첫 발표는 “제주인의 세계인식과 그 문명사적 접촉”이라는 주제로 시작하였다. 이는 제주인들이 바다를 대외 교류의 무대로 삼았던 기질과 바다를 규정하는 고정관념의 해체를 다루었다. 그러나 해양국가로서의 탐라국은 고려 이후 지방으로 전락하였고, 조선시대에는 유배지, 17세기 이후에는 출륙금지령까지 내려 2백여 년간 철저히 폐쇄적인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개항 이후 자본과 문명이 넘나드는 새로운 외부 문명과 접촉하게 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모습과 내면의 변화들을 보여주었다.



학술대회 2부 발표

“서양인의 제주인식과 그 문명사적 접촉”에서는 앞의 발표와는 다른 입장으로, 서양인들이 바라본 제주의 인식에 대해 살펴본다. 서양에서 제주의 존재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16세기 이후의 지도를 시작으로 시기에 따라 지도상에 나타나는 제주의 명칭과 기술은 변화한다. 동인도 회사의 세계 전략 속 항해의 길목에 위치하였던 제주는 시기에 따라 풍마 Fungma, 켈파트 Quelpart로 불리며 본격적으로 소개되는데 이와 관련된 시기별 다양한 서양 지도를 정리하여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기후 변화와 제주 바당 수산 생물”은 쿠로시오 해류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제주 해역 생태계의 변화와 중심 어장의 변화된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 이에 제주 연근해 상업어종의 정량적 평가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대처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반도에서 쿠로시오 해류의 영향력은 생태계의 자연적 이동에 영향을 미치고 이와 관련한 제주지역의 생태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2부를 정리하였다.

### 3. 성과와 전망

일반적으로 육지에서 바라보는 제주의 시각을 전환하고, 한반도 부속 섬이 아닌 적극적인 활동성을 가진 섬으로 인식하여 고대에서부터 근대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본 것은 이번 학술대회에서의 가장 큰 성과라 하겠다. 하지만, 유례없는 코로나-19라는 변수로 인해 준비 기간부터 어려움이 많았고,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 지침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긴 하였으나, ‘혹시나’ 하는 두려움으로 행사를 임할 수밖에 없었다. 타 기관의 개최 사례를 조사하고, 개최 시기, 행사 일정, 진행 방식 등 두 기관의 현실에 맞는 상황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국립제주박물관에서도 적극 협력을 하여 행사에 차질이 없게 진행할 수 있었다.

운영방식은 영상 촬영시 발표자 간의 공백 및 돌발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간 송출이 아닌 녹화방식을 취했으며, 발표자간의 접촉도 최소화하기 위해 1, 2부를 구분하여 해당 발표자만을 모시고 진행하였다. 촬영된 녹화영상은 발표자와 발표자료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영상 편집을 통해, 우리 박물관과 국립제주박물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비대면 학술대회라는 경험해보지 못한 행사를 준비하면서, 신속한 대응으로 진행방식을 결정한 것은 향후 다양한 학술대회 개최를 위한 새로운 방안 모색이라 할 수 있겠다. 다만, 학술대회의 청중이 사라지고, 열띤 토론을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간 학술대회의 단점을 보완하여 재정비하는 것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이 지면을 빌려 청중이 없는 학술대회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도, 발표를 준비해주신 발표자분들과 토론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원고투고일 : 2020. 11. 16. |  
게재확정일 : 2020. 11. 30. |

부산경남사학회,  
국립해양박물관 추계학술대회

# 동아시아 해역세계를 둘러싼 교류와 갈등

김형열 동의대학교 중국어학과 교수

# OCEAN Heritage

## 기획 의도

부산경남사학회에서는 「동아시아 해역세계를 둘러싼 교류와 갈등」이라는 주제를 통해 전근대 동아시아 해역사 연구와 관련된 새로운 연구 주제와 영역을 대상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한국 학계에서 해역사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근대 역사학의 새로운 영역으로서 부각되고 있는 해역사는 항해, 무역, 해적, 해상민 등 바다 세계의 역사뿐만 아니라 바다를 낀 육지와와의 교류와 투쟁, 해상과 육상의 상호 작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해역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오면서 해역을 중심으로 한 실제적 관계, 교류뿐만 아니라 자기인식과 타자 이미지, 세계상과 관련된 정보, 표상 등에 대한 연구 또한 진행되고 있다.

전근대 동아시아 해역사 연구는 일찍부터 이 분야 연구를 선도한 일본 학계에서 적지 않은 연구 성과의 축적이 있었고, 근대 중국, 한국 학계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모색되어 왔다. 9~11세기의 동아시아 해역세계에 대한 연구는 현재 일본 학계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데 일본 학계는 전통적인 대외관계사를 벗어나 9세기를 동아시아 해역세계의 획기로 보며, 일본 사료의 세계사적 중요성, 일본사를 중심으로 한 해역사의 성과를 양과 질 모두 두텁게 축적하고 있다.

이처럼 해역사 연구가 국제적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한국 학계에서는 연구의 태동기라 할 수 있으며 연구의 주체 또한 일부 대학의 연구자에 한정된 분위기이다. 부산경남사학회에서는 전근대 동아시아 해역사의 새로운 주제에 대한 연구를 개척하고 중점적으로 수행되었던 연구 주제에 대한 종합적인 정리를 수행하던 회원들의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축적된 성과를 학계에서 제시하고자 할 의도에서 본 학술대회를 기획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주된 발표 주제로서 기획되고 논의된 연구 주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 주제는 신라의 해상교역활동에 관한 것으로 그간 신라사를 중심으로 장기간 해양사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9세기 동아시아 해역의 무역형태와 교역물품, 한반도 서·남해안의 해상호족 등장과 활동을 유기적으로 관련시킨 내용을 담고자 하였다. 두 번째 연구 주제는 외국계 상인의 활동과 정착에 관한 것으로, 내국인과 외국계 주민 간의 충돌이 빈발하면서 양자 간의 대립을 어떤 방식으로 조정할 것인가라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송대는 역대 중국 왕조 가운데 해역세계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취하였으며, 시박사를 설치하고 해상무역을 지배하에 두었다. 송을 중심으로 일본, 고려 등 동아시아 전역에 걸친 해상교역에 대한 연구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당대 율령의 제규정에 해상무역과 관련된 규정이 정해지지 않았던 것에 비해 송대에는 국가의 관리체제가 갖추어져 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송과 일본과의 교역에서 외국인 상인을 대상으로 한 법률 규정에 대한 분석은 그러한 경향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세 번째 연구 주제는 표류 문제에 관한 것으로



해외 학계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가 축적된 분야로서, 국가 사이의 대응에서부터 표류민 사이의 개별적인 異文化 인식과 해외 정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를 담고자 하였다. 표류 문제는 관련 사료가 풍부한 근세시기에 집중된 편이다. 1960년대 이후 표류, 표류민이 가져온 정보, 이국 건문의 소개, 이문화에의 관심, 체험 등 다양한 정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또한 동아시아에서 표류민의 송환 문제, 해외 정보, 밀무역, 표류 기록, 사료 등에 대한 정리 등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아시아 전역을 대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네 번째 연구 주제는 청대 중국과 동남아시아와의 해산물 교역에 관한 것으로 종래 국내 학계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던 연구 주제이며, 동아시아 해역사의 범위를 넓히고 교역사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주제로 기획되었다. 청대 중국과 동남아시아와의 해산물 교역에 대한 연구는 새로운 분야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국내 학계에서는 주목되지 않은 미개척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식생활사, 일상사 분야로 확대해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검토할 수 있는 주제이다. 다섯 번째 연구 주제는 ‘어류식식의 역사’ 연구의 일환으로서 한·중·일 삼국이 인식한 어류의 명칭 및 표기 등이 정착되어가는 과정을 살피고자 하였다.

이상에서 간략하게 제시한 바와 같이 부산경남사학회에서 기획한 학술대회는 동아시아 해역사의 새로운 주제와 함께 종합적인 정리를 추구하는 논문 발표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학술대회를 통해 부산경남사학회에서는 부산지역에서 해역사 연구 성과를 새롭게 제시하고 관련 성과를 널리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 발표구성과 내용

학술회의는 총 다섯 개의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되었다. 발표자는 한국사 연구자 2명, 일본사 연구자 1명, 중국사 연구자 2명으로 편성되었고 이에 대한 토론자는 한국사 연구자 3명, 중국사 연구자 2명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발표는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권덕영 교수에 의해 “고대 동아시아 해역의 신라 해적”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 발표에서 권덕영 교수는 한·중·일 삼국간의 외교와 전쟁, 교역과 약탈, 교류와 왕래의 현상이었고 매개체였던 9세기 황해를 주 무대로 활동하던 신라 해적의 추이를 정리, 소개하였다. 신라는 건국 이후 적극적인 해양활동을 통해 정치, 경제, 문화적인 번영을 이룩하였는데 삼국 시대부터 축적된 해양기술을 토대로 삼국통일 이후 신라의 해상활동은 괄목할 정도로 발전하였다. 특히 신라 하대 동아시아 해역에서 사무역이 성행하자, 장보고와 같은 신라의 해상

무역업자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동아시아 해상무역을 석권하였다. 본 발표에서는 신라조선술의 발달과 신항로 개척을 통한 해상교역의 해양학적 기반, 9세기 동아시아 해역의 무역형태와 교역물품, 한반도 서·남해안의 해상호족 등장과 활동을 유기적으로 관련시켜 신라의 해상교역활동을 신라 해적을 중심으로 조망하였다. 발표자는 신라 해적의 형성 과정과 관련하여, 8세기 말 이후 당과 신라의 총체적인 불안 정국 속에서, 황해 양안에서 대량으로 발생한 유이민들이 지방 세력가에 의지하여 그들의 전호, 노비 또는 도적이 되었고 이들 도적이 된 사람 가운데 일부는 해적 성향을 가진 해상세력가에 投託하여 해적이 되어 황해와 남해를 왕래하던 수많은 민간무역선을 약탈 대상으로 9세기에 크게 번성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신라 해적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황해에서 신라인을 납치하여 당나라에 노비로 판매하였고, 남해에서는 신라의 官物과 관선을 습격하여 사람을 죽이거나 물건을 빼앗았으며, 심지어 일본의 대마도와 규슈지방까지 진출하여 약탈을 자행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들 신라 해적의 소멸 과정에 대해서는, 9세기 말부터 10세기 초에 걸쳐 독립적으로 지방을 통치하던 호족들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내의 해적과 같은 불법집단을 토벌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황해와 남해에서 활동하던 해적들은 해상호족들에게 토벌되거나 포섭되었고 또는 스스로 호족이 되기도 하면서 점차 본래의 모습을 잃어갔고 결국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에 귀속되었다고 결론 내렸다.



두 번째 발표는 성균관대학교의 고은미 교수에 의해 “중국계 상인의 일본 정착 - 11~13 세기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어떤 사회에 해당 사회의 관습이나 규율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관습이나 규율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된다. 사회적 관습은 해당 관습에 익숙한 사람들 간의 공통된 약속으로, 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적용하면 처벌이 처벌로 여겨지지 않거나 강한 반발에 따른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적 관습을 달리하는 인간 집단 간의 충돌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사회적 관습을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처벌을 위임하는 것이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제재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식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태도는 중국에 처음으로 등장한 외국계 상인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이들을 총괄하는 외국인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적 관점으로 판단하자면 치외법권을 당연시하는 태도로, 주권국가가 자신이 통치하는 영역 내에서는 같은 법률을 적용한다는 원칙에는 배치된다. 그러나 법적 통제를 받는 대상에 따라 다른 법을 적용하는 것을 당연시했던 전근대 사회에서는 단순히 내국인과 외국인간의 법률 적용이 달랐을 뿐 아니라 내국인이라도 그의 신분에 따라 다른 법률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해당 국가의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따라서 외국계 상인들은 해당 지역의 지배층과 개인적인 친분을 맺는 방식을 통해 그러한 불안정한 위치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그러나 외국계 상인이라도 해당 사회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사회적 관습에 어느 정도 익숙하게 되면, 이들에게도 사회적 통제를 가해 법률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내국인과 외국계 주민 간의 충돌이 빈발하면서 양자 간의 대립을 어떤 방식으로 조정할 것인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률의 적용 방식의 변화는 외국계 상인이 해당 사회와 관계 맺는 방식이 변화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발표에서 고은미 교수는 다른 지역에 비해 중국과 일본에 잔존 사료가 상당수 남아 있어, 외국계 상인의 활동 방식이 비교적 상세하게 추적 가능한 11~13세기를 중심으로 중국계 상인들이 일본에 정착하는 과정을 검토하였는데 이에 대한 근거로서 가메이 메이트쿠(亀井明德)와 오오바 코지(大庭康時)의 주장을 통해 하카타에 중국인 거류지가 형성되었음을 밝히고 이들 중국계 상인 일본에 정착하는 과정에 대해 천착하였다. 가메이 메이트쿠(亀井明德)는 하카타 유적에서 발견된 도자기류를 분석하여, 11세기 중반이 되면 그 이전과 비교하여 필요가 없어 파기되는 도자기양이 적어진다고 지적하였는데 그 이유로 당시 무역을 주도하던 송상이 11세기 중반이 되면 하카타에 거주지·창고·점포를 구비하고 거주하게 되면서, 일본의 수요를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물품을 수입하여 그 전과 비교할 때 필요가 없어 파기되는 수입품이 적어지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오오바 코지(大庭康時)도 하카타 유적이 11세기 후반이 되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점을 들어, 11세기 중반에서 13세기 중반에 걸쳐 하카타에 중국인 거류지가 형성되어 대외무역의 본거지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발표자는, 자신이 태어난 지역 이외에 거주하는 외국계 상인은 그가 어떤 민족적 기반을 가지고 있든 거점지역이 정한 제도적 틀에 영향을 받게 되었으며 따라서 외국계 상인들의 무역활동을 규제한 것은 그들의 거점지역이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세 번째 발표는 한국해양대학교의 김강식 교수에 의해 “조선시대 경상도 주민의 일본 표착과 송환”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동아시아 해역의 관점에서 漂流 문제는 한국, 일본, 중국, 나아가 동남아시아까지 국경을 초월한 연구 주제이다. 표류라는 우연히 발생한 사고가 국가의 대외 관리 입장에서 사건으로 취급되었다. 때문에 표류 문제에는 국가 사이의 대응에서부터 표류민 사이의 개별적인 異文化 인식과 해외 정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통제적 해역의 시기에도 해역 내부에서의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표류이다. 표류를 통해서 지리적인 해역을 확인하고, 민간 해역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다.

조선시대에 동아시아는 정치·경제적 교류 외에 다양한 접촉을 했다. 국가 사이에서 표류민의 송환이라는 인적 교류는 공식 외교의 일부분으로 연결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동아시아의 표류민 송환체제 성립은 국가 사이의 외교관계, 해상항로의 형성, 선박의 건조 등이 전제되어야 하는 복합적인 문제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동아시아에서 표류민 송환체제는 17세기 후반 이후부터 구축되기 시작하였으며, 18세기 초반부터 안정적인 표류민 송환체제를 운영하였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 표류민 송환체제는 시기와 지역(국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17세기 중반 이후에 조선과 일본 사이에 형성된 표류민 송환체제와 청과 일본 사이의 표류민 송환체제가 동일하지 않았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국가 사이의 외교관계가 반영되었기 때문이었다.

이 발표에서 김강식 교수는 동북아시아의 조선과 일본 사이의 해역에서도 지리적으로 가까운 경상도 연해에서 일본으로 표류한 사례를 통하여 조일 해역의 지리적 해역을 확인하였고, 표류가 전근대시기에 단순한 海難事故에 그치지 않고, 표류민 송환을 둘러싼 교류가 국가 사이에 작용한 모습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의 관계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발표자에 따르면, 조선시대 조선 표류민의 일본 표착은 국가 권력 사이의 외교권 속에서 형성된 송환체제에 의해서 규정되었다. 조선 전기에는 중세 국가 일본의 국가 권력이 약하여 조선 창구가 일원화되지 못하여 다원적인 체제가 작동하였지만, 조선 후기에는 일본 근세 국가가 외교권을

독점함으로써 표류민 송환에서 단일체제가 작동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조선은 일본과의 교린 체제로 유지함으로써 조선과 대마도 사이의 朝貢的 關係를 유지하는 이중 구조를 계속 유지하였다. 따라서 발표자는 동북아시아 조일 해역에서 발생한 표류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국가와 국가의 문제였지만, 국가와 지역의 문제였으며 이 때문에 지역과 지역 사이의 직접적인 교섭보다는 국가를 통한 간접적인 절차를 통해 표류민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경상도 해안에서 표류하여 일본 해안에 표착한 조선 표류민은 대마도와 부산이라는 지역을 통한 접촉과 교섭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중앙 권력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었으며, 시대의 흐름 속에 어업 활동보다는 상업 활동 때문에 표류하는 경향성이 높아졌음을 발표를 통해 알아볼 수 있었다.



네 번째 발표는 부산대학교의 민경준 교수에 의해서 “청대 중국의 동남아 해산물 소비와 무역”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민경준 교수는 이 연구를 통해 개항 전 청대 중국 내 해삼 소비 확산에 따른 수입 증가의 현상을 소재로, 해삼 소비 시장의 동향이 생산과 유통에 결정과 유지에 영향을 끼치는 점을 파악하려 하였다. 중국에서 해삼은 고급 해산물 요리의 식재료로 소비도 많았고 수입도 많이 되었던 물자였지만 이전까지의 연구는 생산에서부터 유통에 투입되는 과정밖에 해명하지 못하여 해삼 관련 문화의 설명에까지는 연구가 진척되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오늘날 중국 음식과 요리에 자주 나오는 해삼과 전복, 그리고 가끔 등장하는 상어지느러미와 제비집은 근대 이전에는 모두 고급요리의 식재료이다. 이들 식재료가 중국 음식과 요리에 처음 등장한 시기는 각각 다르지만, 대량의 수요가 형성되고, 그 수요량이 국내산 공급을 초과함에 따라, 막대한 양의 해산물을 해외에서 본격 수입하게 된 것은 청대부터였다고 해도 무방하다. 청대 중국에서 수입한 고급해산물의 주요 공급지는 일본과 동남아시아였다. 일본은 주로 해삼·전복을, 동남아는 해삼·상어지느러미·제비집을 중국에 수출하였다. 국내 학계에서는 중국·일본 간 해산물 무역은 언급하지만, 중국·동남아 간 해산물 무역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다. 동남아시아는 한국사 영역과 직접 관련 부분이 거의 없고, 동아시아사라는 설정 공간에 동남아시아 지역의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동남아 간 무역에서 17세기까지 중국이 주로 수입한 것은 육두구·정향 등의 향료와 백단·침향 등 香木이다. 특히 대항해시대에 이들 물품을 찾아 포르투갈·네덜란드·영국 등 서양인이 동남아로 쇄도한 것은 유명하다. 18세기 이후에는 중국이 동남아로부터 수입하던 주요 물품이 향료·향목 등에서 간해삼·상어지느러미·제비집 등 간해산물로 바뀐다. 중국에서의 고급해산물 소비가 비약적으로 증대하였기 때문이다. 가령 동남아의 해삼 생산, 집하의 중심지였던 술루 왕국(오늘날 필리핀의 술루제도)에서 1835년 마닐라로 수출한 간해삼은 600톤이나 되었고, 이 간해삼은 다시 중국 남부의 광저우로 운반되었다. 19세기 전반기 1833년까지 일본 나가사키에서 중국 강남의 자푸(乍浦)로 해삼 수출량이 가장 많았던 해가 1822년의 3.6톤이었다. 인도네시아 지역에서의 수입량은 여기서 빠져있다. 18세기 이후 중국의 고급해산물 수입은 일본산보다는 동남아산의 비중이 훨씬 컸다.

중국이 동남아산 고급해산물을 다량 수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기존 연구는 제비집·상어지느러미·해삼이 元代 이후 양생의학 및 유목민족의 수육식문화와 결부되고, 이들을 이용한 요리가 명대와 청대를 거치며 세련되고 결국 궁중요리의 주요 요리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고 정리한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청대에 들어와 고급해산물에 대한 다량의 대중적 소비를 초래한 원인으로 중국과 다른 異域의 공간에서 들여온 물품의 희소성, 과학적이지는 않지만 서민적이고도 상투적인 의학 소견의 확산이라는 대중 의료성, 그리고 일찍부터 동남아의 각 지역으로 진출하여 정착한 화교사회와의 네트워크가 무역의 전개에 본격 작용하였다는 점 3가지에 주목하였다.

첫째, 기존의 식재료 중에도 뛰어난 효능을 가진 것이 적지 않지만 대부분 육지 산물이었다. 그러나 위의 해산물은 “동양”과 “남양”이라는 ‘異域의 바다’로부터 공급해온 것이었다. 이것이 가진 희소성은 이를 소비하는 사대부·관료·상인의 존귀함을 드러낼 수 있는 물품이었다는 것에 우선 주목하였다. 둘째, 많은 의학서나 본초서는 이들 고급해산물의 주요 기능으로 허약한 체질의 양기를 보강해 준다고 하는 ‘보양’의 효능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다수의 사대부·상인 나아가 서민들은 이들 고급해산물을 ‘정력의 강화’라는 차원에서 소비하였다. 실제 고급해산물의 보양 기능은 정력을 강화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그 효능에 대한 정보가 대중화되면 이들 식재료는 당연히 섭취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대중적 소비를 초래한다. 대중요법으로서의 반열에 오르는 것이다. 청대에 일본으로부터 한 해 수백만 근의 다시마라는 해산물을 수입한 것은 이것이 석탄 가스중독을 풀어주거나 예방해 준다고 하는 대중의료성 때문이었다. 셋째, 동남아에서 중국으로 해산물을 신고 오는 선박은 서양 것도 있지만, 대부분 중국 남부의 광저우, 샤먼이나 취안저우에서 출발한 중국 상선이었다. 이들이 다량의 해산물을

현지에서 확보하여 운반할 수 있는 배경에는 일찍이 명대 이후 동남아로 이주하여 마닐라, 술루, 마사카르, 자바 등지에 터를 잡은 푸젠과 광둥 출신의 화교 네트워크와 그들의 상업 역량이 자리 잡고 있었다.



다섯 번째 발표는 부경대학교의 김문기 교수에 의해서 “송어(松魚)는 왜 연어(鮭)가 되었나? 근세 한·일 어류지식 교류의 일면”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김문기 교수는 이 발표에서, 조선의 ‘송어’라는 어명이 일본에서 ‘연어’로 받아들여지는 과정을 통해서, 동아시아에서 한자를 매개로 하는 물고기 이름의 역사를 추적하였다. 발표자는 지난 몇 년 동안 어류지식의 역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해 왔다. 최근에는 『동의보감』의 물고기 지식을 일본이 어떻게 수용해왔는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발표는 그 연장이라 할 수 있었다. 그의 이 연구는 물고기 이름의 역사를 추적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동아시아 박물학의 실재를 확인하는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지식의 고고학의 관점에서, 동아시아 문명의 핵심이었던 한자의 변천과정을 확인해 보며 시간의 축적에 쌓여 있는 물고기 이름의 지층을 발굴해보려 하였던 것이다. 발표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다음과 같다.

고대 일본에서 연어, 송어, 가다랑어의 한자명은 중국의 한자명을 잘못 변증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를 통해서 보면, 일본의 대부분 한자 어명이 잘못된 해석에 기반 하여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오류가 오래되면, 그 자체가 하나의 정설이 되고 있음도 분명한 현실이었다. 에도시대는 본격적으로 박물학이 발전했던 시기였다. 그 발전의 계기는 『본초강목』의 유입이었다. 이를 통해 어류에 대해서도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한편으로 『동의보감』이 일본에 전해져, 통신사를 통한 어류지식이 활발하게 교류되었다. 당시에는 고유한 조선어명이 일본의 대표어명이 되기도 하는 등 조선의 어류지식에 대한 일정한 존중이 보인다. ‘송어’가 한편으로 연어(サケ), 한편으로 가다랑어(カツオ)의 대표이름으로 쓰이는 것도 그 한 예이다. 광범위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류는 여전했다. 그럼에도 이때 집적된 지식은 근대 일본이 빠른 속도로 수산학을 정립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이후 근대라는 ‘문명의 우월성’을

바탕으로, 일본은 고유한 한자명을 공식적인 어명으로 사용하려 했다. 제국의 확장과 수산학의 보급을 통해 일본식 어명은 역으로 중국과 조선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던 것이다.

발표자는 이 연구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한자 어명은 근대 일본식 어명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문제는 이렇게 형성된 한자명이 오히려 과거의 기억을 왜곡시키기도 한다는 사실을 환기하며 이 시대에도 여전히 어류의 한자명을 둘러싼 ‘지식의 고고학’이 필요한 이유를 역설하였다.



## 성과와 과제

본 학술대회에서는 한국사, 일본사, 중국사 연구자들이 한데 모여 전근대 동아시아 해역과 관련된 다채로운 주제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고 깊이 있게 토론하였다. 특히 1부 사회를 맡은 신라대학교의 조명제 교수는 본 학술대회를 기획한 학술연구위원장이었던 만큼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 발표인 “고대 동아시아 해역의 신라 해적”에서 토론자인 대구대학교의 윤재운 교수는 황해 해적의 발생과 관련하여 발표문이 다루는 공간은 동아시아 해역인데, 사회경제적 혼란상에는 동아시아 해역의 축인 唐과 신라의 사회·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으나, 다른 한 축인 일본 측의 내부 상황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고, 또 신라 해적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발표문에서는 신라 해적의 활동이 시기 순서로 서술되어있어 그 의미나 성격에 대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신라 해적의 활동 공간을 황해, 남해로 나누어 서술하거나, 9세기 전반과 후반으로 나누어 서술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다. 또한 신라 해적의 변모와 관련해서는, 발표문에서는 9세기 후반 신라 상인들을 武裝商人團으로 보고 이를 바탕으로 해적에서 호족으로의 변화를 해적의 소멸 원인으로 보았는데 신라 해적의 활동 공간이 9세기에 황해와 남해 해역이었다가, 9세기 말에 남해 해역으로 바뀐 이유나

원인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두 번째 발표인 “중국계 상인의 일본 정착 · 11~13세기를 중심으로”에서 토론자인 조선 대학교의 이석현 교수는 발표에 대해 사료의 발굴과 해석을 통해 논증한 내용과 논지에 대해 큰 문제점은 없어 보이지만 다만 이런 관점은 역사 시기 어디에서나 비슷하게 나타나는 이주민의 정착과정이므로 좀 더 당해 시대의 역사성을 반영하는 형태로 송상의 이주와 정착과정을 설명해 줄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송상 정착 과정 이전에 일본사의 관점에서 논한다면 당인과 송인의 일본 정착과정을 구분해 설명한 뒤, 연속과 변화의 측면을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한편 용어의 문제로 발표자가 ‘중국상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등장하는 대부분의 상인들이 송 출신이므로 ‘宋商’이라고 표현해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중국계상인들이 일본에 거주했던 고고학적 유적이 많이 발굴되고 연구되고 있다는 점을 살피며 이런 고고학적 발굴에 따른 사진이나 도판 등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세 번째 발표인 “조선시대 경상도 주민의 일본 표착 해역과 송환”에서 토론자인 동서대학교의 이정수 교수는 ‘경상도 주민의 일본 표착’의 내용과 관련하여, 표류민이 가장 많았던 지역이 울산(97건), 부산(63건), 장기(45건)로 전체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것에 대해 발표문에서는 울산과 장기 지역은 청어 산지로 유명하고(특히 울산은 19세기 이후 대표적 소금산지) 부산(동래) 지역은 公賣나 상업 관련 등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울산과 부산의 경우 표착 지역이 대마도가 56% 정도인데 반해 장기의 경우 나가토 · 이와미가 60%(대마도 18%)로 압도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지적하였다. 또한 ‘경상도 주민의 송환’의 내용과 관련하여 본 논문의 문제의식 중의 하나인 ‘표류민 송환을 둘러싼 조일 양국의 관계’라는 측면을 좀 더 부각하기 위해서 일본측의 우리 표류민과 조선측의 일본 표류민에 대한 처우과 절차 등을 비교하고 그 특징과 차이를 설명해 줄 것으로 요구하였다. 한편 ‘경상도 주민의 일본 표착 해역’의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발표문에서 『표인영래등록』에 나타난 경상도 표류민의 표류 시기는 대체로 늦가을~초봄의 경우 전체의 78% 정도로 압도적인 이유는 겨울에 한반도의 북서쪽 대륙의 강한 계절풍과 대체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계절풍 외에 다른 요인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 지적하였다.

네 번째 발표인 “청대 중국의 동남아 해산물 소비와 무역”에서 토론자인 전남대학교의 한지선 교수는 16세기 말 이후 해삼 소비가 본격적으로 증가한 배경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였다. 발표문에서는 사치스러운 문화의 확산에 주안점을 두었고 특히 발표자는 “명중기 이후 중국에 해삼 등의 해산물 요리가 알려지기 시작하고 청대에 본격 유행하면서 만들어 낸 엄청난 수요는 동남아와 일본의 해삼 포획 및 수출을 크게 자극하고 막대한 양의 해삼이 수입된다.”고 제시하면서 이에 따라 국내의 수요가 해삼의 대량 소비로 이어지고 다양한 조리법이 고안된 것으로 논지를 전개하였는데, 이에 대해 다양한 조리법의 등장은 무역의 확대 자체가 불러일으킨 현상

이라고 지적하였다. 즉 최근 해양사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삼는 ‘대항해시대’에 대한 평가는 유럽 이전 존재하던 아시아의 교역 네트워크의 일부만을 대체할 뿐이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당시 해산물 교역의 확대가 갖는 의미를 논지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유럽인들은 중국으로부터 비단, 도자기, 차를 운송해 가지만 대체할 만한 상품이 많지 않았고 그들은 무역 적자를 메우기 위해 전통적인 동아시아의 사치품을 실어 나르는 중계무역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그 와중에 동아시아 지역과의 무역을 진행하기 위해서 적은 용적률로도 막대한 이익을 실현할 수 있었던 종래의 사치품들을 중계무역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연와와 견해삼들이 유입된 것은 아닌지 지적한 것이다. 이에 따라서 명말 사대부, 부상대고들부터 점차 황제들이 먹었다는 해삼이 ‘접근가능한’ 식품이 되었고 또 대량 수입되어 자주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조리법으로 요리를 만들게 된 것은 아닌지 발표자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였다.

다섯 번째 발표인 “송어(松魚)”는 왜 ‘연어(鮭)’가 되었나?: 근세 朝 · 日 어류지식 교류의 일면”에서 토론자인 신라대학교의 심민정 교수는 이 논문에서는 ‘연어’와 ‘송어’가 잘못된 소통과 오해로 인해 원하던 것과는 다른 기록으로 남게 되는 과정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록상, 혹은 통신사와 일본 박물학자 사이에서 오고간 연어, 송어에 대한 기록은 그 생태나 습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 지적하였다. 또한 발표자는 ‘연어가 연어가 되지 못한 것’, ‘연어가 송어가 된 것’ 모두 통신사행에서의 필담을 통해서인 것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조선과 일본 사이에 어류 지식이 전해지는 경로가 ‘통신사행’ 뿐만이 아니라 왜관을 통해 조선의 동식물 관련 정보가 전해지고 있는 경우도 확인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본 학술대회는 한국사, 일본사, 중국사 연구자들이 같은 공간에 모여 전근대 동아시아 해역과 관련된 주제를 다룸으로써 해역사 연구를 지역사 연구의 일환으로 전환시켜 지역에서의 연구가 곧 국제적인 연구로 발전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 자리였다고 할 수 있었다. 다만 아직 해역사 또는 해양사 연구의 중심으로 올라서야 할 해항도시 부산에서 이들 주제에 대한 연구가 열띠게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은 해역사 관련 학술대회가 아직도 일부 연구자들의 연구 특수성에 의존하고 있음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분명히 해항도시의 특성으로 인해 일부 대학에서 해양을 중심으로 한 전문분야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아직 해역사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연구 저변이 넓지 않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고 그러한 전문 연구가를 확충하기 위한 연구 지원과 연구 인력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부산경남사학회는 연간 2~3회에 걸쳐 다양한 주제로 기획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는데 해항도시 부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학회의 특성에 맞게 해양과 관련된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던 경험도 있으며 학회 회원 가운데 해역사와 관련된 연구 성과를 꾸준히 제시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를 분기점으로 삼아 개별 회원들의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학술회의를 통해 연구 동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함으로써 향후 지속적인 연구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향후에도 해역사 관련 기획 학술대회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원고투고일 : 2020. 11. 13. |  
게재확정일 : 2020. 11. 30. |

# OCEAN Heritage

2020 기관 협력 공동 기획전시

## 〈해양 제주 OCEAN JEJU\_ 바다에서 바라 본 ‘제주바당’〉 전시를 되돌아보며

김진태 · 김경민 국립해양박물관 학예연구사

### I. 들어가며

### II. 전시 구성에 대하여

1. 기획 의도 : 바다에서 바라본 ‘제주바당’
2. 〈해양 제주 OCEAN JEJU〉 전시 구성별 설명

### III. 전시 연출에 대하여

1. 전시 연출의 중점 방향
2. 공간 및 색채 디자인
3. 영상 매체를 활용한 연출

### IV. 마무리하며

## I. 들어가며

국립해양박물관은 2020년 기획전시 〈해양 제주 OCEAN JEJU\_바다에서 바라본 '제주바당'〉을 4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개최하였다. 이 전시는 제주의 본질인 섬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바다에서 바라본 제주, 북태평양 도서(島嶼)의 지정학적 분포와 관련하여 국제적 해양네트워크 속의 제주, 자연환경 및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 쿠로시오 해류 속 제주를 보여주하고자 기획하였다.

전시는 2019년부터 국립해양박물관과 국립제주박물관이 전시와 학술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제주대학교박물관과 함께 세 기관이 협력하여 만들어낸 공동 기획전시이다. 기획 전시는 7월 5일까지 전시를 마친 후, 제주도로 그 무대를 옮겨 국립제주박물관에서 8월 1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순회 전시를 개최하였다.

전시 준비 때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해 박물관 등 공동 이용 문화 시설의 임시 휴관 상황과 사회적 거리 두기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박물관의 하루 인원이 제한된 관람 속에서도 많은 관람객들이 안전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관람한 덕분에 안전하게 마무리 할 수 있었다.

## II. 전시 구성에 대하여

### 1. 기획 의도 : 바다에서 바라본 '제주바당'

전시 구성의 중점 방향은 해양적 관점을 기반에 두고, 제주 바다의 시선에서 육지의 제주를 바라보고 그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제주는 항상 수만 년의 세월을 지켜본 '바다'가 함께 있었다. 단편적인 사료나 고고학적인 자료를 통해 보았을 때도 제주는 바다를 통해 활발한 교류와 교역을 하였으며, 해양 네트워크의 중심점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까지 탐라 및 제주 연구사는 한반도 역사의 큰 물줄기 속에서 항상 변방에 위치하고 있다. 기록의 한계성과 육지 중심적 사고에 의해 해양문명사적 성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은 한국사 전반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전시는 육지에 딸린 섬이 아닌 주체적인 섬으로서의 '제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로 육지 사람의 입장에서 제주도를 '절해고도(絶海孤島)'라 부르며 머나먼 고립된 섬으로만 치부해 왔다. 하지만 제주는 바람이라는 변화의 동력으로 온갖 문물을 실어 왔고, 실어 가게 하였다. 자연 환경적으로 문주란, 황근, 협죽도, 선인장 등 해양식물과 황새, 팔색조, 노랑부리저어새 등의 조류도 모두 바람을 타고 이곳 제주까지 오게

되었다. 역사적으로는 바람을 잘못 만나 일본 오키나와, 중국, 대만, 필리핀 심지어 베트남에 이르기까지 표류하였다는 기록도 남아 있으며, 바람을 관장하는 신(神)인 제주 영등신은 제주 문화에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다.

또한 제주도를 한반도에 부속된 섬이 아닌 북서 태평양의 교두보로써 적극적인 활동성을 지닌 섬으로 보고자 기획하였다. 제주는 한반도에서 가장 남방의 영향을 받는 자연생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어종·어법·식생활 등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제주를 남방으로 진출한 북서 태평양의 일원으로서 바라보자는 것이다. 한국, 중국, 일본의 지리적 관점이 아닌, 제주, 대만, 류큐라는 섬 중심적 관점에서 동아시아의 역사 및 문화를 바라본다면 차별성 있는 전시 방향 및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다.

## 2. <해양 제주 OCEAN JEJU> 전시 구성별 설명

전시는 도입부와 6부로 구성하였다. 도입부에서는 우리가 기존에 익숙하게 생각하고 있던 제주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풍광의 이미지가 아닌 거친 파도와 차갑고도 낮은 제주 바다를 영상과 음향으로 담아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섬(島) 제주의 다른 면을 보여주면서 본 전시 주제가 시작되기 전 관람객의 관점 전환을 시도하였다.

1부 <여명이 동트는 바다>는 태초의 제주 생성과 제주 사람의 등장 대한 이야기와 자료를 소개하였다. 15만 년 전 빙하기 당시 제주는 유라시아 대륙과 한반도, 일본과 서로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러한 제주에 첫 사람의 등장은 한반도가 가장 추웠던 2만 5천 년~1만 8천 년 전 한반도에서 생활하던 구석기인들이 제주로 이동하여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후빙기가 도래하면서 제주는 해수면이 점차 상승하여 하나의 독립된 섬이 되었으며, 인간의 해양활동 흔적은 신석기시대부터 확인된다.

2부 <해상왕국 탐라>는 고대 탐라국의 형성과 바다를 이용한 활발한 대외교류, 고려시대 원나라에 의한 탐라총관부 설치까지의 역사적 사실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하였다. 이에 국제적 해양네트워크의 탐라국을 소개하고자 하였으며, 원나라의 세계지배 전략의 큰 틀 속에서 탐라의 지정학적 위치에 초점을 맞추어 전시하고자 하였다.

3부 <'제주바당'에서 펼쳐진 드넓은 세계>에서는 제주가 한반도의 가장 남쪽에 위치한 변방의 섬이 아닌 남방 해역의 나라와 최선단 접촉점에 있는 지역으로서, 제주인이 바라본 세계인식을 보여주하고자 하였다. 또한 15세기 대항해시대가 펼쳐진 이후 본격화된 식민지 쟁탈 및 세계적 차원에서 상업적 교류가 본격도에 오른 시점에서 '세계인이 바라본 제주는 어떠하였을까?'라는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세계인이 바라본 제주에 대한 인식을 서양 지도 및 항해기를 통해 소개하였다.

4부 <디아스포라 제주>는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에 이르기까지 당시 제주의 시대적 상황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대단한 해양력을 자랑하였던 고대 및 중세의 제주는 조선시대에 이르러 고대 탐라의 해양 세계를 상실한다. 동아시아를 누비던 대양 항해술은 조선 인조 7년(1629) 출륙금지령에 의하여 멈추게 된다. 이는 제주를 감옥의 섬이란 인식을 심어주었으며, 새로운 세상을 갈망하던 제주인들은 해녀를 필두로 하여 일제강점기 본격적으로 섬을 떠나 새로운 세상으로 나서게 된다.

5부 <쿠로시오 문화권의 재발견 : 자연, 인간, 문화>는 제주의 자연과 인간, 문화에 크나 큰 영향을 끼친 쿠로시오 해류 문화권에 관한 것이다. 대서양의 멕시코만류 다음으로 규모가 큰 해류인 쿠로시오 해류는 남중국, 대만, 오키나와 등 아열대성 해양문화를 간직한 지역을 중심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중 제주는 쿠로시오 해류권의 영향으로 유일하게 한반도에서 준 아열대성 해양 기후대를 보여주고 있다. 제주인의 삶과 문화 속에 스며든 자연과 그 흔적은 전통방식으로 원형 복원된 테우와 다양한 어구, 해양 무속신앙, 민속자료 등을 전시하여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6부 <오션 아트 갤러리>는 근대 제주인의 삶을 담은 전시 공간이다. 사면이 모두 바다인 제주와 그 속에 사는 인간의 문화는 육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 대학교박물관이 소장 중인 만능 홍정표 작가의 사진을 통해 제주 사람들의 삶의 현상이 고스란히 담긴 옛 제주를 생생히 느낄 수 있도록 전시를 구성하였다.

## III. 전시 연출에 대하여

### 1. 전시 연출의 중점 방향

전시 연출의 가장 중요한 점은 관람객에게 전시기획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함과 동시에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오랜 역사와 특유의 문화를 지닌 주제적인 제주도를 보여주하고자 기획된 이번 전시는 선사시대 자료부터 근대 민속품까지 다양한 자료를 총망라하였다. 제주 전통 배인 '테우' 부터, 1cm가량의 해저 발굴 금제품 등 크기부터 재질까지 저마다 다른 특성과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자료들을 한곳에 모았다.

이번 전시 연출에서는 입구 파사드부터 각 부를 거쳐 에필로그까지 다양한 오브제를 하나의 분위기로 일관된 톤을 유지하는 디자인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점이었다. 각 부에 할애된 공간의 자연스러운 연결성만큼이나 적절한 자극을 통해 관람객에게 전시



대한 전반적인 흥미를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제주의 풍경, 제주 탄생 설화 애니메이션, 전시자료 배경 등 관람객의 흥미를 돋기 위해 전시장 곳곳에 영상 콘텐츠를 배치하였다.





## 2. 공간 및 색채 디자인

앞서 서술하였듯이 이번 전시 자료들은 크기와 재질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선사시대부터 근대까지 긴 역사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오브제의 크기와 재질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실재적 특징으로 공간과 색채의 디자인에 영향을 크게 끼친다.

그 중 5부 <쿠로시오 문화권의 재발견 : 자연, 인간, 문화>의 경우 제주의 자연과 인간, 문화와 관련된 민속자료들이 주를 이루어 대부분의 자료가 물리적인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 이렇게 부피가 큰 자료들을 고려하여 공간구획, 동선계획 등 평면 계획안을 구성하는 데에 있어 고민이 컸다. 테우와 같은 대형 입체 자료를 전시장 안에 안전하게 전시하기 위해서 기존 기획전시실과 해양 갤러리 두 공간이 이어지게 동선을 계획하였으며 2면, 3면이 유리로 된 진열장을 제작하여 공간을 구획함과 동시에 개방감 있게 연출하였다.

전시장 내 분위기의 가장 큰 요소인 색채 디자인의 방향을 잡기 위해 가장 처음 고민했던 점은 '제주' 스러우면서도 '제주'스럽지 않은 색채를 찾는 것이었다. 이에 부제목인 '바다에서 바라본 제주바당' 에서부터 고민을 시작하였다.

제주 특유의 해양문화는 제주가 화산섬 지형이라는 특징에서부터 다가온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흙과 화산 송이에서 메인 컬러로 뽑아 전시장 전체 컨셉을 잡고 대부분 전시자료의 색깔이 어두운색임을 고려하여 따뜻한 계열의 밝은 회색과 중간톤의 회색을 좌대와 쇼케이스 내부에 사용하여 유물이 돋보일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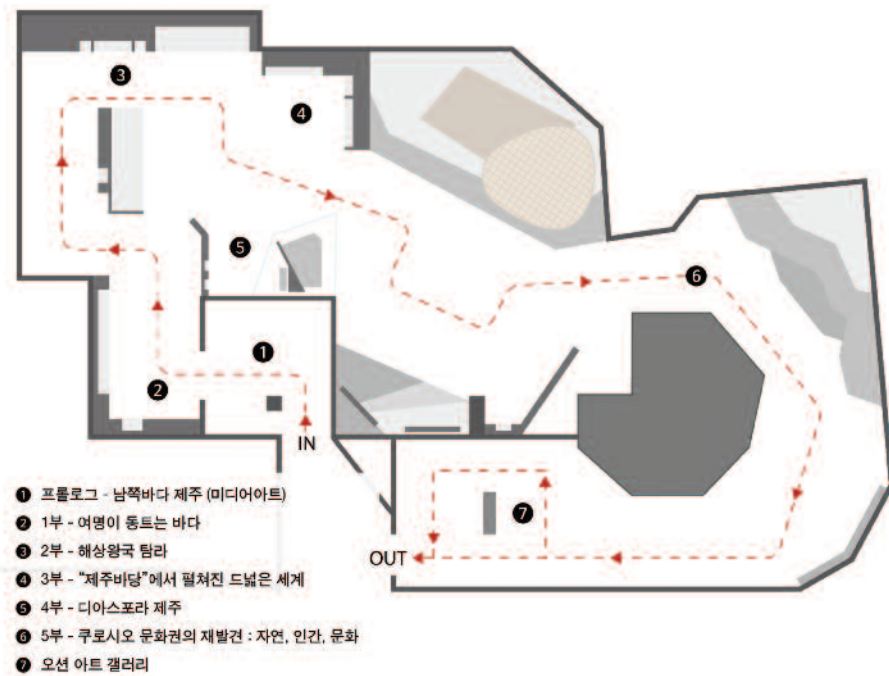
주조색	 C58 M69 Y60 K10	 C72 M70 Y67 K30
보조색	 C19 M15 Y18 K0	 C43 M35 Y33 K0

도2. 기획전시 <해양제주 OCEAN JEJU> 색채 디자인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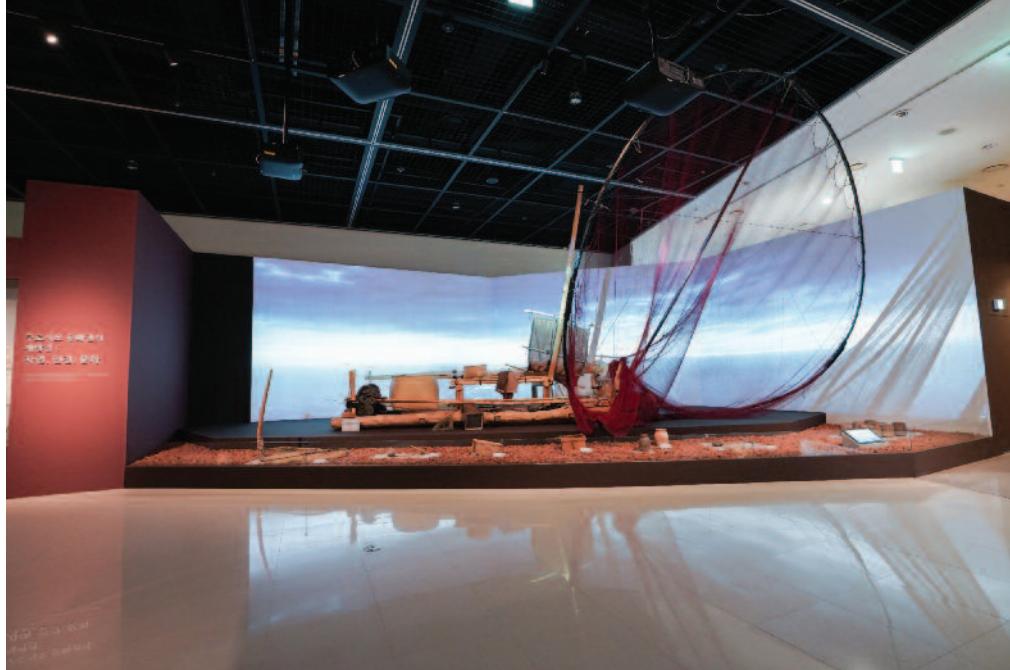
## 3. 영상 매체를 활용한 연출

이번 전시는 영상 매체를 연출로써 많이 시도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도입부의 미디어 아트 노세환 작가의 '남쪽 바다 제주'는 전시장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분위기를 환기하는 장치로써 관람객의 관점 전환을 주기 위해 제작되었다. 3면의 압도적인 스케일로 몰아치는 새벽녘 제주의 파도를 감상하며 아름다운 관광지로만 생각했던 제주의 실제 자연환경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테우와 어로 도구들에 대한 설명은 파도가 넘실거리는 해안만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장치는 없다고 생각했다. 테우의 뒷벽에 수평선이 보이는 바다 영상을 빔프로젝터로 비춰 실제 테우가 바다 위에 떠서 앞으로 나아가는 듯 연출하였다. 낮과 밤, 안개와 비바람 등 영상 내 변조를 통해 테우와 각종 어로 도구들의 쓰임과 그것을 사용하였던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장면을 연출하였다.



도1. 국립해양박물관 기획전시 <해양제주 OCEAN JEJU> 전시 평면도



도3. 기획전시 <해양제주 OCEAN JEJU> 제주 전통 배 '테우' 전시 전경

#### IV. 마무리하며

코로나 시대. 누구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으며, 우리는 예전의 일상과 180도 다른 삶을 살고 있다. 박물관의 전시도 그 쿨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적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전국 박물관과 미술관은 물론이며, 대규모 집단시설 등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임시 휴관이나 행사 등이 연기 되었다.

올해 개최한 <해양 제주 OCEAN JEJU\_바다에서 바라 본 '제주바당'>의 경우에도 4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개최 예정이었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심각 단계 격상에 따라 전시 개막을 하지 못한 채 박물관이 휴관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동안 유례가 없던 온라인 개막을 통해 전시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후 5월 8일부터 제한적 개관을 하면서 전시 종료일까지 안전하게 전시를 마무리 할 수 있었다.

기획전시 <해양 제주 OCEAN JEJU\_바다에서 바라 본 '제주바당'>은 새로운 시각적 전환의 계기가 된 첫 번째 시도라고 생각한다. 이번 전시를 통해 제주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육지 중심 적에서 해양 문명적 사고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길 기대해본다.

#### V. 전시 둘러보기



원고투고일 : 2020. 10. 19.  
 게재확정일 : 2020. 11. 30.

# 〈바다와 여성〉 전시 리뷰

조민주 국립해양박물관 학예연구사

전시 기획 의도

전시 구성

전시 연출과 온라인 전시

전시를 마치며

# OCEAN Heritage

## 전시 기획 의도

『바다와 여성』은 2020년 7월 28일부터 11월 1일에 걸쳐 국립해양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된 테마전시로서 해양 문화사에서 활동하는 여성의 이야기를 담은 전시이다. 이 전시의 가장 큰 목표는 대표적인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해양 분야에 여성이 오래전부터 존재하였고 또 미래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리는 것이었다. 이에 해양 문화사에 파편적으로 조각나 있는 여성의 이야기를 키워드별로 정리하였으며 관련된 자료들을 소개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여성 해양사를 되살려 현재를 지나 미래에도 여성이 해양에서 주요한 주체로 자리하길 바라는 작은 소망을 담아보았다.

처음 전시 준비단계에서 기초자료조사 및 다양한 기관과의 협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해양사 속에 여성사라는 또 다른 특수한 분야와 교집합을 이루는 전시 실물 자료는 상당히 드물었다. 어촌 마을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설화들과 근대에 남아있는 어업 도구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채로운 전시를 구성하기 위해 기획단계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노력하였다.

전시를 준비하는 동안, 여성이 오래전부터 바다에서 삶을 일구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의 흔적이 너무나도 미흡한 사실에 안타까웠다. 따라서 남겨져있는 역사의 조각을 맞추어 현재와 미래의 세대에 전달하는 일에 동참함으로써, 해양사와 여성사 연구 영역의 확장에 조금이라도 기여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시를 준비하였다.



도 1. 전시실 입구



도 2. 프롤로그 입구

## 전시 구성

여성은 오래전부터 근거 없는 속설과 미신으로 해양 문화사에서 배척당해왔다. 부정不淨하기 때문에 바다 신의 노여움을 살 수 있다는 미신과 신체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연약하다는 선입

전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이러한 인식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하여 오면서 해양 분야에 ‘금녀의 공간’이라는 별칭을 짓기도 하였다.

이번 전시는 이러한 문화사적 변화를 대중에게 소개함으로써 이전의 여성의 삶과 위치를 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고민해보는 기회를 가져보고자 기획하였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하였으며, 해양 문화사 속에 흩어진 채로 존재하는 여성의 이야기를 모아 보고자 하였다.



도3. 1부 '바다의 시작, 바다 이야기와 여성' 전경

1부는 '바다의 시작, 바다 설화와 여성'라는 주제로 해양 문화 속에 기록된 내용을 소개하였다. 바닷가 지역에서 구전되는 초자연적인 이야기 및 미신에 여성이 주로 등장하는 것을 주목하여 여러 문화권의 신화 속에서 우상시 된 바다 여신과 해안 지역의 미신과 편견으로 희생된 여성들의 이야기로 구성하였다. 지도에 그려진 바다 관련 여성



도4. 1-1부 '바다, 여성 신' 전경



도5. 1-2부 '미신과 금기 속의 여성' 전경

신과 여성만 살고 있다는 전설의 여인국 자료, 어촌의 열녀 관련 자료나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며 배 안에 모시는 배서낭 모형 등을 전시로 표현하였다.

2부 '바다 노동 속의 삶'에서는 전통 사회의 어촌에서 살아온 여성의 어업 관련 활동 자료를 소개하고 현재 어촌에서 대부



도6. 2부 '바다 노동 속의 삶' 전경

분의 중요한 어업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 모습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여성과 관련된 어업으로 대표적인 굴 채취, 갯벌 채취를 비롯하여 깡깡이 마을 아지매, 자갈치 아지매 등을 주제로 구성하였다.

3부는 '바다로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역사적으로 해양 문화사와 관련이 깊은 여성 인물들을 소개하고 관련 자료를 선보였다. 국내 자료로는 조선시대의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해상무역에 기여한 의인 김만덕과 인도에서 배를 타고 와서 신화가 된 여왕인 허황옥이 있으며, 국외 자료로는 대항해시대의 문물 연 이사벨 1세와 엘리자베스 1세, 유럽의 항해국가에 유명세를 떨친 청나라의 대해적 정일수 등이 있다.



도7. 2-2부 '해양 노동에 나선 여성들의 삶' 전경



도8. 3-1부 '동·서양의 해양 인물들' 전경



도9. '현대의 해양 전문가들' 전경

이번 전시를 통해 역사 속의 여성과 더불어 현대 해양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 인물도 발굴하고자 하였다. 직접 상선을 타며 활동하는 '해기사', 극지연구소의 '월동연구대원' 등을 소개하였다.

이러하듯 이번 전시는 오래전부터 바다와 함께 해온 여성의 삶을 소개하며, 현재 그들이 꿈꾸는 도전과 희망에 대해 다루어 보았다.

### 전시 연출과 온라인 전시

전시 메인 컬러는 여성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가지는 부정적인 느낌을 없애보고자 화사한 라임 컬러와 화이트 톤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고난과 역경, 배척당했지만 벽을 허물고 나아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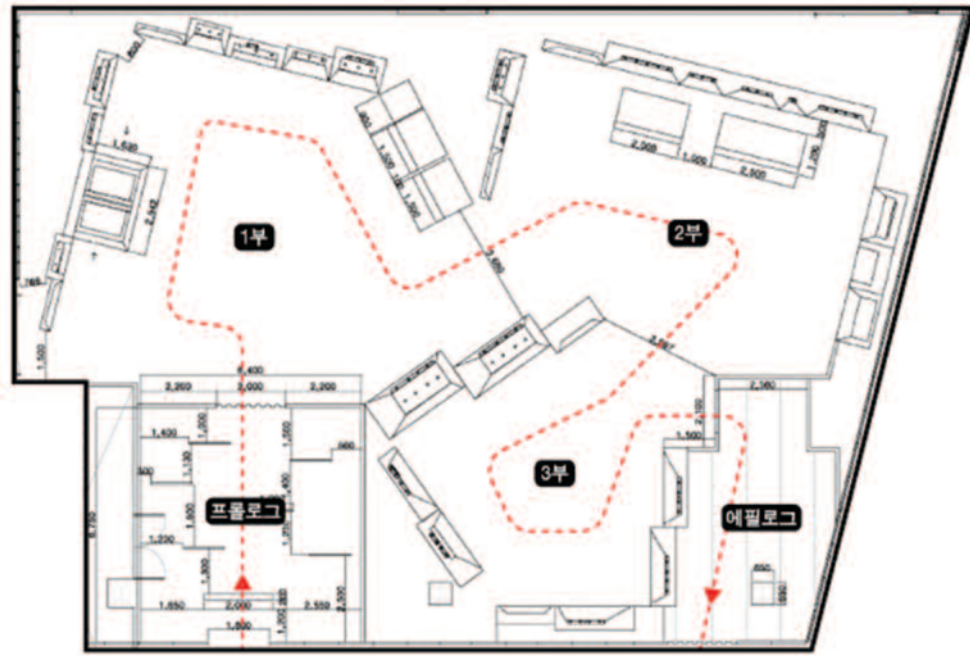


도10. '바다와 여성' 포스터

여성의 도전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푸른 계열의 색감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해양 문화사 속에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 여성임을 표현하기 위하여 홀로그램을 포인트 매체로 설정하였다.

〈바다와 여성〉 전시 유물들은 평면적인 것이 다수였으며, 유물에 대한 부가적인 전시기법이 상당히 필요하였다. 또한 전해져 오는 설화와 같은 추상적인 내용들은 유물로 설명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입체감이 있는 유물장을 제작하여 평면 유물에 볼륨감을 주는 디자인을 구상하였다. 전시 유물장 디자인은 액자 프레임에 영감을 받았다. 마치 사회에 만연한 편견에 대한 프레임, 즉 여성에 대한 프레임을 은유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액자 프레임 모양을 이용하여 여성이나 편견의 대상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도11. '바다와 여성' 전시 평면도



도12. 1부에서 바라본 3부 모습



도13. 3부의 날개벽 연출

2부 '바다 노동 속의 삶'에서는 해양 노동을 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하나의 이미지 월로 제작하여서 한 눈에 보기 쉽게 연출하였다. 또한 3부 '바다로의 도전'에서는 1, 2부에서 평범한 일자(一字)로 진행되는 관람 동선에 변화를 주고자 전시자료를 앞뒤로 볼 수 있는 유물장과 유물장 옆면인 한 쪽 날개벽을 길게 설정하여 전시공간에 입체감과 재미를 주었다.



도14. 배서낭 모형



도15. 강강이 마을 족장 복원



도16. 우리나라 바다 여성신 관련 애니메이션 영상

전시장에 직접 전시할 수 없는 전시 자료는 새롭게 복원하거나 전 연령층이 보기 편한 영상을 제작하여 전시 내용의 전달력을 높였다. 또한 각 분야에서 활동하였던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전시를 구성할 수 있었다. 특히 2-2부 '해양 노동 속의 삶'과 3-2부 '바다로의 도전'은 각 분야의 현직 및 퇴직한 해양 여성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알차게 구성할 수 있었다.

특히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부분은 조형물을 이용하여 전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프롤로그 부분에는 보이지 않는 편견과 차별을 상징하는

“유리벽”의 ‘유리’를 사용하고, 어두운 실내로 도입공간을 만들어 편견과 차별로 겪은 불편과 고난을 표현하였다. 유리에는 부정적인 단어를 이용하여 연출하고 벽면에는 “여자가 배 타면 부정 탄다, 여자가 배 밧줄을 넘으면 부정 탄다.”와 같이 어렴풋이 떠돌며 전해져 오는 바다와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문구를 희미하게 연출하였다.



도17. 프롤로그 내부 연출



도18. 프롤로그 내부 상세 연출

에필로그에는 프롤로그와 다르게 희망적인 공간을 만들어보고자 하였다. 편견과 선입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전환을 통해 도전적인 미래를 꿈꾸자는 메시지를 타이포그래피로 표현하였다.

“차별과 한계의 벽을 넘어 세상을 바꿔라

편견과 선입견은 도전에 있어 불편함을 줄 뿐이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한계와 고난을 두려워 말고 끈임 없이 도전하라

당신의 도전은 또 하나의 최초가 될 것이다

두려워 말고 도전하라”

또한 이번 전시는 코로나-19사태로 국립해양박물관 개관 이래 가장 짧게 개관한 전시일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현장을 직접 볼 수 없는 관람객들에게 간접적으로나마 전시를 소개해



도19. 에필로그 연출



도20. 에필로그 상세 연출

보고자, 전시 제작과정을 담은 V-log 영상과 학예연구사가 직접 해설하는 전시 해설 영상을 제작하였다.

특히 V-log 영상은 국립해양박물관 온라인 전시에 처음 시도해보는 콘텐츠로서 흔히 완성된 전시에 익숙한 관람객들에게 전시의 준비 과정을 보여주는 영상이다. 박물관에서 어떻게 전시를 만들어 가는지, 또 얼마나 많은 관계자가 전시를 위해 함께 힘써 나가는지 이 영상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도21. 학예사 V-log 썸네일



도22. '바다와 여성' 전시설명 썸네일

### 전시를 마치며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불가능한 것이 있을까? 어쩌면 우리는 ‘금녀의 벽’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오래된 관습에 얽매어 여성은 할 수 없다는 선입견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미 오래전부터 여성은 해양 문화사 속에 존재해왔다. 남성보다 그 수가 적긴 하지만, 바다에 대한 여성들의 도전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여성들은 근거 없이 전해져 오는 편견과 선입견, 또 사회에 만연해있는 불합리한 제약에 굴하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고 있다. 여성은 오랜 시간 동안 해양 문화사 속에서 과거와 현재를 쌓아가며 해양 문화의 한 주체로 그 삶을 일구어 나가고 있다. 여성과 남성은 신체적으로 차이가 있을 뿐, 나약한 여성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극복 해나가며 해양 문화 속에서 존재한다. 비록 해양 역사 속에서 기억된 여성의 수는 남성보다 약소하였지만, 앞으로 많은 여성들이 미래의 해양 분야와 해양 문화의 가치를 드높일 것이다.

전시를 통해 여성은 태고 적부터 바다와 함께 하며 개척해왔다는 사실과 금기와 배척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다에서 그 삶과 문화를 일구어왔다는 사실을 소개해보았다. 이번 기회로 많은 여성이 자긍심을 가지고 도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새로운 연구 분야의 영역 확장을 위한 첫 걸음마로 앞으로도 더욱 심도 깊은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라본다.

원고투고일 : 2020. 10. 15. |  
게재확정일 : 2020. 11. 30. |

## 『해양유산(Ocean heritage)』 간행규정

제정 2019.10.01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국립해양박물관(이하 “박물관”)이 해양유산 분야 연구실적을 종합 정리하여 해양유산의 발전적 연구방향을 모색하고자 간행하는 학술지『해양유산(Ocean heritage)』(이하 “본 학술지”)의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다.

**제2조(간행)** 학술지는 매년 1회, 12월 30일에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내용)** 본 학술지의 내용은 해양유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연구논문, 기획논문, 연구노트, 보고문, 서평, 단신, 논평 등을 포함한다.

## 제2장 편집위원회

**제4조(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 ① 본 학술지의 심사와 편집 방향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 1인, 편집위원 3인~8인, 편집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 ③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④ 편집위원은 고고학, 미술사학, 민속학, 박물관학, 보존과학, 역사학, 인류학, 해양학, 해양인문(문화)학 분야 등의 관련 연구자 중, 연구 활동이 활발하고 학술성고가 우수한 전문가로 전임교수, 전임연구원, 학예연구관,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인정되는 자를 원칙으로 구성하며 학예연구실의 추천을 거쳐 국립해양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제5조(편집위원회 위촉 및 임기)**

-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과 간행에 대한 아래 각호의 제반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투고 원고에 대한 심사 회부의 여부 결정
  2. 투고 원고에 대한 심사위원 선정
  3. 투고 원고의 게재 여부 심사 및 결정
  4. 박물관이 간행하는 학술지인 『해양유산(Ocean heritage)』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②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관장이 위촉하며, 본 학술지의 편집과 간행에 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한다.
- ③ 편집간사는 학술연구팀장이 수행하며, 학술지 편집 및 간행 실무를 담당한다.

**제6조(편집회의)** 편집회의는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2인 이상, 편집간사가 참여했을 때 이루어지며 회의에 참석한 편집위원에게는 회의참석비 및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장 원고심사

**제7조(심사위원 선정)** 투고된 원고에 대하여 게재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해당 원고별 관련 전문가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되, 편집위원회 요청에 의한 특별원고 및 국립해양박물관 학술대회 발표 후 보완된 원고는 2인의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한다.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을 겸할 수 있다.



## 제8조(원고심사 원칙)

① 심사위원은 아래 평가항목에 따라 심사한다.

평가지표	항 목	배점(100점)
	1. 논문제목의 적절성	5
	2. 형식 및 체제의 정연성	15
	3. 연구내용의 독창성	20
	4. 논증과정 및 논거·용어의 적절성	25
	5. 연구 결과의 효용성 및 시사점	25
	6. 참고문헌의 적절성	5
	7. 요약문의 적절성	5

② 심사위원은 평가항목에 의거하여 의뢰된 원고를 심사한 후 ‘게재(90점 이상)’, ‘수정 후 게재(80~89점)’, ‘수정 후 재심사(70~79점)’, ‘게재불가(69점미만)’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다.

③ 심사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10일 이내로 하며, 편집위원회에 투고원고심사서(서식3)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결과와 처리)** 게재 여부 결정 기준은 아래와 같다.

심 사 결 과			종합판정	비고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게재	게재	게재	게재	
게재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게재	게재불가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D)		
게재	수정 후 재심사(C)	수정 후 재심사(C)	수정 후 재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판정 : 해당위원 재심</li> <li>• D판정 : 제4자 재심</li> </ul>
게재	수정 후 재심사(C)	게재불가(D)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D)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C)	수정 후 재심사(C)		
수정 후 재심사(C)	수정 후 재심사(C)	수정 후 재심사(C)		
수정 후 재심사(C)	수정 후 재심사(C)	수정 후 재심사(C)		
기타			게재불가 (반려)	

## 제4장 심사판정 후 처리사항

**제10조(비밀준수)** 심사위원과 원고투고자 명단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며, 원고 투고자에게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제11조(원고료)** 학술지에 게재가 결정된 원고에 대해서 200자 원고지 150매를 넘더라도 최대 100매까지 원고료를 지급하며, 연구노트, 보고문, 서평, 단신, 총설 등은 최대 50매까지 원고료를 지급한다. 연구비를 지원받는 경우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12조(논문게재의 취소)** 투고된 원고가 연구부정행위로 판명될 경우 원고의 본 학술지 게재를 불허한다.

**제13조(저작권)** 편집위원회는 본 학술지에 게재 확정된 원고를 온라인상 복사, 배포, 전송 등에 이용하기 위해 집필자로부터 저작물 이양 동의서(서식4)를 받아야 하며 본 학술지에 게재가 확정된 원고의 집필자는 온라인상(인터넷 상)에서의 복사, 배포, 전송 등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박물관에 이양하는데 동의해야 한다.

## 제5장 연구윤리

**제14조(연구윤리위원회)** 본 학술지에 원고를 투고하는 연구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를 운영한다.

**제15조(윤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① 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 내 비상설위원회로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조사 착수 및 조사 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조사결과와 처리, 후속조치 및 재심의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연구부정행위의 판정을 위한 윤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들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위원장 1인 : 편집위원장이 겸임
2. 투고된 원고 관련 분야의 전문위원 3인 이상

③ 본 조사가 착수되기 전에 선정된 위원 명단을 제보자에게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에 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해야 한다.

④ 윤리위원회의 최종 의결은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에 다수결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편집위원의 윤리)**

① 편집위원은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등에 따른 편견 없이 정해진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정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일관된 기준으로 논문의 재심 혹은 게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투고논문이나 심사과정에서 비윤리적인 행위가 적발되거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탄원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그 사안의 비중을 판단하여 필요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7조(심사위원의 윤리)**

①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등에 따른 편견 없이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저자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며, 주관적인 평가나 불쾌한 표현을 자제하고, 가급적 부드러운 표현으로 심사의견서를 작성한다.

③ 이미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과 유사한 내용이 인용 없이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④ 심사 의뢰된 논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자신의 전공분야가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편집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8조(연구부정행위 범위)** 본 학술지에 게재하기 위해 자신의 저작물을 제출하는 모든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연구부정행위를 금해야 한다.

1. 타인의 생각, 연구내용, 연구체계, 연구결과, 기록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사용하는 ‘표절’ 행위
2.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연구물을 둘 이상의 학술지에 사용하는 ‘중복게재’ 행위
3.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내는 ‘위조’ 행위
4. 연구 대상·자료·과정·장비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변형, 삭제하여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변조’ 행위
5. 투고된 원고의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기여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 표시 또는 예우 등 불합리한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기타 윤리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19조(연구 진실성 검증)**

- ① 본 학술지 게재 원고 및 투고된 원고와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제보된 경우, 조사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하고,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② 판정 이전에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을 간주한다.
- ③ 최종판결이 확정되면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제20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부정행위 제보자는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가능한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제21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윤리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에 대한 사항을 어떠한 경우라도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허위로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22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 ① 윤리위원회는 부정행위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②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 ③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 및 일정을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23조(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 ① 본 학술지에 투고된 원고 등이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부정행위로 최종 확정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호 학술지의 원고게재를 취소하고 연구자에게 다음과 같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1. 부정행위 사실에 대한 인터넷 공지 및 원고료 회수
  2. 해당 연구자에게 경고문 발송
  3. 해당 연구자에 대한 향후 3년간 본 학술지 투고 금지
- ② 게재논문의 경우에는 학술지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편집위원회는 이 사실을 해당 연구자에게 공지한다.
- ③ 심사위원의 부정행위가 확정된 경우, 해당 심사위원은 본 학회지의 투고원고를 향후 3년간 심사할 수 없다.

**제24조(예외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윤리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9.10.01.)

**『해양유산(Ocean heritage)』원고 투고 규정**

제정 2019.09.25.

개정 2020.05.29.

**제1조 (정의) –**

원고는 연구논문, 기획논문, 보고문, 서평, 연구노트, 단신, 논평 등으로 구분되며, 해양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성과물이어야 한다.

**제2조 (적용)**

본 규정은 “해양유산(Ocean heritage)”에 투고되는 모든 원고에 적용된다.

**제3조 (원고 투고)**

- ① 투고자는 첨부“『해양유산(Ocean heritage)』 원고 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한 논문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
- ② 공동 집필일 경우, 주저자(연구책임자)와 공저자를 구분하고, 주저자/공저자 순으로 표시한다.

**제4조 (원고 내용)**

본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 등은 국내외에서 미간행된 논문 등이어야 하며, 학위논문을 투고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학위논문임을 밝혀야 한다.

**제5조 (원고 매수 및 원고료)**

원고의 매수는 원칙적으로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로 하며, 첨부자료(사진, 도면 등)로 인해 원고의 분량이 150매를 넘더라도 최대 100매까지 원고료를 지급한다. 연구노트, 보고문, 서평, 단신, 총설 등은 최대 50매까지 원고료를 지급한다. 연구비를 지원받는 경우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6조 (원고 제출)**

원고는 원고저장파일(hwp 또는 doc) 1부, 첨부자료(사진, 도면 등)의 디지털 파일, 초록 1부, 원고투고신청서 1부,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1부, 저작권 이양 동의서 1부를 E-mail로 원고마감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원고 심사)**

- ① 마감일 이내에 접수된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한 위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②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로 평가된 논문은 필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10일 이내에 수정 보완 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정 후 재심사’의 경우는 필자에게 재심사 수락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제8조 (투고자의 권리와 제한)**

- ① 투고된 모든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본 박물관에 이양된다. 단, 제3자로부터 문헌의 복제 또는 전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저자의 허락을 받도록 하며, 투고자가 논문을 본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9조 (기타)**

- ① 필자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e-mail 주소를 원고 말미에 명기하여야 한다.
- ② 필자의 원고 교정은 3회 이내로 한정한다.
- ③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따른다.

부 칙(2019.10.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20.05.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해양유산(Ocean Heritage)』 원고작성원칙

### 1. 원고작성

- ① 원고는 한글 또는 워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 ② 한글 집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한자나 외래어는 괄호 속에 병기한다. 한글음과 한자의 표기가 다를 경우에는 대괄호 ‘[]’를 사용한다.
- ③ 영어로 논문을 작성한 경우에는 국문과 영문 초록을 모두 작성한다.
- ④ 초록은 250단어 이내로 작성하고 핵심어(Key words)는 5개 이상 기재한다.

### 2. 필자표기

- ① 필자명에 현 소속기관을 병기한다.
- ② 필자의 소속은 각 논문 등의 시작 쪽인 간지에 국문과 영문으로 기재한다.
- ③ 학위논문을 투고할 경우에는 논문 제목에 각주로 ‘본 논문은 석사/박사학위 청구논문임’을 명기한다. 연구비의 출처를 밝히는 경우에도 논문 제목에 각주로 명기한다.
- ④ 논문 등의 투고일, 심사완료일, 게재확정일은 각 논문 등의 시작 쪽인 간지에 기재한다.
- ⑤ 투고논문이 2인 이상의 공동연구인 경우 반드시 제1 저자를 명시하고 분담의 중요도에 따라 순서대로 저자명을 기재한다.
- ⑥ 특별한 표기가 없으면 제일 앞에 기재된 저자를 제1 저자로 간주한다.
- ⑦ 제1 저자와 교신저자가 다를 경우에는 교신저자를 명시한다.

### 3. 원고체제

- ① 용지설정 : A4, 글자크기 10pt, 줄 간격 160%
- ② 여백주기 : 위 15, 아래 15, 왼쪽 30, 오른쪽 30, 머리말 15, 꼬리말 15, 제본 0
- ③ 글자모양 : 장평 100, 자간 0, 크기 10(각주 · 인용 9), 휴면명조
- ④ 문단모양 : 원 · 오른쪽 0, 첫줄 들여쓰기 10

### 4. 항목

- ① 항목은 | > 1) > 1)) (1)) ① 순서로 표기한다. 단, 목차는 장( | )과 항(1)까지만 기재한다.
- ② 머리말과 맺음말에도 번호를 매긴다.

### 5. 표와 도

- ① 표의 제목은 상단 좌측에 ‘표’로 표기한다.
- ② 표를 제외한 사진, 도면, 지도, 일러스트 등은 모두 ‘도’에 해당되며, 도의 제목은 하단 좌측에 ‘도’로 표기한다.
- ③ 표와 도의 번호는 각각 일련번호로 기재한다.
- ④ 표와 도의 설명은 아래에 ※를 하고 기재한다.

### 6. 인용문

- ① 사료(자료) 인용은 한글 번역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금석문처럼 번역이 불가능하거나, 원문 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원문을 그대로 게재할 수 있다.
- ② 인용문은 위 · 아래 문단으로부터 한 줄을 띄운 후 내용 전체를 들여쓰기 한다(10pt).
- ③ 인용문의 출전 표시는 각주로 처리한다.

### 7. 각주와 참고문헌

- ① 각주와 참고문헌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표기하되, 참고문헌의 경우 본문에 인용된 문헌만 표기하며, 논문의 전체 페이지 수를 제공하여야 한다. 참고문헌은 고서, 한글 문헌, 외국 문헌, 신문기사, 인터넷 자료 순으로 작성한다.

- ② 고서 등의 작성 양식은 다음과 같다.

- 『三國史記』
- 『朝鮮王朝實錄』

- ③ 한글 문헌의 작성 양식은 다음과 같다.

- 한글 논문 : 필자명, 연도, 「논문제목」, 『학술지명(혹은 저서명)』 권(호), 출판사명, 쪽수.
- 한글 저서 : 저자명, 연도, 『저서명』, 출판사명, 쪽수.

- ④ 영문 논문의 제목은 첫 단어와 고유명사만 대문자로 표기한다. 영문 단행본은 책명의 첫 단어만 대문자로 표기한다.

정기간행물의 경우 학술지명에서 각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한다.

- 영문 논문 : 필자명, 연도, 논문제목, 학술지(이탈릭체) 권(호), 출판사명, pp.1~5.
- 영문 저서 : 필자명, 연도, 저서(이탈릭체), 출판사명, p.5.

- ⑤ 번역서의 작성 양식은 다음과 같다.

- 번역서 : 저자명, 연도, 『한글저서명』, 역자명(원제, 원저 출판년도), 출판사명, 쪽수.

- ⑥ 저자가 3인 이상일 경우 국문의 경우 ‘홍길동 등’, 영문의 경우는 ‘Kim et al.’ 양식으로 표기한다.

- ⑦ 하나의 각주에 여러 개의 논저를 표시할 경우에는 쌍반점(:)을 사용하며, 동일 저자의 논저를 표시할 경우에는 쌍점(;)을 사용하여 연결한다.

- ⑧ 앞에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저자명, 연도, 위의 논문(책), 쪽수.’ 혹은 ‘저자명, 연도, ibid, p.5.’의 순서로 표기한다.

- ⑨ 한글 문헌과 외국 문헌이 함께 서술되었을 경우 한글, 동양, 서양문헌 순으로 표기한다. 문헌의 표시 순서는 저자의 성을 기준으로 한다. 동일한 저자의 문헌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연도순으로 수록한다.

- ⑩ 신문기사와 인터넷 자료의 작성 양식은 다음과 같다.

- 신문사, 1910.01.01 「신문기사 제목」
- 국립해양박물관(<https://www.knmm.or.kr/>)

### 8. 원고제출

원고에 수록하는 그림과 사진의 원본이 포함된 디지털파일, 원고 1부, 원고투고신청서 1부,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1부를 E-mail로 원고마감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